

THE MISSILE

1962年 10月 25日 印刷
1962年 11月 1日 發行

月刊

미사일

1962

11

特輯

軍人の生活 자세

스포츠·精神·健康

Y 上兵 外出 스포츠

變用途單座戰鬥機의 運用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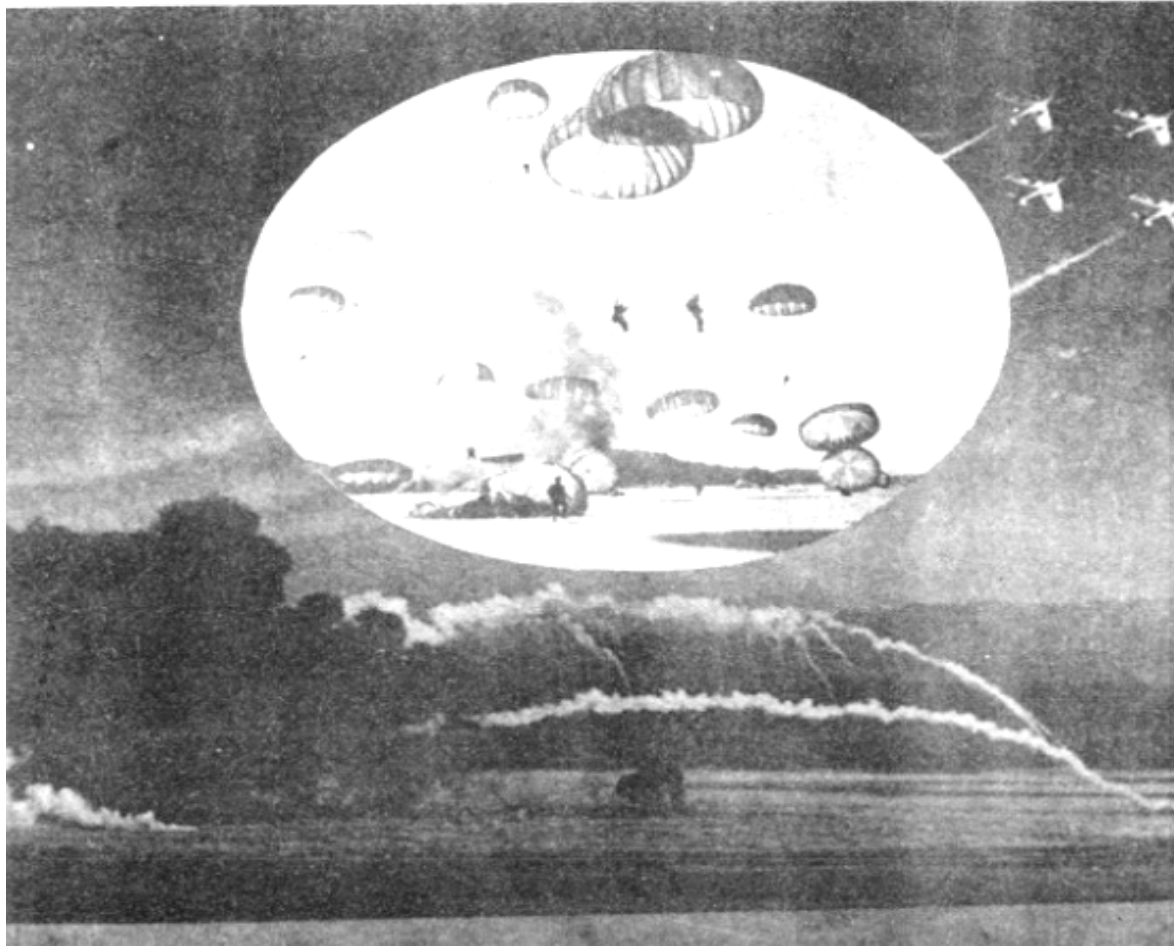


제 19 호

공군전력을 과시

박의장참석리「에어·쇼」성황

건군 14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우리 공군의「공중전시」가 지난 10월 2일 하오 2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朴正熙)의장 내외분을 비롯한 정부 요인과 군수 뇌 그리고「멜로이」유엔 군사령관, 참전 16개국 대표 등 내외 귀빈 및 수십만 시민이 참관하는 가운데 한강 상공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사진 하(下)는 F-86 제트 전투기의 대지(對地)「네이팜」탄 공격 광경 중(中)은 낙하산강하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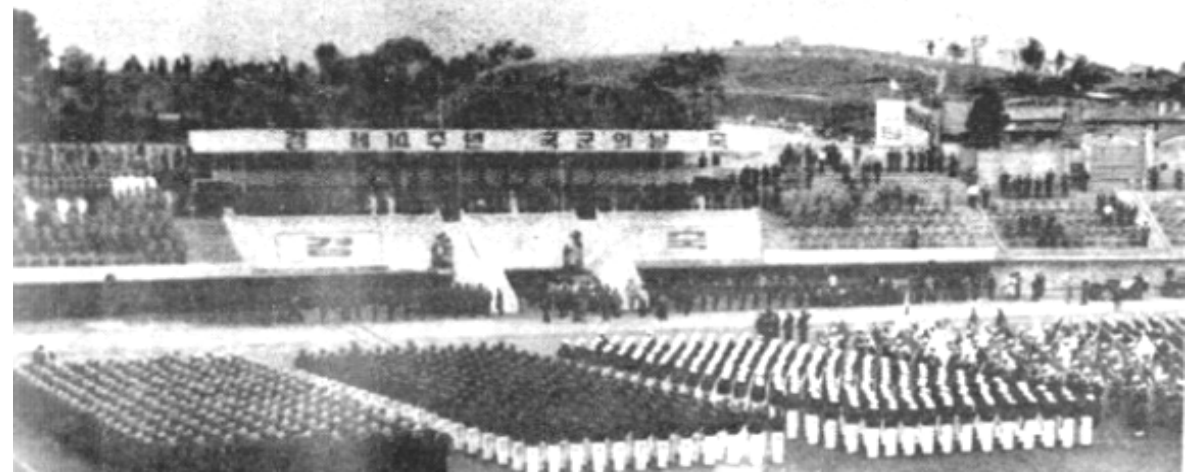
유공장병(有功將兵)을 포상(褒賞)

국군의 날을 계기로 206명의 유공 공군장병에게 근무공로훈장 및 각종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근무공로훈장 167명
대통령표창 8명
국방장관표창 14명
참모총장표창 17명

사진 설명

(상)「국군의 날」기념식장에서 박(朴)의장으로부터 훈장을 수여받는 박(朴)참모차장
(중) 장(張)참모총장으로부터 훈장을 수여받는 장(張)작전참모부장 (좌) 및 오(吳)행정참모부장 (우)
(하) 지난 10월 1일 효창 경기장에서 거행된 건국 제1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광경



박의장 모범용사를 치하



「국군의 날」기념 3군 모범용사 환영대회가 재건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개최되어 정성어린 환대를 받았다.

사진 설명

(상) 박의장과 악수를 교환하는 공군 모범용사들
(하) 박원석 참모차장과 기념 촬영한 공군 모범용사들



새로운 공군기지 기공



공군력 증강에 또 하나의 거대한 초석을 놓을 광주공군기지 기공식이 지난 10월 30일 현지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사진 설명

(상) 박(朴)의장의 추력타 시동으로 최초의 정지작업이 시작되는 순간
(중) 장참모총장의 식사(式辭)광경
(하) 기공식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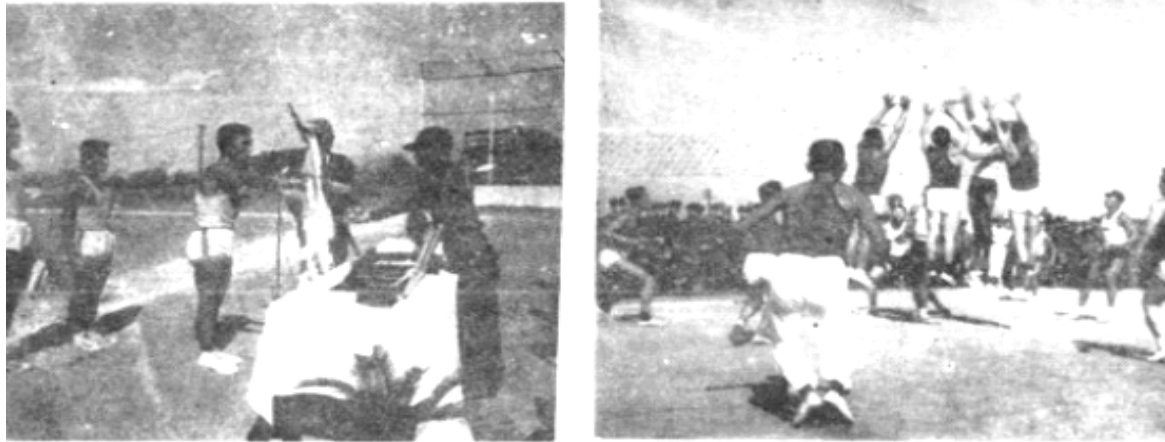


건군(建軍)기념 종합체육대회성황

공군창설 제13주년 기념 종합체육대회가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에 걸쳐 본부 연병장에서 전 예하부대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사진 설명

(우) 불을 뿜는 배구경기
(좌) 시상식 광경



공군팀 또 우승

제1회 대통령권한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배 쟁탈야구대회가 지난 10월 4일과 5일 이틀간에 걸쳐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개최되었는데 우리 공군팀이 또 다시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사진 설명

(우) 선전한 공군「팀」선수들
(좌) 막상막하의 분전 중 공군선수가 홈인하는 순간



미사일 제19호 차례

표지 · 문학보(文學普)
목차 · 컷 · 우경희(禹慶熙)

△ 화보(畫報) △

- ◇ 공군전력(空軍戰力)을 과시(誇示) (에어·쇼)
- ◇ 유공장병(有功將兵)을 포상(褒賞)
- ◇ 박의장(朴議長) 모범용사를 치하
- ◇ 건군(建軍)기념 종합체육대회성황
- ◇ 새로운 공군기지 기공
- ◇ 신상철(申尙勸)소장 전역식(轉役式)
- ◇ 유달영(柳達永)선생 강연회 성황
- ◇ 공군군악대 순회공연

이달의 말 **의(義)에의 길** 김팔봉(金八峰) 2

백전 전군의 생활 자세	새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군대	문중섭(文重燮) 4
	군 계급론(階級論)	이형석(李炯錫) 10
	군인과 신사도(紳士道)	류광렬(柳光烈) 14
	군인과 사생활	한학수(韓鶴朱) 17
	이런 군인을 원한다	
	사상적 신념이 강한 군인을	오윤근(吳允根) 20
	의지와 결단성 있는 군인을	정연희(鄭然喜) 21
	여기(餘暇)를 선용하는 군인을	김득순(金得順) 22
	따뜻한 인간성을 가진 군인을	한정란(韓貞蘭) 24

우리부대의지도부락을말한다
기아(飢餓)의 역사를 청산(清算) 교재장篇 25
고아원과 연결 40보급분장 27

군진 수칙

1.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겠다.
1. 나는 행복하지 않겠다. 나는 전력을 다하여 끝까지 싸우겠다.
1.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계속 항거하고 전력을 다하여 탈출하며 전우의 탈출을 돕겠다.
1.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아국이나 우방에 불리한 여하한 적의 권고나 우대도 거절하여 추호도 적을 돕지 않겠다.
1.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기밀을 엄수하고 전우를 보호하고 선임자면 후임자를 통솔하고 후임자면 선임자의 명령에 복종하겠다.
1.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어 심문을 받더라도 계급, 성명, 군번, 연령을 제외하고는 진술을 회피하며 아국과 우방에 불리한 성명 기타 여하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
1. 나는 조국에 신명을 바친 대한민국 군인임을 명심하고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
1. 나는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은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카메라 · 루포

Y상병의 외출스냅

사진...하사 한상철

지난 9월 어느 일요일, Y상병은 외출 하였다. 이날 그는 9시부터 21시까지 외출허가를 받아 영문을 나섰다.
즐거운 외출—얼굴에 미소가 넘치고…… 그는 오늘, 과연 무엇을 하고 돌아다닐까?
어디, 여기서 그의 뒤를 따라 보자.





영문을 나선 Y상병은 발걸음도 가볍게 버스 정류소로 나갔다. 시내 버스는 언제나 만원이다. 마침 자리가 하나 비어 그 곳에 앉았다.
다음 정류소에서 노인이 한분 올라와서 자리가 없어 허둥지둥하자 우리 Y상병은 얼른 일어나서 노인을 부축했다.

Y상병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 「고맙소, 혁명 후 우리 국군은 참 친절해 졌단 말이야.」



집에 간 Y상병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동안의 안부를 여쭙고 동생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었다.
부모님과 동생들은 Y상병이 이번에 상병으로 진급한 계급장을 만져보며 함께 즐거워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



Y상병 「저이들 내무반에서는 누구나 옳고 바른 일을 숭선해서 하고 있어요. 옳고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는 옳고 바른 사회가 될거구요, 옳고 바른 사회가 되면 국민이 모두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겠어요.」
아버지 「암, 그렇지 그렇구말구. 군인뿐만이 아니라 국민은 모두가 그래야지.」



Y상병은 어머니로부터 지난 비바람에 기왓장이 깨뜨러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자 Y상병은 즉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지붕에 올라가서 수리를 했다.

아버지 「얘, 내려와. 모처럼 집에 와서 그러면 이웃 사람이 홍보겠다.」
 Y상병 「아버지, 모르는 말씀예요. 일을 하는데 왜 흥을 봅니까. 저이들 군인은 그러한 생각에서도 이미 혁명을 했습니다.」
 아버지 「음, 네가 군에 가더니 아주 훌륭해 졌구나.」



점심을 먹자 Y상병은 집에서 시내로 나갔다. 그가 좋아하는 걸 · 후렌드 미스 K는 미리 알려둔 다과점에 어김 없이 나와 있었다.

미스K 「어마나—, 또 진급하셨네요. 축하합니다.」
 Y상병 「고맙습니다. 그런데 미스K의 그 간소한 차림이 맘에 드는군요.」
 미스K 「사치는 재건의 적이니까요.」

Y상병 「미스K는 정말 훌륭해. 어디 오랜만에 극장이나 안내할까요.」
 미스K 「아이 좋아. 전, Y상병님과 함께 가려고 그동안 한 번도 안갔어요.」





극장에서 나온 Y상병은 K양과 헤어져야만 했다. 그에게는 보다 중요한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Y상병 「미스K, 미안하지만 여기서 헤어져야 겠군요. 미스K와 하루 종일 놀고 싶지만
꼭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서……」

미스K 「알겠어요. 은사 선생님을 만나 뵈러 가시죠? 정말 Y상병님은 훌륭하셔.」

Y상병 「미안해, 그럼 다음 외출시까지 안녕—」

미스K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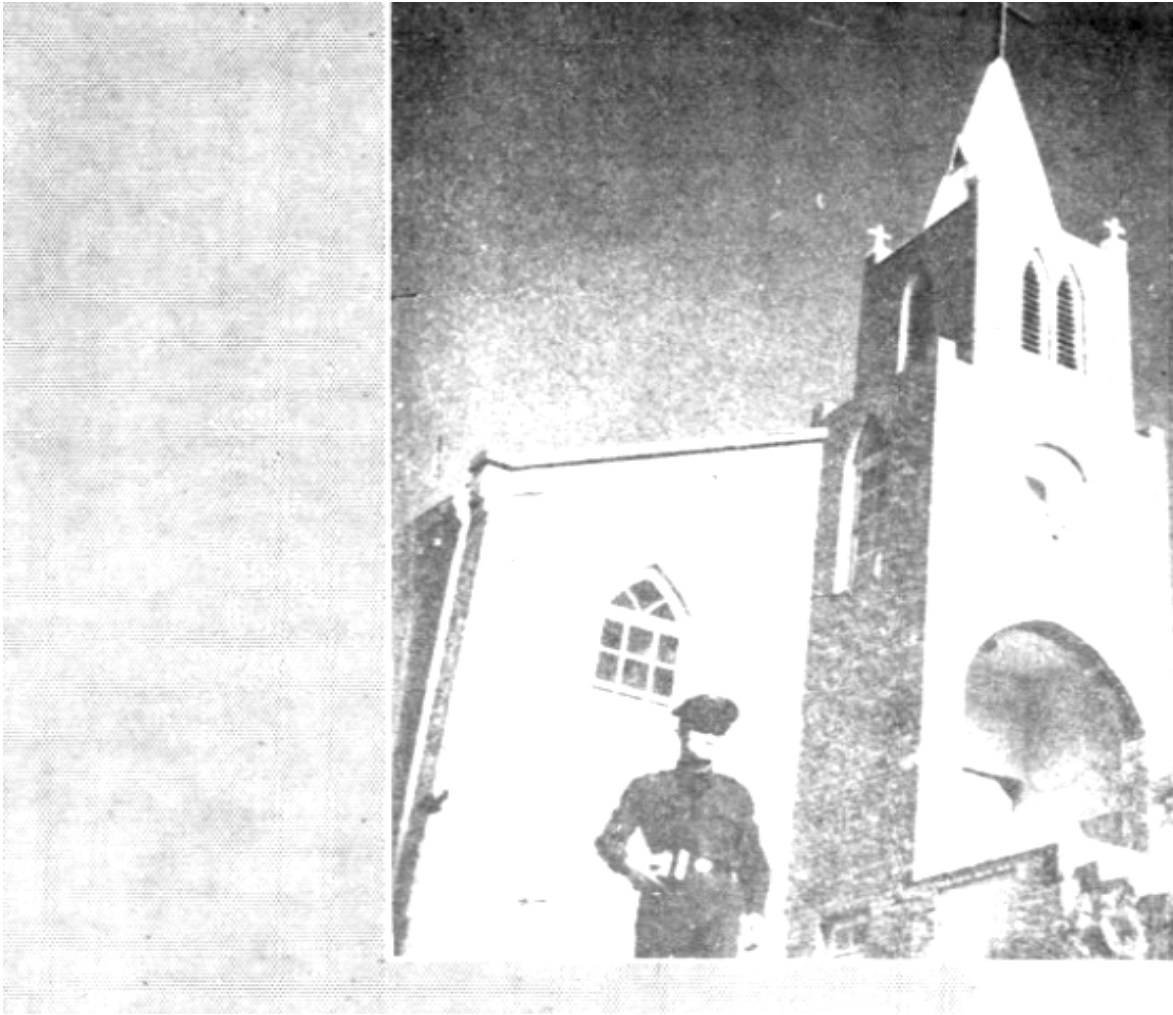
미스K와 헤어진 Y상병은 그가 가장 존경하고, 또 그를 가장 아껴주며 사랑해 주는 중학교 은사를 방문했다.

은 사 「지난여름의 가뭄을 극복하는 데는 군인들의 힘이 컸어. 그 뒤 비가 와서 풍년이
됐지, 하늘이 무심치 않아서……」

Y상병 「선생님, 전 국민이 서로 돕자는 것이 혁명정신이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으니까요.」

은 사 「옳은 말! 자네한테서 그러한 말을 들으니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지는 것 같네.
허허허……」





Y상병은 은사로부터 기념으로 두 권의 교양서적을 선사받았다. 그리고 은사택을 하직한 그는 언덕 위에 있는 교회에 들려 경건한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유쾌하고 즐겁게 하루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을 마음으로 감사히 생각합니다. 전 국민의 건강과 우리의 혁명과업이 보다 훌륭하게 성취되게끔, 그리고 우리에게 보다 더한 용기와 희망과 성실함을 내려 주시옵기를……”

서울 시가가 시야에 들어 왔다. 자꾸 세워져가는 고층 건물들, 마치 서울시 전체가 하나의 공터장과 같이 일 하기에 바쁜 시민들의 모습이 그지없이 마음 든든했다.



교회에서 발을 옮긴 Y상병은 뒷길로 내려갔다. 그는 아직 시간이 있었기에 농촌풍경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 곳에는 누렇게 무르익은 논이 시야에 펼쳐졌다. 그의 머리 속에는 지난여름에 가뭄으로 애타우던 농민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금 이 들판에 가득 찬 알진 벼 이삭은 피 땀 어린 농민들의 노고의 상징이 아니냐. Y상병은 들판을 바라보며 벅찬 감격을 느꼈다.





그 길로 다시 집에 돌아온 Y상병은 부모님께 오늘의 소감을 말씀드렸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귀영하였다.
외출허가시간 30분전, 20시 30분에 여유 있게 귀영하여 보고하였다.

주번사관 「잘 다녀왔나?」
Y 상 병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웠습니다. 모두가 마음 든든한 모습이었습니다.」



미 사 일

제 19 호



1962

발 행 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政訓監室)
발행겸편집인 · 공군대령 주정호(朱貞鎬)
인 쇄 처 · 공군교재창(空軍教材廠)
인 쇄 인 · 공군대령 김석환(金石桓)

의(義)에의 길

김팔봉(金八峰)

세상에는 깨끗한 것이 있고, 그 반대인 더러운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옳은 일이 있는 반면, 옳지 못한 일도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깨끗하고 옳은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은 구지레하고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아는 일은 어느 것이 희고 어느 것이 검은 것을 아는 일과 마찬가지로 알기 쉬운 일이다. 그런데도 옛적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알기 쉬운 도리와 사실을 곧잘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일생을 망치거나 혹은 얼굴에 똥칠을 하는 예가 적지 않으니, 희고 검은 것을 알고, 옳고 나쁜 것을 안다는 일이 쉬운 일이면서도 아마 어려운 일인가 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함을 항상 깨끗하고 옳게 갖는 사람은 의(義)로운 사람이오, 깨끗하고 옳은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구지레하되 나쁜 온갖 해로운 것들을 물리치는데 용감한 사람은 의(義)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의 동무입네 하고, 우리나라 북쪽에 나타나서 날강도 같이 백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도 못하도록 백성을 억압하는 김일성 도당을 피해서 자유대한으로 넘어 온 수백만의 이북동포들은 의(義)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6·25 일요일날 새벽을 기해서 날강도 같이 떼지어 38선을 넘어 우리나라를 덮친 김일성 도당과 마주 싸워왔고, 지금도 저 날강도가 넘어오기만 하면 쳐부수려고 밤과 낮, 하늘과 땅과 바다 위에서 조국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은 모두가 의(義)를 위해 싸우고 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각오를 가진 사람이다.

의(義)는 정의(正義)를 이룸함이다. 옛날 성인은 말하기를, 무엇을 얻어 가질 때에는 그것을 갖는 것이 의로운 일에서 벗어남이 없는가 생각하라—고, 말씀 하였다. 단돈 천원을 얻었을 때에도 그 돈이 자기 손에 들어 오게 됨에 있어서 경우에 어긋남이 없는가, 당연한 이유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나서 그 돈을 얻어가 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경우에 옳고 구지레한 조건이 붙어있지 않은 돈인 것을 안 연후엔 그 돈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도 괜찮다. 지나간 먼 날은 그만두고「4·19」와「5·16」이후만 하더라도 과거에 쟁쟁하던 사람들이 불의(不義)의 돈을 주고받은 까닭에 신세를 망치는 꼴을 우리는 보았다.

이와 같이 돈이나 기타 재물로 말미암아서 의(義)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지위와 노력과 명예와 여색(女色)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종종 불의(不義)를 저지른다. 친 형제간에 재산 때문에 소송하는 일은 너무도 흔하게 보아온 일이지니와, 옛날에는 친 형제 또는 숙질 사이에 임금님의 지위를 빼앗아 제가 임금 되려고 상대를 죽이기까지 한 일이 동·서양에 수두룩하다. 어린 조카를 뒷방으로 치우고, 자기가 임금 된 후 사육신(死六臣), 생육신(生六臣)의 이름을 남기게 한 세조대왕(世祖大王)이라든가, 아버님이 저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앓고 누워 있는 아버님에게 독약을 뿌린 약밥을 올려서 목숨을 끊어 버린 후 임금 자리에 올라가는 했었으나, 불과 14년 뒤에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쫓기어 난 광해군(光海君) 같은 이는, 부귀를 탐했기 때문에 불의(不義)를 저지른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러기에 친구를 사귄 적에 우리네들 대 중사회에서는, 그 친구와 술집에 가서 취도록 술도 마셔보고, 돈내기 노름도 해보고, 기생집 오입도 같이 다녀 보고서야라 진짜 그 사람의 인간됨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사실 말이지 술 취한 사람은 저의 본색을 감추지 못하고 들어내 놓으며 노름에 잃지 않고 따기 위해서는 교활한 재주와 농간을 쏟아 놓으면서도 시치미를 따고, 계집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친구의 체면도 돌보지 않는 것이 보통인 까닭이다. 주색잡기(酒色雜技)를 같이해도 싸움판에서 곡경을 같이 치러도 평상시와 변함이 없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영원히 사귀어도 배반당하지 않을 좋은 친구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의(義)는 부모, 처자, 형제간에 의와 친구간에 있는 의와, 군신(君臣)—즉 국가에 대한 의—쉽게 나누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모와 자식사이, 또 남편과 아내사이, 형과 아우사이의 굳은 의리에 관해서는 고구려 평강왕(高句麗 平岡王)의 공주와 마보 온달(溫達)의 이야기를 위시해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많고,

또 우리가 신문 같은데서 자주 보는 이야기이니 그만 두고, 친구 동지 전우(戰友)간에 빛을 빛낸 굳은 의리에 관해서도 국군 용사들 사이에 눈물겨운 사실이 많으니 그것도 그만두고, 군신 사이에 피어났던 눈물겹게 불행한 의리를 하나 들어보면 중국의 고대 역사에 있는 진문공(晉文公)과 개자추(介子推)의 이야기다.

기원전 675년경, 중국 땅 서북쪽 한 구석에 진(晉)나라가 있었고, 그 임금 진헌공(晉獻公)은 아들이 오형제였으나 후궁 소생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함으로, 둘째 아들 중이(重耳)는 무신(武臣)으로 있는 개자추(介子推) 외에 일곱 사람과 함께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자기나라에서 빠져 나와 39년 동안을 다른 나라로 망명하여 다니다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임금이 되었었다. 중이가 망명하여 다니는 동안 어느 때 일행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 여러 끼니를 굶어 중이가 몹시 시장했을 때 개자추는 자기의 넉적다리살을 베어 그 고기를 중이에게 먹인 일까지 있었다. 신하로서 자기가 장차 임금으로 추대하려는 공자에 대한 의(義)였다. 그랬는데 망명 39년에 고국에 돌아가는데 중이를 모시고 같이 다니던 동지들에게서 개자추는 인격적 불만을 느꼈다. 이런 친구들과 더불어 공을 다룰 필요가 없다고 그는 결심했다. 그리고 중이는 본국에 돌아와 임금이 되었으니, 그가 곧 진문공(晉文公)이다.

진문공은 나라를 중흥시킴에 당하여 논공행상을 하는데, 개자추가 눈앞에 안보임으로 해서 그를 깜박 잊어 버리고 다른 공신들만 일등, 이등, 삼등 세 계급으로 나누어 명단을 발표시켰다.

이때 본국에 돌아온 길로 집에 들어앉아 팔십 노모만 모시고 두문불출하던 개자추는 이 사실을 친구로부터 전해 듣고서, 공을 서로 셈하는 친구들과는 섞이고 싶지 않다 생각하고 즉시 팔십 노모를 모시고 진나라 서울 강주(絳州)에서 가까운 면산(綿山)이라는 산속으로 들어가, 풀뿌리 나무껍질을 먹어가며 깨끗하게 여생을 보내려 하였다.

그런데 진문공은 며칠 지나서야 논공행상에서 개자추가 빠진 것을 깨닫고 힘이 센 위공량(魏公諫)으로 하여금 개자추를 찾아오라고 면산으로 보냈다. 임금으로서 신하에 대한—살을 베어서 먹여 주기까지 한 신하에 대한 의(義)를 지키고자 함이었다. 위공량은 면산 밑에 와서 주막집을 찾아 물어 보았더니, 과연 며칠 전에 오십여세 된 사람이 팔십 노모를 업고 산으로 올라가더라 함으로, 그는 데리고 온 군사들과 더불어 이를 동안이나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살살이 산속을 뒤져 보았다. 그러나 개자추는 보이지 아니함으로 그 넓은 산을 메주 밭듯 찾아다니기보다, 산에 불을 질러놓으면 개자추가 제 스스로 올라 아닌가—위공량은 이렇게 생각하고 산에다 불을 질렀다.

산을 에워싸고 불길의 타올라 올 때 개자추는 암굴(岩窟) 앞에 있는 버드나무 밑에서 자기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아마 조정에서 저를 찾는 모양입니다. 절더러 제 발로 나오라고 불을 지른 모양인데, 저는 안가겠어요! 나가지만 하면 벼슬을 시킬테니,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하구 같이 국록을 먹느니 차라리 이 산속에서 죽어 버리겠어요!』

이같이 말했다. 어머니도 아들의 심정에 동감했다.

『네가 몸을 깨끗하게 갖기 위해서 안나간다면, 나도……』

이래서 결국 개자추와 그 어머니는 기어이 불속에서 안 나오고 타 죽었던 것이다. 이 때가 주양왕(周襄王) 16년—기원전, 636년이었고, 위공량이 면산에다 불을 지르던 날이 3월 5일이었던 까닭으로 그 후부터 진나라 백성들은 해마다 3월 5일 청명(淸明)절후가 되면, 최후까지 옳고 깨끗하게 의(義)를 지키다가 불쌍히 세상을 떠난 개자추를 생각해서 불을 피우지 않고 밥을 짓지 아니했다. 그리하여 이 풍속이 중국 전토에 전파되고,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되어 지금도 해마다 동지(冬至)날부터 기산해서 105일되는 청명절(淸明節)의 다음날을 한식일(寒食日)이라고 정하여 이를 지키는 것이다. —개자추 한 사람이 의(義)를 지킨 행적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리면서 내려왔으니, 인류사회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의(義)가 아니겠는가.

4·19는 한 사람의 독재 십여년을 참고 견디어 온 전 민중적 의(義)의 봉기였었다.

5·16은 김일성도당의 간접침략을 목전에 당하면서 무능과 부패에 빠져있는 구정치인으로부터 조국의 위급한 운명을 바로 잡기 위한 군사적 의(義)의 필기였다.

우리는 의(義)에 살고, 의(義)에 죽기를 맹서한 사람들이다.

군인의 생활자세

새 시대는 새로운 인간을 요구한다. 그리고 새 시대의 전개는 우리 군인 개개인에게 새로운 윤리관, 가치관의 확립을 요구한다.
오늘날 우리 국가사회가 요구하는 참된 군인의 생활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새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군대(民主軍隊)

문중섭(文重燮)
(육군정훈학교장)



1. 화랑도(花郎道) 정신과 국군의 위치

1. 신라의 화랑도 정신

인류사회는 문명이라는 이기(利器)를 가지고 날로 발전하여 왔다.
국가사회의 발전성쇠(發展盛衰)가 거듭됨에 따라 군대사회도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발전하여 왔음은 역사가 이를 실증(實證)해 주고 있다.
원시사회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군은 국가의 방패(防牌)로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여 왔음은 재언(再言)할 필요조차 없다.
옛날부터 군대사회는 그 국가의 젊은 청년들이 모여 강력한 집단을 조직하고 이들에게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무사도(武士道)의 정신을 함양(涵養)시켜 왔다.
「무사도」란 어폭보민(御暴保民)의 무사도정신을 말한다.

목차	
1. 화랑도 정신과 국군의 위치	2. 국군의 당면과업
1. 신라의 화랑도정신	1. 군기확립
2. 국군의 위치	2. 전투태세의 완비
	3. 국가의 안전과 군의 사명
	3. 민주군대의 조직과 이념

어폭보민(御暴保民)을 위한 교육의 이념은 그 민족의 성(性)과 국가관에 의하여 결정된다.
환언(換言)하면 인류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간의「윤리문제」와「국방문제」는 일정할 수 가 없다.
그 예로서 과거 일본은 군국주의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생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수신(修身)>이라는 도덕교육을 강화하였다.

그들은 인생을 총과 칼로서 수련하여 정의의 길로 살자는 그들의 사상이 바로「무사(武士)의 도(道)」인 동시에 일본민족의「대화혼(大和魂)」이 되어 있었다.
또한 공산주의국가에서는 공산주의사상교육을 도덕과 결부시켜 열성당원을 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우리는 알고 있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의 도덕교육은 제국주의국가나 공산주의국가와 같이 어떤 강압의 <힘>으로서 일원적인 교육을 실시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
왜냐하면 각 가정에서부터 받은 종교적인 도덕, 지역적인 풍속, 또한 습관 등은 어떠한 <힘>에 의하여 방해할 수도 없고 또한 방해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고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윤리문제이기 때문이다. 공자는「인지상지(人之相知)」면 「귀상지심(貴相之心)」이라고 말하였다.
즉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 도와 아끼는 고귀한 마음은 인지(人知)의 원천이 된다고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화목은 질서유지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류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옛부터 우리나라의 화랑도(花郎道) 정신은 동방문화의 초석이 되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화랑도의 혼은 <불멸의 정기(正氣)>로서 영원히 살아 있다.
화랑도정신(화랑혼)을 창도한 원광법사(圓光法師)는 성이 박(朴)씨로서 불교를 도학한 도학자일 뿐만 아니라 신라의 성인으로서 서기531년에 탄생하여 99세를 일기로 별세하신 분이다.
원광법사는「충(忠)·효(孝)·인(仁)·용(勇)·신(信)」의 오덕을 이념으로 하여 신라의 젊은 화랑들을 지도하였다. 화랑의 <오덕>을 말하면「충」으로서 임금을 섬기고「효」로서 부모를 섬기고「신」으로서 벗과 사귀고, 전쟁에 임하여 물러나지 아니하고 살생을 신중하게 하자는 말이다. 그러므로 신라의 화랑들은 영자분발(英姿奮發)하는 애국건아들의 집단체로서 문무(文武)겸비케 하기 위하여 <오덕>으로서 심신을 연마케 하였다.
상시 신라의 화랑들은 국가의 방패가 되고 국민들에게는 숭수범범하여 국민의 의표(義表)가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 신라의 백성들은 젊은 화랑들에게 대하여 숭상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화랑들의 풍기(氣風)는 국내외적으로 그 위세를 자랑하였다.

2. 국군의 위치

이와 같은 전통을 이어받은 대한의 국군용사들은 공산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종된 「제주폭동사건」을 비롯한「여순반란사건」에서 대한의 화랑들은 이들을 진압하는데 용감하였다.
특히 6·25전란당시 중무장으로 장비된 북한괴뢰군에게 대한의 화랑들은 맨주먹과 알몸뚱이로 적군의 중무장전차에 뛰어올라 용감하게 적의 전차를 파괴하였다.
우세한 병력과 장비를 가지고 파죽지세(破竹之勢)로 남침하는 적군에 대하여 우리 국군은 열세(劣勢)한 병력과 장비로서 공산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낙동강전투에서 여지없이 저지분쇄(沮止粉碎)하였다.
이렇게 열세한 장비와 병력을 가지고 공산군의 침략을 저지하였다는 엄연한 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세아 및 자유세계를 구하는 길이 되었던 것이다.
전란중 대한의 젊은이들은 중공의 인해전술(人海戰術)로 인하여 참담한 살육전쟁을 하여야 했다. 그러나 대한의 화랑들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생명마저 달갑게 바쳐가며 싸운 젊은 화랑들의 숭고한 정신은 기울어져 가는 국운을 바로 잡아 놓았다.

이와 같이 신라시대부터 이어받은 화랑도 정신은 오늘날 우리 국군에게 확고부동한 정신적인 기반이 되었다. 그러므로 대한의 화랑들은 불의, 부정부패와는 타협할 줄 모르고 오직 정의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까닭에 구국을 위하는 5·16 군사혁명은 전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국민혁명으로 전개되어 민족적인 혁명과업을 완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보다 잘 살 수 있는 국가만년대계의 기틀을 닦고 있는 동시에 퇴폐(頹廢)한 민족정기와 국민도의를 바로잡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전 국민은 혁명대열에 참가하여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한의 화랑들은 국민들에게 진실한 수호자가 되어야 하고 친절한 협조자로서 그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군대는 판 사회에 놓여 있는 특권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국민들이 보낸 자제들이기 때문에 반석(盤石)같은 국민의 수호자로서 국가에는 방패가 되고 국민들에게는 친절한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군사적으로는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전기(戰技)>를 연마시키고 윤리적으로는 인격도야(人格陶冶)에 전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군대의 도의교육은 의협심을 길러야 하는 동시에 정의와 책임감이 투철하도록 심신을 연마하는 <수련장>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은 전시(戰時)와 평시(平時)로 구분하여 교육되어야 한다.

즉 전시에 군인은 전투 집단의 일원으로서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군인을 육성하여야 하고 평시의 군인은 국가산업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교육되고 훈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적과 싸울 때에는 용감무쌍하여야 하고 국민들을 대할 때는 지혜 있는 협조자로서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교육하고 훈련되어 진정한 국민의 지도자를 양성하여야만 민족적인 우리의 과업을 완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국군의 당면과제

1. 군기확립

군대사회는 군기로서 유지되는 것이다. 군대가 군기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는 국방을 담당할 수 없으므로 「군기는 군의 명맥이다」라고 병학가(兵學家)들은 말하였다.

그러므로 엄정한 군기는 군의 사기를 측정하는 기본요소가 되는 것이다. 군대만의 특징인 통수계통(統帥系統)은 종적(縱的)인 엄격한 군기로서 제약된다.

휴전이후 군의 군기가 이완되었다는 것은 직접적인 전투행위가 정지된데서 기인되는 심리적인 변화에도 있겠으나 휴전을 기회로 일부 지각없는 군인들의 소행에 의하여 잠시나마 부패했던 때도 있었다.

구국혁명의 주체세력인 우리 국군이 만일 이성을 떠나 개인의 감정이나 이기주의적인 심사에서 상급자와 동료들 중상모함하고 통수계통을 문란시키는 경거망동한 행동이 있다면 군기를 유해(有害)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가존립을 위태롭게까지 하게 되는 것이므로 자기 스스로가 저지른 과오를 합리화 하려는 데 부심(腐心)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해서도 안된다.

그러므로 각자는 냉철한 반성과 양심으로 맡은 바 책임완수에 전력하여야 한다.

2. 전투태세의 완비

전투태세의 완비를 위하여서는 우선 군은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는 동시에 現 대전략에 적응하는 인원 장비와 편제(編制) 그리고 현실적인 의·식·주·행의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군은 본연의 사명만을 주무로 하고 인원장비는 적국에 비하여 질적 및 양적으로 우세한 위치에 놓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문제는 대전략적인 견지에서 국가의 자원이 문제되는 것이다.

현하 우리나라는 미국을 위시한 자유유방국가로부터 원조를 받는 수혜국인 입장에 놓여 있으므로 우리가 요망하는 대로는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선 지난날 독재정권하에 권력 확대를 위하여 이루어졌던 불합리한 제도나 비민주적인 기구와 견제는 조속히 검토되어 현대 전략사상에 적응토록 시정되어야 한다.

환언하면 급격히 변천해가는 시대적인 조건하에 그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계속 연구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논한바와 같이 제반문제의 해결은 한 사람의 방침이나 몇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와 애국심에 불타오르는 젊은

특집 · <군인의 생활자세>

간성(干城)들의 성실한 노력과 철두철미한 실천으로만이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의 간성들은 상신하애(上信下愛)의 숭고한 정신으로서 화폭단결을 도모하여야 하는 동시에 상부에 명령이나 지시가 없어도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각자는 교육과 훈련 에 매진하도록 노력한다면 전투태세는 스스로 완벽을 기하게 될 것이다.

3. 국가의 안전과 전투의 목적

국가안전보장정책에 있어서 군사력이 차지하는 위치는 Abelford의 말과 같이 국가의 완전보장은 국가의 경제적 향상, 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국력보전 및 증강과 국제위신의 유지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전쟁의 목적」은 전쟁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고 보다 높은 정책의 추구를 위한 것이므로 정치와는 별개의 개념이라기보다 정치의 연장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Clausewitz교수는 전쟁이란 타수단을 혼용한「정치의 계속이다」라고 말하였다.

한 국가가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이며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공자는 말하기를 한 국가가 번영하고 발전하기 위하여서는「문(文)」과「무(武)」는 공존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말한 공존이란 귀천(貴賤)과 열등(劣等)을 말한 것이 아니다.

「문」과「무」는 마치 차의 차륜(車輪)같고 조류의 양익(兩翼)과 같고 인간의 양각(兩脚)과 같은 것이므로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로서 국가안전보장정책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한 그의 성과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5·16군사혁명이후 자립경제를 목표로 하여 국민의 생활개선을 도모하고 국민의 도의를 재건하기 위하여 제반 정책을 과감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목표는 전평시(戰平時)를 막론하고, 최소한의 필요한 방위능력(군사력)을 보유하고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환언하면 전쟁이 발발한 경우에 적을 격퇴하고 국가의 안전을 도모할 만한 방위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전기한 바와 같이「국가의 방위능력」이란 결코 군사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하여「Hans Morgenthau」교수는 국력을 평가하는 기본요소로서 여덟 가지를 들고 있다.

즉 지리·천연자원·산업능력·군사적 태세·인구·국민의 성격·국민의 사기·외교의 능력 등 8개의 요소가 통합되어 국가의 힘이 되고 국가의 방위능력이 된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정치란 전기한 제요소를 여하히 균형 있게 조절하는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이란 정치적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6·25전란을 통하여 충분히 체득하였다.

그 예로서 우리는 적군의 행동에 대하여 군사적으로는 만주의 병참기지와 생산시설에 전략폭격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행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압록강까지 진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우리는 38선 부근에서 진지전(陣地戰)을 하여야 했으며, 동시에 휴전이라는 형식에 의하여 전쟁을 확대시키지 않으려는 국제적인 요청과 미국의 정치적인 목표 앞에 우리 민족이 원치 않는 휴전은 성립되고야 말았다.

이와같이 군사적인 행동은 결코 국가의 다른 정책과 유리(遊離)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치의 연장임을 찾아 볼 수 있다.

국가적 목적이란 국가의 안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있다. 고로 국가의 안전이 파괴되고 국민의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국가의 안전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의 정책이 안전보장에만 치우치면 국민생활의 복지는 희생을 가져오고 국민의 문화 및 경제적 생활에 치중하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율위반적인 관계로 놓이게 되는 것이다.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밀접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가 양개(兩個)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상호간의 균형과 조화에 유의하여야 한다.

고로 정치적 목적달성의 일부분을 담당한 국방정책문제와 군사적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모든 정책과 합치되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국방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나 국방태세를 강화함에 있어서는 전국민의 절대적인 협조와 지원이 없이는 국가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민주군대의 조직과 이념

군인은 국가의 간성(干城)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군인의 임무이다.

우리 국군은 건곤 이래 각지구의 전투에서 많은 전우를 잃었으며, 6·25전란을 통하여 조국과 자유민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 용감히 싸워 우방제국의 기대와 신뢰를 두텁게 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4·19의거당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군이 취한 행동은 민주군대로서 현명한 역군이 되었다.

또한 부패한 정치인들의 당파쟁쟁(黨派政爭)으로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조국의 운명을 구출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와 자유우방제국에게 신뢰의 도(度)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공산진영과 괴뢰도당들에게는 간담을 서늘케 하였던 것이다.

만일 군이 옳고 그릇된 것을 판단 못하고 정의와 불의를 혼동하여 한낱 정치의 도구로서 불의에 동조하였다면 오늘의 민주군대는 될 수 없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었을지 모를 일이다. 그 당시 군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았으므로 민주군대로서의 역할을 여지없이 발휘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자제들이 모인 군대사회에 있어서 정파(政派)에 이끌리거나 지방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군대행정이 이루어진다면 군의 단결은 유지될 수 없고 군기도 확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의 화랑도 정신은 무술뿐만 아니라 고상한 인격을 수련하여 정의와 의리에 살 수 있는 교육에 주력하였던 까닭에 찬란한 신라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군인은 국민들에게 친절한 보조자가 되어야 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참다운 친구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군대는 딴 세계에 놓여 있는 특권사회가 아니고 오직 국민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보낸 국민의 자제들이기 때문에 반석 같은 국민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군대는 젊은 사람들에게 국방을 위하는 전기(戰技)를 체득시키고 정의와 책임감이 투철하도록 심신을 단련하는 수련장이 되어야 한다.

환언하면 전사의 군인은 전투 집단의 일원이 되어 말은바 책임을 완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평시에 군인은 심신을 단련하는 교육집단의 일원으로서 전선(戰線)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 그리고 각종군내에서도 국민을 돕는다는 마음씨를 지닌 군인이 되어야 한다.

즉 적과 싸울 때는 용감무쌍하여야 하고 국민들을 대할 때는 지혜 있는 지도자로서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군의 지휘관은 공통된 목적을 위하여 부하장병의 의지를 길러주어야 한다.

우리 민족에 부족한 것은 봉사정신이다.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을 배양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힘을 키울 수 있다.

남을 위하는 그 자체가 자신을 위하는 일이 되는 것이므로 봉사하는 숭고한 정신은 나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길이 된다.

이와는 반대로 나만을 위하는 일은 결국 나도 망하고 국가도 망한다는 원리의 정당성을 증명해 주어야 한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친다는 일이란 결코「젊은 혈기와 지휘관의 명령」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각자에게 뚜렷한 국가관 높은 윤리 그리고 확고부동한 신념과 용기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사람의 용기를 말한다면「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상의 용기는 없다. 그러나「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다.

물욕 때문에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용기라고 하지 않고 미련자의 만용(蠻勇)이라고 한다.

진정한 용기는「선을 위하여」또「남을 위하여」자신의 죽음을 돌보지 않고「인정과 의리」그리고 정의감에 불타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의 역사에도 슬기로운 사실(史實)이 많이 있다.「정의와 의리」만 저버리면 얼마든지「권세나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사육신(死六臣)」같은 충신들은 끝내「정의와 의리」를 지키다가 처형당하고야 말았다. 또한 민족의 태양으로 우리러보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간신배들의 모함에도 지조를 굽히지 않고 조국과 민족에 대한 의리를 죽음으로써 지탱했다.

이처럼「정의와 의리」는 죽음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증하여 주었다. 이에 반하여 만고의 매국노 이완용은 일신의 안일과 영달을 위해서 민족에 대한 의리를 배반하였다.

일제 36년간 민족의 굴욕과 질곡(桎梏)은 한 매국노의 의리배반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전기한 바와 같이「정의와 의리」를 위하여 지조를 굽히지 않고 조국과 민족에 대한 의리를 죽음으로써 지탱하였으므로 그 몸은 죽었으나 그 정신은 살아있는 것이다.

만일「정의와 의리」그리고「확고한 신념」이 없는 사람이 총과 칼을 잡는 경우가 있다면 국민들은 마치 화약고내에서 일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파괴력이 강한 원자무기도 사람의 손에 의하여 조작되고, 또 투하될 수도 있으나 그 손은 인간의 두뇌에 의하여 조정된다.

인간의 두뇌는 이념에 의하여 동하게 되고 이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뚜렷한 국가관과 높은 윤리도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의 군대는 조직에 의한 군대였다면 오늘의 군대는 이념에 의한 군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소련에서는 우주인이 있지만 5·16 군사혁명이후 우리나라에는 우주인을 대신하여 의무인이 나타났다.

미소(美蘇)의 우주인은 다투어 우주정복을 노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멸공통일 을 이룩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에 의무인으로 헌신하고 있는 차제(此際)에 군의 지휘관은 민주군인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부하장병을 교육시켜 정예부대를 육성하여야 하며 우리 군이 수립한 전통을 우리가 유지한다기보다 내 자신 각자가 유지 발전시킴으로서 수고한 전통과 이념은 계속되는 것이다.

헌법개정안제안에 즈음하여

5·16혁명의 이념은 부패와 부정과 빈곤에서 우리 겨레와 나라를 구제하고 새로운 민주복지국가를 재건 하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정이양에 앞서 이와 같은 숭고한 이념이 앞으로 탄생될 제3공화국에 계승되어 다시는 과거와 같은 쓰라린 전철(前轍)을 밟지 않도록 새로운 국가의 튼튼한 기반을 다짐하는 것은 혁명정부의 신성한 의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있어서 혁명정부는 이러한 의무를 다 하기 위하여 널리 국민의 여론을 종합하고 진지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끝에 헌법개정안을 작성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의 결정으로써 제3공화국의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련한 헌법개정안의 주요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유권, 생존권, 참정권 등의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였으며
2. 건전하고 민주적인 현대적 정당 제도를 수립하여 진정한 대의민주정치의 기반을 확립하였고
3. 참다운 국민의사를 대변하고 깨끗하고 능률적인 의회정치를 기약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국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4. 안정되고 일 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정부형태를 택하였고
5. 국민의 권리보장의 최후보루인 사법권의 독립과 민주화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6.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하고 국민경제의 조속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경제체제와 기구를 마련하였고
7. 공산세력의 침략을 분쇄하고 굳건한 국가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였으며
8. 국가의 최고법규인 헌법의 개정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은 주요한 특징을 가지는 이 헌법개정안은 요컨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이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지성(至誠)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만복(萬福)의 협력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962년 11월 5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

박정희(朴正熙) 이주일(李周一) 강상욱(姜尙郁) 길재호(吉在號) 김동하(金東河) 김용순(金容洵) 김윤근(金潤根) 김두찬(金斗燦) 김재춘(金在春) 김진위(金振瓏) 김경옥(金炯旭) 박원빈(朴圓彬) 박태준(朴泰俊) 오치성(吳致成) 옥창호(玉昌縞) 류양수(柳陽洙) 류병현(柳炳賢) 이석제(李錫濟) 이맹기(李孟基) 장성환(張盛煥) 정세웅(鄭世雄) 조시형(趙始衡) 홍중철(洪鍾哲)

군 계급론



이형석(李炯錫)
☆전국방부장훈국장 (前國防部政訓局長)

가정에서 형제들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수가 흔히 있을 터인데 이때마다 부모 된 사람들은 이중인격자 비수한 노릇을 하게 마련인가 보다.

동생을 보고는「형한테 그러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나무라고 형을 보고는「동생을 왜 사랑하지 않고 때리느냐」야단인 것이 일수이기 때문이다. 오륜(五倫)의 하나인「장유유서(長幼有序)」가 잘되지 못하는 고로 간혹 논쟁도 벌어지고 주먹질도 나오게 되는 것이니 상호경애(相互敬愛)로 형을 형으로써 존경하지 않으며, 동생을 동생으로써 친애하지 않을 순간의 대결이 때로는 서부활극(西部活劇)이 되는 것이다.

군대의 계급도 이러한 장유유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 하겠다. 흥부와 놀부는 형제우애를 표현하는 우리나라 민속소설이니 아무리 형이 형 노릇을 못하여도 동생은 항상 참다운 동생노릇을 하는데서 모든 사람들의 호감과 동조를 갖게 되고 거기에 좋은 사회교훈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 형 노릇 잘못하는 놀부를 흥부가 도끼로 때렸다면 이것은 소설이 될 수 없고, 입맛도 쓸 수밖에 없을 것이요 인정의 미묘한 심금을 감동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형제의 윤리는 그 불변성에 있다. 아무리 동생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격과 식견이 높다한들 동생이 형이 되고, 형이 동생으로 미끄러질 수는 없는 것이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것은 그의 형인 양녕대군에 대한 지극한 우애지정(友愛之情)에서도 엿 볼 수 있다. 나는 광해군은 원래 천성적인 폭군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하나로써 그가 그의 본의 아닌 폭군이 된 당시의 간신배들의 당파싸움을 더욱 증오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친형인 입해군을 죽이고 비록 이모제(異母弟)라 할지라도 동기의 영창대군을 죽이는데 이르러서는 전연 동정이 가질 아니한다. 형을 존경하지 못하는 동생이 어찌 자기 동생의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며,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는 형이 어찌 자기형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군대 내에서의 계급의 고하에 따르는 상호경애가 계급윤리의 근기(根基)가 되는 것이요, 군내질서유지의 관건이 되는 것이요, 국민의 이름으로 부여된 명예를 영원하게 상징하는 소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군대계급은 부정성이 특색이라 하겠다. 상급자가 하급자 되는 수도 있고, 하급자가 승진하여 상급자 노릇도 하게 되는 것이다. 형제간은 출생의 선후를 따지는 것이고 군 계급은 임명의 선후를 따지는 것이다.

혹자는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니, 먼저 낳은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한 것이냐, 질이 좋아야 하지 않겠느냐, 개도 먼저 낳은 놈은 약소하고 뒤에 낳은 놈이 강대한데…… 그러나 개의 사회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인간사회에서 더욱 가정생활에 있어서 질서 확립을 위하여 장유유서를 바로 세웠던 것이니 군대 내에서 대군을 유지 경영하기 위하여 계급의 선후고하를 작정(作定)한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다.

「군인의 길」에서도「경애」를 제고(提高)한 것은 이 계급관의 근본윤리를 더욱 강조하려는 취지라고 알고 있다. 일절의 계급의식을 부인한다고 자칭하는 공산사회에서도 군대내의

특집 · <군인의 생활자세>

계급은 더욱 복잡하고 더욱 강렬하게 표시 되어있다. (소군(蘇軍)에서는 대장에도 상급이니 일급이니의 구별을 따지고 있고, 계급장도 손바닥 같이 큼직하나 최초 무계급 절대평등으로 출발한 그네들이니 만큼 더욱 이것이 느껴지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군의 계급부여는 위임행위에 인하는 것이니 필사한 적재를 택하여 국방의 중책중의 몇 부면(部面)을 담당시키는 것이지 결코 권세를 부리는 특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형제의 구분은 천명이요, 군대의 계급은 민명(民命)이라고도 하겠으니 부적임일 때에는 그의 신분은 민의를 대표한 통수자(統帥者)에 의하여 제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따라서 계급장은 부여된 사람의 책임과 공지를 그대로 표시한 보증의 수표와도 같은 것이니 그 궁극적 책임은 국방을 위하여 생명을 내걸어 놓는데 있는 것이고 그 보편적 공지는 모든 군대구성원의 고귀한 명예를 오척단신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군인들은 봉록(俸祿)을 받기 위하여 지원한 병사들이 아니고 일절의 개인 사정을 초월하고 오직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의무병역을 몸소 실천하는 징병들이니만치 그 명예를 어찌 직업적 용병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군의 계급의식은 권세장악의 강약을 표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책임영역의 한계선을 확정하기 위하여 특히 강조되어야 하며 따라서 선천적이 아니고 후천적이면서도 수화(水火)라도 불사하는 군령을 행사할 수 있도록 태산보다도 더욱 무겁게 취급되어야 하는 소이인 것이다.

견적멸벌(見敵必滅)의 지상사명을 맡아 가지고 사경에 용약(勇躍) 뛰어들게 명령하는 사람이 상급자요, 그 명령을 곧 민족의 지상명령으로 굳게 믿고 절대로 복종하는 사람이 하급자요, 이 명령을 엄숙히 실천하는 진두에 몸소 서는 책임자가 지휘관이요, 이 명령대로 두말없이 뒤따르는 용사가 부하장병인 것이다.

이러한 계급의식의 탁월성이야말로 자제에 대한 부모의 명령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성성과 절대불가침성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계급이라도 발령일시에 따라서 동일 일시라도 선후서열순위에 따라서 반드시 그 한사람만이 소유하는 자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군의 계급인 것이다. 수유백만(雖有百萬)이라도 자기의 자세를 자타가 공동 인정하는 것은 국가비상시의 자기책임과 영광을 미리 공포하는 것이니 수모(誰某)가 전사상(戰死傷)하면 수모가 대행한다는 민족의 명령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어찌 막연한 표현으로 권력의 상징이요, 세도의 과시라고 간주할 수 있겠는가.

계급이 갖고 있는 활용의 묘미를 더욱 발휘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그 직책에 상응하는 임시계급제도를 설정하는 수도 있으니 이 모두가 군의 계급이 갖고 있는 심오한 이론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위에서 필자는 군의 계급이라는 것은 군인의 명예의 상징이며 군내 질서 확립의 근기이며 상하간 경애심유발의 모태이며 국가가 위임하는바 의무와 권리를 규제하는 방편이라는 취지를 말하였다.

군의 계급은 상하라기보다는 선후라는 것이 그 본질상으로 보아 더욱 적절하다는 것은 형제의 선후에 대조하여 수긍할 수 있는 동시에 부자라는 상하간의 관계와 대조하여야 하는 까닭으로 상하급 선후임 등의 용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관례적으로 계급상의 차이는 상하로써 동급상의 차이는 선후로써 각각 표현하는 듯 하나 좀 더 깊이 생각하여 본다면 평시에는 선후임으로 전시에는 상하급으로 따지는 것이 그 본질에 알맞은 표현이라고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군정의 특질로 볼 때에는 평시에는 상급자라 하여서 무조건 하급자에 지휘명령권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감이라는 집 가장이 을이라는 집 청년에 대하는 것과는 절대로 동일하지 아니하니 군이라는 거대한 대가족제도야말로 영육과 성쇠의 운명을 같이 하는 인간가족의 가장 정수면(精粹面)을 구성하는 것이다.

조국이 이 오척단구를 부르시고 겨레가 그 둘의 성금을 모아 의식주와 총도궁마(銃刀弓馬)를 주시고 계급으로서 이 몸의 영예를 표시하여 주셨나니 이 지상사명 앞에 서게 된 우리에게는 오직 전진과 약진, 경애와 단합이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 모든 군인들의 공통되는 도(道) 의식이 되는 것도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다.

군의 한 가족이 되며 한 술의 밥을 먹는 순간부터는 그 전의 모든 교양과 사회지위와 금력권력 등등이 깨끗이 말소되고 무조건 선임계급자 앞에 거수경례를 하게 마련이니 군이 가진 부급이란 종교 이상의 진진한 묘미를 풍기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임자여, 그러나 상급자여 그대 진실로 선임자 되고 상급자 될 자격이 있는가, 그대 참으로 계급장 없어도 존경을 받고, 복종을 강요할 자질이 있는가, 뒷사람 된 자 모릅지기 일야반성 하여야 할 것이다. 성현도

「오일삼성오신(吾日三省吾身)」이라 하여 하루 세번씩 자기반성을 하였으니 하급자 후임자로부터 경례를 받을 때마다 이러한 반성을 하고「고맙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군의 약진을 가(可期)할 것 아닌가 한다.「윗사람 속이기는 쉬우나 아랫사람 속이기는 힘이 든다」는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단정하는 바이다.

그 집 자재를 보면 그 집 부형을 짐작할 수 있고, 그 집 부형을 보면, 그 집 가풍여하를 판단할 수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상급자, 선임자는 항상 거울 앞에 서있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말은 하급자와 후임자에 대하여서도 적용할 수 있으니,「윗사람 허물은 잘 보이나, 자기 마음의 허물은 잘 모르기 쉽다」는 것도 진리인 동시에 계급장 보고 경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과 덕성 그리고 그의 경험과 선달에 대하여「고맙소이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동생이나 자식은 제 아무리 위대하여도 형이 되고 애비가 되지는 못하나 군대계급은 엄하면서도 이러한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것이니 구태여 진급운동을 하고 좋은 보직자리를 갈구할 용렬성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군 계급은 부도수표가 아니고 일정한 T/O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으니 내가 어떤 계급과 어떤 직위를 탐한다면 그만큼 피해를 받는 우리의 선배가 있고 우리의 전우가 있는 것은 수학 상의 공식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도적이라는 것은 재물의 도적만이 아니라 계급을 남용하고 직책을 절취하는 것은 더욱 추악한 도적이라고도 하겠다. 이렇게 또한 남의 계급을 도용하는 것도 나쁘거니와 상급자로서 그의 직권을 남용하여 남의 계급을 무고하게 강탈하는 것은 다시없는 죄악이요, 그 한 사람을 고려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과 그의 모든 가명(家名)을 영원히 치욕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니 지휘권행사는 조심하고도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군의 계급은 독재와 전단 죄악과 범칙의 매개가 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 점은 인지상장(人之上長)이 된 자에게 특히 권하고 싶은 말이다. 그러나 하급자여, 그러나 후임자여, 그대 진정으로 상관의 신애를 받을 자격이 있고, 진심으로 복종의 지성을 다하고 있는가 또한 반성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 이 기회에 군의 계급을 역용하는 작폐가 없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소위「동기생회」와 같은 모임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유사 모임은 물론 동기생 상호간의 친목과 절차탁마(切磋琢磨)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것이니 이는 어디까지라도 공이 아니고 사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을 오용하여 공무에까지 반영케 한다면 군을 위하여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 정도라면 또 모르되 중소위원회, 사병회, 하사관회 등 계급을 내세우는 회동은 극히 조심하여야 할 일이고, 범규상으라고 지라도 금지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왜냐하면 군의 계급은 결코 횡적단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종적 질서 확립에 그大本(大本)이 있는 까닭이다. 경(經)이 아니고 위(緯)라 하겠다. 작년에 우리 국군이 결단한 바 5·16 군사혁명은 이러한 뜻에 있어서도 성업의 하나라고 판정할 수 있으니 이 혁명의 충추세력은 어떠한 계급적 단합이 아니고, 위로는 장관으로부터 아래로는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한 가지 목표아래 여섯 가지 공약을 내세우고 쫓아갔던 까닭이다. 뿐만 아니라 육, 해, 공, 해병대가 사위일체가 되어 총진군하였으니 말이다. 이것이 마지막 혁명이라는 안도감도 여기에서 더욱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제1차세계대전 말기에 독군이 최후까지 점령적지에 포진하면서도 내부에서 일어서는 사병회의 압력으로 내란이 유발되고 Kid폭동으로 폭발되었다는 사실에 비취 불 때 장교회, 사병회 등의 명칭을 우리 군내에서는 미연에 없게 하도록 방지하여야 할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상에서 필자는 군계급제도의 견지에서 상하선후간의 유념할 사항과 지휘권의 악용, 계급의 역용, 그리고 진급운동 등 몇 가지 폐습에 대하여 말하였다. 필자는 여기에 수년전 육군 내에서 생긴 사단장총살사건을 상기하여 본다. (이와 유사한 하사급간의 살해사건이 수 건 있었음은 참으로 유감이었다). 우리가 백지로 환원하여 볼 때「사단장이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이 아닐까……」「대대장으로서 자기 상관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하는 착잡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더구나 서(徐)준장은 필자가 보병학교시대에 전차교육대장으로 같이 근무한 바 있으며, 그의 인품이 고결하고 실천력이 강하며 민족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용이하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였다.

동시에 대대장도 유능한 장교로서 사단장이 평소 총애하는바 신임이 두터운 부하였다고 하니 더욱 추측하기 곤란한 점이 많다. 그러나

군의 질서요청은 그의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대대장에게 필요한 형벌을 가하였으니 이것이 군의 계급을 논하지 않을 경우라면 정당방위설 등으로 판결내용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 있으리라.

참으로 군의 계급은 이와 같이 위대한 작용을 하는 것이어서 군기가 군의 명맥이라면 이 명맥의 근원인 심장부가 계급제도로 조직되고 구성되어 있다 할 것이다.

다음에 필자는 구일본군대내에서 생긴 바 소위「상택사건(相澤事件)」(아이자와)에 대하여 말하려하는데 이 말은 과반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동기생 모(某)로부터 직접 들은 실화인 것이다.

이 사건은 1935년 8월 12일 일본육군성 군무국장실서 국장 영전철산(永田鐵山)소장을 상택삼랑(相澤三郎)중좌가 군도로 일격극살한 사건이다. 말하자면 현역중령이 현역장관을 공무집행중에 백주 당당히 방문하고 간한(奸漢)의 이름으로 참살한 것인바 영전(永田)소장은 소위 통제파의 중심인물이었고 상택(相澤)중좌는 소위 황도파(皇道派)의 투사였다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통제파는 일시 함락하게 되고 황도파가 더욱 도량(道梁)하다가 익년인 1936년 2월 26일의 소위 2·26사건으로 황도파 청년들 19명이 형사(刑死)된 후 전면적으로 후퇴하게 되고 그 후 통제파의 주구(走狗)들이 이른바 대동아전쟁을 일으켜 자멸의 길을 촉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필자의 동기생 모(某)는 상택(相澤)중좌와는 우연하게도 동연대에서 약 1년 동안 근무한바 있어서 그의 인품을 잘 아는 사람의 한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는 8월 이동으로 대만수비대에 가게 되어 부임도중에 사건을 일으킨 것이었고 모는 당시 소위로 역시 같은 이동명령으로 제주독립수비대로 가게 되었던 것이라 한다. 그는 지금 말하면 부연대장격인 지위에 있었는데 철두철미한 정신사상의 소유자로서 검도의 명수요, 신념이 불길 같은 인물이었으니 당시의 청년장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으며, 여행중의 일반장교들이 일부러 그를 찾아오는 자가 많았으며 그때마다 그는 박주소찬(薄酒素餐)으로 담론풍발(談論風發) 나라 장래를 근심하면서 철야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그의 검술은 호산(戶山)학교 검술교관으로 지낸 달검이었던 바 항시 일검일살을 강조하여 대상단으로 교습하는 달풍(達風)이 있었다고 한다. 그의 사생활은「조박(粗朴)」2자로 전부 표현될 수 있었으니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

또 그는 천황병광자(天皇病狂者)라고도 하리만치 모든 것을 천황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술을 내 놓고서도「이것은 천황이 주시는 것이니 함께 드십시오。」하고 인사하는 것이었고 안주로 무 조각을 내 놓고서도 주인자신이「참 맛있게 먹었습니다」하고 되려 감사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는 황도파의 수령 진기삼삼랑(眞崎甚三郎)대장의 직계낭당이었으니 동년 7월 16일에 통제파가 교육총감인 동 대장을 특별한 이유 없이 강제로 파면시키게 되자 그의 격분을 참지 못하고 직속상관에 폐가 되지 않도록 부임도중을 이용하여 단행한 것이라 한다. 동 대장은 후일에 자진하여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동 중좌를 엄호한 것을 보면 그간의 황도파들의 횡적단결여하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릇된 단합이 빚어낸 악랄을 회상케 하는 것이었다.

피살된 영전(永田)소장은 육사16기의 일재(逸才)로서 당시 일본육군의 문자 그대로의 중견인물이고 그의 식견 역량은 당대 일류의 평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이 이상 말할 바 되지 못하는바 필자는 여기에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그릇된 단합에서 오는 개인적 공분에서 살해한 사실만을 부하고 군 계급의 난맥상의 일례로서만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흑자의 견해를 말하여 보려고 한다. 작전행동간의 어떤 지휘관 한사람은 부하장병들에게「너의 선임자라 할지라도 군령을 어기고 퇴각을 하거나 군법을 무시하고 재물을 약탈하거나 양가의 부녀를 간음하는 자 있다면 즉시 총살하라」하였다.

이유로서는「그것은 선임자를 총살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인을 총살하는 것이다. 무단퇴각하고 불법으로 약탈하고 간음하는 자는 그 순간에 이미 그는 계급장 붙인 범죄인이 된 것이지 선임자가 아니기 때문이라」하였다.

물론 이것은 군기확립을 위한 강력조치이지 결코 합법화될 수는 없는 것이요 비록 전사라 하여도 계급을 자의로 무시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군법으로 능히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군 계급을 말살하고 자의로 즉결처분하는 것은 상식상으로라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하급자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용납되지 못하거늘 하물며 상급자에 대하여 서라.

전시에 독단이 허용되는 경우의 제1조건은「시간요소」이다. 적을 향하여 불법도주 하는 상급자를 체포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마땅히 사살하여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P16으로 계속)

군 인 과 신 사 도



류광렬(柳光烈)
☆언론인

신사(紳士)라는 말에 대하여 세상 사람은 흔히 영어의「젠틀맨」을 연상하게 된다. 어떠한 집회에서나 누군가 식사(式辭)를 할 때에는「래디스·앤드·젠틀맨」이라고 하면 그것을 번역하는 이는 의례「신사, 숙녀(紳士,淑女) 여러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다.

다만 서양 사람의 습관으로 여자를 존경하여 먼저 말하는 것을 동양 습관으로 남자를 먼저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양에서 신사와 비슷한 말을 우리말이나 동양에서 오래인 문화국이던 중국에서 똑같은 말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구태여 비슷한 것을 찾으면「선비」라는 말과 같다.

그러면 중국에서「선비」는「사(士)」자를 쓴다. 2천년 전에 맹자(孟子)라는 성인(聖人)이 한 마음을 보면 어떤 사람이나 인정한 직업이 없으면 일정한 맘을 닦지 못하여 여러 가지로 잘못된 일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무항산이(無恒產而) 유항심자(有恒心者) 유사위능(惟士爲能)」

일정한·직업이 없으면서도 마음의 방종(放縱)을 잘 제어하여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은 오직 선비라야 될 수 있다고 하여 선비를 높이 평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와 똑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선비는 일반 사람보다 뛰어나게 행세를 단정히 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게 하는 것으로 알아온 것이다.

서구, 특히 영국에서의 신사도의 발달은 오랜 역사와 많은 변천을 하여 온 것이다. 처음에는 특수한 문벌이나 혈통을 가진 기사도(騎士道)에서 발달한 것이니 그들은 보통 사람보다 일층 높다는 자랑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것을 한 개의 계율로 삼아 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보다는 우월하다는 긍지(矜持)를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역사의 흐름에서 변하듯이 신사라는 생각도 시대를 따라서 변천하여 그 가문(家門)이나 문벌에는 상관없이 누구나 높은 문화와 고상한 인격을 가진 이를 신사로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그때 귀족이던 양반(兩班) 계급에서 선비가 많이 나고 또 양반이라야 선비가 될 수 있는 줄로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계급을 생각하는 이는 없어지고 누구나 높은 문화와 고상한 인격을 가지면 선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두말 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다시 영국의 신사도의 특색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도 일정하게 정의(定義)를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문헌(文獻)을 참고하면, 첫째 그들은 자주성(自主性)이 강한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데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기 일은 꼭 자기가 하게 하는 것이다. 비록 몇 살 안 먹은 어린 아이라도 옷 입는 것, 기타 행동하는 것을 자기 손으로 하도록 한다.

불란서의 문사「앙드레·모로아」의 쓴 글에 같이 배를 타고 가는 영국인의 가족을 보니 나이 어린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손으로 자기의 옷을 입고 기타 몸단속을 전부 자기 손으로 하는 것을 보고 감탄하면서

특집 · <군인의 생활자세>

영국인의 습관을 탄복한 말이 있다.

서구 사람들이 흔히 인용(引用)하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이 영국인의 자조(自助)하는 성격, 즉 자기 일은 자기가 한다는 성격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신사도에서 강조되는 것은 의무감(義務感)이요 책임감(責任感)이다.

영국의 유명한 해군제독「넬슨」이 적군의 함대를 쳐부수어서 크게 승리하고서 죽을 때에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말은 유명한 이야기다.

의무나 책임이 있는 곳에는 머리끝부터 발뒤꿈치까지 갈(磨)아도 사양하지 않고 혼연히 자기희생을 각오하는 대장부(大丈夫)다운 기개가 있는 것이요 이것이 그들 신사도의 일면인 것이다.

우리 삼국시대(三國時代)에 명장(名將) 김유신(金庾信)은「자기 아들이 당나라(唐) 군사와 싸울 때에 대장(大將)은 전사하였는데 비장(裨將)으로서 전사하지 못하였다」고 임금에게 목을 베이어 죽이기를 주장하였으며 임금은 용서하였으나, 부친으로서 김유신은「죽기까지 그 아들을 대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김유신이 죽은 후에 그 아들이 부친의 발상(發喪)을 위하여 오니까 김유신의 미망인(未亡人)인 그 어머니는「부친에게 자식답지 못하였던 아들을 내가 어떻게 만나보겠느냐」고 하여 만나지 않고 발상하여 와서 우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것은 그때의 화랑도(花郎道)의「임진무퇴(臨陣無退)의 극단(極端)인 예(例)일런지 모르나 이것은 영국의 신사도와 일맥이 서로 통하는 것이다.

다음은 책임감이다. 영국은 배 만든 기교(造船)로 세계에 이름난 나라인데, 그에 관련하여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배를 만드는 직공 두 사람의 대수(對話)로「한 사람이 한 인치(촌)쯤 벌레 먹은 나무 조각을 넣어서 배를 만들겠다」하니, 옆의 직공이「그것을 넣어 만들었다가 후일에 그 때문에 이 배에 고장이 나면 어찌하나」고 말리었다.그러나 그 직공은 안 듣고 그 벌레 먹은 나무 조각을 넣어서 배를 만들었다.

그 후로 그 배는 여러 십년동안 바다를 항해하여 많은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날랐다. 그러나 몇십년 전에 그 벌레 먹은 나무 조각을 대인 것이 화근이 되어 그 배의 밑바닥에 구멍이 뚫어져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것은 그 나무 조각을 넣은 직공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 개의 우화(寓話)이지만「자기의 책임은 끝까지 저야한다」는 것을 경계한 말이다.

이렇게 책임을 느끼는 때문에 그들은 길에 다니어도 길에 침(唾)을 뱉어서 불결한 물건을 내버리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니 이것은 자기 때문에 남이 불쾌하여서는 안된다는 책임 관념이 강한 때문이다.

그들이 동양에 온 후 중국 상해에서 공원(公園)에 문화정도가 낮은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침을 뱉고 불쾌한 물건을 함부로 버린다 하여 공원문에 「개(犬)와 중국인은 들어오지 말라」고 문에 패를 부쳤으므로 중국 민중의 격노를 사던 시대도 있었고 또 그의 조차지(租借地)인「홍콩(香港)에서는 지금까지도 길에 침을 뱉으면 벌금을 물리는 법규를 마련한 것은 중국인을 위시한 동양 사람들을 경멸하는 행동으로 우리 동양 사람은 다 같이 분개하는 바이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신사도의 발달로 능히 자율적(自律的)으로 하여 나가는 그들로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월감과 긍지를 가진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들은 어떠한 위태한 경우에 남이 모르는 경우에도 질서를 자율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1925년 영국에 총파업이 있을 때에도 기차나 전차나 기타 교통도구를 냉정하고 침착하게 차고(車庫)에 갖다두고 조합(組合)에서 지령한 시간에 한실마리도 어지럽지(일사불란)않게 총 파업을 단행한 것이다.

또 제2차대전 중에도 독일의 폭격기가 오고 공습경보가 나면 남녀노소의 시민들이 방공호에 들어갈 때에도 어린 아이, 노인, 부녀자의 순서로 또는 달려온 순서대로 고요히 피난을 하고 혼잡을 이루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셋째는 그들의 권리감(權利感)이다.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불의한 일 에 대하여는 감연히 항쟁하는 것이다. 가령 자기에 불합리하게 오는 부담에 대하여는 1전을 안물겠다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1원이나 10원을 써도 다문다는 태도이다.

이렇게 불의에 항쟁하는 관념이 강하므로 어떤 사람이나 자기집에 함부로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영국민의 집은 성곽(城郭)이라는 말은 이것을 가르친 말이다. 이것을 거꾸로 이용하여 세계의 망명객(亡命客)들이 영국 서울「런던」으로 모여드는 것이다.

독일의 철혈제상(鐵血宰相)「베스뎀」을 피하여 망명하였던 공산주의자「칼·말스」도 일생을

군 인 과 사 생 활



한학수(韓鶴洙)
☆군목(軍牧) · 공본군중감실근무(空本軍宗監室勤務)

「런던」에서 보냈으며, 소련의 공산당「레닌」도 그 생애의 대부분을「런던」에 망명하였던 것이다. 하여간 영국인의 발달된 신사도의 깊은 영국인으로 하여금 많은 자유를 누리게 한 것이다.

넷째는 그들의 정의감(正義感)이다. 그들은 길을 가다가도『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이 옳지 못하게 누른다던지 괴롭힐 때에는 분연히「커질」(손에 가졌던 몽둥)을 들며「거린다」는 것이 그들의 기질이라고 미국문화「어빙」은 그의「스캐치 · 북」에서 칭찬하였다.

이것은 개인으로서만 그러할 뿐 아니라 한 국민으로서도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제1차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참전한 것도 독일의 군국주의(軍國主義)가 백의의(白耳義)의 중립을 짓밟은 때문이라 하고 제2차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싸운 것도 독일의「나치스」군이「체코」나「폴란드」에 침입한 때문이라고 하였다.

제2차대전이 나기를 앞두고 영국의 수상「첼렐레인」은「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위하여는 어떠한 것도 희생하여야 할 것이나 인류가 몇 세기(世紀) 동안 싸워서 누리게 된 자유를 희생할 수는 없다」고 전 세계를 향하여 선언하였던 것이다.

이상으로써 신사도에 포함되는 의무감 책임감 등의 감정을 영국의 발달된 신사도에서 그 전례로 들어본 것이다.

군인이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국가의 간성(干城)의 임무를 다하는 것도 이 신사도의 의무감, 책임감, 정의감이 그 근원을 둔 것인 동시에 이 기풍은 또한 평시에 한 국민으로써도 당연히 지켜야 할 신사도이다.

필자는 군인과 시민을 분간하여 보려하지 않는다. 군문에서 좋은 군인은 또한 시민으로서도 좋은 시민이 될 것이다. 군인으로서 정의와 규율과 책임을 배운 군인들은 그 기사도(騎士道), 신사도를 널리 그렇지 못한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확대하여 우리국민의 수준을 올리어야 할 것이다.

좋은 국민이라야 좋은 군인이 되고 좋은 군인은 좋은 국민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과 군인은 하나이요 둘이 아니다.

(P13에서)

만일 체포하였다 군법으로서만 취급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혹시 그가 정신분열증으로 순간적 발작을 일으켰을런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필자는 군 계급의 존엄성을 유용한 예를 많이 듣고 보고 또 알고 있다.

또한 계급장만 부치면 무불능통으로 알고 횡포무도한 짓을 한 예도 많이 알고 있다. 이것을 구우일모로 가며 여기저기 말고 심우일모, 백우일모로 한다면 얼마나 다행하겠는가 말이다. 우리는 자기의 역량을 과대평가하고 재물을 탐내듯이 계급을 탐내지 말아야겠다. 계급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자격이 따라야「참」이 될 것이다.

여기에 우수한 상사가 있다고 하자. 그는 상사로서 가는 곳마다 광채가 나 보이고 그 씩씩한 용모와 태도가 전대의「호—푸」가 되어 있지만 별안간 그가 소위계급장을 부친다면 어떠할까. 반드시 그는 평범한 일개 소위에 불과하게 보일 것이다. 왜 그럴까, 장교로서의 품위영역이 따로 있기에 때문이다. 무자격자가 상급계급장을 달았기 때문에 도리어 용렬하게 보인다면 그는 계급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도용행위자요, 결국 본인 자신의 커다란 불행이라는 예를 우리는 알 수 있으리라.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독립국가로서 세계열강에 겨누어 조금도 손색이 없고, 우리 국군의 위용이 또한 세계 몇째 아니가는 강군이란 것이 사실이라면 가령 여기에서 있는 일대위의 계급장은 세계 어느 나라 대위의 계급장에 비하여도 조금도 손색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에 손색이 있어 보인다면 그는 국민의 부하를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분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군인은 그 어깨의 계급장에 천근의 무게를 느낄 것이요, 스스로 자숙과 반성 그리고 약진과 향상의 열의를 가지게 될 것이니 여기에「참」다운 국민의 군인, 국민을 위한 군인, 국민에 의한 군인의 위용을 나타낼 수 있으리라.

구석 구석 살펴보자
붉은 마수 노리는 곳

방침표어

1. 군인에게도 사생활은 있다.

군대가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하여 조직된 무장단체인 만큼 군인생활이 단체생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면 군인생활에는 단체 생활 뿐이고 전연 사생활이 있을 수 없겠는가? 그렇지 않다. 단체라는 것도 개인의 집합단이므로 그 구성요소가 되는 개인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군인이라 하여 어떤 틀에 부어 만든 주물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군인도 사람이다. 사람인 이상 개성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개성에 따르는 감정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행동원리나 성격과 습성을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수계통이 있고 단체를 통제하는 군 군율이 있다. 그러나 단체를 통제하는 군율도 군대라는 군대를 구성하고 있는 그 개개인의 심적 태도 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아무리 엄격한 군율이 있고 군법이 있고 제도가 있고 운영방침이 서 있어 날마다 강조된다 할지라도 군인 개개인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복종하겠다는 의지의 결단이 없다면 그 군율이나 군법은 효력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 군대는 사고 투성이가 되고 말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단체생활에 있어서도 그 단체가 요구하는 것 이외의 모든 생활은 전적 개인생활에 지나지 않는다. 군인생활에 있어서도 군이 요구하는 시간과 노력 이외의 생활은 전연 사생활이다.

사람에게는 여러 생활의 국면이 있다. 생물적 생활의 국면이 있고 사색적 생활의 국면이 있고, 가치추구의 국면이 있고, 정서 생활이 있고, 사회적 생활의 국면이 있다. 단체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성 속에 구유되어 있는 사회성의 발현으로 되어진 사회적 생활의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단체생활이라는 것도 인간성 자체와 생활자체를 생각할 때는 사생활의 일국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군인은 생물적 생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통제된다. 영내자(營內者)들은 식량과 질이 통제되고 균일화된다.

그러나 그 개개인의 식성에 따라서 더 먹고 싶어 하는 자도 있고 남기는 자도 있고, 체질에 따라 먹고 배탈 나는 자도 있다. 그리고 애정생활은 전적으로 사적 생활이기 때문에 남이 그 생활에 뛰어 들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최일병의 사건을 잘 안다. 이것은 단체생활과 사생활과의 마찰의 결과로 일어난 참사이다. 사색적 생활이나 정서생활이나 가치추구의 생활 곧 윤리, 도덕, 종교 등의 생활은 전적 사생활이다. 이러한 생활은 단체생활 속에서도 사적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격을 함양하는 일은 개성의 문제이다. 취미에 있어서도 개성에 따라 어떤 자는 체육을 힘쓰고 어떤 자는 독서, 장기, 바둑을 즐긴다. 이러한 것은 사생활에 속한 것이다. 군인 각자는 개인이다. 그러므로 개개인만이 즐길 수 있는 사생활이 있다.

그리고 군에 있어서 여러 부분과 특기가 있는 것은 개성과 소질과 교양을 고려한 것이다. 개인상담 혹은 면담은 단체생활과 사생활과의 부조화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취급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군인의 생활이란 일면은 단체생활이고 일면은 사생활이다.

이것은 그 군인된 각자의 태도와 관점문제이다.

단체생활에 익숙해지고 완전히 마음에 받아들인 자에게는 벌써 그 단체생활은 사생활의 일국면으로 변화되어 개인 속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은 결코 단체생활을 사생활의 이용물처럼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군인각자가 단체생활을 인간성중에 있는 사회성의 표현으로 알고 적응하고 처신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단체생활도 개인생활처럼 자유스럽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목적면으로 관찰할 때 군인생활은 단체생활이다. 그러나 개적 생활면에서 볼 때 군인생활도 사생활의 일국면에 지나지 않는다.

2. 군인생활은 나의 생애의 일부이다

일부 한국청년들은 생각하기를 군대생활은 공백기간이라고 한다. 특히 대학생들 중에 그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많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군대생활을 기피해 보려고 잔꾀를 부린다.

대학생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다. 모처럼의 학구생활을 중단하고 입대하여 엄한 군율을 지켜 나가는 동안 자연 머릿속에 간직되었던 지식은 송두리째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허탈감이 그 둘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할 것이다. 금번 새로 개정된 병역법을 보면 그런 점이 시정된 것이 역역하다.

대학생은 졸업 후에 입대기로 된 것이다. 공군에 지원한 자는 자원해서 들어오는 것이니 병역을 기피하자는 생각을 가진 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공군에 들어 온 자들 중에도 간혹 그런 그릇된 생각의 흐름에 젖어서 군인생활에 충실치 못한 자들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과연 군인생활은 개인에게 공백기간인가? 그렇지 않다. 국민개병제도(國民皆兵制度)가 채택되어 있고 공산진영과 맞서고 있는 우리나라에 사는 젊은이들에게는 군인생활 자체가 그 개인 생애의 일부로 반드시 엮여져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다.

군인생활은 나의 생애의 일부로 확정되어 있는 까닭에 모면할 수 없는 노정(路程)이다. 이 노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정당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인생활은 젊은이들이 거쳐야 할 노정이다. 이 노정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길목에 놓여있다. 그러니 군인생활은 젊은 세대에 게 사회로 진출하려는 관문인 것이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군문에 들어와서 군인생활을 하는 것만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데 관문인가? 그렇지 않다. 여러 관문과 노정이 있다. 학창생활도 한 노정이요 통과해야 할 관문이었다. 학창생활도 단체생활의 하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학창생활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낸 자들이 그 평생에 한번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인 군인생활은 그렇게도 싫어하고 기피하려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군인생활은 학창생활보다 고되고 자유스럽지 못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도 기피할 수 없이 통과해야 할 노정인 것이다.

군인생활은 나의 준비 시기 중에 가장 귀중한 시기이다. 학창생활은 요람기(搖籃期)라면 군인생활은 시련기요, 다지는 시기이다. 이 가장 귀중한 생애의 일부를 무의미하게 보낸다는 것은 자기의 생 자체를 썩먹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사람은 과거를 지나서 장래의 화려한 꿈과 소망을 안고 현재 이 순간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순간순간이 나의 삶의 현재인 것이다. 순간순간의 값있는 생은 나의 전생을 값있게 하는 것이다.

과거에 평안하던 학창생활에 대한 회고나 하며 현재의 주어진 생을 허무하게 보내거나 장래의 화려한 꿈만 꾸고 현재의 생을 무시한다면 그는 벌써 무지개 잡으려는 아이처럼 한발 앞에 있는 웅덩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현재의 3년간 혹은 4년간, 10년간은 사람의 전생애에 비하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다. 우리 한국인의 평균연령이 48세 이라면 3년간은 1/18의 기간이며, 4년간은 1/12이요, 10년은 약 1/5이나 되는 기간이다. 현재의 군인생활을 충실히 하여 나의 생애에 푸라스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만큼 기간이 무로 돌아가고 마는 셈이다. 그 기간의 장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인격의 기초를 닦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때 에 받은 인상이나 경험한 경험은 사회생활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니 군인생활을 하는 시기는 인생관 확립을 하는 시기이며, 개성형성기인 것이다. 이때에 단체생활 속에서 개성을 연마하며 발휘하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군인생활의 성패는 곧 앞으로 할 사회생활의 성패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대개 사회에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군에 있을 동안에 자신의 소질에 따라서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고 활용하여 군인생활에 모범이 된 사람들이다. 20세기의 위대한 정치가인 처칠경은 일찍이 젊었을

특집 · <군인의 생활자세>

적에 군인으로 중군기자로 군인생활을 충실히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아이젠하워 같은 사람도 그가 군인생활을 충실히 한 사람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후라이보이를 잘 알고 있다. 그는 공군하사관생활을 하는 중에 오늘의 인기 코메디언으로서의 소양을 기른 것이다. 어떤 기지에 있는 어떤 사병은 장래 생활을 준비하면서 일과를 충실히 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인데 일등병때에 남들이 즐기는 외출을 나가지 않고 얼마 안되는 일등병봉급을 모아서 영어독본을 모조리 사서 매일밤 열심히 공부하여 지금은 Newsweek, Time 등을 자유스럽게 읽고 해득하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자기의 특기를 충실히 연마한 자가 사회에 나가서 성공치 않는 자 별로 없다.

공군의 모든 특기를 충실히 연마한다면 사회에 나가서 쓰지 못할 특기는 하나도 없다. 성공의 열쇠는 군인생활을 자기생애의 가장 중요한 정초(定礎)작업임을 인식하는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군인생활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되고 힘든 생활이지만 각각하여 올바른 생활태도만 지니고 산다면 군대생활은 ①좋은 친구를 많이 얻게 되고, ②기술을 연마하게 되며, ③규칙적 생활이 습관화 되며, ④활동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며, ⑤인내, 극기, 용기, 강직, 소박, 단순, 솔직 등 좋은 덕들을 얻게 된다. 이것들은 인격에 귀한 기초가 되는 것이다.

3. 군인생활은 나의 삶 자체이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격언 중에 가장 퇴폐적인 격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군사 날 보내기』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이조시대 군인들의 무책임한 군인생활을 증거하는 말이다. 이 말은 이력저력 복무기간만 채우면 된다는 말이다. 오늘날도 우리 군인중에 이력저력 군사 날 보내기를 일삼는 자들이 간혹 있다.

제대날만 기다리는 사병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직무에는 충실치 못한 자가 봉급 받는 일에는 가장 모범적으로 충실한 자들도 있다. 그들은 봉급날만 기다린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더 편한 특기, 더 편한 근무처, 더 편한 직책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남에게 고된 군대생활을 강요하는 자가 자기는 가장 편하게 군대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태도는 버려야 한다. 어떤 사병의 경우를 보면 군대생활을 이력저력 복무기간만 채우면 된다는 옳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바보처럼 군대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일류대학교 대학원생으로 기피의 생활을 하다가 공군사병으로 입대한 자인데 신병대에서부터 피병을 부리기 시작하여 특기를 통신폭기로 받았는데 통신학교에서 6개월간 병실출입으로 날을 보내고 이력저력 수료하고 실무부대에 배속되었다. 그러나 실무통신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에는 0(零)이었다.

그러므로 또 폐가 아프다고 업살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상사는 그가 업살을 부리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러니 더욱 기합을 받을 수밖에 다른 도리는 없었던 것이다. 그는 바보처럼 되었다. 만약 그가 열과 성의만 가졌다면 실무부대에서 근무하는 3개월간에 벌써 통신에 관한 이론이라도 습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업무에 대한 흥미를 잃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특기전환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후에 그가 군목(軍牧)과 상담한 후에 많은 교훈과 책망을 받고 각성하여 지금은 대학원생으로써 가졌던 실력을 발휘하여 충실히 봉사하고 있다. 군에 있어서의 생활은 태도여하에 따라 그의 모든 생활이 좌우되는 것이다. 군대생활을 하면 바보가 된다는 말은 단체생활과 사생활의 조화를 찾지 못한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다. 처음부터 군대생활은 공백기간이다, 군대생활을 하면 바보가 된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복무에 임하는 태도는 그릇된 태도이다.

이력저력 날이나 보내고 요령만 피우면서 남에게 괴로움만 끼치는 생활태도는 자기의 앞길을 망치는 태도이다. 군대생활도 나 개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군인생활은 남이 해줄 성질의 것이 아니다. 부모나 형제나 친구가 내 대신 치를 것이 아니고 내가 치루어야 하는 나의 삶의 한 토막이다. 남의 생활이 아니고 나의 생활이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한 날에 어떤 운명에 처할런지 모른다. 과거는 이미 지나 버린 것이고 장래는 기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한 날 한날 순간순간의 생활을 충실하게 엮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현재 군복을 입고 군대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군대생활 속에서 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보람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어야 할 것이며 모든 일에 진실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군대생활을 잘 치룬 자 중에 성공한 자가 많다. 그러나 군대생활에 있어서 낙오자는 인생의 낙오자 될 후보생이다.

이런 군인을 원한다

사상적(思想的) 신념(信念)이 강한 군인을……

투철한 반공정신을 가진 군인, 그리고 이해와 조화, 담백과 성실의 미덕을 가진 군인을 나는 원한다.



숙명여대 교수 오윤근(吳允根)

국가의 직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외국의 침공을 방어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상 기본적인 것이며 또한 일국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한의 요건이 되는 것이다.

군인은 이러한 중요한 국가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그 직무는 국민의 위임에 연류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민은 생명과 재산에 대한 외부침범을 방호할 것을 특히 군인에게 위촉(委囑)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방은 거족적(擧族的)인 문제이지만 일단은 군인의 직책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군인은 국가방위—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국민으로부터 절대적인 기대와 존경을 받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본고(本稿)에서는 청탁된 제목의 성질상 요망되는 점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하고자 한다.

군인은 전쟁이라는 특수직책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심신이 단련되어야 하고 기술을 엄수하는 동시에 책임감과 봉사의 정신이 누구보다도 왕성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본인은 이러한 일반적인 점을 떠나 좀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과거의 전쟁은 민족과 민족사이 즉 민족적 이해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나 금일에 와서는 민족적인 대립도 있지만 타면에는 민족을 떠난 사상적인 대립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금일의 국제정세는 민족과 사상의 일원적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국은 자기방위를 하는 동시에 연합전선의 일원으로서 공산주의와 대치(對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정세나 근대전쟁의 특수성은 전통적인 민족 자각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며 강력한 사상적 신념이 견비되어야 할 문제다.

우리는 민족이나 국가를 떠나서 생존할 수 없고 또한 자유방과의 결속 없이도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민족적 자각과 사상적 신념, 자주와 협조의 이원관계 즉 고차적인 국가의식과 정신적 훈련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국토와 민족의 일부가 공산정권에 강점되고 있고 6·25와 같은 동족상쟁의 참경(慘景)을 겪은 우리로서는 반공적 신념 없는 근시적인 민족의식만으로는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근대의 전쟁은 과학과 두뇌의 전쟁이다.

비단 국방 뿐만은 아니지만 금일의 세계는 확실히 과학의 경쟁과 숙련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면에 정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양보다 질, 힘보다 두뇌가 문제가 되며 용감한 군인이 되어야 하는 동시에 지혜 있는 숙련된 군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계있는 문제로서 금일의 국방은 1인의 영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에 있어서 위인정치가 용납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방에 있어서도 1인의 무용(武勇)에만 기대될 수 없고 또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물유 각자가 위대한 군인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조직적 힘과 과학적 준비, 그리고 기술적 훈련 없이는



곤란한 것이며 독재적 영웅「히틀러」나 일본의「대화혼(大和魂)」도 조직과 과학 앞에 멸망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혜와 협동, 그리고 책임성은 또한 중요한 일이다.

끝으로 말하고 싶은 점은 군인은 국토방위란 특수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일면에는 국민의 일원이며 가정의 일원이란 점이다.

군대와 사회, 부대와 가정의 서로 다른 양면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며 기울이나 명령체계가 엄한 군대생활을 사회에나 가정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는 동시에 세속과 시정(市井)에 빠지는 것은 더욱 곤란한 일이기 때문이다.

군대생활이 그대로 사회에 연장되면 선량한 시민생활이나 온화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려워지며 반대로 사회나 가정생활이 그대로 군대생활에 연장되면 유약에 빠지고 부패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양면생활은 24시간을 통해서 절제 있게 안배되어야 하고 자기의 생활관 속에 종합되어야 하며, 그러함으로써 충실한 군인과 선량한 시민의 덕이 겸비되는 것이다.

봉사와 주장, 강직과 유화(柔和), 담백과 진중, 생명과 이해가 잘 융화가 되고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훌륭한 군인이 되는 동시에 성실한 가족 다정한 동민(洞民)이 될 것이다.

의지와 결단성(決斷性) 있는 군인을……

군인인지 일반인인지 구별이 안되는 그러한 군인을 나는 정말 싫어한다.



여류작가 정연희(鄭然喜)

폴빛 팽팽한 작업복 앞가슴에 눈부시게 흰 티·셔츠가 삼각형으로 단정하게 들어나 보인다. 그의 걸음걸이는 규칙적이면서도 활발하고 당당하다.

어느 영내에서 본 군인의 모습이었다. 한 눈에 호감이 가는 모습이다.

가을의 휴일, 덕수궁 국화 전시회장에서다.

한구석도 흐트러져 보이는 곳 없이, 딱 짚인 카키색 정복으로 전시장을 천천히 돌아보는 장교 한사람을 본 일이 있다. 옆에는 부인인 듯한 젊은 여성과 두세살쯤 뒤직한 아이가 따르고 있었다. 위풍당당한 군복이 어찌면 그렇게도 멋지게만 보일까? 그 장교의 얼굴은 지극히 평화스럽고 너그러워 보였다. 저런 사람이라면 폭과 깊이를 함께한 훌륭한 지휘관일 수 있으라고 혼자 생각했다.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데에 마음이 놓이는 듯 싶었다. 이따금 거리에서 보는 일이다. 추력에 가득 채워진 군인들이 어디로인가 실려 가고 있는……거리 한 모퉁이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감정이 착잡해지게 마련이다. 무엇이냐고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갈래의 마음이 얽히고 설킨다. 믿음으로 가슴이 뿌듯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강하게 남겨지는 것은 비장감이다.

인류의 숙명에 어쩔 수 없이 매어져 있는 운명하면서도 맑고 기운차게 샘솟는 듯한 생명을 그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비장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다.

「내가 바라는 군인」. 한마디로 하자면 쉽고도 간단한 말이 있을 수는 있다. 그것은, 「군인은 오로지 군인이어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잠깐 돌이켜 생각할 때, 군인이라 무엇이냐 하면 지극히 단순한 대답부터 풀 길 없이 복잡한 대답까지를 일으키는 것이 군인의

이런 군인을 원한다

문제일 것 같다.

군인이란, 특정한 인물이긴 하지만 별다른 요소를 지닌 인간은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한된 범위와 엄격한 규칙과, 일반의 사회와는 전혀 다른 질서 속에 살게 마련인 것이다. 때문에 인간성의 깊은 문제에서는 언제나 이 군인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지게 마련인 것 같다.

어원·쇼의 작품「젊은 사자(獅子)들」이라는 소설 속에 나타난 각양각색의 군인상은,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인간의 성격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의 유니폼 속에 싸여 있으면서도 그렇게도 다른 유형의 군인을 그릴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영화「지상에서 영원으로」도 그랬고, 에리히·마리아·레마르크의 소설「서부전선 이상 없다」나「사랑할 때와 죽을 때」등 전쟁 소설 속에서 보여주는 군인이라는 누구보다도 더「절실한 인간」인 것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군인이라는 인물도 그냥 절실한 인물로 이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장 인간적인 인간에게 유니폼을 입게 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바랄 수가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면 마음이 편편치가 않아진다.

그러나 어찌 되었던간에 군인은 군인이어야겠지.

책임감이 강해야 하고 용감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군인이 게으르다는 것은 상상도 안되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다. 이제는 지나가 버린 화제지만, 모모한 고급 장성들이 축재(蓄財)로서 사건을 일으킨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이가 없었을 뿐이다.

군인과 몰욕이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일까?

군인의 어느 야성의 일부는 지극한 매력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거칠고 지나치게 단순하고, 폭언이나 거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린다는 것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조금치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 되겠다.

틈만 있으면 유니폼이 아닌 이른 바 사복(私服)을 하려고 애태우는 어느 장교를 한 사람 알고 있다. 그런데 이편에서 보기에는 그가 군복이 아닌 양복을 입었을 때처럼 어색하고 딱 껌이지 않으며, 모자라 보일 때가 없는 것이다.

일반인인지 군인인지 구별이 안되는 그런 군인이란 정말 싫다. 군복의 특징과 매력을 잘 살려, 단정한 외모를 우선 갖출 줄 아는 군인에게는 호감이 간다. 깊은 의지에 의한 결단력을 가진 군인은 믿어워서 좋다. 외모에나 마음속에나 인문미를 토대로 한 비장미가 있는 군인이면 틀림없는 군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가를 선용하는 군인을……

자기 자신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군인—그런 군인 나는 좋아한다.



姜得順(姜得順)
☆보건사회부 부녀국장

군인 생활을 경험한 일도 없고 또 군인들의 생태조차 이해치 못하는 문외한이 군인들에게 그 무엇을 바란다는 것이 외람된 일임에 틀림없다.

다만 군인이라고 하면 흔히들 추상(秋霜)같은 군령 하에서 기계와도 같이 규율적이고 단조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특수조직의 구성요소라고 생각하기 쉬운 까닭에 그들을 우리 사회 우리 가정 즉 우리들 생활주변 가까이 끌어내어 그들이 경험하는 군과 사회와 가정 등의 다양한 생활양태를 조화시킬 줄 아는 군인이 되어달라는 충정(衷情)에서 감히 붓을 드는 것이다.

모름지기 군인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업무를 그 기본업무로 하고 있으며, 일차 임전시(臨戰時)에는 승리를 그 본령으로 삼고 있음은 재언을 요치 않을 것이다. 전시나 평시나를 막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와 국권을 수호하는 중임을 맡고 있는 것이 군인인 까닭에 무엇보다도 또 평상시에 끊임없이 정신과 전기(戰技)를 연마하여 슬기롭고 용감한 군인이 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라 하겠다. 우리 국군이 창군(創軍) 십여년이라는 짧은 시일에 비약의 비약을 거듭하여 세계 제4위라는 강군으로 발전하였거니와 나는 이것을 결코 우연한 사실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물론 미국을 위시한 우방제국의 기술과 장비 등의 원조에 힘입은 바도 크다고 하겠으나 우리 국민들의 피 속에 흐르는 불퇴전의 민족혼이 오늘의 우리 국군을 만들었다고 본다.

멀리 고구려의 우리 조상들의 검박(儉朴)하고 강직한 기개가 우리 국군의 의연한 기상을 만들었고 신라의 화랑도 정신은 우리 군인들에게 지(知)·용(勇)·인(仁)의 교훈을 주어 오늘의 우리 군인정신의 근간으로 삼게 하였으니 지난날 6·25전란을 통해 그 용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5·16 군사혁명의 햇불을 들어 그 슬기로움과 충성됨을 내외에 과시하였다.

현재 세계는 양대 진영이 생산증강에 전력을 집중하고 무력을 배양하기에 여념이 없는가 하면 전투 아닌 사상전을 맹연히 계속하고 있음을 볼 때 목전에 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력 못지않게 정신무장의 緊要(緊要)를 통절히 느끼게 하며 더욱이 군인에게는 강인한 멸공사상이 요구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일당 백기의 전기(戰技)와 아울러 정신적인 양식이 필요하다고 할진대 시공적으로 제약 받고 있는 군인들에게는 적극적인 자기계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방군인의 경우 진중(陣中)근무나 전투훈련의 여가에 또는 후방군인의 경우는 일과후의 시간을 선용하여 양서를 많이 읽음으로서 정서를 순화하고 사상을 가다듬는다는 일은 자신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 얼마나 유익한 일이겠는가. 전방에는 기본 일이 없어 알 길이 없으나 일부 후방군인들 중에 근무로 인한 피로와 시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4년간을 한결같이 야간대학에 나가 학업에 정려(精勵)하고 있음을 볼 때 한없는 기쁨을 느끼게 한다. 그들이라서 종일토록 근무에 시달린 피로한 몸을 안일한 다방의자에 묻어 풀어볼 의욕이 없는 것은 아니라. 요사이 도시의 다방들을 드나드는 족속이나 회전당구대와 마주서서 매일을 소일하는 무위종식군(無爲從食群)과는 너무나도 호대조(好對照)거리라고 여겨진다.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나 큰 과제가 많이 가로 놓여 있으니 퇴폐하였던 사회풍조를 물리치고 청신한 기풍을 다시 바로 잡으며, 위축되었던 국력을 최고도로 증강함으로써 자손만대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의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그것이다. 내뿜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아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을 어찌 군인들에게만 기대할 것이라하는 타태(懈怠)와 안일의 악몽 속에 깊이 잠들었던 이 국민 이 사회를 바로잡기 위하여는 군인들의 일거일동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막중한 현실인 까닭에 큰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일과 후 가정에 돌아와 가사와 자녀교육에 충실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후방군인의 모습이나 모처럼의 휴가로 귀성한 군인이 휴식이란 생각지도 않고 가사를 정리하며, 농사를 힘껏 거두고 돌아가는 일선군인들의 가특한 모습은 수신제가의 윤리를 넘어서 향토 개발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본다.

휴전 이래 전후방 군인들이 주둔지역의 문화발전과 산업개발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재해지역의 재건사업에 동원되고 있으며, 농번기에 각 부대 장병이 일치단결하여 대민봉사를 함으로써 후방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는데 이는 실로 국민의 군인이요 국민을 위한 군인임을 상징하는 미거(美擧)라 본다.

또한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막론하고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는 한편 자기 자신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생관과 가정을 보살피며, 사회에 봉사하고 전하는 생활태도를 가질 때 이는 직접적으로 강군(強軍)에의 첩경(捷徑)이 되는 것이요 국민과 국가를 위한 봉사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뜻한 인간성을 가진 군인을……

재덕을 갖춘 선비를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그 보다 호방한 용기와 인간미를 가진 무사를 흠모한다.



이대 국문과생 한정란

언젠가 하학(下學) 버스 안에서의 일이었다. 별로 사람이 많지 않은 버스 속에서 나는 별안간 떠밀리며, 발을 밟혀 부지중(아야!)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의외로 내 소리가 컸던지 물려 서 있던 친구들이 한바탕 웃어준다. 나는 하얀 양말이 형편없이 밟힌 것은 둘째 치고라도 어쩌나 발등이 아픈지 잠깐동안 아무 소리도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었다. 그러자 옆에서 땀냄새를 확확 풍기던 군복의 아저씨가 머리를 숙이고 대단히 죄송스럽노라고 하면서 진정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일은 사람 많은 버스 안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 특별히 화를 낸다거나 하는 것은 도리어 어리석은 노릇이지만 뺨질뺨질한 신사차림이 여자들의 발을 밟고도 상대방은 보지도 않고 입으로만 그저 미안하다고 할 때에는 없던 화도 나는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런 정도도 사실은 인사성이 있는 편으로 보아주고 있는 바이긴 하지만—

그래서인지 나는 밟힌 발등이 불이 나는 듯 아픈데도 일결에〈괜찮아요〉해 버린 것이다. 김북게 탄 얼굴을 땀으로 번들거리며 배낭을 힘겨우게 지고, 역시 땀 배인 군복으로 버스에 오르면 차장들은 으레 표독스럽도록 불친절한 대접하는 것을 시내 버스에선 가끔 보아 오는 일이다. 그래서 좀 전에 버스 차장과 옥신각신 언성을 높여 실경이를 하는 군인을 우리는 별 다른 관심을 기울이진 않았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흔들릴 정도로〈나는 일선에서 온 휴가장병이닷〉하고 껍 소리를 질러 버스안의 시선을 끌었던 그 군인이 육중한 군복으로 나의 발을 밟았던 것이다.

차장은 휴가 장병의 호통에 절금해서 입속으로 뭐라 종알거릴 뿐 다시는 아무말도 못했고, 우리 승객들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의미있게 서로를 쳐다보는 품이 부당한 것에 대해서 용감히 호령할 수 있는 씩씩함에 감탄한 눈치였었다. 안이한 생활태도를 견지하려는 극도의 이기적인 생리에서 자기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에는 거의 관심을 표하지 않으려는 습관을 가진 도시인들은 어리둥절해 있는 휴가장병에게 생트집을 짜다시피 하는 차장의 행동을 옆에서 말리는 일이 거의 없다. 군인들은 대개는 몇 마디 말을 하다가 냉정히 구경하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책피한 듯이 보통은 호지부지한 결론을 맺고 만다.

그런 것을 보고나면 어쩐지 상쾌한 기분은 아니다. 아니 우울할 정도다. 작은 일이지만 끝까지 자기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떳떳한 용기가 그 군인한테서는 아쉬운 것이고, 돌처럼 싸늘한 두뇌의 타산적 도시인의 잃어가는 인간애가 그리운 까닭에서이다. 무지스럽도록 아프게 발등을 밟은 군인의 꾀꿇함에 나도 모르게 믿음직스런 기대를 갖게 되었던 것도 아마 그래서인 모양이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실례하는 사람에겐 화를 좀 내도 되는 것인데 아픔을 무릎쓰고〈괜찮아요〉해버렸으니 말이다. 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무조건적 용서를 베풀수 있는 좋은 감정이 군인의 용감성에만 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발을 밟아놓고 커단 소리로〈미안합니다〉하고 외쳤다면 나는 아마 그가 용감한 군인이라기 보다는 차장과의 예로 보아서도 큰 소리 지르는 습성이 있는 사람쯤으로 알아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군인은 진정으로 미안한 듯이 얼굴을 붉혀가며 사과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극히 사소한 일에 부딪친 한 작은 예이지만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모릅지기 용감하고 반면에 진실된 인간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대라는 특수사회에서 영웅적 공훈을 세울 수 있는 용맹성과 부단한 투지의 남성적인 힘을 발휘하기엔 그리 힘든 일은 아니다. 그것은 남성이자면 별 노력 없이 세계 어느 구석에서나 옛부터 있어본 쉬운 사실이다. 그러나 용감하고 씩씩함 속에 진정으로 사물에 임할 줄 아는 따뜻한 인간성을 갖기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재주있는 사람이 덕을 겸비치 못하고 자기의 지혜에 빠져버리듯이, 완강한 힘 속에 어짐을 함께 하기란 그보다도 더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재덕을 갖춘 선비를 존경하고, 그보다 더 호방한 용기에 따뜻한 인간미 있는 무사를 흠모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군인을 원하는 것이다. 용감성 못지 않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인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군인일!

기아(飢餓)의 역사를 청산

우리 부대의 지도부락을 말한다

공군교재창(空軍教材廠)



씻어야 할 지난날의 상처

번잡스러운 도시의 소음을 피해— 영등포 대방동에서 멀어리「관악산」을 동쪽으로 쳐다 보며 협소한 계곡을 따라 들어서게 되면, 물과 개울을 여러 번 넘어질듯 걸게 되는 산협의 오솔길이 눈앞에 나타난다.

명색이 대 서울의 근교로서 불과 십리도 못되는 도심의 거리, 길 좋은 아스팔트의 공군본부 청사 앞을 지나 울퉁불퉁한 적은 언덕을 넘고 공사(空土) 뒷문을 쭈욱 지나서 다가서면, 험악한 지질의 덕분인지 사뭇 까푸락진 외길을 약 삼십분쯤 걷고 나면 문명의 혜택을 너무도 받지 못하고 있는 한촌이 눈앞에 들어선다. 여기가 우리 교재창과 자매결연을 맺은『경기도 시흥군 동면 봉천리』마을—도시에서는 그렇게도 혼한「버스」나「합승」한 대 지나지 않는 벽촌,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과 찌를 듯 솟은 저 멀리 민족의 영원한 기상처럼 웅장스럽게 굽어보는 관악의 기슭아래 다만, 조상들이 물려준 호미와 쟁이만으로 대를 이어온 이 적은 마을 밑 동면『은천 국민학교』와의 결연을 하게 된 건 지난 삼월 이십삼일—생동하는 계절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원래 천작이 농사요, 남을 속일 줄 모르는—오직 어질기만 한 이 부락민들에게도 여니 농민들과 같이 순박만으로 살수 없었던 어제의 고민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몸부림의 지난날 이었던 것이다.

해마다 계속되는 가뭄에다 몸이 으스스리도록 파헤친 메마른 땅은 기껏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해도 그 다음 해 봄이 되면 춘궁기를 면하지 못하게끔 되고 그나마 봄 동안 연명하노라고빌려 쓴 빚돈을 치루고 나면 해마다 생활은 점점 말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백여호 남짓한 이들 보금자리 화다리 부락민들, 기아와 절망 속에서 헤매던 지난 수년은 정말 악몽속의 나날이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이들은 혁명의 진의를 더 한층 느꼈는지도 모른다.

내일을 응시하는 화다리 부락민들

이제 주린 허리를 한껏 펴면서 내일을 응시하는 이 부락민들의 벽찬 의욕에 무섭도록 번져가는 재건상, 호미와 쏘스라기를 기운차게 내려찍는 모습은 정말 미더운 표정들인 것이다.

가난한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자리 잡은 은천국민학교의 어린이들. 혁명 1주년 기념식날 교재창 상사단 주최의 위문공연의 선전포스타가 나붙고 GMC 위의 산더미처럼 실려져 들어오는 이들 공연단 군인 아저씨들을 맞는 천진난만스런 눈망울 속엔 그저 고마움의 애교가 한결 넘쳐흘렀다.

이들 교재창 공군 아저씨들의 다사로운 자매결연 이후 어린이들에게 적은 기쁨이지만 가져다 준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도회지 어린이들처럼 갖고 놀 수 없었던 그네랑 운동구 일절 또는 놀이터를 만들어 준 고마움 보담도 비가 오나 눈이 내리나 위험한 부락입구에서 시작해서 등교하는 도로, 항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든 이 도로 확장공사야말로 마을 사람들에게 큰 반가움이었던 것이다.

결연으로 닦은 도로 군민유대의 상징

그 무더운 한 여름동안 매일 먼 길을 수십여명씩 다니며 땀별 아래서 근 수십 여일만에 완성한 이 길은 자매결연이후 가장 처음 시작한 공사였지만, 「군」과 「민」의 유대강화에 커다란 공헌을 한 효시였었다.



지도 부락을 위문하는 교재창 상사단

한푼 두푼 정성어린 모듬으로 돼지 두 마리와 토끼 열 마리를 선물 받은 이들은 벌써 이 부락민들의 만만치 않는 큰 재산이 되었고, 아침저녁 들락이며 사료를 주는 이들 표정엔 흐릿한 내일을 그리는 웃음, 처음 농부들에게 나누어 준 농기구는 벌써 수확을 다짐하는 금년 농사에 뒤통수도 반가운 선물이었던 것이다.

역사적인 결연식날.

화다리 부락과 교재창은 큰 잔칫날이었었다.

기념식에 이어 벌어지는 공군 아저씨들의 군악연주엔 저마다 남녀노소 없이 킁킁한 막걸리에 얼굴을 붉히면서 흥을 돋구었고, 명절때만 입던 나드리옷으로 모여든 원 마을엔 가을

운동회 못지않은 대운동회가 벌어졌으며 계속하여 저녁엔 마을 사람들을 위안키 위하여 영화가 상영되어 고된 하루가 밤새는 줄 몰랐던 것이다.

가난 추방에 부락민들 총결기!

가장 존경과 신애로써 혁명주체가 된 군인들의 믿음직한 모습은—뭔가 돕기 위해서 지도부락을 찾는 젊은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각오를 갖게끔 했었다.

기아(飢餓)

이건 너무도 뼈저리게 느껴온 우리들 어제의 역사. 절망과 기아는 몸서리쳤던 과거의 전설이다.

속담에『가난은 나라도 구제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또한「가난」은 원래부터 우리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유물이 절대 아니다.

이조중엽부터 시작한 4색당쟁은 가난을 가져오게 한 주인인이 되었다는 지난날의 얘기 보담도, 민족성이 가진 허망된 꿈 때문에, 그리고 해방이후 독재정권의 부패정치로 인한 농민을 등한시한 썩은 정치 때문에, 우린 긴박성을 깨닫지 못한 것이며, 타개 못한 원인이 우리들 국민각인에게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혁명이후 절실히 사구되는 문제라고 이제 누구나 의심치 않는 것이다.

허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은 선조가 물려준「가난」을 자탄(自歎)치 않는 것이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손으로 한결같이 마음을 모아

『산에 나무를 심어 홍수를 막고,』

『뚝을 쌓아 저수지를 만들어 관개를 하고,』

『개량된 농사로서 발달되는 농촌을 건설하고,』

『부업을 장려하여 생활수준을 높이며,』

『끝없는 생활개선으로 나온 고장을 건설하자』는

의욕적인 욕망은 이들의 가슴속에 큰 환희를 가져다주며, 희망적인 사상을 싹트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농민들을 위해 강력한 영농정책을 강구했고, 비록 군대에 머문 그들의 아들과 손자들이지만 굶은 뼈마디의 팔뚝을 걷어 붙이고 재건에 앞장을 섰다. 이에 보답키 위하여 부락민들과

고아원과 연결 우리 부대의 지도부락을 말한다.

40보급분창

동래구에서 해운대 쪽을 향하는 국도를 따라 약 2km 가량 차를 달리면 왼편 산기슭 숲속에 마치 그림이라도 보는 듯이 아담한 목조 건물들이 띄엄 띄엄 산재하며 영롱한 산새들의 지저귀고도 같이 단란한 어린이들의 쾌활한 웃음소리가 쏟아지는데 바로 이곳이 이제 우리가 찾아보려는 대생보육원이다. 왜 대생보육원이란 이름이 그들 130여명의 대명사가 되었는가? 하고 뜻을 알아보니「하늘처럼 크고 바르게 신의 뜻을 이어 받아 쌓아보자」는 뜻이라 한다. 우리 일행이 보육원의 문을 밀고 들어서니 여기저기 흩어져 유심히 놓고 있는 10여명 원아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하면서『재건합시다』의 인사를 내방객들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던져 준다. 이러한 그들의 음성과 태도에서 이 보육원 경영자들의 숨은 노고를 엿볼 수 있었다. 이 고아원은 나이가 이제 열살이다. 그렇게 오랜 역사는 아니래도 우리나라 안에 산재하는 다른 고아원에 비하면 그 나이가 어린 측은 아니다. 원래 이 고아원이 탄생될 무렵에는 K9 지구에 주둔했던 미군들의 뒷받침이 컸었고 동시에 해운대 지구 미 탄약 부대의 원조도 컸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차츰 미군 부대의 철수와 그들 원조의 감퇴는 이 연약한 고아원 130여명의 생명선에 큰 위협이었다고 한다. 현재에 이르는 건물 16동쯤 되는 것도 미군들의 폐옥으로 되어진 것이며, 몇해전「사라호」태풍때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도 역시 태풍 경기가 전해지면 제일 골치요 걱정덩어리라고 한다. 우리 부대에서는 이 사실을 마음에 두고 혹 어떤 기회에 도울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연구중에 있다.

현재의 원장인 유종식씨는 열성 있는 사회사업가로 이 고아원은 2대째로 경영을 물려 받아 살림을 꾸려 나간다는 것이다. 그의 선친은 정말 넘치는 애정으로서 부모를 전쟁통에 잃고 거리를 헤매는 전쟁 고아들을 친자녀와 같이 뱉어 돌보다가 너무 지나친 과로로 말미암아 애석하게도 불귀의 객이 되었다고 전한다. 그의 부친의 유지(遺志)를 이어 받은 현재의 원장 유종식씨는 아버지의 정열 이상으로 어려운 고아원 경영을 묵묵히 꾸려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육원 경영자들의 성의에 우리도 감복되어 기회를 얻을 때 마다 성심껏 원조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일례를 들면 폐품처리가 있을 때 마다 조급식의 도움을 제공하여 당 준공실에서도 정신적으로 그들의 훈육과 또 부대를 통하여 명절 때 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와 전선 등 기계를 제공했고, 시멘트의 양은 비록 많지 않았으나 상당한 수량을 주었고 앞으로도 수도시설에 후종의 원조를 구상중에 있다. 우리 부대는 이렇게 수시로 그들을 돕고 있다. 그들 역시 우리의 보담에 눈물로 감사하며 그들 자신들의 재건에(앞으로는 원조 없이도 자립할) 총력을 기울이는 바라고 원장 유종식씨는 말한다. 우리는 귀로에 그 낭랑한 어린이들의「재건합시다」의 전송을 들으면서 대생보육원의 문을 밀고 나왔다.

은천국민학교 어린이들은 식목일을 전후해서 알뜰한 정성으로 묘목 다섯가지로 천여그루 넘게 또한 담배로 보내왔다.

학용품 선물로 영화도 보여주고

메마른 도회의 마음에 푸른 나무가 필요한 걸 그들은 깨닫고 보낸 것은 물론 기지미화를 위해 사방 둘러가며 심은 나무들은 벌써 짙은 녹음을 만들었고, 휴식하는 여가에 장병들은 부락민의 고마움에 피는 꽃잎에 입을 맞추기도 한다.

지도부락—

불철주야 대공군의 후방지원으로 여념이 없는 장병들은 지도부락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항시 뜻있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공장에서 책을 만들던 문관고원(文官雇員) 아가씨들은 지도부락 어린이들을 위해 잘라진 파지로서 일손을 멈추고「노트」접기에 시간을 나누기도 한다. 다행히 교재창은 교재를 제작하는 부대라 파지취급을 하기 때문에 노트를 만들어 보낼 수 있는 다행이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별써「노트」선물은 수백여권이 넘었다.

틈틈이 영화를 상영키 위해서 차가 들어서면 그날밤은 웬 동네가 야시(夜市)를 이루어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팔십 노인까지도 구경하러 오는 것이며 대개 문화영화에서 시작해서 계몽적인 영화, 또는 극영화에 이르러 기까지 좋은 교훈을 줌과 동시에 고된 종일을 위안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가난정 오는정에 청산되는 기아(飢餓)의 역사

이제 화다리 부락도 결실하는 계절이 눈앞에 다가왔다.

한 동안 내리지 않은 비 때문에 목이 타듯 아우성치며, 간장을 조이던 논농사나 밭농사도 예상외로 풍년을 예약했고 마지막 거둠을 기다리는 마을 사람들의 구릿빛 얼굴엔 연방 땀방울이 맺히며 미소가 맴돌고 있다.

수시로 찾는 장병들의 발걸음이 지나면 마을 사람들은 연신 반가운 인사가 오고 간다. 우선 군인이라 하면 옛부터 경계하고 꺼리던 대접이 이제 한결 친근해졌고 서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고마운 현상인가?

<끝>



중공의 삼보후퇴 —산아제한 정책을 중심으로—

모택동(毛澤東)

1955년, 주은래(周恩來)는 전 세계의 공산국가는 절대로 산아제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맑스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면 산아제한은 이단(異端)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 후의 중공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최근의 중공은 그들의 골칫거리인 인구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결과부터 먼저 밝혀보면 중공은 지금 본격적으로 산아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그들은 말하기를『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은 적당한 산아조절을 촉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맑스주의에 보다 충실하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놀랍게도 이 문구는 중공이 1957년 3월에 산아제한을 법률화하는 포고문의 한 귀절이었다.

이 포고에 의해서 중공전토에는 산아제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면서도 주은래는 1955년의 자기가 선언한 산아제한의 이단설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설명도 해명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또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산아제한 공포 8개월 후인 1957년 12월에는 한 마디의 설명도 없이 것처럼 미친듯이 전개되던 산아제한 운동이 전국적으로 갑자기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이에 대한 해명은 이듬해인 1958년 5월, 당대회에서 행한 모택동의 말에서 간신히 나타났다. 그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급속히 팽창해가는 우리나라의 인구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하는 자산인 것이다』라고—.

「군자 일인은 불변」이라는 문자는 중국 사람들의 말이다. 그러나 주은래와 류소기(劉少奇)는 모택동의 말에 따라서 그「군자일인」을 표현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인구는, 그리고 그 인구가 가진 피와 살은 중공의 위대한 힘의 상징이다. 우리는 이 위대한 인구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목적하는 모든 부문에 가능성을 한결 높이는데 필요 불가결한 기반이다』라고.

주은래는 당대회에서 이렇게 외침으로써 만장의 갈채를 받았다.

1955년, 맑스주의에 비추어 산아제한은 이단이라고 외쳤을 때 역시 박수갈채를 받았고 1957년 5월에 산아제한을 입법화하고 포고문을 발표할 때에도 동일한 박수갈채는 받았던 것이다.

중공의 정책입안은 모든 것이 박수갈채와 정비례한다. 조령모개와는 관계가 없어…….

주은래가 산아제한은 이단이라고 설파하였을 때「인민일보」는 사실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던 것이다.「중공은 자원이 풍부하고 자연적 조건이 좋은 광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방대한 인구도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저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그들은 필요하면 표변도 할 수 있고 돌변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이나 표변하고 돌변했던 중공의 산아제한 문제는 이제 또다시 표변하여 산아제한 운동이 적극적인 양상을 띄고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중공의 변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캐치해야 할 것은 이 점인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전반적인 면에서 전략적인 후퇴를 하고 있다는 일측면이다.

방금 전개되고 있는 중공의 산아제한은 그 방법의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그것은「산아제한」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가족계획」이라는 말로 바꾸어졌다. 그리고 그 이유에도 인구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산아제한」「산아조절」이라는 용어는 그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하등의 법률 없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방금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산아제한 운동의 선전문구는 다음과 같다. ①조혼을 하면 좋은 자녀를 낳을 수 없다 ②일찍 자녀를 가지면 노곤할 시간이 없어진다. ③자녀를 일찍 가지면 아내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빼앗기고 남편은 자기비판할 시간을 빼앗긴다. ④교육시키는데 필요 이외의 돈이 든다. ⑤그러므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이 늦어지고 노동자는 불행해진다.

방금 중공에서 라디오, 신문, 잡지, 학교, 강연회 등에 남자는 26세 여자는 23세까지 아버지가 되지 말고 어머니가 되지 말라고 떠들고 있다. 피입법 강연회가 열리고 산아조절 진료소가 활기를 띄고 있다. 「중공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자연적 조건이 좋은 광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방대한 인구도 수용할 수 있는 여유」는 그 빛을 잃게 되고「급속히 팽창해가는 우리나라의 인구는 객관적 사실로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하는 자산」도「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인구는, 그리고 그 인구가 가진 피와 살은 중공의 위대한 힘의 상징」도 그 자취를 한마디의 해명도 없이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그들이 엄청난 인구증가에 당황하여 맑스의 가르침을 돌볼 겨를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에 틀림이 없다.

지금 중공정치국은 1957년 3월로 완전히 후퇴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단설은 신앙적 신조가

되는 것이다.

1958년 12월, 많은 교수들이 우파, 반동분자로 몰려 손발이 묶이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1957년 3월 이후, 산아제한의 변호를 지시받고 그 이론을 폄하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교수들이 이제는 또다시 손발의 자유를 얻어 산아제한의 이론을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그 근본을 캐어보자. 실은 1956, 57년은 중공으로 하여금 오늘의 불안을 가져온 예고편과 같은 해였다. 말이 아닐 정도로 감수된 수확, 추진중이던 공업계획의 중단, 넘쳐나는 도시의 실업자, 급진하는 인푸레—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모든 계획을 조석으로 변경케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실패가 정치국 내의 온건분자들의 기세를 돋구었다. 산아제한이「가족계획」으로 변모하여 다시 기세를 올리게 된 것은 정치국 내의 온건분자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같은 중공의 현상이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실패를 자인 고백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른바「백화제방(百花齊放)」운동의 참담한 실패에 대한 비난은 모택동으로 하여금 당황케 하였다. 모든 산아제한을 극히 반대하면서도 이제 그는 싫어 싫어 하면서 온건파에 항복한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모택동은 그의 전범인 일보후퇴 이보전진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일보후퇴가 아니라 공산주의로서는 치명적인「삼보후퇴」를 깨끗이 범한 셈이다. 왜냐 하면 여기서 말한 산아정책의 부활은 그것에 국한된 하나의 후퇴가 아니라 중공정권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일측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후퇴한 것은 산아제한 정책만이 아니다. 모든 전반적 정책이 이것과 같이 하였다는 점이 방금 중공내에는 패배주의 기색이 짙은 구름처럼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모든 정책이 실패하므로써 삼보격인 후퇴를 여지없이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코노미스트」지에서)

백림(伯林)문제의 신화 —공산주의자가 노리는 것—



후루시초프

백림(伯林)문제처럼 문제의 소재가 명확하면서도 해결의 방법이 것처럼 불명확한 문제는 없다. 그것은 마치 의사가 진찰을 해서 병명을 명확히 파악했음에도 치료방법이 없는 그러한 병과 같다. 그 치료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병자는 자꾸만 중태에 빠져가는 꼴이다.

지난 8월 13일, 이른바「백림의 벽」일주년을 맞으면서 백림문제는 또 다시 의사들의 처방의 논의 대상으로 일어났고 한편에서는 그 무서운 병마에서 벗어나려고 백림 성벽을 도망하는 동백림 시민을 동독 경찰은 무자비하게 쏘아 죽이는 폭거로 나오고 있다. 이 폭거는 보다 더 무서운 병을 유발할 뻔 했다. 그것은 무자비한 동독경찰의 충격에 격분한 서백림 시민들이 동독에 투석했던 사태였다. 이 투석사태는 자못 심상치 않은 사태로 확대될 증조가 농후했으나 미군당국의 적절한 조치로 수습되었었다.

그런데 이와 때를 같이하여 후루시초프는 동독을 집어삼키려는 그의 프로그램을 강행했다. 그는 보스토르크 3, 4호 비행사 환영 연설장에서 판에 박은 그 구호,「서독에서 서방군은 철퇴하라」고 떠들고 나서 동백림에서 소련사령부를 폐지하고 일방적으로「점령체제」폐기를 선언하였다. 이 조처는 소련의 목적인 동독괴뢰 정권과 단독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하지는 이미 작성된 프로그램의 코오스를 밝게 되리라는 것은 뻔한 일이다. 소련의 목적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서방으로 하여금 동독공산정권을 억지로라도 승인케 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소련이 노리는 것도 뻔한 것이다. 그것은 소련이 동백림에서 점령상태를 종결시키면 서방측은 서백림과 서독간의 연락은 서방측이 아무리 싫어도 동독괴뢰정권과 교섭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은 사실상 동독 공산정권을 승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가령, 이렇게 해서 소련은 동독국(東獨國)을 만들어 내었다고 하자, 그러나 이렇게 해서 생긴 동독정권이라면 그들이 어떠한 강변과 궤변으로 엮어댄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일 인민을 기반으로 해서 생겨난 정권이 아닌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 증거를 들어보자.

그들은 동독(統獨)자유선거를 완강히 거부해 왔다. 이것마저 숨기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 첫째의 증거다. 그들은 백림시중에 그 흉칙한 벽을 쌓아올렸다. 그들은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둘째의 증거다.

그들은 공산동독이 싫어서 그 벽을 뛰어넘어 서백림으로 탈출하는 시민을 무자비하게 쏘아 죽였다. 죽은 사람이 있는 이상 이것을 숨길 수는 없다. 이것이 셋째의 증거다.

이보다 더 뚜렷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이처럼 뚜렷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측은 동독의 불행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그것은 오늘날처럼 핵무기로 장비한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이 배후에 버티고 있는 이상에는—아무리 반대하고

세계 여론이 떠들어 대어도—(적어도 오늘의 형편으로서는) 그와 같은 반대운동 세계여론도 통하지 않는 곳 이 바로 소련 공산주의 광신자들인 것이다.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일단 동독정권을 사실상 승인해 두고(현재 의 긴장을 완화하고) 그 뒤 참을성 있게 동독영내의 인민들에 작용하여 그 들로부터 밑에서 자유화를 촉진 시키는 길이다. 그러나 이것은「공여의책」이 아닐 수 없다. 케네디 대통령도 맥미란 수상도 은근히 이같은 생각을 가진 눈치를 보였다고 전해져 있고 독일인 가운데에서도「야스파아스」 「구로오만」과 같은 학자들이 이런 의견을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가사 이 안(案)이 성립을 본다 하더라도 전 독일국민은 결코 이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이두는 것이 온당하다. 왜냐하면 첫째, 눈앞에서 자유를 찾아 동백림을 탈출하는 시민을 주저 없이 사살하고 있지 않느냐. 이 날도독의 집단을 어찌 승인하겠는가 하는 것이 일반 독일인들의 공통된 감정이다.

만일 그들을 승인한다면 그들은 더욱 기세를 올릴 것이며 서독마저 집어 삼키려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독일인의 주장은 당연하고도 남음이 있다. 누가 이같은 독일인의 주장을 나쁘다고 들고 나올 수 있겠으며 그러한 생각은 잘못이니 집어치우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그렇다고 다른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이르러 누구나 말문이 닫히고 만다.

동독의 악의 상징

—울부리히트라는 인물은?—



울부리히트

대체로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에 비해 것처럼 포악하지는 않다는 평이다. 그런데도 동독문제에 있어서는 것처럼 스탈린의 방식을 답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동독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가 공산주의자인 이상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만일 동독을 놓친다면 구라파의 전 위성국은 모두가 붕괴하고 말 것이니까.

동독에는 오래전부터(스탈린 비판 이후)「동독의 소(小)스탈린의 수명은 얼마나 남아있는가?」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 스탈린과를 뿌리째 뽑고 있는 후르시초프는 소스탈린 울부리히트를 언제 숙청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이다. 서방측에는 울부리히트가 제거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서방측이 그의 제거를 원하고 있다는 자체가 울부리히트의 수명을 보다 연장시키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적어도 울부리히트가 제거된다면 백림문제는 지금보다 완화될 것으로 서방측은 보고 있다.

울부리히트는 현재 동독주민들은 물론 동독괴뢰정권, 그리고 당내에서도 지지자가 거의 없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 증거로는 대회나 집회에서 수상「크로테울」의 연설에는 박수가 있어도 사실상 실권자 울부리히트의 말에는 박수가 없다는 것이다.

동독주민들은 공공연한 비밀로 울부리히트를「악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소련에서는 스탈린을 포악무도한 인간으로 지탄하고 있지만 울부리히트가 스탈린의 충실한 친구였으며 그의 비호로 오늘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산주의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가「악의 상징」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것은 주의나 사상과는 별개로 하나의 인간으로, 즉 인간성으로서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나치스 정권이 수립되자 독일 공산당은 지하로 스며들었다. 그 당시 울부리히트는 아직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다. 당시, 독일공산당 당수는「테이르만」이었다. 테이르만은 당원으로 부터 추앙을 받았고 인물로서도 독일인들로 부터 인기가 있었다. 이 테이르만이 체포 투옥되자 울부리히트는 독일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농간하여 지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당시 공산당원들은 종전 후에 찾아오게 될 정세에 희망을 걸고 소련과의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울부리히트를 사실 인물 이상으로 과대평가하여 크레프린에 보고하였다. 이때 울부리히트는 파리에 있으면서 자기의 업적을 허위 날조한 문서에 스스로 싸인을 해서 모스크바에 보냈던 것이다. 그러자 이 허위보고가 탄로되어 스탈린의 지탄을 받게 되었다. 이때 그는 자기를 위해서 허위보고를 작성한 위원들을 트로츠키파라고 모함하여 자기의 입장을 모면하였다. 때문에 모함 당한 중앙위원들은 모두 숙청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울부리히트가「악의 상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테이르만을 모함하여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된 후, 히틀러는 테이르만을 석방하여 소련으로 넘겨줄 용의가 있었는데도 이것을 알게 된 울부리히트는 가진 수단을 다해서 방해하고 결국은 옥중 에서 살해당하게 했던 것이다.

울부리히트는 당 내에 자기의 사병을 양성하고 당 내의 라이벌을 하나하나씩 잡아먹었다. 이것은 스탈린

의 수법 바로 그것이었다. 오늘 동독 외 국가보안상「에릿히·밀케」는 일찍부터 울부리히트의 복심이다. 이상의 사실은 그 옛날 독일 공산당 영수로서 스탈린에 의해서 숙청당한「하인츠·노이만」의 미망인「후바·노이만」의 회고록에 의해서 세상에 밝혀진 것이며 이 회고록은 오늘날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로서 학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일지(日紙)에서)

코메콘의 고민

—EEC에 대처하는 공산권—

현재의 국제경제정세에 있어서 공산권이 당면한 문제는 EEC(구주경제공동체)의 발전이라는 위협에 대한 대책과 이와 포리의 관계를 가진 공산권의 코메콘(동구경제상호원조회의)를 통한 경제협력체제를 재건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들은 EEC의 대책을 필요로 하면서도 EEC의 발전을 솔직히 인정하려 들지는 않고 있다. 그들은 인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떠렘마에 빠져있다. 이와 같은 그들의 고려는 최근의 소련 공산당 기관지「컴뮤니스트」8월호와 공산권 당 기관지「평화와 사회주의의 제문제」9월호에 발표된 후르시초프 논문, 뒤이어 소련 과학 아카데미, 세계경제, 국제관계 연구소가 제기한 테-제 등이 크레프린의 동요하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소련의 EEC 정책은 당초는 공식적인 맑스이론에 입각하여「독점자본의 시장분할의 연장이며 결국은 내부 모순으로 자기붕괴한다」는 견해를 내 걸었으나 공산권의 뒤집과 EEC의 발전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자 그 견해를 표면하여 EEC를 하나의 현실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후르시초프는 드디어 그의 논문에서 EEC의 성과를 솔직히 인정하고 나아가서는 EEC와의 국제분업에의 한 경제협력과 평화경쟁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논문은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23개국 맑스주의 이론가회의에서 논의 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전기한 소련 과학 아카데미, 세계경제 국제관계 연구소가 제기한 논문도 논의되었다. 이 회의는 두개의 논문을 중심으로 EEC 대책을 토의했으나 EEC에 대한 탄압적인 어푸로-치를 요구하는 이태리, 교조적 입장인 프랑스, 소련은 중국—이렇게 분열하고 말았다.

이같이 공산권이 분열하는 이면에는 공산권이 가진 경제적 약점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최근 3년래 폴란드를 제외한 전 공산권 나라가 농업부진의 만성화에 빠져있으며 공업성장이 둔화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에 중압을 가하고 있다. 공업우선의 공산권 경제가 금후로도 생산성의 향상을 유지해 가려면 서구의 근대적 기계 설비 기술의 수입에 의존하는 힘이 절대한 것이다. 이 수입에 대한 지불을 담당하는 것이 다름 아닌 농산물, 공업원료, 공업제품의 대서구 수출이며 서구의 그레딧트이다.

지금도 공산권의 대서구무역은 59년에서 61년에 걸쳐 25퍼센트 증대하였고 근년 중요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인데 폐쇄적 EEC의 성외(域外)상품에 대한 차별의 강화는 공산권을 서(西)지역에서 격리시키는 경향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산권은 EEC 와의 경제적 협력을 부르짖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EEC의 위협을 최소한도로 축소시키는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소련은 국제무역기구 설치를 제창하면서 최고 최저의 관세를 결정할 2중 관세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국제무역기구 설치는 그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매우 희미하며 EEC의 위협을 받는 중립국 측에 대하여 떠들어 대고 있다.

전례없는 소련의 군부대립



크로틴 소코로프스키

아이작크·드이차 <영국의 에코노미스트지>

현재 소련의 군정부 내에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각종의 병과(兵科), 특히 통상병력과와 해병력과 사이에 공공연한 논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한때 미국 국방총성에 있었던 논쟁처럼 소련의 장관이며 방위전문가들은 제각기 세론을 동원하고 압력단체를 움직여 대립하여 자기파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소련의 상식으로 볼 때, 군수뇌자간의 논쟁이 다소라도

표면화 하였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며 전례가 없는 일이다. 더욱이 정치적 수정주의의 강한 저류가 비판을 받고 있는 오늘날에는 충격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다.

지난 9월경, 모스크바에「군사전략」이라는 책이 나타나서 적지 않은 혼란을 일으켰다. 외국의 모스크바 주재 무관이나 저널리스트들은 서점에서 이 책을 입수할 수가 없었다. 이 책은 공산당원이나 군사전문가 등 극히 한정된 범위 외에는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은 최소 소련국방성 기관지「적성(赤星)」에 요약되어 비판적으로 취급되었다.

문제의「군사전략」은 소코로프스키 원수의 주재하에서 수명의 전문가가 집필한 논문집이다. 소코로프스키 원수는 슈코프 원수의 뒤를 이어 주독 소련군 총사령관을 지냈고 1953년에서 60년까지 육해군 참모총장이었다.

동 원수가 편찬한 책을「적성」이 비판한 것은 고급장교의 최고 교육기관인「후론제」군사아카데미의 총재 크로틴 대장이었다.

「군사전략」은 명백히 핵병력의 주장을 대표하고 있다. 스탈린 사후의 오랜동안 참모총장을 지낸 소코로프스키는 거의 군의 근대화 신병기의 개발, 전략사상의 혁신 등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의 재임기간 중 통상병력은 일관해서 삭감되고 그 편성은 축소되었으며 상비군의 장교단은 대폭적으로 제대되었다. 소코로프스키는 60년 1월, 참모총장에서 물러났는데 이것이 단순한 인퇴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사정책상의 전환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명확히 알려진 것은 소코로프스키가 각군 장교단의 반감을 산 것이다. 동 원수가 참모총장을 그만 두게 되자 병력삭감 계획은 중지되고 통상병력은 대폭적으로 부활되었다.

물론, 핵병력의 증강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핵로케트의 전략가들은 소코로프스키를 밀며 그의 소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크로틴 대장은「군사전략」은 보병의 역할을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가 시사하고 있는 것은 1960년까지 행해진 병력삭감은 전 참모총장인 소코로프스키의 잘못된 이론이 오도(誤導)한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크로틴이 문제 삼은 점은 결코 지나간 일만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그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는 물론, 장래의 통상병력에 대한 군사예산 분배의 규모도 포함해서 하는 이론이다.

물론「군사전략」의 필자들은 통상 병력의 역할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통상병력에 대해서는 장래의 세계대전에 있어서 결정적 단계에의 제2의적, 보조적인 기능 만으로만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이 원칙적으로 핵무기 사용에 하등의 제한을 인정치 않고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들은 소련이 이 같은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을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소련은 개전직후의 단계에서 미국에 결정적인 핵타격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필경은 핵무기에 의한 전격전의 이론인 것이다.

크로틴의 인용에 의하면「군사전략」의 필자들은,「우리들은 최단 기간 내에 침략자를 타도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열핵병기에 의한 공격은 전쟁의 제1단계에서 적의 군사, 경제적 잠재력, 군 통수부와 행정운영 체계, 전략적 핵무기의 예비와 군의 주력을 격멸 하는데에 있다고도 하고 있다. 필자들은 다시 소련이 대기권외(大氣圈外) 이용문제에 있어서 모든 제한을 벗어버리고 우주공간에 있어서의 모든 우위점을 전면적으로 군사에 이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소련이 인공위성을 수폭(水爆)운반에 사용할 것인가? 또 스푸트니크을 군사체제에 편입할 것인가? 이러한 센세이쇼날한 주장이 이 「군사전략」속에 들어 있는지 어떤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이같은 의논은 인공위성이며 우주개발을 핵로케트 부대의 효과적인 단일 감독하에 둘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같은 핵병력과 통상병력과의 논쟁의 성격은 외부로 흘러나오는 정치적 반향에서 짐작할 수가 있다. 크로틴인 소코로프스키팀이 단지 통상병력을 과소평가한데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소코로프스키는 군에 있어서의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바르게 말하는데도 실패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실로 의미심장한 비판이다. 보다 더 격렬하기는 했지만 슈코프가 당간부회로부터 추방되고 국방상을 해임 당했을 때도 그와 같은 비판을 받았던 것이다. 통상병력과의 스포스맨인 크로틴은 이렇게 해서 핵병력과 전략가의「정치적신용」을 손상시키려 하고 있다.

문제의「군사전략」은 1926년 이래 소련에서 출판된 전략이론 중 가장 중요한 저작이라고 독자에게는 소개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토롯츠키가 국방인민위원을 사임한 1925년때부터 소련의 전략사상은 사실상 답보(踏步)상태에 있는 것이다.

만약 당지도자의 정통성의 문제가 문제된다면 이 군부내의 논쟁은 보다 더 격렬하게 전개될 것이다. 또 논쟁은 필경, 예산분배 문제를 필연적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소련의 경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곤란을 생각한다면 누구나 이해가 가는 문제이다.

우리는 적어도 이상과 같은 소련군 부내의 의견대립이 소련 권력기구에 어떠한 파열을 가져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으로 좀체 보기 드문 소련의 군부군열의 징조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필자소개>

아이작크·도이처씨는 영국의 동구·소련전문가이다. 포옌드 태생, 동국 공산당원이었다가 1932년, 당에서 추방을 당하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귀화하였다. 씨는 에코노미스트지, 옵씨버-지에서 공산권문제 평론가로서 활약하고 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체제하의 매스·미디어

김기점(金基漸)
〈공본공보과장(空本公報課長)·공군중령〉

「매스·커뮤니케이션」이 현대 생활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제 등 각 부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거니와,「매스·커뮤니케이션」의 구조나 기능이 처하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제조건과 지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도 현저한 사회체제와 조건을 달리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사회에 있어서「매스·커뮤니케이션」의 상태와 양상을 비교해 본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극히 편이한 양상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편이한 양상이 노정(露呈)하고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당연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소비에트」연방의「매스·커뮤니케이션」은 현저한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한편 이것은 일면「소비에트」사회를 구성하는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조건에 적합하도록 조직되어 있고 또한 그 기능을 작용하고 있는 동시에「소비에트」사회체제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모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소련의「매스·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체제의 본성을 단면으로 포착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련자체의 여러가지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흔히 우리는 소련에 있어서는 모든 권력과 정치활동의 근원은 정부자체가 아니고「소비에트」공산당에 있다고 보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것은 「매스·커뮤니케이션」에 관해서도 결코 예외는 아닌상 싶다. 소련에 있어서「매스·미디어」(Mass Media) 즉 신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등의 모든「매스·커뮤니케이션」의 매체는 이것을 소유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영리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어 국유화로서 운영되고 있다.

엄밀히 말해서 법적 뒷받침으로서 소비에트 헌법의 제125조에는「…이런 시민의 권리는 노동자와 그 조직체에 대하여 인쇄소, 용지, 공공건물가로, 통신기관, 기타 이것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제조건을 제공하므로써 보장된다」라고 규정지어 있다시피 지배자와 그 조직체에 의해서만이 모든「매스·미디어」가 운영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엄격한 공산당의 통제와 감시 밑에서 각종의 당기관, 정부기관 그리고 각종의 노동, 학술, 청년, 부녀, 제단체와 군대 등에 의해서만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련의「매스·커뮤니케이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로서「소비에트」사회 체제 그 자체에 관해서 더욱이 소련에서의 일반인민중과 공산당과의 관계, 그리고 당활동의 단순한 매개기관에 지나지 않는 정부와 당과의 관계 등에 관해서 검토하고 그 근본인「볼셰비크」의 이론을 새삼 해명하여 두지 않으면 안되겠다.

왜냐하면 오늘날의「소비에트」사회주의국가와 사회체제가 있기까지에는 소련에 있어서「볼셰비크」이론이 그야말로「소비에트」체제를 구성하는 원리로 되어 있으며 공산당에 의한「매스·커뮤니케이션」의 전면적인 통제의 이론적 근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 현실에 있어 각종의「매스·미디어」의 조직과 기능을 규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렉스·잉켈레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증론(衆論)형성에 관한「소비에트」정책의 발전방향을 주로 결정지은 것은「레닌」의 사상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소련의「매스·커뮤니케이션」의 근본적인 검토와 연구를 가지려면 우선「레닌」주의의 이론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레닌」주의의 이론에 관해서 간략히 논고하고자 한다.「레닌」의 사상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레닌」이후의「소비에트」사회체제의 발전방향을 규정짓고 현실의「소비에트」연방의 제반제도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되어 있으며「매스·커뮤니케이션」에 관해서도 이러한 사실이 결코 열외될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소련의「매스·커뮤니케이션」의「매스·미디어」의 조직과 운영 및 방향을 결정지은 것은「레닌」주의의 이론이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레닌」사상의 시발점은 근로대중과「볼셰비크」즉 근로대중에는 계획적인 혁명정치활동의 전개에 불가결한 혁명적 계급의식과 혁명적 조직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혁명적인 정당인「볼셰비크」에 의해서만이 철두철미한 혁명이 수행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서「레닌」에 의하면「볼셰비크」야말로 근로자 계급의 전위대이며 직업적 혁명군의 조직으로서 집중화되고 고도로 조직화됨으로서 근로 대중의 지도적 역할을 다하는 집단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혁명의 중추적 집체로서 대중 속에서 그들의 지지를 얻으며「볼셰비크」가 진실로 근로자계급의 이익을 위해 모든 활동을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해시키고「볼셰비크」가 혁명을 수행하고 권력을 획득하려는 혁명과정에 있어서의 이론이었다.

그러나 이러한「레닌」의 사상은 혁명달성 후 금일에 있어서도 근로자 대중과 그 전술인 공산당과의 관계를 규정짓는 이론으로서 의연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소비에트」혁명 후 현금(現今)에 이르기까지의「소비에트」사회에서의 권력의 초점은 여전히 공산당이며 여기서 근로 대중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서 신뢰하여야 할 지도자가 바로 공산당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의 배후에는 항상「소비에트」체제만이 옳고「소비에트」의 지도자만이 인류세계의 방향을 알고 있으며 그들의 진리와 정의만이 승리하고 존재한다는 것인바 이러한 왜곡된 신념이 가로놓여 있음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공산당의 활동만이 유일한 진리에 기인하고 있으며 그들의 권력 유지와 확충(擴充)을 위해서는 가진 수단과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가소로운 사고방식과 병행해서 필연적으로「매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공산당의 전면적인 지배를 요구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따라「매스·커뮤니케이션」의 통제는 당의 임무수행상의 합당한 책임으로서 요구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합리화 하려는 것이다.

소련에 있어서의 모든「매스·커뮤니케이션」의 매체인 신문, 잡지,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등의「매스·미디어」는 이러한 이론적 근거로서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그 방향과 내용은 당에 의해서만이 결정되어야만 한다고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하간 이러한「매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사고방식은「레닌」이「소비에트 체제는 강제와 설득의 균형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과「신문은 집단적인 선전자이며 집단적인 근로자일 뿐 아니라 집단적인 조직자이다」라는 사상으로서 가장 단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레닌」주의의 사상은 소련에서의 신문의 자유와「뉴스」의 개념에 대한 사고방식에 있어서도 서구민주주의 제국의 그것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만하다.

소련헌법 제125조에는「……집회, 가두진행 그리고 시위의 자유와 더불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앞서 논술한 바와 같이 그것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적 제조조건은 근로자와 그 조직체에 제공하는데서만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고 보면 소련에 있어서의 신문의 자유란 진정한 신문의 자유라는 것이 독립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공공연하게 무산대중과 결부되어서만이 존재하는 당통제와 감시의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서구민주주의 제국에 있어서의 이의 휴업운영 조직의 자유로부터 표현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같은 자유를 침해 방해하지 않는 소극적인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통상인 것으로 양자를 비교할 때 근본적인 상위점(相違點)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레닌」주의의 이론적인「뉴스」를 다루는데 있어서 소련에서는「뉴스」사건 자체가 아니고 사회과정인 그「뉴스」이며「뉴스」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취급되고 있고「뉴스」의 주요항목은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 즉 주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비인격적 혁명공산당의 새로운 사회주의건설계획 같은 사회과정이라고 하는 점을 말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의「뉴스」의 주체와 가치 그리고 취급하는 내용과 의미란 또한 소련의 그것과는 전혀 달리하고 있음도 명백하다.

이러한「레닌」주의에 입각한 소련의「매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서 이루어지는「매스·미디어」가 여하히 조직되고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는 다음 기회에 미루고

우선「소비에트」체제와 소련방의「매스·커뮤니케이션」통제에 관하여 고찰코자 한다.

「소비에트」사회체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소련 공산당인 것이다. 그리고 소련의 공산당은 정부의 행정조직과는 별개로 소비에트 연방 전체에 걸쳐 가장 교묘하고도 치밀하게 또한 강력히 조직되어 운영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공정하리라고 본다.

공산당 당헌에 의하면「소비에트」연방의 공산당은 근로자 계급으로서 조직된 전위로서 강력한 조직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소련자체의 행정적 구조의 주요한 3계급 구분으로서 그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 소위「당세포(黨細胞)」로서 알려져 있는 각 직장 부락, 집단 농장, 군대 등은 단위로서 조직되어 있는 당의 최하부조직과 중간에 위치하는 연방구성의 각공화국 주 속령 등을 단위로서 하부조직을 통합하여 구성되어 있는 지방조직인 것이며 최고의 조직으로서의 말할것도 없이 막부(莫府)의 중앙기관이며「소비에트」전연방의 조직인 것이다.

이러한 중앙조직의 최고기관이 전연방당대회이며 그 집행기관이 당중앙위원회인 것이나 사실상의 정치권력은 중앙위원회 안의 소위 정치국(포르트·뷰로)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련공산당은「포르트·뷰로」를 중심으로 최고방침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각기 하부조직은 상부조직의 통제 밑에서 그 정책을 실천하게 되는 셈이나 각 단계의 당조직은 각기 응분의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의 활동에 대해서도 통제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서「소비에트」체제하에서는 정부나 그 하부제기관은 단순히 공산당 활동의 매개기관으로서 존재할 뿐이며 당에서 결정한 정책의 시행실천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도 과언은 아닌상 싶다.

이러한 점은 그러한 체제속에「매스·커뮤니케이션」의 통제가 있음직한

것과 실지 통제를 전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이 예외일수는 없다.

환언하면 소련방에 있어서「매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각종「매스·미디어」에 대하여 통제를 가하고 있는 것은 기실 정부가 아니고 공산당이며 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당중앙위원회 밑에 조직되고 있는 선전선동국이다.

정치국으로 직속하고 있는 이 선전선동국은 당의 지도자가 인민 전체의 목표로서 결정한 장기 단기계획의 모든 목적달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지지활동과 독려선전 그리고 소련에 있어서의 여론조성 혹은 변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국의 기본적인 정책 결정 범위 내에서 선전선동국은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일반적인 방침결정 과 특수행동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또한 선전선동국은 당의 결정은 대중에게 전달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원 획득을 위하여는 한편 대중의 동태와 인위적 의견을 지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매스·미디어」의 실지운영의 주체가 아니고 다만「매스·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방침의 결정과 이의 통제에 임하는 것이며 어디까지나「매스·미디어」를 운영하는 다른 관계(信製)조직에 대한 지휘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다하기에는 선전선동국은 당원과 비당원의 지식층에 대한 선전을 임무로 하는 선전부 근로자계급의 정치활동 교육담당인 대중선동부 도서관 박물관 그리고 지방문화부 등의 활동감독을 하는 문화계 봉부 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신문부는 신문이나 제반 정기 간행물과 도서출판의 통제 감독과 신문인 훈련배출 이동 등을 주임무로 하고 있으며 영화방송에 대해서는 원래 영화성(映畫省)과 전연방「라디오」위원회가 있어 직접 관할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선전선동국의 특별부서에 의해 통제 되고 있다.

이밖에도 연극가 음악예술인 문인, 화가 등의 감독에 임하고 있는 예술부 과학부 학교부 등 세분되어 엄밀하고도 교묘한 구조와 감독을 전문분야별로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선전선동국은 전연방에 걸쳐 광범하게 하부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최하급 세포에는 그 조직의 선전과 선동활동에 책임을 지는 서기(書記)까지 배치하고 있다. 또한 중앙의 선전선동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능을 갖고「매스·미디어」에 대하여 자기비판과 장래의 방침까지 지시하고 많은 당원을 각부간부로서 잠입시켜 엄격한「매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모든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사회체제하의 모든「매스·커뮤니케이션」은 오로지 공산당의 종속으로 모든 활동은 통제되어 감시감독의 테두리 안에서 조직운영되고 방향내용까지도 철저한 당 정책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진정 일반대중의 현대 사회생활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자유로이 전개되고 있는 서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 체제하의 그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은 재언의 여지가 없거니와 이러한 소련의「매스·커뮤니케이션」이 인간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존재가 아닌 것은 물론 이유를 추구하는 수단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보면 어디까지나「소비에트」체제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고「맑스」나「레닌」을 전제로 해서만이 존재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소련공산당의 강력 한「매스·커뮤니케이션」의 통제가 앞으로 어떻게 자유세계에 대하여 가일층 박차를 가하여 도전해온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과학의 고도화된 발달은 각종「매스·미디어」의 전격적인 개척과 진전을 가져오고 있어 이에 대처할 준비가 자유민주사회 체제하에서의「매스·커뮤니케이션」의 또 하나의 긴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그런데 지난 7월 10일 미국이「텔스타」중계 인공위성은 우주궤도에 올려놓음으로서 전파송수신 기술에 일대 혁명을 가져온 사실은 소련에 앞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시하고 앞으로의「매스·커뮤니케이션」에 새로운 분야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특히 소련에 앞서 민간인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요컨대 소련에 있어서의「매스컴」의 본질은 그것이 철저하게 한 방편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말대로 한다면 사회의 추진력으로서의 저력구실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공산당의 문화정책의 일환을 이루는 것으로서 상식에 속하는 문제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매스·컴」의 활용은「매스·컴」이 지닌 기본적 성격을 틀어잡고 어느 의미에서는 그 약점을 역이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즉 여론의 형성과정이나 그 요인을 염두에 두고 대국적으로 일정한 방향을 정부나 당이 잡는다는것이 그것이다.

어떤것을 구하지 않고 발견하려고 하는 것. 질문하기를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인생의 수수께끼에 대한 최후적인 회답을 얻으려고 기대하는—이것은 이제까지 고찰된 가장 로맨틱한 종류의 이실주의(理實主義)이며 아무것도 줌이 없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기묘한 처사이다.

“Everyman his own historian” American historical review, X X X VII (1932, 233; Reprinted in everyman his own historian (1935), 250; <U·S뉴스&월드 리포트 지에서>

가상(假想)한 미소(美蘇)의 피해추산

만일 미국이 소련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즉시 보복하여 상대방을 폐허화시킬 것이다. 소련이 미국을 기습해 온다면 도대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전략상의 연구로부터 기술해 보기로 한다.

미·소 양측에서 1억인이 폭사(爆死)

1962년 x월 x일. 미국동부시간으로 오후 5시에 후르시초프가 그의 지휘하에 있는 전 병기를 동원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하였다고 하자.

이 공격과 이것에 계속될 일련의 공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군부 지도자의 최근의 추정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사상자의 수는 가공하리만큼 많다.

12시간 이내에 미국에서는 3천만명이 사망하고 산업능력의 삼분지일 이상을 상실할 것이다. 그 후 사망하는 수까지 합치면 1억인 이상에 달할 것이다.

한편 소련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자 1억명, 산업 시설은 폐허화되고 위성국은 반란, 후르시초프의「제국」은 혼란해질 것이다. 후르시초프는 수폭미사일의 단추를 놀림으로써 소련을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될 것이다.

미전략기지 전멸

전쟁의 비참한 지옥상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오후 5시. 워싱턴에서는 관리들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데트로이트에서는 상번(上番)하는 노동자들이 교대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실업가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이때, 네브라스카주 오마하 교외의 지하 14메타에 자리 잡은 전략공군사령부(SAC)의 붉은 신호등이 갑자기 반짝거리며, 부사가 요란스럽게 울렸다. 알래스카와 그린랜드에 있는 레이더 정보망으로부터의 비상정보였다. 즉시 긴급전투지령이 내려졌다. 80개 기지에 있는 전략공군대원은 비상소집 되었다.

대통령도 경보를 받았고 연합참모 본부에도 통고가 갔다.

15분후인 하오 5시 15분— 오마하와 그 근처에 있는 카운실·블러스의 상공에 갑자기 한순간 눈도 뜰 수 없는 섬광이 비치더니 푸른 하늘은 청백색으로 변해버렸다. 흰빛이 없어지기도 전에 2십만 명이 즉사해 있었다.

소련의 핵폭탄은 미사일 기지를 노리고 있었다. 샤이엔(와이오밍주), 스포케인(와싱턴주), 덴버(콜로라도주), 토 페카(칸사스주) 등의 기지가 산산이 파괴되었다. 전국에 산재해 있던 SAC 기지도 불타버렸다. 방공사령부도 파괴되고 군사통신망도 피해를 입었다.

한편 미국의 연안 밖에서는 소련잠수함이 떠올라서 유도탄을 비같이 연안도시에 퍼부었다. 동부해안의 찰스톤(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는 미국의 폴라리스 유도탄의 집적지구와 시가의 반이 파괴되었다. 노퍼크(버지니아주)나 서해안의 샌프랜시스코, 산디아고(캘리포니아주)의 해군물자 집적소도 같은 운명을 보였다. 로스 안젤스 발티모어(메리랜드주) 등의 항구도 대부분 파괴되었다.

이러한 유도탄 공격의 목적은 우선 미국의 보복 공격력을 일순간에 마비시키고 도시 주민을 대량으로 죽여서 미국민의 사기를 꺾는데 있었다. 미사일의 제1격으로 녀 아웃 펀치를 먹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유도탄은 공격의 첫 순서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에 있어서 소련의 주공격력은 아직도 폭격기이다. 유도탄은 후에 올 폭격기를 위한 선도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후르시초프는 왜 미국에 핵공격을

핵전면전쟁을

미국의 도시는 그러므로 그 수시간 후에 소련폭격기의 공격에 휩쓸렸다.

극동지역의 기지도 핵공격

여기서 시계를 30분 늦추어서 모스크바 시간 오전 12시로 해 보자.

이제 미국공격의 불길이 막 타오르려하고 있다. 모스크바 북방의 가리닝에서도, 시베리아 동부 해변의 아나도일에서도, 그리고 중앙러시아 서부의 마그니도 고루스크에서도 거대한 T3형 유도탄이 하늘을 향해 놓여 있다. 마침내 그것은 맹렬한 화염에 휩싸이면서 천천히 발사대를 떠나 밤하늘로 사라져간다.

알헨게리스크, 가라, 오스도로프, 다이밀반도의 비행장에서는 거인폭격기 베어와 바이슨이 차례로 떠 올라갔다.

공중급유기도 소련의 다른 기지에서 떠올랐다. 그 후로 퓨디 등의 중거리폭격기가 계속 이륙하였다.

중거리폭격기인 바자와 브라인더에도 명령이 전달되었다. 또한 구라과, 알래스카, 일본, 대만, 충충(沖繩)에 있는 미군기지를 향해 중거리유도탄이 발사되었다. 미국연안 밖에 잠복하고 있던 소련잠수함은『위로 떠서 목 표지점에 함상유도탄「코렘」을 발사하라』라는 무선연락을 받았다.

소련의 미국기습공격은 이렇게 해서 막을 올린 것이다.

보복시간을 알아채는 소련

후르시초프가 보유하고 있는 병기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20메가톤 핵폭탄을 실은 대륙간 폭격기 150대. 10메가톤 이상의 핵탄두를 가진 대륙간탄도유도탄이 75 내지 100개,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중거리폭격기 200대, 잠수함에 적재되어 640킬로 날을 수 있는 유도탄이 50개. 이것들은 미 본토 공격용으로 사용된 것이었다.

또한 소련국경 근처에 있는 미국의 해외기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중형폭격기 100대, T-2형 및 T-4형 중거리유도탄 300개가 사용되었다.

후르시초프는 전쟁개시의 시간을 신중히 선택하였다. 소련이 제1격을 가하면 미국은 반드시 보복공격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할 때에 미 폭격기의 주력편대가 소련에 도달하는 시간은 밤이 아닌 편이 좋을 것이다. 그 래야 소련제트기 및 방공설비가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때문이다.

시간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였다. 미사일 잠수함이 미국도시연안에 숨겨지기 위해 한 달 전에 소련항구를 출발하였다. 유도탄발사의 순서는 신중히 결정되어 있었다. 오후5시에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충충(沖繩), 영국, 이태리 등 전 세계에 핵폭발이 일어나게끔 계획되어 있었다.

어두움에 숨어서 최초의 소련공격기가 2, 3시간 안에 미국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미국연안해상이나 캐나다 상공에서 미 방공사령부의 폭격기와 맞부딪칠 것이다. 도시주변에 배치된 대공미사일 나이키·하큐리즈와 포말이 미군의 손에 의해 발사되었다.

그러나 소련제트기의 일부는 방공망을 뚫고 미 본토에 내습해 왔다.

미국의 중심지 뉴욕에는 20메가톤의 수폭이 폭발되었다. 폭심지(爆心地)는 컬럼버스·썬클. 미친 듯이 타오르는『불길』. 직경 18킬로에서 80킬로미터의 원형지역을 휩쓸었다. 뉴욕시의 17개구(카운티)에서는 750만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워싱턴에서는 의사당부근에 직경 약 800미터의 큰 구멍이 입을 벌렸다. 이 10메가톤짜리 수폭으로, 수키로 떨어진 알링턴(버지니아주)에서는 연와건조(煉瓦建造)의 아파트들이 폭풍에 날아갔으며 사상자가 백만명 이상이나 났다. 폭풍과 열기로 사상자는 굉장히 많았다.

그 후 수주일이 지났어도, 아직 부상에 치료가 미치지 못했거나「죽음의 재」의 제2차 방사능으로 인하여 수 백만명이 죽어갔다. 1200만호의 주택이 파괴되었으며 불타 없어진 도시가 40이었다. 유도탄, 폭격기 등의 시설도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은 살아 남았다.

그러나「힘」은 남았다.

미국의 군사지도자들은 후르시초프

가 감행한 기습공격의 총결산을 따져 보았다.

—소련의 미사일은 미국의「약한」군사 목표에 대하여 커다란 전과(戰果)를 건우었다. (주=이런 경우「약한」이라는 용어는, 보통의 미사일 기지와 같이 지상에 고정되어 있어서 적의 노림을 받기 쉬운 목표에 대한 군사 용어이다. 이에 반해서 폴라리스 잠수함이나 지하미사일 기지와 같이 숨겨져 있는 것을「강한」목표라고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신중히 산개(散開)한 방공망의 덕택으로 소련의 공격을 약화시킬 수가 있었다. 미사일 잠수함에 의한 공격도 부분적인 효과밖에 견우지 못하였다.

소련이 투하한 핵폭탄의 총수는 150발에 지나지 않았다. 그 에너지의 합계는 1500메가톤이었다.

그러나 미국본토는 이상과 같은 무서운 파괴로부터 10년 이내에 원상복구가 가능한 것이다.

해외에 있는 군기지는 더 심한 타격을 받았다. 본토에 비해 한층 더 격렬하고 정확한 타격을 당하였다. 이것은 경보가 발해진 후부터 방어를 때까지의 시간이 짧았기 때문이다.

후르시초프의 공격이 완전한 기습은 아니었다. 많은 소련의 잠수함이 미국근해에 잠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군에 의해 탐지되고 있었다. 소련 내에서의 군용 무선 연락도 점차 빈번 해지고 있었다.「개전박두」를 알리는 첩보기관의 보고도 제빨리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므로 미국은 경계진을 펼 수 있었으며 또 즉시 반격할 체제를 정비하여 적의 공격을 약화시킬 수가 있었다. 가공할 파괴를 입었으나 그래도 미국의 강력한 보복력은 남아 있었다. 다음은 미국의 차례이다.

「공포의 보수」…소련은 무덤으로

「소련미사일 접근」이란 최초의 경보가 나온지 불과 수 초 후였다. 녹색(Green dot)이라고 불리우는 암호전보가 전략공군사령부(SAC)로부터 전 세계의 미군 기지로 흘러 나갔다. 지상 경보가 난 15분후, SAC의 거인폭격대는 소련 미사일 제1탄이 낙하하기보다도 빨리 소련 본토로 기수(機首)를 돌리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미사일은 그후 얼마동안 대기되고 있었다. 경보가 잘못 났을 경우, 한번 떠나간 미사일을 되돌아오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해군의 항공모함은「소련 잠수함의 추적을 끊기 위해 도피태세를 취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다. 소련근해를 순찰중이던 폴라리스 잠수함도 경계명령을 접수하였다. 소련 본토에 있는 수십개 기지로부터 전투기가 떠올랐다.

미본토의 SAC 기지로부터는 B52 B58의 제트폭격기가 350대 이상이나 떠 올랐다. 실려져 있는 각종의 수소폭탄은 비행기 1대당 50메가톤이나 된다. 그 중 일부에는 800키로 떨어진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하운드·덕·미사일이 실려져 있다. 마침내 미국의 유도탄기지에서는 ICBM인 아틀라스, 타이탄이 9 내지 10개가 발사되었다. 소련 근방의 미 해외기지에서는 공군의 B-47 제트

폭격기와 F백계열의 전투폭격기가 아직 500대 이상이나 남겨져 있었다. 함재기중 400대는 무사하였고 총 96개의 수중미사일을 가진 폴라리스 잠수함 6척이 견재하였다.

각지의 기지에서는 2400킬로를 나르는 쏘어를 비롯한 슈피터, 메이즈, 마타도어, 레규라스 등의 각종 유도탄 150개가 무사하였다.

이러한 모든 공격력이 소련을 향하였다. 3만킬로에 달하는 소련 국경선을 향해서 모든 방향으로부터 핵폭격기 1250대와 300개의 유도탄이 일거에 밀려 닥쳤다. 이것은 후르시초프가 미국에 가한「제1차 공격」보다도 훨씬 강렬한 공격력이다.

항구는 수분(數分)에 녹아난다.

소련 연안에서는 폴라리스 유도탄이 해중으로부터 떠올라 소련의 약 100개의 도시에 정확하게 반메가톤짜리 핵탄두를 퍼부었다. 공업도시인 노리스크는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 하리코프시에서는 2발의 탄두가 폭발하여 반경 32킬로가 파괴되고 사망자는 25만에 달하였다.

스베르도보스크, 옴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 노보시비르스크 등 시베리아 중부 및 서부에 있는 대도시는 차례 차례 파괴되어 갔다.

사정거리 1920킬로의 메이즈, 쏘어, 슈피터 등은 소련의 방공본부, ICBM 기지, 통신망을 완전히 쳐부셨다.

그러자 해군의 함재기와 전투폭격기들은 소련 지역의 바로 가까이까지 육박하였다.

극동기지에서부터 전투폭격기도 떠올랐다. 그리하여 미 제7함재의 장거리 폭격기와 함께 우라지보스토크를 습격하였다. 동해에 있는 이 항구는 수 분 후 완전히 녹아 버렸다.

시민의 8할이 사망

동부시베리아의 철도도시 야쿠티스크는 광도(島)에 있는 SAC 기지로부터 이륙한 B-47 폭격기에 의해 문자 그대로 잿더미로 변하였다. 무미한 방사능의 구름은 퍼지고 퍼져 25600평방킬로의 지역을 뒤덮었다. 북아프리카, 스페인, 터키의 기지로부터 남은 폭격기도 차례 차례 이륙하였다.

이미 남러시아의 유전(油田)은 쓸모가 없게 되었다. 우랄공업지대에 있는 마그니토고르스크는 폐허가 되었다. 키에프 노브사의 양 도시에는 5메가톤짜리 탄두가 떨어져, 폭심지로부터 수 킬로 떨어진 큰 빌딩도 무너졌다. 시민의 8할까지가 사망하였다.

미국의 원·투·빡지는 계속된다. 제1진의 전투폭격기가 임무를 마치고 되돌아오는 도중에 제2진의 B-52 편대와 마주쳤다. SAC의 조종사들은 매일 노려보고 그려보던 소련의 목표를 향해 그대로 달렸다. 많은 폭탄과, 또 소련의 방공망을 혼란시키기 위한 레이더 교란장치가 실려 있었다.

이제 소련의 심장부에 집중공격이 가해지려는 것이다.

10메가톤짜리 수소폭탄으로 폭격당한 레닌그라드에는 폭풍과 화재로 생존자가 거의 없었다.

미국의 핵공격을 받을 경우, 소련전토는 폐허화한다



소련의 핵공격을 받을 경우의 미국의 피해예상지



광도(廣島)의 2500배

모든「격분」의 화살이 모스크바에 쏠아졌다. B52 1대는, 광도(廣島)상공에서 투하된 핵에너지의 2500배의 위력을 갖고 있다. 밀집한 아파트에서, 지하실의 방공호에서, 지하철의 한가운데서, 인간은 순식간에 증발한다. 이러한 대살해로 크레프린은 꺼져 없어진다. 소련은 무덤으로 변하고 만 것이다.

죽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존자가 그들을 처리할 수도 없다. 다행히 살아남은 부상자들도 주택과, 방사능을 쏘인 음식물의 찌꺼기를 가지고 다투게 될 것이다. 갈증과 기근은 이미 시작되었고 전염병도 퍼지기 시작하였다.

소련의 주요도시에서 겨우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은 스물도 안 되었다. 조선소, 공장, 주택도 없어졌다. 이제 는 소련이라는 나라의 뼈다귀만이 남아 있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에서 도대체 누가 이긴 것인가? 핵전쟁에는 승리자가 있을 수 없다. 여러가지 단계의「패배자」가 있을 뿐이다.

눈에 보이는 소련의 완패

후르시초프가 미국보다도 한층 심한 패배자가 되리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는 전쟁을 시작할 힘은 가졌을망정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은 파괴로부터 다시 일어나는데 20년이 필요하다. 반면에 소련은 25년이 걸릴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근거가 있다. 이제까지 기술해온「지상전쟁」은 이용할 수 있는 한 모든 공식 자료를 분석하고 몇 가지의 연구를 종합해 본「청사진」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소 양국의 이곳 저곳에 있는 기지가 어느 만큼의 공격을 받아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느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뚜렷치 못한 것도 있다. 무기의 기능이나 풍향, 기상조건에 따라 여러가지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검토해 보아도 후르시초프가 좀 더 심한 패배자가 되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1년이 더 지나면 후르시초프의 미사일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제1격으로 받는 피해도 커진다. 그렇지만 미국에도 당연히 미사일이 증가한다. 아틀라스·타이탄유도탄은 앞으로 지하기지로 옮겨짐으로써 이미「약함」이 아니라 「강함」이 될 것이다.

미닛맨 수백개가 가까운 장래에 배치될 것이다. 폴라리스 잠수함은 41척으로 증가한다.

그렇게 될 때 미국의 공격력은 ICBM 1200개, 폭격기 1200대, 폴라리스 유도탄 650대로 될 것이다.

미국의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최근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미국은 대규모의 기습공격을 받더라도, 의사만 있으면 적국의 사회를 파괴할만한, 충분한 반격력을 갖고 있다.』

후르시초프는 이 경고가 있는 뒤로 압도적인 군사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기습공격의 결과는「소련의 황폐」로 나타날 것이다.

때때로 후르시초프는 되지도 않는 말을 지껄리는데, 천언스럽게도 소련이 살아 남을 것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데서「무력에 의한 세계정복」이란 그의 야망은 브레지가 걸려져 있는 것이다. 정세를 요약하면, 미국은 스스로가 먼저 공격을 가할 리가 없으며, 후르시초프도 냉정한 사실에 당면해서 감히 공격을 걸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공포의 균형」이 평화를 확보한다는 비웃을만한 현실의 모습이다. (김기태 역)

**미·소 미사일 잠수함세력비교
양·사정거리·탄두·수중발사 등 미국이 우세**

미국은 총계 96개의「미사일」을 적재한 6척의「폴라리스」잠수함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일천리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다. 1500리의 사정거리를 가진 것도 일부를 차지한다. 이들 잠수함은 잠수상태에서「폴라리스」를 발사할 수 있다. 모두 원자추진식이며 기관의 폭음 없이 항행한다. 때문에 소련의 기습공격을 받을 우려는 거의 없다.

소련은 약 30척의「미사일」발사 잠수함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약 10척은 원자추진식으로 믿어진다. 이들 잠수함은 각각 2개의「미사일」을 적재하고 있으며 400-600리, 나머지 대부분은 200-300리의 사정거리로 알려져 있다.

미·소의「미사일」잠수함을 대비하면 수적으로나 사정거리로 보나 미국이 월등하다. 더욱이 소련의 잠수함은 수중발사가 가능한 것은 1척도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미국이 그만큼 강함을 의미하고 있다.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부상(浮上)해야만 하는 것이 소련의 미사일 잠수함이다. 이것은 그만큼 취약한 것이다. 그런데 태평양이나 대서양에서 부상할 수 있는 곳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그것은 항상 미국의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련의 잠수함용「미사일」은「폴라리스」에 비해 장치된 탄두가 크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폴라리스」에 비해서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령 소련이 기습을 해왔다 하더라도 미·소의 잠수함「미사일」의 비율은 미국에게 대단히 유리하게 된다.

이상으로 볼 때 미·소의 잠수함 세력은 몇가지 점에서 미국이 유리하다. 즉 미국은 수중발사가 가능하며 사정거리가 월등하게 멀고「미사일」적재량에 있어서도 우세하다. 탄두에 있어서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련 것은 미국에 비해서 작다. 특히 사정거리에 있어서는 소련의 최장거리 300리에 대해서 미국은 1,500리이다.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농업경영 개선책



이원열(李源烈)
공군사관학교 3학년

<목차>

- (1) 서언
- (2) 한국조업의 일반성과 특수성
- (3) 유축업(有畜業)과 특용작물의 육성방안
- (4) 결언

(1) 서언

논자(論者)는 공군사관학교생도입니다. 사관학교 설립 목적이 국방문제를 다루기 위함일진데 경제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4천년간에 대소 8천여건의 전쟁이 있었고 기원전 1496년부터 금일까지 244개년밖에 평화의 기간을 갖지 못했은즉 14년간만에 한번씩 인류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전략가들은 전쟁의 원인을 여러가지로 분류하지만 근본적 원인은 경제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방문제는 경제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며 오히려 경제문제 내에 국방문제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 분야를 중요한 과목중의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콜린클라크」는 산업을 제1차, 2차, 3차 산업으로 분류한 바 있지만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는 후진사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차 산업의 튼튼한 기반위에 제2차, 제3차 산업을 육성시키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논자는 특히 농업문제에 흥미를 가지고 그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농가소득증진을 위한 농업경영 개선책이란 문제를 택해 보았습니다.

문제해결에 앞서 한국농업의 일반성과 그 특수성을 살피고 다음으로 이를 토대로 왜 한국농업경영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안되는가 특히 유축업(有畜業)과 특용작물의 육성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2) 한국농업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 ① 우리나라의 농업은 보잘것 없는 몇 가지의 적은 양의 원료와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원시생산업입니다.
- ② 가뭄, 홍수, 폭풍우, 병충해 등의 자연재해에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 ③ 상품생산이 아니고 단순히 생산이며
- ④ 주로 미작(米作)중심의 경종(耕種)농업입니다.
- ⑤ 지세의 변화가 많고 자본의 부족 등 제여건 때문에 기계화의 도입이 극히 어렵고 단군 때 사용했던 호미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인간의 근육에만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 ⑥ 부업, 가공업이 빈약하며 노동력의 불균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⑦ 농민들은 너무나도 후진성에 젖어 있습니다.

2. 구체적 특성

- ① 2백여만정보(町步)를 230만호의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평균 1인당 430평 이는 인도의 1/4 덴 마크의 1/18 미국의 1/60 밖에 되지 않습니다.
- ② 5반보 이상의 농가가 43%를 점하고 있으며
- ③ 현재 수리불안전답(水利不安全畓)이 50% 차지하고 있는데 만일 정부에서 완전히 수리사업을 완성한다 하여도 전답면적의 70%밖에 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 ④ 농가수입면에서 보면 경중수입이 80% 양축수입이 겨우 6%를 차지하는 수입원이 너무나도 단순하여 수입을 연중 평균 조절할 수 없습니다.
- ⑤ 40년간에 여덟번이라는 큰 재난을 당하였은즉 경영에 위험성이 많고
- ⑥ 윤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는 점차 황폐해가는 실정이며 또한 생산물 상호관계에서 얻을수 있는 경제적인 이점을 얻을 수 없고,
- ⑦ 매년 외곡을 약 400만석을 들여오고
- ⑧ 절량(絶糧)농가가 52만호에 달하며
- ⑨ 농가 1호당 연평균 2천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즉 전 농가의 연간 총적자 약 50억원에 달하며
- ⑩ 현재까지 누적된 전 농가의 총 부채가 180억원(1960년 9월말)이니 정부에서 80억원을 고리채정리 자금으로 방출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100억원의 부채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국토개발, 수리사업추진, 비료의 합리적 이용, 단위 생산고의 증가, 기계의 도입, 농업협동조합 육성, 교도사업 등과 같은 개선책만으로는 이러한 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곡증가율은 연평균 0.9%인데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2.88%이어서 2차 산업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여도 현재 전국조직적인 노동자수가 30만명 밖에 되지 않으니 인구의 완전한 흡수란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이란즉 미곡의 증산만으로는 농업부채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고 농가경제 발전을 기하고 소득증가를 가져오는 다른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수입원이 너무나도 단순한 Mono culture적 경영양식을 지양하고 Multi culture적인 경영양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는 다음의 두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① 시장성과 수익성이 높아 농가소득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의 여부
- ② 국제적인 수급면에서 해외수출하기에 용이한가의 여부

로써 고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첫째로 시장성과 수익성에 있어서 축산물, 과일 야채, 특용작물은 일반적으로 주곡에 비하여 수요의 탄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해외수출에 관하여 살펴보면 미국이 잉여농산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일이라든지 버마·브라질 등 양곡수출을 못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미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은 극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나 1956년도 처음으로 수출한 바 있는 생돈(生豚)은 홍콩에 있어서의 1일 수요량이 3천두인데 중공산, 대만산, 캄보디아산 100근당 150-170불 한국산 100근당 188불을 받아서 채산이 맞았던 것이며 기름기가 적고 맛이 좋기 때문에 대단히 호평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일 야채를 보면 금년도 4월중 요구량의 75%밖에 공급 못했으며 이들은 우리 측의 질적 개선, 대량생산으로 해외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고 향후 국내에서도 국민소득 증가와 동시에 그 수요가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호조건하에서 미곡편중의 단순경영에서 오는 모든 위험성을 배제하고 증산, 특용작물을 육성하여 복합화함으로써 소득증가를 이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구체적인 육성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 유축업(有畜業)과 특용작물의 육성방안

(A) 유축업의 육성책

그러면 도대체 유축업의 육성은 어찌서 한국경제성장을 높이고 아울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그 장점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부터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 ① 제한된 농업자본의 효율을 높입니다.

(I) 농가호당경지면적비율 3반보미만 19.7% 3반보이상~5반보미만 23.2% 5 " ~1정보" 30.1% 1정보 ~2" 20.7% 2" ~3" 6.0% 3정보이상 0.3%	(II) 4종작물의 수요성장률 및 공급 성장률 수요성장률(%) 공급성장률(%) A B(%) A B 곡 물 3.30 1.00 1.30 축산물 7.43 4.49 2.94 채소류 5.63 0.75 4.89 과실류 11.58 2.47 9.11 주:인구증가율 2% 자료:농협월보	(III) 축산물수출실적 (1961년 11월말 현재) 종별 수량 외화금액 돈모(豚毛) 190,251kg 1,224,368 우골(牛骨) 1046,200kg 58,010 수모류(獸毛類) 47,536kg 98,264 모피(毛皮) 207,565주 149,186 생돈(生豚) 58,767두 2,251,246 계 4,051,075 자료:농림부
---	---	--

② 지력의 영구한 유지는 영농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 문제인 것이니 외양간 거름은 비료의 3요소가 적당히 포함되어있어 급비사용으로 인한 토지의 산성화 방지와 물에 용해되지 않는 비료성분을 용해시켜 농작물이 잘 흡수하고 땅빛이 검어져 밭아와 밭육을 촉진시키므로 생산고를 높여주며 개간지(開墾地)나 간석지(干澇地)와 같은 모래땅에서는 토지의 개량도 이룰수 있고 5톤의 거름은 250kg의 급비에 대등하니 한국에서 소, 돼지 400여만 두만 기른다면 100만톤에 달하는 급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가 경영비중 비료비가 35% 원조사금중에서 비료자금이 약 60억원이나 차지하는데 이로서 개개 농가의 지출은 절약되어 각 농가나 국가는 그만큼 총 소득이 증가될 것이며 두 번째 말한 지력은 유지될 것입니다.

③ 유희 노동력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낫셀은 인류에게 핵문제가 가장 두려운 문제이나 그보다 더 긴급하고 절박한 문제는 인구 문제라고 했듯이 한국 역시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Malthus는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로 증가하는데 식량생산은 산술급수로 증가한다고 했듯이 미국증가는 0.9%인데 현재 인구 증가율은 2.88% 1년마다 대구만한 대도시가 한국에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농민 1인 1일 평균 노동시간 37시간 이외 아깝게 낭비하고 있는 노동력을 흡수시킬 수 있으며 세 번째 말한 노동력의 불균형성을 타개하여 주는 것입니다.

④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폐물을 이용함으로써 한국농가의 영세성에서 오는 고민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것이며

⑤ 피혁, 유지공업, 부업, 가공업을 조성하여 주느니만큼 농촌의 유희노동력을 흡수하고 이에 따라 소득수준은 올라갈 것이니 농촌공업의 진흥도 육성시킬 수 있습니다.

⑥ 축산물에서 나는 부산물은 의약, 화학의 원료생산으로 다액의 외화획득과 절약 국내 의약계의 진흥을 촉진시켜 주며

⑦ 국민보건체위 향상책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래 일본을 다녀온 분들의 말에 의하면 전후 그들의 체위는 향상되어 옛날『에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을 오히려 우리 한국민이 듣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촌어린이들은 된장국 보리밥 한 그릇으로 극히 저위한 영양섭취를 하고 있으니 제2제 국민들의 건강은 극히 위태로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농가에서 염소 한 마리만 기른다면 5홉의 젖을 짜므로 한 사람의 식량을 절약하여 줄 뿐만 아니라 연평균 1일 한 농가에 대하여 7그램의 동물성 단백질을 제공하여 주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논, 밭길의 풀을 이용하여 손쉽게 기를 수 있습니다. 이의 좋은 예로서 Swiss는 식품생산의 80%를 축산에서 얻고 우리 한국과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비슷한 이태리에서는 25%를 축산에서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곱째로 말한 식생활구조를 개선하여 줄 것이며 적어도 최소한 630만석의 식량을 절약하여 줄 것입니다.

⑧ 현금수입의 원활에 관하여 살펴보면 간접적으로 일반 농산물의 생산고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현금을 얻기 위하여 일시 방매하는데서 오는 폐단을 제거하여 줄 것이며 흉년 풍년을 불구하고 연중을 통하여 그 수익을 올려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농사자본의 효율을 높이고, 지력을 산성화에서 방지하고, 토지의 집약적 이용, 유희노동력의 적절한 분배, 농촌공업의 육성, 의약업의 발전으로 외화획득, 국민체위 향상 630만석의 식량을 절약 연중을 통하여 현금수입을 원활히 해주는 유축업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나?

- ① 가축의 경제적 가치 여부 사료
- ② 사료작물의 풍부성으로써 가려야 할 것입니다.

첫째의 경제적 가치로 보아 곡류를 필요로 하는 가축보다 풀을 주사료로 하는 가축을 최대한도로 육성시켜야 될 것이니 염소 토끼 소일 것입니다.

한철 밖에 일을 하지 않고 많은 사료를 필요로 하는 역용전문의 한우를 겸용종으로 개량한다는 것인데 예로서 Swiss는 젖, 고기, 일을 겸하는 소가 있어 축산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료자원의 확충문제에 관하여 고찰해 보겠습니다. 논자(論者)는 어느 양축가를 찾았습니다. 댁에서 하고 있는 축산에서 가장 곤란한 점이 무엇입니까?『예, 자금도 자금문제이지만 사료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과연 그렇습니다. 한국을 유축농업으로 전환시키는 가장 큰 애로는 바로 사료문제인 것입니다. 농민들은 들, 짚 등을 땀감으로 이용하니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하지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목야지(牧野地) 설치문제를 보면 Swiss는 전국토의 12% 경지면적을 중심으로 170여만 정도에 달하는 목야지를 중심 이용하여 세 사람이 한마리꼴로 160여만두의 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73% 산야이며 경사도 150 이하의 목야개발 가능지가 222만정보 그중 경사도 6° ~15° 이하가 140만정보이니 한국도 160여만두를 기를 수 있고 목야지가 없더라도 200여만정보의 경지에서 나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자력으로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재배에 관하여, 어느 독농가의 말을 잠시 빌린다면 1반보 즉 300평에서 곡물이 잘 되어야 5천원을 수입하나 돼지는 5-6개월생이 모든 비용을 제하고도 한 마리당 3천원의 수입이 나오니 300평에서 나는 사료로서 최소한도 4마리는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 수입은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유축농업에 의한 생산고가 단순한 주곡농업에 의한 생산고를 훨씬 초과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명백합니다. 따라서 선진 농업국가에서는 경지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사료작물로 이용하는 것이 영농의 보통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로서 스페인을 들여보면 농업인구가 전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이 나라에서는 사료곡물 및 사료작물의 강제재배를 농업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현재 담면적(畝面積) 120여만정보(町步) 중 50%밖에 2모작을 안고 있으니 나쁜 밭에는 사료를 심고 논에는 보리 기타 곡물을 심어서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큰 수익을 올릴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한바와 같이 가축의 경제적 조건으로서 돼지, 염소, 토끼 그리고 역용전문의 한우를 겸용중으로, 사료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축산정책으로서 다루어야할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 ① 무축(無畜) 영세양축가에게 저리자금융자
- ② 집약 낙농부락 조성과 인공수정
- ③ 가축 공제금 지급
- ④ 사료배급 공장의 설치
- ⑤ 사료도입으로 부족량 보충
- ⑥ 사료 최저가격제 확립 이러한 축산물을 처리하는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적정판매가격유지가 지난하므로
- ① 군납축진과 해외수출의 촉진
- ② 저장시설과 냉동시설 완비
- ③ 축산위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다루어져야만 할 것은 물론이고 추가하여 논자가 주장하는 것은 스페인에서와 같이 사료작물, 곡물을 300평당 강제제배를 실시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일정 시일이 지나 정부에서 금지하여도 농민들은 타농작보다 수지가 맞기 때문에 할 것입니다.

(B) 특용작물의 육성책

담배, 인삼, 포도, 잣, 오부자, 뽕나무, 밤나무, 약초, 특히 박하 기타 작물들은

- ① 산야 등 어느 곳에든지 재배할 수 있고
- ② 노동력이 적게 들므로 남려 할 것 없이 재배가 가능하며 농촌의 많은 유향노동력을 흡수할 것이고
- ③ 이들은 국내수요는 물론이고 해외수출이 용이합니다.

시간 관계상 전부 검토할 수는 없고 뽕나무와 밤나무에 관하여만 살펴보겠습니다.

뽕나무에서 나는 생사는 화학섬유공업이 발달하며 그 수요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광택 보온 등에는 나이에 비교할 수 없이 우수하며 일본은 전세계 무역의 80%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의 장려는 국내의 원료확보는 물론 외화획득에 크게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 하고 있는 적지적산주의를 택하여 산간지방에 크게 장려한다면 1970년도에는 65억원의 외화를 획득할 계획을 정부에서 수립하고 있다는데 이는 찬양할바라고 생각합니다.

밤나무는 과수보다 재배가 용이한데 음지, 경사도, 토질에 불문하고 잘 자라며 3년째부터 열기 시작하니 산에 밤나무를 심는다면 2400만석의 양곡과 동일한 밤과 부가하여 벌꿀 24만석을 얻을 수 있으니 농가의 수입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맞지않는 산림사업보다 밤 재배사업을 적극추진 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예로서 서서(瑞西)의 알프스산을 들 수 있습니다.

(4) 결언

이상에서 논자는 간단하나마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농업경영개선책으로서 현재의 미곡편중의 Mono culture적인 영농구조 자체를 유축농업과 특용작물을 추가한 경영의 다양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생각건대 금번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입안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공업화와 아울러 농업부분에도 중점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자본이 극도로 부족하고 모든 면에 시급한 시책이 요청되는 현실에서 어떠한 정책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정책이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도 항구적(恒久的)으로 얼마나 많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점으로서 그 우선순위 다시 말하면 Priority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농업육성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무엇보다도 이 점에 유의하여 깊은 연구와 강력한 시책이 있어야 할 것은 물론이고 당사자인 농민들의 이 점에 대한 이해와 의욕의 증진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물론 농업문제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은 농민대중으로 하여금 유축농업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여서 하루 속히 풍족한 농촌과 명량한 사회를 건설해야 하겠습니다.

(V) 박하홍콩 시가 방당(磅當) 부라질 4.40불 대만 4.90불 한국 5.50불 자료:농협월보	(IV) 답(畓)의 이용도 (단위:정보(町步)) 년도 1모작 2모작 계 1956 804,169,7 394,482,1 1,198,651,7 1957 816,701,8 389,984,8 1,206,686,6 1958 807,306,6 402,355,1 1,209,661,7 자료:농림부 통계과
---	--

**내가 지킬 새 헌법
내 투표로 정하자**

공군 예비역 장병을 찾아서



그후의 생활

경제기획원통계국의
김육진(金煜鎭)

「장래의 세계는 통계에 의하여 지배될 것이다」이 말은 제2차대전 말기에 영국 런던의 「Economist」지가 예언한 것이다. 십여년전의 이러한 예언이 오늘날의 세계에서 입증되어가고 있다. 한나라의 산업의 현대화, 경제력 등이 그 나라가 보유하는 통계기기의 대수에 의하여 측정되는 실정인 것이다. 사실상 현대의 문명사회에서 해결을 요하는 여러가지 복잡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상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결론에 도달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통계는 불가결의 도구인 것이다.

통계에 대한 인식이 강한 나라에서는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양적접근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양적접근방법을 위하여 수집된 통계자료는 분석비판된 다음 자료의 효용여부가 결정되고 효용성이 인정된 자료는 보관된다. 이러한 자료는 개인이나 국가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될 뿐 아니라 그들의 주먹구구식 사고의 전통 및 습관을 지양케 하고 과학적 사실에 기초하여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장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국토가 양단됨으로써 여러가지 사회문화적 비극을 겪었으며 아울러 하나의 경제단위로서의 한국은 광공업 자원과 시설을 공산주의자들에게 강점당한 채 자립적인 경제를 이룩하지 못하고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외국원조의존습성을 지양하고 자주경제의 확립을 위하여 혁명정부가 수립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그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 거족적(學族的)인 것일 뿐 아니라 앞으로의 민족사활을 좌우 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지력, 정력 및 재력의 총동원을 절실히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통계사업은 절실한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 통계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성질과 양상을 규명하고 파악하는데 필요할 뿐 아니라 규명된 문제를 해결함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함에도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연합의 권고에 따라 처음으로 전 세계가 실시하는 국제조사활동에 참가하였으며 세계 공통의 기준에 따라 1960년에 인구, 주택, 농업을 범위로 하는 종합적인 국제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670명의 인원을 확보하고 최신식 IBM 자료처리기 158대를 구입 혹은 차용하였으며 자료처리에 필요한 경제기획원통계국 건물도 준공되어 자료처리는 본 궤도에 올라섰고 지급으로부터 만 1년 후인 1963년 3월에는 국제조사총람을 발간 발표할 예정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처리기로서는 Punch Card System의 기간(基幹)이 되는 천공기(穿孔機), 검공기(檢孔機), 분류기(分類機), 회계기(會計機) 등이 있으며 보조기구로서는 번역기(翻譯機), 복사천공기(複寫穿孔機), 조합기(照合機), 집약천공기(集約穿孔機), 전자통계기, 전자계산기 등이 있다. 이러한 기계의 조작을 위하여 이미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일본에 파견되어 소정의 교육을 받았으며 현재 통계의 실무를 통하여 기계의 조작기능자가 양성되고 있다. 공군에서 소정의 복무년한을 마치고 1959년 11월 30일에 예비역으로 전역한 바 있는 김육진씨도 이러한 기능자의 한 사람으로서 경제기획원 통계국에서 그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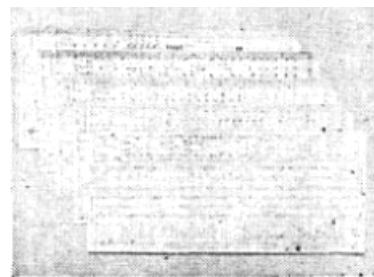
다음의 글은 씨의 지난날을 대강 엮은 것이다.

구라파에서는 나치독일의 광적인 전쟁준비로 전운이 감돌고 아세아에서는 소위 대동아공영권을 구실로 하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침략의 포연(砲煙)이 대륙을 뒤덮던 1937년 7월 17일,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에서 제동국민학교를 졸업한 나는 운수업을 경영하시던 부모님의 의도에 따라 서울상업중학교에 입학하였으며 1956년에 서울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고교시절에는 주반(珠盤)보다는 야구가 좋았고 부기(簿記)보다는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훨씬 좋았다. 그 당시 부패하고 무능했던 자유당 위정자들에 대한 울분은 십대의 나의 마음속에 싹트던 막연한 반항의식과 얼버무려져 기성세대와 기성질서에 대한 무분별하고 조건 없는 반항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워낙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던 나는 잠재의식적인 반항이나 느껴지던 울분을 문학작품을 읽고 클래식 음악이나 들으며 달래었다. 대학에 입학할 때는 아버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치과를 선택했다. 정치과를 택하게 된 나의 의도는 보다 적극적이고 동적인 방향으로 나의 인간성을 발전시켜 보려는 것이었다. 단대정치과에 입학하면서는 말서스의 인구론, 스미스의 국부론, 마카벨리의 군주론 등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 당시 정치 경제 이론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던 나에게 그러한 것들이 소화될 리가 없었다. 채워 질수



없었던 불만은 누적되어 갔고 그러한 생활이 얼마동안 계속되었을 때는 숨막히는 듯 느껴지는 정신적인 압력을 벗어나기를 갈망하게 되었고 환경도 바뀌볼 겸 하여 군에 입대할 것을 결심하였다. 내가 공군에 입대한 것은 1956년도 저물어가던 11월이었다. 항공병학교에서 처음으로 겪은 군대생활은 몹시도 고된 것이었다. 새벽의 기상나팔로 시작되는 하루의 훈련은 빈틈없이 짜여진 일정이었다. 동작을 하면서 다음 단계의 동작을 미리 생각하여 두지 않으면 세수할 틈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각박한 시간표에 따라 격렬한 훈련을 받아가는 동안에 나대로의 독특한 타성을 떨어버리게 되고 군대라고 하는 단체를 구성하는 인자(因子)로서 요구되는 인간형으로 다듬어져 갔다. 「집합」의 구령이 떨어지면 하던 것이 무엇이던간에 미련 없이 던졌고 열중의 정하여진 내 자리에 어김없이 찾아들었다. 걸을 때는 나도 모르게 앞서사람의 뒷동수를 노렸고 폐는 어김없이 옆 사람과 호흡을 같이 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번의 정신적인 갈등과 회의를 극복하여야만 했다. 처음 신병훈련과정이 시작되고 닷새 되던 날 도망을 결심하여 보기도 했다. 실제 그러한 나의 결의를 실행에 옮기려고까지 했었다. 새벽기상나팔에 나는 동료들과 함께 집합장소인 연병장으로 뛰었다. 동짓달 새벽의 광장은 몹시도 차고 매서웠다. 점호집합장소를 향해 동료들과 함께 뛰던 나의 발길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연병장주변으로 향했다. 빗물이 흐르며 판 웅덩이에 들어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집합을 완료한 동료들의 번호소리가 들렸다. 한번 끝난 후 얼마동안 잠잠하더니 또다시 번호가 시작된다. 세번째로 반복되는 동료들의 번호소리를 들으며 나는 집합장소를 향하여 뛰었다. 「부족한 번호를 매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나밖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다」 하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덮은 채 도랑에 엎어지며 각막에 아물거리는 동료들의 희미한 대열을 향해 기력을 다해 뛰었다. 점호가 끝난 후 주변사관실에 호출되었다. 「용변을 보러 갔었다」고 변명을 한 후 얼마동안의 혼계를 들었다. 주변사관실을 물러나올때의 나의 기분은 날아갈듯 하였다. 계절탓도 있었겠지만 회색으로만 보이던 신병대 건물과 연병장 등 온누리가 떠오르는 햇빛을 받으며 따뜻하게 나를 감싼다. 난생 처음으로 나는 환경에의 조소가 아닌 환경에의 반항이 아닌, 환경에의 효과적 적응에서 오는 인간의 희열을 호탕하게, 그리고 실감 있게 느꼈다. 그로부터 나는 아무리 부자연스럽게 조작된 인위적인 환경일지라도 별로 고통을 느끼지 않으며 적응해 갈 수 있었다. 입대 후 한 달이 되던 날, 크리스마스때는 동료들과 크리스마스 튜리도 만들며 제법 흥겨우게 지낼 수 있었다.

신병교육을 마치고 처음으로 배속된 곳은 43시절전대였다. 그곳에서 1년간의 영선병생활을 한 후 배속된 곳이 10전투비행단이었다. 주말외출을 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집에도 들렀지만 때로는 동료들과 함께 용주사, 화홍문, 방화수류정 등 고적도 둘러보고 음악감상실에 들려 고전음악의 심오함에 심취하기도 하며 한주일의 피로를 풀기도 했다. 그곳에서 전역시까지 근무했으며 3년간의 군대생활을 마치고 병장으로 전역할 때는 이미 나의 몸의 일부, 나의 피부가 되어버린듯한 푸른 유니폼을 벗기가 사뭇 서운하기까지 했다. 막상 전역을 하고나니 그때까지 복교(復校)만을 생각하던 나에게 사회생활에 대한 새로운 의욕이 움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버님의 사업에 조력하기도 했으나 그것보다는 새로운 분야에서 나 자신의 독자적인 터전을 마련하고 싶었다. 그러만 차에 통계국에서 통계직원을 모집하는 신문공고가 눈에 띄었다. 응시자격은 병역을 필한 고교졸업자였으며 시험과목은 국어, 수학, 사회생활 및 일반적성검사였다. 300명 모집에 지원자가 1700명이나 되었다. 시험은 물론 공개경쟁시험이었다. 군대생활이나 전역후의 생활을 통해 평소에 즐기던 독서의 덕택이 있는지는 모르나 합격자명단에는 나의 이름도 끼어 있었다. 이로부터 최초의 나의 생활인으로서의 독자적인 사회생활이요 국가공무원생활이 시작된 것이었다.



↑ 통계카야드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현재 경제기획원 통계국에서 통계조사표의 내용 분석 및 기계 조작 등의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씨는 찾아간 기사를 반가이 맞아 통계조사표를 보관하는 창고로 부터 전자계산기 등 최신식 집계기계 등이 즐비하게 설치된 집계실에 이르기까지 친절히 안내하여 주었다. 이방(異邦)의 어느 사무실과도 같은 넓직한 홀 안에는 100을 헤아리는 천공기가 네 줄로 질서정연하게 놓였고 매 기계마다 한사람씩 Operator (대부분이 미혼여성)가 붙어 앉아 근무에 열중하고 있었다. 수학여행 온 시골학생 쳐다보는 듯한 눈초리를 뒤로하며 홀을 나섰다. 「결혼은?」하고 묻는 짓꾸진 질문에 수줍은 듯 웃음으로 대하는 씨의 인상이 아무래도 내성적이었다. 작별 인사를 하고 통계국문을 나설 때는 어느새 늦가을의 태양이 서산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끝)

있을 때는 대수롭지 않지만 있던게 없어지면 참을 수 없이 답답한 것은 『공기 · 마누라 · 돈 · 건강……』 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는 남에게 돈을 취하려 다녀보아야 아는 것이다. 자기가 건강할 때에는 건강이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지만 병에 걸리든지, 부상을 입어 병신이 되든지, 늙어서 죽음을 가까이 했을 때에는 누구나 건강이란 귀중하고 고마운 것인지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건강했을 때에 좀 더 참되게 노력해보지 못했던 지나간 날의 방종이 후회되는 법이다.

사십부터 느끼는 건강의 고마움

건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나이는 사십 지나서 부터다. 공자는 사십 불혹이라 했는데, 유혹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의 경지란 정신적면만이 아니라, 신체적면까지 뜻하는 것이리라.

이십대 삼십대에서는 자기건강을 믿고서 술이요 색(色)이고 마음 내키는대로 방종하다가 사십고개를 넘어서면 무엇인가 두려운 생각이 앞서기 마련이다.

내 둘째의 친구들을 보더라도 그 전에는 술을 밤늦게 마시던 친구들이 사십고개를 넘어서면서는 모두 술이 약해졌다는 핑계로 술을 삼가고 술잔을 꺼리는 것이 눈에 띈다.

사십 지난 남자란 모조리 약한이 된다는 말따나 모조리 자기몸만을 생각하게 되어서 보약이나 호르몬 따위의 약에 마음이 쏠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그것은 흔히들 건강이란 것을 육체적인 건강만을 생각하는 경향이다. 건강에 조심하고 음식을 가려먹고 운동을 하고들 있는데, 과연 몸만 튼튼하면 그 사람을 건강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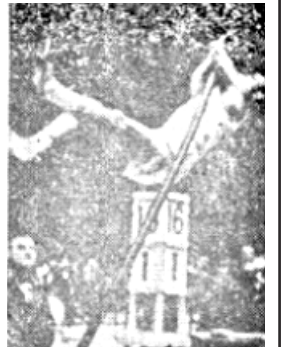
몸과 마음은 종이의 앞뒷장

신체만 건강하면 지구를 몇바퀴씩 도는 우주선에 탈 자격이 부여될 것일까 하고 물어보면 누구나가 다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신체도 신체려니와 불요불굴(不撓不屈)한 탄탄한 정신력 없이는 제트기나 우주선을 탈 자격이 없음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다. 나같은 정신병과 의사는 하루에도 여러명의 정신병자를 진찰하고 치료하고 있는데, 특수한 병은 제외하고 대개의 정신병자는 모두 신체적으로는 멀쩡한데, 다만 정신의 장애로 인간생활에서 낙오된 사람들이다. 신체는 건강한 병자들인 것이다.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격언이 여기에는 안 맞는단다.

그런가 하면 결핵요양소 같은데에 가보면 몸은 결핵에 걸려서 병들었지만 정신력은 완전하리만큼 건강한 사람들을 볼 수도 있다. 병들어서 골골하면서도 쉬지 않고 붓을 들어 철학이나 시나 소설 따위의 대작을 써서 후세에 남겨준 선인들이 있는 것이며,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 부터 물려받은 인류의 유산을 자랑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만 신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 완전한 의미로서의 건강체는 하나님 만들어준 예술품이라 하리만큼 아름답다. 신체의 건강을 떠난 정신의 건강을 생각할 수는 없고 정신의 건강이 수반되지 않는 신체만의 건강도 무의미하다.

신체와 정신은 종이의 앞뒷장같은 관계에 있는 것이며, 한쪽면이 더러운 종이를 우리는 깨끗한 종이라 치지 않는 것 같이 신체나 정신의 한쪽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건강한 정신이란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란 현재 병에 걸려 있지 않는 몸을 가졌고 항상 쾌락한 기분으로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 즉 신체적인 근로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체력을 가졌고, 또 오래 살 수 있는 상태를 통털어서 말하는 것이다.

정신의 건강이란 현실사회에서 생활함에 부딪치는 여러가지 곤란한 일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건설적으로 현실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정신력을 가지고 있을 것은 물론이요, 가정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신상태를 가지고 있을 것과 또 정신노동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지속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비로소 건강한 정신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정신병적인 증상이 없어야 함은 말할 나위조차 없다.

건강한 정신상태라고 반드시 과거의 성인과 같은 견고한 정신상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에지프트」의 성자「시몬·스티리타스」라는 사람은 석주(石柱)위에 29년 동안이나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꼬박 서서 고행을 쌓았으므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경앙(敬仰)을 받았다하고, 예수는 산상에서 40일 동안이나 단식 기도를 드렸다 한다. 그만큼 신체나 정신력이 강했던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예수홍내를 내어서 산상에서 며칠씩 단식기도만을 올렸다고 우리같은 범부(凡夫)들의 정신상태가 갑자기 강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알맹이 없는 거죽만의 홍내는 원숭이들이 잘 하는 노릇이다. 사람은 원숭이가 되어서는 안된다.

도연명(陶淵明)이 시부백편(詩賦百篇) 일두주(一斗酒)라 했다고 홍내 내어서 평범한 시인이 술잔만 마셨다고 결코 좋은 시가 백편이나 쏟아져 나올 리 만무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을 위한 첫걸음은 자기 자신을 아는에서 시작한다.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자기분석이라는 것이다. 「타인을 아는 것은 지(知)요 자기를 아는 것은 명(明)이라」하는 옛말따라나 심리학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자기의 지능이 얼마나 되는지, 정신적 지속력이나 성격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영국의 「글로버」박사는 건강한 정신상태를 정의하여 말하기를 「정신병적 증상이 없을 것, 행동이 자기의 정신적 갈등에 좌우되지 않을 것, 충분한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자기이외의 무엇인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을 들고 있다. 하나는 김에 남을 욕하고 때리거나, 직장을 쉬거나, 조금치도 자기 이외의 무엇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건강한 정신상태가 아닌 것이라한다. 자기 몸 이외의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자기가 속해있는 집단이나 군대나 전우도 좋을 것이요, 민족과 나라도 좋다. 더 나아가 사랑의 대상이 인류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건강한 정신을 얻기 위해서

흔히들 사람의 두뇌는 유전적인 것이라고 단념해버리는 수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정신력이란 공자가 말한 지덕용(知德勇)의 3요소를 충분히 섞여가진 상태를 말한다.

지(知)만을 예로 들어 보더라도 우리는 일상 회화에서 「저 사람은 유명한 대학교수의 아들이니 머리가 똑똑할 수밖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즉 정신력은 유전적이어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팔자소관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봤자 별수 없다고 체념해 버리는 사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요새의 실험심리학은 그렇지 않음을 증명해 주니 고마운 일이다. 기억력만을 예로 들어보면, 타고난 소질 즉 지능지수가 물론 문제되지만, 그보다도 기억을 방해하는 정신적 갈등과 불안이 없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이나 기억력을 증강시키는 훈련을 꾸준히 하고 있는가에 문제의 초점이 달려있는 것이다.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라도 오랫동안 쓰지 않고 창고 속에 넣어두면 녹이 슬어 들지 않는 법이지만, 썩 칼이라도 매일 갈고 손질을 해두면 예리하게 잘 드는거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머리로 태어난 사람이라도 도무지 기억하는 훈련을 쌓지 않는다면 점점 머리가 나빠질 것은 뻔하다.



<스포츠 · 정신 · 건강>



기억력을 증강시키는 길은 매일 쉬지 않고 책을 읽고 무엇인가를 외우고 생각하고 계산하는데에 달려있다. 가령 영어단어나 시나 과학의 법칙 같은 것을 매일 쉬지 않고 조금씩 암기하는 습관이 형성된다면 이는 대뇌생리학에서 말하는 바의 조건반사가 형성되어서 기억력이 놀랄 만큼 발달되는 법이다.

정신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릴때부터 건전하게 인격이 성장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청년기에 있어서는 자기의 정신적 갈등과 불안을 해소시키고, 승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선결문제다.

선현이나 철인(哲人)들의 책을 읽는 것도 좋다. 종교에 귀의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스포츠」나 건전한 오락으로 불안을 전환시키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다.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집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좀 더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신수양 한답시고 방안에서 책이나 읽든지 공상만 하는 것은 무의미한 짓이고 시간의 낭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란 사회성을 띤 동물이기 때문에 인격수양의 도장을 사회와 고립된 산속에서나 닫혀진 방속에서 찾을게 아니라 동네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인(友人)들과 섞여있는 곳에서 행주좌와(行住坐臥) 24시간동안 어디서나 어느 때나 인격수련의 도장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나중에 대성할 사람인 것이다.



<필자>

스포츠 정신과 군인정신

이효(李曉)
☆대한체육회 부회장

두 말할 것도 없이 자고로 스포츠정신과 군인정신은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귀일(歸一)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제 그 실례(實例)를 고대로부터의 우리나라 체육발달사를 통하여 설명해 보기로 한다.

고조선시대의 체육과 전쟁

유사(有史)이전의 체육은 동서국가를 막론하고 우선 살기 위하여 즉,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의 체력을 함양하였으며 맹수 같은 사나운 적을 만났을 때 싸우기 위한 기력을 배양했으며 강한 투지력을 길렀던 것이다. 그러나 씨족사회에서 부족사회로 변천함에 따라 그 부족을 다스릴 수 있는 족장이 나타나서 그 부족을 다스리었고 타 부족을 침략하여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무예를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부족이 커져 하나의 국가형태를 이루게 되자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군인이 필요했으며 전술이 필요했던 것이다. 고조선의 한반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삼한(三韓)에서는 전투를 할 수 있는 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남자들에게는 달리기, 뿔뿔기, 창던지기, 맞붙어 싸울 수 있는 격투, 씨름 수영, 궁술, 승마, 등산, 투석 등의 기본적인 운동을 하였다.

이와 같이 기본적인 운동에 능숙하게 되면 국가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군인으로서 병영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미 배운

기본적인 훈련에서 보다 강하고 튼튼한 신체를 갖기 위하여 신체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달리는 말에 뛰어 오르기, 달리는 말에서 뛰어 내리기, 말을 달리며 활쏘기, 창던지기 등이었다.

당시에 만들어진 단궁(檀弓)이라는 활은 널리 중국에까지 이름을 떨쳤으며 이것은 고조선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력향상과 신체활동의 상황을 알려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상고(上古)시대의 국민들이 생활하기 위하여 무예를 길렀고 강한 정신과 신체의 발달은 그 시대에 사용했던 궁, 도창(刀槍), 부(斧)(도끼) 등 전쟁에 필요한 여러가지로 보아 알 수 있다. 이들의 정신훈련과 육체훈련이 무예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그 당시의 체육의 목표는 신체를 강하게 하여 국가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또한 당시의 체육은 부족사회나 국가방위의 목표 밑에서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 예측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체육의 발달은 동서를 막론하고 국가방위와 전투능력의 향상발전을 목표로 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오랜 문화를 가졌던 「에집트」 「페르시아」 「그리스」 등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삼한(三韓)시대의 체육과 군인

소국가사회가 확대되면서 투쟁의 규모도 커졌으니 이것은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영토욕, 인민욕, 외국 침략에 대한 방어책의 하나로서 군사적인 활동이 더욱더 강하여지기 시작하였다. 이 때까지의 북쪽과 남쪽에 퍼져있던 여러 부족국가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의 통합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들은 서로가 동맹하여 침략을 일삼았다. 이렇게 강한 세력으로서로 접촉하게 되자 국민의 교육은 침략을 위한 무예를 습득하는 무술교육으로 변화하였다.

고구려에서는 서민이나 평민의 자녀들은 경당이라는 사립학교에서 칼쓰기, 창던지기, 궁술, 달리기, 뽀뛰기, 성곽 오르기, 밧줄 오르기, 무거운 짐 나르기, 투석 등을 가르쳤다. 이리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건전한 정신과 강장(強壯)한 체력을 배양하였다.

또한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해마다 봄과 가을에 전국에서 모인 무사들이 어전(御前)에서 수렵을 하여 가장 많이 잡은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각종무술대회를 열어 장원을 한 사람은 국가에서 등용하였던 것이다. 가을에는 대동강변에 모여서 양편으로 나누어 석전(石戰)을 벌려 유명하였으며 이 곳에서 죽는 사람도 있었으나 이것은 고구려인의 젊은 기상을 보이기 위한 일종의 신체훈련이었다고 하겠다.

백제는 고구려와 비슷하였다. 그것은 백제의 시조가 고구려의 유민이었던 것이다.

신라는 화랑도가 생기어 청소년의 심신단련의 목표로 되었다. 화랑도의 기원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삼국사기에 의하면 진흥왕 37년(서기576년)에 남

모(南毛)와 준정(俊貞)의 두 여자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여권사회의 견제를 내포하면서 점차 남자 중심으로 변천된 것으로 신라사회의 발전과 국세가 융성함에 따라 진흥왕 32년에 사회제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15에서 20세의 소년들로써 구성된 집단으로 수백명 수천명에 달하여 이들을 낭도(郎道)라 하고 이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을 국산(國仙), 선랑(仙郎), 풍월도(風月徒), 향도(香徒)라 하였으며 날마다 무리를 지어 산천을 도보하며 심신을 단련하였으며 가악을 즐기며 정서의 도야(陶冶)와 도의를 연마하고 고상한 기풍 및 봉공정신 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무사단, 교육단체 및 사교단체의 하나이며 상호협동의 정신과 유교사상의 충효와 불교의 호국정신이 합쳐서 이루어졌으며 지도자에 대한 순종, 전장에서



<스포츠 · 정신 · 건강>



의 용감성, 애국적충성심, 전통과 도덕의 존중, 상호간의 우의와 신의를 생활의 신조로 삼았으니 이들의 5계는 다음과 같다.

- ① 사군이충(事君以忠)
- ② 사친이효(事親以孝)
- ③ 교우이신(交友以信)
- ④ 임전무퇴(臨戰無退)
- ⑤ 살생유택(殺生有擇)

이와 같은 절대적 애국심과 고결한 예의에서 우리는 무쌍한 용맹성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예의와 도의를 길러 도덕과 지조를 가지고 무(武)와 가(歌)를 즐겨 전쟁에서의 사기와 정서를 양양하도록 산천을 돌아 다니며 심신을 연마했다. 이것은 소년들에게 심신의 활동이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는 예지(叡智)에까지 미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체를 연마하는 수단으로서 달리기, 뛰기, 수영, 씨름, 제기차기, 협동심을 위한 줄달리기 등이었다. 이 줄달리기는 삼남지방에서 신라를 거쳐 고려 이조시대를 지나 해방 전까지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고 국가나 민족부모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예사로 여겼다. 삼국에서는 모두가 전쟁에 나가서 후퇴하는 것을 가장 비굴한 행동으로 알았고 죽을 때에도 적국을 향하여 죽어야 시체의 매장이 허락되었다. 이것을 볼 때 얼마나 무(武)를 숭상했는가를 알 수 있다.

백제에서는 제기차기, 공차기, 바둑, 윷놀이 등이 유명하였다. 이 윷놀이는 백제시대로부터 전해진 가장 오래된 오락의 일종인 것이다.

삼국시대에 행하여졌던 체육이나 오락은 현재 외국에서 들어온 체육이나 오락에 비추어 독창적이고 자연스럽고 범국민적인 스포츠와 오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의 수렵대회나 궁술대회 같은 것은 연무대회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전사들의 스포츠 또는 여가를 선용하기 위한 「레크리에이션」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고조선의 체육은 서양의 「그리스」 이전의 체육과 흡사하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융성했던 삼국시대의 체육은 「회랍」 시대의 체육과 대조할 만 하다.



고려시대의 체육과 군인

세계의 어느나라에서든지 통일이 되기 이전에는 문무력(文武力)에 힘쓰다가 평화가 되어 국민들의 생활이 안락하게 되면 유흥에 빠지게 되는 것은 「로마」 시대를 연구해 보게 되면 더 잘 알게 된다.

우리나라도 신라가 통일을 하기 이전에는 국민이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여 강한 통치 국가가 되었으나 통일 이후 평화가 오래 지속되면서 정신적면의 긴장이 완화되어 국민은 사치에 빠지고 왕실내부에는 왕권다툼이 심하여져서 신라는 망하게 되었고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시대로 변하게 되었다.

고려시대의 무사들의 체육은 대부분이 북방민족들과 투쟁하기 위한 신체훈련이두고 볼 수 있다. 신라의 강건한 정신을 계승받은 태조자신이 무인출신이므로 과감히 북진정책을 추진시킬 수 있었던 것도 당시의 무술이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알 수 있다.

체육은 또한 종교와 관련을 갖고 있었다. 국초에는 불교가 국교로 되어있었으므로 삼국시대의 무사훈련에 게을리 하지 않았으나 성종이후에 유교가 들어와 사대사상이 대두하여 썩썩했던 기상은 없어져가고 대륙에 의존하는 마음뿐이어서 국민들의 신체활동은 줄어들고 문약(文弱)에 흐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왕은 외국의 군사에게 쫓기어 달아나고 신하는 목숨을 가누기 위하여 도망하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러한 수치는 이조 오백년을 연달았으며 우리나라의 숭고한 화랑정신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더구나 성종이후에는 문관과 무관의 차별을 두어 문신(文臣)을 높이고 무신(武臣)을 낮추어

백절불굴(百折不屈)의 호국의 수호신인 무신들은 연소한 문신에게 천대를 받고 학대를 받아 무신들의 원한은 높아갔으며 사람들은 자녀에게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길러주는 대신에 문학을 숭상하게 인도했던 것도 자연적인 현상일 것이다. 국가의 흥망을 눈앞에 보고서도 외면을 하고 일신의 안락을 일삼는 세태와 기풍이 생기게 마련이었다. 과거 우리나라가 외국의 간악한 발굽아래 짓밟히게 된 원인을 다시 한 번 깨달아야 할 것이다. 계단(契丹)이 침입하자 무신들은 강복을 주장하였으나 홀로 항쟁하다 잡혀가 계단왕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나는 고려의 신하이니 어찌 오랑캐의 신하가 될까보나』하고 끝내 항전하다 죽은 강조(康兆)나 하공진 같은 사람들은 고려무인의 군센 의지와 기풍을 뚜렷이 나타냈다. 이밖에도 많은 무신의 백절불굴의 정신과 삼별초의 자주독립정신은 고려무인의 전통적인 애국애족정신의 발로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무사들의 자주적인 정신은 삼국시대의 무예와 신라통일의 체육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며 수영, 수박(手搏), 태권 등이 행하여졌음은 고려체육의 전진을 보여주는 특수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기이후 유교가 흥성하게 되자 점점 국민의 신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이 약화되어 말할 수 없는 치욕과 원한의 사무친 굴욕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 열기(列記)한 바 체육사를 통하여 보더라도 체육을 권장하고 흥성했던 시대는 국력 도 막강하여 지고 어떠한 침략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에 있어서도『체력은 곧 국력』이라고 할만치 개개인의 체력증강은 국방상 견지로나 산업경제와 문화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중대요소이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은 재언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불요불굴(不撓不屈)의 감투정신이 스포츠정신이고 스포츠정신이 곧 군인정신이라 하겠다. 스포츠는 건전한 정신과 단결력(협동정신) 그리고 강장한 체력을 배양한다는 것은 전기한 바 있거니와 근대에 있어서 5대강국이라고 하는 미국, 소련, 영국, 불란서, 독일 등의 예를 들어도 이 나라들이 얼마나 체육이 향상 발전되었는가를 보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국가적인 중요정책으로써 스포츠 발전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그들의 국력과 동일하게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도 자웅(雌雄)을 다투어 싸우고 있는 것이다.

전기한 바 군인정신과 스포츠정신이 동일하다는 것은 각국의 군에서도 스포츠를 강력히 권장하여 심신을 단련시키고 있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세계 군인 체육대회, 또는 미국사관생도들의 럭비전, 풋볼전 등은 너무나 유명한 것이며 우리의 3군사관학교체육대회 등도 그 실례(實例)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체육을 중요시하여 체육발전 본연의 자세로서 우리나라가 충진군한다면 스포츠에 있어서도 세계 제4위의 국군을 보유한 대한민국으로서 유감없는 긍지와 실력을 발휘하고 과시하게 될 것임은 웨언(贅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바이다.

(끝)

체조의 역사

1. 도이취 체조

창시자는 Guts Muths. 1793년에「청년의 체조」라는 글을 써서 체조라는 것을 처음으로 설명하고 유희경기와 확연히 분리 독립시켰다. 체조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Friedrich Ludwig Jann은 1809년 고등학교에서 체조를 가르쳤고 1811년에는 처음으로 운동장을 만들고 중체조 기계체조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계를 발명하였다. 그 후 Adolf Spiess는 보통체조를 고안하였다. 그를 도이취 학교 체조의 아버지라고도 한다.

2. 스웨덴 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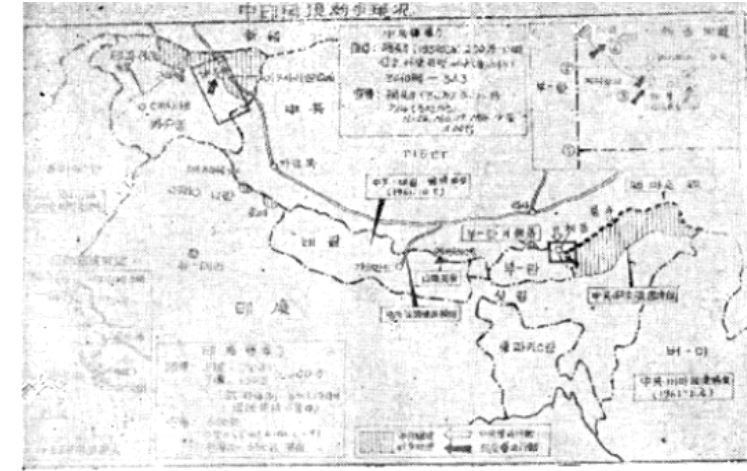
1841년 Pehr Henrich Ling에 의하여 세워진 왕립체조연습소에서 시작되었다. 스웨덴 체조는 생리학, 해부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신체를 교정하고 미적으로 발달시킨다. 그러나 형식에 흘러 단조로워졌다.

3. 덴마크 체조

닐스 북크의 체조라고 한다. 1920년 이후 20세기 초두 30년간 전 유럽에 유행하였다. 농업국의 국민의 건강에 주안을 두어 도이취 체조, 스웨덴 체조의 좋은 점을 따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제거하고 신체의 이상적인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 즉, 가동성, 힘, 기량의 양성 등에 주안을 두고 있다.

4. 스쿨 체조

체코슬로바키아의 스쿨대회에서 행하여지는 이 체조는 근대 스포츠 필수의 조건인 일사불란(一絲不亂)의 대형(隊形)과 동작, 변화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인(印) · 중공국경분쟁의 성격

☆목차

- | | |
|---------------------|------------------------|
| 1. 서론 | 4. 분쟁발생 원인 |
| 2. 국경선 접근지역의 개황 | 5. 군사면에서 본 인 · 중공 국경분쟁 |
| 3. 인 · 중공 국경선분쟁의 배경 | 6. 각국의 반향 |
| | 7. 결론 |

1. 서론

「히말라야」산맥을 연(沿)한 3천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경선을 지니고 있는 인도와 중공간의 국경분쟁은 지금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즉 1954년 7월 중공 측이 인도의 순찰병(Patrol)의 중공령내침입에 대한 비난이 있은 후(인도는 중공측의 비난은 틀리며 오히려「티벳」인이 침입하였다는 회답) 인도와 중공과의 공식문서에 의한 교섭이 시작되었으나 1959년 6월과 8월에는 중공군이 인도령에 침입하고(당시 중공군 4만명 집결설) 인도군도 전진사령부를 설치하여 소규모적인 전투가 행하여진 것이 그 시발이라고 보겠다.

기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전개된 인 · 중공 국경분쟁사건은 지난 9월 9일부터 재연되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마침내 인도는 전시체제를 확립하고 있으며 중공군은 전선에 3만 병력을 투입하고 소규모적이거나 전투상태 돌입하여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서방에서「큐바」사태가 악화되어 전쟁 일보 전에서 소련이 미국안을 수락하여 약간 호전되어 가고 있는 듯이 보이는 오늘날 인 · 중공국경분쟁문제 역시 중대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는 바 이에 그 현황을 개괄적으로 해설하고 주로 군사적인 면에서 그 추세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2. 국경선 접근지역의 개황

(1) 인도의 동북국경특별지구

『앗삼』주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히말라야」산맥에 따라 중공령 서장(西藏)과 버마와 접경하고 있는 이 지구는 중공군의 서장진주와 아울러 군사적으로 중요성을 띠어 왔으므로 인도 정부는 이곳을 특별지구로 하고 있다.『서장』수령「다라이 라마」가 1959년 4월에「히말라야」산맥을 넘어『서장』으로부터 탈출하여온 것도 이 지역이며「라마」교도가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

(2)「라다크」지구

이 지구는 중국 청초시대까지는 서장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청조(淸朝)말에 이르러「키슈밀」의 세력 하에 들어갔다.『키슈밀』은 지리적으로『자르』『키슈밀』『라다크』의 3개지구로 형성되어 있다.

『샤르』지구의 인구는 85%가『힌두』교도 『카슈미』지구의 인구의 95%가 회교도인데 비하여『라다크』지구는 인구 십만명 중 60%가『라마』교도이다.

(3)『삿킵』

인도의 보호국으로서 면적은 7100평방킬로미터 인구 13만7천명 종족은『네팔』인,『부탄』인,『레뿌차』인 등이 많다. 국교는 불교인데 주민중에『힌두』교도가 많다. 1816년까지 청조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1914년부터 47년까지 영국의 보호령 1950년 12월 인도의 보호국으로 되었고, 국방, 외교, 교통부문은 인도에 위탁하고 있다.

(4)『부탄』

인도의 보호국으로 면적은 46600평방킬로미터 인구는 63만명 대부분이 서장계의『보차스』족으로 서장어를 사용하며『라마』교를 신앙하고 있다. 청조의 속번(屬藩)으로 있었는데 1910년 영국의 보호국으로 되었다가 1947년에 독립하고 인도에 외교권을 위탁하여 보호국으로 되었다.

3. 인·중공국경분쟁의 배경

(1)『인·중공』국경을 위오(圍繞)한 분쟁은『서장』문제가 계기가 되었는데 1950년 10월 중공군이 서장에 진주하였을 때『네루』수상은『『중공』군의『서장』침입은 가장 놀라운 일이며 유감스러운 일이라』하여『중공』측에 항의를 제기하였으며 그리고 그 후 1959년의『서장』사태시『네루』수상이 중공군의『서장』반란진압을 무장간섭이라고 한 때로부터 더욱 중공과 대립되었고 『인·중공』국경에서의 분쟁이 빈발하게된 것은『중공』군이『서장』반란의 진압,『다라이 라마』의 추적 이라는 극적인 형태로 국경선에 진출한 때문이었으며 특히『다라이 라마』의 인도망명은 인·중공관계를 더욱 자극시켰다. 따라서 인도는 대『중공』정책으로서 국방강화책을 수립하는 한편 대『중공』외교책으로 대체하여 1954년 『중공』과 우호조약을 체결하고 서장의 신지위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장래의 분쟁은 평화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할 것을 약속하였다. 1956-1957년에『라다크』지구에서『중공』은 신강(新疆)과 서장을 연결하는 군용 자동차도로를 건설함에『인·중공』양국은 분쟁의 실마리를 조성케 된 것이었다.

인·중공 국경분쟁의 배경

(2) 인도와『중공』간에는 이러한 상호불신감이 발생한 것 외에『네팔』과『파키스탄』등 『인·중공』간에 개재하는 나라들과『인·중공』양국과의『삼각』관계가『인·중공』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큰 요인으로 되었다. 중공은 1961년 10월에『네팔』간에 국경조약을 체결하고『서장』의『라사』로부터『네팔』의『카트만드』협정에 조인하였는데 이 사실은 본래부터『중공』의 네팔 진출에 경계적이었던 인도를 자극시켰으며 한편『네팔』국왕『마헨드라』씨는 『네팔』로부터 추방된 망명정치가가 인도에서 반『네팔』정치활동을 행하고 있다는 면에서『인도』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런 기회를 이용한 중공은『네팔』과의 우호관계를 증진하고『진외(陳毅)』중공외상은 10월 중공『네팔』국경조약조인 1주년 축하회석상에서『『네팔』에 대해서 만일 어떠한 외국세력이 공격을 감행한다면『중공』정부와 인민은『네팔』측에 선다』라는 연설을 하여 인도를 불쾌하게 하였다.

인·중공 국경분쟁의 배경

(3) 또한『중공』은 10월 12일부터『북경』에서『파키스탄』간에 국경회담을 개시하고 있고『인도』『파키스탄』간에『카슈미』의 귀속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중에 있다. 특히『중공』,『파키스탄』간의 국경문제라는 것이『중공』의 신강 지방과『카슈미』과의 경계문제 외에 없다는 사실로 볼 때『중공』,『파키스탄』간의 국경회담개최는『인도』,『중공』간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또 하나의 문제로 되고 있다.

4. 분쟁발생원인

(1) 이외에 문제를 야기시킨 직접적인 원인으로서는 지리면에서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첫째 원인은『중공』과『인도』간의 국경선이 양국간의 해석에 따라 상이한 것이다. 예컨대 동북변경지구에서『인도』는『부탄』동북단으로부터『버마』북단까지의『히말라야』산맥의 정상을 국경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측의 주장에 의하면 이것은 1914년『심라』하서 개최된 회담에서『영국』,『중국』,『서장』간에 가조인된『맥마흔 라인』(당시『영국』대표『맥마흔』씨의 이름을 딴것임)으로 1948년 독립하자『맥마흔 라인』을 그대로 영국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확정된 경계선이라는 것이다. 한편『중국』(중공 및 자유중국)측은『심라』회담에서는 영국대표『맥마흔』과『서장』지방당국 대표『툰신샤차』가 당시의『중국』중앙대표를 포함시키지 않고 비밀리에 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맥마흔』선을 인정하지 않고『중공』측과 지도에서는『맥마흔』선의 멀리 남방까지를『중공』령이라고 하고 있고 이것은 전통적 관습상의 경계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중공, 인도가 들어가 있는 두개의 국경(폭은 150-300킬로미터이고 면적이 44000평방킬로미터)이『중공』,『인』양국의 중첩된 영토로 되고 있다. 둘째 원인은『카슈미』의『라다크』지구 문제인데 이것은 고대로부터『소서장』이라고 불리 워지며 1842년 당시의『다라이 라마』와『카슈미』변왕과의 사이에 협정이 체결된 것이라고 인도는 주장하고 있는 반면『중공』측은 중앙정부가 비준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동『서장』과 북신강성의 경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 57000평방킬로미터가 인·중공 양국의 영토로서 중첩되고 있다.

인·중공 국경분쟁의 배경

(2) 한편 정책면에 있어서 중공은 전통적으로 전래하는 대국주의의 견지에서 영토 확장이라는 국가대계를 꿈꾸고 있어 그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중공』은 1962년 4월 전국인민 대표자회의에서 소련과의『이데오르기』분쟁에 중지부를 맺는다고 한바 있거니와 그 저의는 표면상으로는『소련』에 굴복한 듯이 보여 대약진운동을 정리하기 위한 경계를 획득하는데 있고 그 양면에서 팽창주의의 야욕을 실현함에 급급하고 있다. 한편『인도』로서는 현하 국내에서 실행중에 있는 제3차 5개년계획

에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반하여 외화기근으로 어두운 전망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켜 서방측의 외화를 얻으려는 흑막도 엿보인다. 특히『인도』는『소련』의 MIG-21구입문제 및 고아문제로 서방측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한 바 있었는데 금반기회에 이러한 제반실책을 만회하려는 국면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인·중공』국경분쟁에 총궐기하여『중공』을 비난하고 있는 전 국민으로 하여금 군사력증강 명령을 선포함으로써 국민의 증산의욕을 촉진시키고 내핍생활을 하게끔하여 외화부족으로 기인된 경제의 침체를 만회하자는데 또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배경과 원인을 둘러싸고『인도』,『중공』간에는 국경문제를 중심으로 1954년부터 1962년 현재까지의 8년간에 약 400여회에 달하는 각서전이 전개되었고 수십회의 소규모총격전이 전개되었다.

인·중공 국경분쟁의 배경

5. 군사면에서 본 인·중공 국경분쟁

10월 29일 인도정부대변인이 발표한 총돌피해상황에 의하면 인도는 지난 20일 공세를 취한 이래 2500명 정도의 병력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인도』,『중공』쌍방의 전투가 한창인 동북변경지구와『라다크』의 두 개 지점을 순군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동북변경지구는『인도』의 군사적 생명선이고『라다크』지구는 중공의 전략적 거점이다. 만일에 중공이 인도를 정복하려고 하면 그 본격적 진로는 동북변경이 된다. 왜냐하면 이 지구에서『맥마흔』선만 돌파하면 그들은『칼카타』와『힌두스탄』평원을 쉽사리 손아귀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면『라다크』는 그 험준한 자연적 지세 때문에 비교적 인도측에게 유리한 군사 저지선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중공으로서는 1959년 9월 서장과 신강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라다크』지구에 건설하고 있으며『네팔』이나『부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와 같은 입중으로서는 1961년 10월 5일에『네팔』,『중공』간에 국경협정이 조인되었고『네팔』의『카투만드』와 중공간에 이미 도로가 완성되고 따라서 중공은『인도』가『라다크』에서 그들의 경제주장을 승인만 해준다면 동북부『맥마흔』선에 대한 인도의 주장대로 양보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로서는『라다크』지구에 대한『중공』의 도로건설에 불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카슈미』을 통하여 나올 중공군을 저지하여 동남아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공제안을 일축하고 동북변경구와『라다크』전역에 걸친 중공군의 철수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중공』은 3만명 이상의 병력을 국경선에 배치하고 있는데 즉 동북변경구에는 사단이상의 병력을 투입하고『라다크』지구에는 전차대를 동원하여 인도가 어떤 대상조건을 내 걸때까지 군사압력을 계속 가할 뻔심으로 있다. 이제『인도』,『중공』양국의 주요전투경위를 보면 9월 9일『중공』군이 처음 인도동북구변경구『체둥』을 공격하여 사태를 야기시켰고 9월 11일에는『도왕』을 침공, 9월 13일에는 중공군 3백명이『부탄』,『인도』령에 침입했다. 10월 10일『인도』발표에 의하면『맥마흔』선상에서『인·중공』간에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는데 중공군은 50미터 박격포자동총, 수류탄을 사용하여『인도』령 내에서 진지(陣地)를 보강중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인도』공군은 동북국경에서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10월 12 일 중공은『인도』기 1대가 서장지구에 떠왔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인도는 긴급 국방회의개최(10월, 16) 공군부사령관『하르진 데르신』소장을 미국에 파견코 대형수송기 구입교섭, 『인도』육군 65세까지의 퇴역 장교전원소집(12, 11), 전시내각구성(10, 26) 등, 제반군사조치 를 취하여 『중공』군에 정면대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 10월 29일에는 전면적 반격을 개시하여 소실했던 몇 개의 진지를 탈환했고 중공도 공세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투태세에 있는『인도』,『중공』양국의 군사력을 대비하여 본다면『중공』은 육군총병력이 정규군만하더라도 약 195개 사단에 25만명 근접된 신강 서장『곤명』,『성도』의 4개군구 병력은 약 3개 사단에 34만명이고 공군은 총병력 30만명에 보유대수 약 3천대이며 그 중 동원 가능한 근접군구인 광주군구의 병력은 IL-28, MIG-17, MIG-15 등 공격, 폭격기를 포함하여 약 4백대가 동원가능 한데 이는 전진기지인 곤명 서장(라사)기지를 이용할 것이 예상된다. 한편 인도의 군사력을 보면 육군은 총병력 정규군이 20개 사단에 약 70만명 예비병이 130만 도합 2백만으로서 이는 중공군 정규병력 보다도 적은 수를 헤아리고 있다. 공군 병력은 보유대수가 약 6백대로서 그 중 전투기는 약 35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인·중공 국경분쟁의 배경

6. 결론

상술한바와 같은 인·중공국경의 분쟁지구는 닥쳐올 엄한(嚴寒)으로 휴전에 그칠 것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인도가 장차 취할 방도로서 예견되는 것이 외교 전술인 바 평화5원칙에 입각한 교섭은 난망이다. 왜냐하면 평화5원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공의 정책도구에 불과하고 목적이 아니었다.『인도』가『중공』에 대한 외교적 저지력으로서 기대하는 것은『후르시초프』의 조정역할일 것이다. 그러나『후르시초프』는『중공』이 제안한 전투행위의 즉시 중지 무조건교섭개시의 2안을 들고 조정역할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인도』로서는 국경선으로부터『중공』군 철수(즉 9, 8선 유지)를 조건부로 시종일관 고집하고 있다. 다음으로『인도』가 취할 방도로서는 미영제국에 적극적 지원을 회구할 것인바『미·영』제국은 이미 성명을 통하여『인도』에 대한 적극적 원조 용의를 표명했음으로 그렇게 되면 분쟁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해결은 난망인 것이다. 한편 UN을 통한 해결은 중공이 비가맹국이므로 이 역시 난망일 것이다. 따라서 오늘 예상되는 것은『인·중공』국경분쟁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난망이고 양국의 상호불신감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전면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여도 현재와 같은 긴장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득준)

3차원의 세계에서 —그라이다 처녀비행을 마치고—

최영일

형님!

발밑에 보이는 누렇게 병든 색깔의 밭과 인적 드문 강가를 보며 가을을 느낍니다.

지상 250미터, 참으로 어이없는 고도입니다. 에베레스트산 아니 백두산의 높이에조차 견주어 볼 수 없는 낮은 고도입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서 느끼는 맛은 수천 미터의 높은 산을 정복했을 때의 그것에 못지않을 것입니다. 여기는 형식과 죄악이 가득한 땅을 떠난 곳입니다.

나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위도와 경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순간적이거나 3차원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3차원의 좌표에서 푸른 바탕에 푸른 물감으로 채색된 추상화를 봅니다.

흐릿하면서 명확하고, 접근할 수는 아예 없을 것 같으나, 가까이서 만져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는 사랑이 있고 신의가 있습니다. 세상의 선(善)과 미(美)와 거룩을 여기서 체험해 봅니다. 그러면서 거짓과 추함과 속됨은 말끔히 떨어버린 투명한 지역입니다.

늙은이는 추억에 살고 젊은이는 희망으로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무변대한 푸른색의 입체화는 나의 꿈이요 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 나는 참된 삶의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줄리던 도의시간이 아니고 애매하고 의견상 정연히 조직된 추상적 윤리 강령도 아니면서 구체적으로 몸으로써 배우고 마음으로 새겨서 참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보니 자연스럽게 가지각색의 품격이 제멋대로 멋이 있습니다.

형이 그렇게 고대하리라 짐작되는 활공비행의 소감을 이제 짧막하게 적어 보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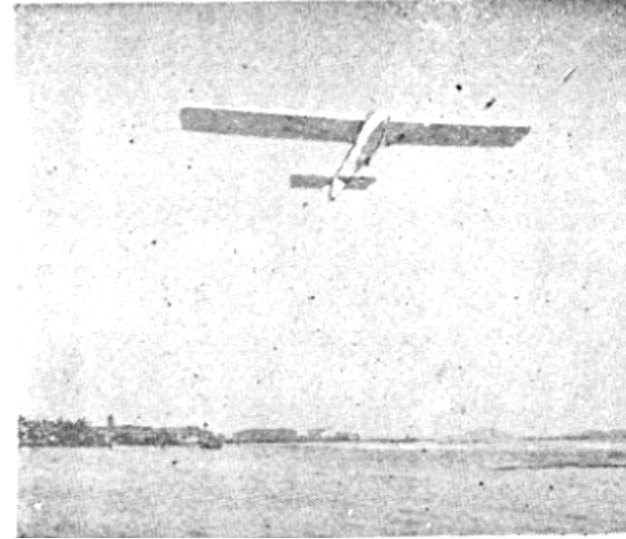
처음 입소할 지음에는 커다란 희망을 안고 또 그것을 억누르고 달래고 하면서 주춤한 마음이었습니다.

첫 번의 처녀비행은 그저 황홀과 감격으로 마음마저 공중으로 온통 뜨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취한 사람처럼 의식이 희미한 가운데 벌써 나의 애기(愛機)는 착륙활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산과 하늘을 볼 때 느끼는 괴이한 느낌처럼 공중에서 보이는 세상은 정말 아름답기만 했습니다. 그 추함과 불결과 깨어진 질서가 하나의 예술적 조화와 균형을 이룬 채 망막으로 비치어 들었습니다.

지상의 모든 것은 그만 높이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인간을 굽어보실 때의 느낌이 이런 것이리라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끔 제가 잘나고 남의 위에 있다고 우쭐대는 꼴이 눈물이 나도록 가여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강도 모래도 풀밭과 건물이 그저 구획된 선으로 구별될 뿐이었습니다.

지금 한강 철교 넘어 희미하게 보이는 관악산을 멀리 느끼면서「콘트롤 스틱(조종간)」에 손을 감아 쥐는 신경은 두뇌의 모든 기능을 촉각과 운동신경 활동에 총동원이 되었습니다. 투명하게 표백되는 정신을 의식하며 싸늘한 긴장과 초조가 호흡을 가쁘게 합니다. 가벼운 흥분을 의식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은 점점 더 크고 넓게 번져 퍼지고 정신은 드높아 부풀어 갑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회고 양순하며 날씬하게 몸차림을 한 나의 그라이다를 애인으로 불안고 또 고 품에 포근히 안기는 시간이 그리워집니다. 가벼운 두려움도 이젠 가시어졌습니다.

시간의 길고 짧음을 시계로만 재려드는 습성이 무안해졌습니다. 불과 열흘의 시간이 이제 절반이 지나갔다 고 생각할 때 태고에 이 곳으로 옮긴 것 같은 착각은 웬일입니까?

시간을 낭비함은 실로 자살임을 여기서 깨닫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고정된 사태에서의 단계적인 발전을 셈하던 자신은 허물어져 가는 동요를 느낍니다.

형님!

젊은 꿈의 보람을 참되히 씹어보는 시간들입니다.

고요한 밤에는 단꿈속에 피로를 풀며 푸근히 잠속에 잤어 듭니다.

남은 날을 마치고 다시 만나는 날은 이렇게 변모된 자신의 안과 밖을 전시해야 하겠습니까.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졌습니다. 찰떡을 얼कु었다가 화롯불에 구어 먹으며 맞대고 앉아 밤을 돈우며 이야기 하던 지난날의 기억이 되살아오는군요.

이런 계절이면 형의 건강이 마음에 걸립니다.

길어 졌나 보군요. 그럼 몸조심하기를 빌며 이만 그치겠습니다.

**빠짐없는 국민투표
바로서는 내 나라**

국민투표 계몽포어

원자력시대와 민주주의 (상)

「원자력시대」와 「민주주의」라는 두 용어는 일종의 혼성어로서 논제로서 사용하기에는 편리한 것이지만 그 논제가 나타내는 주제자체에 관하여 논급함에 있어서는 두 용어의 내용을 음미하여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함으로서 두 용어는 실로 광범한 내용을 갖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아놀드 · 토인비

우선 원자력시대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의미하는 내용은 「원자」의 구조를 이론적으로 발견하였다는 사실이나 핵분열장치를 기술상으로 발견하였다는 사실만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서양세계에 있어서 18세기 이래 속도를 더하여온 기술혁명과 17세기 이래 속도를 더하여온 과학혁명의 급격한 가속도적 진전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암시하는 용어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원자력시대」라고 하는 용어가 이 글에서 의미하는 내용 중 가장 특색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다. 오늘날의 과학적 기술적인 발견의 가속도화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득의의 기분을 갖게 하기는 커녕 도리어 불안한 기분을 일으키게 하는 면이 더욱 큰 것이다. 「원자력시대」라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들의 돌입한 이 새로운 시대가 또 하나의 시대, 즉 우리들이 일찍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낡은 시대(전쟁이 행하여지는 시대)와 시간적으로 지금 중복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돌이켜 보건데 5천년 전 옛날 최고의 문명이 일어나서 당시의 인간사회에 생활자로서의 여유와 사회적 조직력을 갖추게 한 이래 인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겪어 왔다. 여하튼 생활자로서의 여유라던가 사회적 조직력 등이 생겨나지 않았다면 전쟁이라고 하는 변태적인 사회제도도 결코 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전쟁을 노예제라던가 또는 노예제까지는 못되더라도 일정한 사회적 불공평의 상태라던가 하는 것과 같이, 지금까지의 「문명」에는 볼 어다나지는 병환의 하나였던 것이다. 최근 백년간에 인류는 노예제라고 하는 병환을 사실상 치유할 수 있었으며 또 최근 4·50년 동안에는 노예제 정도로 심한 것은 아닐지라도 역시 하나의 병환인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사태도 이를 완전히 개선, 치유하지는 못하였지만 적어도 이를 경감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유망한 스타트를 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의 세대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를 살펴볼 때 전쟁이라고 하는 병환을 치유코져 한 우리들의 노력은 크게 실패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과거에 있어서 몇 번이나 문명을 사멸시킨 이 전쟁이라고 하는 지독한 사회병에 대해서는 그 병환이 가져오는 결과를 경감시키는 것조차도 성공치 못했다. 도리어 과학적 기술적인 발견이 최근 가속도적으로 진전됨으로서 전쟁이 가져오는 결과는 한층 심각하게 되었다. 더욱이 원자폭탄의 제조수단이 발견됨으로서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의 의미의, 인류를 완전히 자멸시킬 수 있는 정도의 전쟁병기를 갖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발견이 이루어진 것은 전쟁이 아직도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여겨질 때인 것이다. 간단히 만해서 「전쟁이 행하여지는 시대」와 「원자력시대」가 시간적으로 중복되어 닥쳐온 것이 이러한 원자력시대의 특색인 것으로서 이 특색은 「원자력시대」라고 하는 용어의 어느 부분에도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이러한 특색이야말로 「원자력시대」의 제특색중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뚜렷하게 자리 잡은 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는 과학이라고 하는 용어와 같이 영험적인, 또는 비적적(秘蹟的)인 용어로서 여하튼 미신적인 용어인 것이다. 서양문화에 가는 현대의 우리들의 세계에서는 「민주주의」와 「과학」을 믿지 않고 따라서 그것을 실행치 아니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회는 없다. 다시 말하자면 「비민주적」이라던가 「비과학적」이라던가 또는 훨씬 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반민주적」이라던가 「반과학적」이라고 자인(自認)한다는 것은 문명이라는 것의 권위에 있었음을 자인한다는 것이 된다. 민주주의와 과학에 대한 말만의 충성을 약속하는 공통적인 경향은 특기할만한 것이다. 그것은 그야말로 오늘날의 세계 전체에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만은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그리고 서양권의 사람도, 또 그렇지 아니한 사람도 모두 한결같이 입을 모아 부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한결같이」라고 한 것은 의미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라는 공통의 미신적인 말을 설사 입으로 뇌이는데서부터 실행에 옮긴다 할 때 그들이 취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본다면 여러가지 인간적인 관계를 대중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통치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것은 실행의 면에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달성되어보지 못한 이상인지도 모른다. 서양에 서는 중세 스위스의 삼림지의 어떤 주와 회랍에 있어서의 알렉산더대왕 이전의 알카디아의 고지지방의 어느 도시국가에서 가장 이상에 가까운 경지에 달하였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시 글자 그대로의 의미의 민주주의의 완전한 달성은 인간성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지인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그 점이 민주정치와 과두(寡頭)정치(소수지배에 의한 정치)의 두 정치간의 비교적 중요한 상이점일 것이다. 그러한 과두정치의 형태가 사실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의 정치형태였던 것이다. 그것은 민주정치라고 공공연히 표현하고 이론적으로는 과두정치를 배격하는 사회에 있어서까지도 사실상으로는 그러하였던 것이다.

이론상의 과두정치뿐 아니라 이론상의 민주정치도 마찬가지로 사실상에 있어서는 대개 과두정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대중이 직접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정치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곤란하며, 아마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중이 스스로 정치력을 행사하는 수단을 어느 정도 쟁취하였다고 할 수 있는 장소와 시기에 있어서 대체로 시민의 대리자가 되어 행동할 것을 공약한, 정치적으로 유능한 소수자의 수중에 대중이 스스로를 맡긴다고 하는 방법에 의하여 달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위임받은 소수자가 대중의 희생위에 소수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으로서 맡겨진 신임을 악용하는 유희에 완전히 이긴 것은 드문 일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원자력시대의 과학적 기술적 성과의 덕택으로 직접적인 형태의 민주정치가 광대한 규모로서, 전 세계적 규모에 있어서까지도, 실제적으로 가능하여진 것이다.

최근의 고속도의 기계적통신이나 교통수단의 발명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시대에 있어서는, 즉 다시 말하자면 통신하는 인간의 육체가 장소를 옮기지 아니하고서도 장거리간에 눈이나 귀를 통해 통신을 행하기 이전의 시대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형태의 민주정치가 물리적으로 가능하였던 국가는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역은 정부(政務)가 행하여지는 장소로부터 1일의 행정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다. 아테네의 도시국가의 역사상의 영역 내에 들어가는 앳티케는 바로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에 과히 크지 아니한 정도의 것이었다. 로마공화국의 영토는 기원전 4세기말 이전에 이러한 조건을 갖출 수 없을 정도로 커졌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제3세기에 로마공화국의 헌법의 기초를 직접적인 민주정치에 두려고 한 기도가 실패한데 대한 하나의 설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철도, 항공기, 라디오, 텔레비존의 덕택으로 인간의 정치 지리학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미국은 기원전 444년 당시의 앳티케보다도 적은 나라인 것이다. 기원전 444년에 에테우시니아나 마라돈의 농민이 페리크레스와 접촉한 정도보다도, 그리고 페리크레스가 그들의 선거민과 접촉한 정도보다도, 오늘날의 대통령선거 운동기간중을 통해서 미국 선거민은 훨씬 더 긴밀하게, 훨씬 더 계속적으로 대통령후보자와 접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원자력시대에 있어서의 기계문명의 세계에서는 직접적인 민주정치가 그야말로 실제적인 정치형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순수하고 효과적인 직접적 민주정치를 확립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물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다면 분명히 현재의 세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민주정치가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은 자문하여 보지 않을 수 없다. 즉 「필요한 물리적 조건이 갖추어졌던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 국가에서 직접적인 민주정치가 현실적으로 실현되었던가」하는 것이다. 다만 아테네의 경우에 있어서는 필요한 물리적 조건이 기계상의 발명에 의한 거리의 극복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영토의 범위가 좁으므로 실제상의 거리가 국한되었었기 때문에 갖추어졌던 것이다.

앞서의 자문의 결과는 그 대답이 단연 부정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아테네의 농민이 에테우시스나 마라돈의 자기 집으로부터 아테네의 의회장이 있는 장소까지 하루에 걸어서 갈수 있다고 하는 물리적인 조건만으로서 자동적으로 아테네의 농민이 페리크레스가 내건 정책과 페리크레스의 정적(政敵)이 내건 정책을 비교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는 정치적 능력을 부여받고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것임에 틀림없다. 즉 선거민과 정치가와의 사이에 인격적인 접촉이 맺어지기 위한 물리적인 가능조건이 없으면 직접적인 민주정치는 훌륭하게 운영될 수 없다고 하는 그 물리적 조건은 역시 가능성의 조건에 불과한 것이며 그것만으로는 투표자가 물리적으로는 자기들의 손이 미치는 범위 내에 들어있는 정치권력을 유효하게 행사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는데 필요한 이점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물리적인 가능조건은 불가결의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서 충분한 조건은 아닌 것이다. 직접적 민주정치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적극적인 조건은 투표자의 대다수가 정치적 판단력을 갖는다는 것이며 또 정치적 판단력에는 지적능력과 함께 도덕적 품성도 필요한 것이다. 민주정치가 그러한 판단력에 의존한다면 직접적 민주정치 뿐 아니라 선출대표제 민주정치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한 질문에 대한 「예스」라는 대답이 미합중국헌법과 1832년의 영국의 선거법개정안의 암묵의 기반이 된 전제 가운데는 있었다. 그 전제는 두 가지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 첫째는 정치의 실무가 보통의 지능과 교육과

생활경험이 있는 성인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 할 것. 둘째로는 그러한 의미의, 과히 어렵지 아니한 인간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 성인들만으로 선거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상의 전제의 두 가지 조건은 다분히 모두 실제로 달성된 적이 없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은 최근백년간의 역사의 사건에 의하여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깃뺏혔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민주정치가 필요한 물리적 조건을 낳은 것과 전혀 동일한, 생활의 기계화라고 하는 결과로서 정부(政務)가 굉장히 번잡하게 되었다. 동시에 또 한 편으로는 성인참정권을 채용하므로써 선거민의 수가 증가하였으나 그 질의 저하는 피할 수 없었다. 이것은 확장일로를 걷는 서양세계의 권내에 들어가게 된 서양적인 혹은 비서양적인 다수의 나라가 서양적인 의회주의적 선출대표제의 정치체제를 명목적으로 채용하게 된 때문이기도 하다. 명목적으로 민주화된 이들 비서양적인 나라의 여러 곳에서는 성인인구의 소수조차도 정치적인 지식경험이라고 하는 소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다 정치의 실무가 지금까지 보다 훨씬 이해 곤란하게 되었다. 또 원자병기의 발명에 의해서 전대미문의 강력한 물적 추진력이 정치행동에 도입되어 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과오가 과거에 있어서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대사가 된 것이다.

필자 자신의 모국인 영국이라고 하는 일국의 국지적인 정치기구의 운용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19세기의 영국의 정치생활의 기본적인 두 가지 제도 즉 의회에 있어서의 질문이라는 것과 소득세납세자에 의한 소득세의 운영이라는 것—그러한 두 가지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본다면 19세기의 전체적인 기반이 지금 얼마나 부적당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의회는 질문이라고 하는 제도는 오늘날의 공무원의 기분이나 행동에 여러 가지 불행한 영향을 의연히 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것인지도 모른다. 어떤 방침이 그것 자신의 장점으로 보아서 다른 방침보다도 좋으나 또는 나쁘냐 하는 점에 따라서 행정상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침이 다른 방침보다도 의회에서 거북스런 질문을 적게 받는다는 전혀 다른 계산에 입각해서 결정이 내려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점을 보아서 영국에서 제2차세계대전중 임시공무원으로서 근무한 부외자(部外者)가 얼마나 한숨을 쉬었을까 짐작된다.

이러한 의회질문의 제도는 영국의 정부행정상에 이처럼 불행한 결과를 의연히 끼치고 있건만 그것의 당초의 목적이었던 정치적으로 건전한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 건전한 기능이란 의회에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서 선거민이 직업적인 공무원을 어느 정도 콘트롤 한다는 기능임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에 있어서의 이러한 중요한 민주적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로서의 의회질문제도는 붕괴되어 버렸다. 그 붕괴의 이유는 의회의 질문에 대해서 관료공무원이 이전에 비해 대답을 신속하게 아니한다거나 성실하게 대답을 아니한다거나 하기 때문이 아니라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번잡화되고 전문화되었기 때문에 의회측이 어떠한 질문을 정작 할 것인가를 안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인가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특정의 소분야에 직업적으로 종사하는 비교적 하급의 공무원의 머릿속에 밖에는 없는지도 모른다.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야말로 올바른 대답은 모를 것 이리라. 왜 그러나하면 그야말로 중요한 질문은 하나나 둘의 사소한 분야뿐 아니라 전체를 인식에 넣은 질문이기 때문인 것이다. 오늘날 공무원행정의 하나의 범위가 워싱턴의 펜타곤(국방성)과 같이 크게 되었기 때문에 넓게, 크게, 그리고 더우거나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관청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이 그 대답을 모르는 것은 사실이며 사무관료로서 전문직업적으로 그 관청의 장(長)이 된 사람도 모를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적절한 의회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전원일치의 협력에 의해서 올바른 고저한(高低限)의 답이 나온다 할지라도 아마 6·7백 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보고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회보고서에 아무리 훌륭하게 색인을 붙이고 주석을 단다 할지라도 그것만을 위한 전문적 연구에 일생을 바치지 아니한다면 그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상태에 있어서는 의회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을 내놓으면 부정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직하게 상세하게 해명코져 노력하기 때문에 도리어 진실을 가리우는 것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어둠으로서 진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눈이 부실 정도의 밝은 광선으로서 진실을 감추는 것이다.

영국의 세무행정이 어찌되었는가 하는 점도 같은 포인트를 설명하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영국의 소득세 변무관(所得稅辦務官)은 명목상으로는 납세자의 대표이지 정부의 대표자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번잡화된 경제제정생활이 불가피적으로 반영되어 소득세법 및 세과세(稅課稅)라는 것은 실제로는 법률전문가의 두개의 대군(大軍)간의 지능적인 장기전의 직업적인 전장으로 화하여 버렸다. 오늘날의 영국의 소득세의 운영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낳은 최악의 결과의 하나는 영국내의 가장 유능한 두뇌의 주인공들을 실로 많이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에서 끄집어내어 이러한 불필요한 분야의 일에 사용하는 점이다.

**어둠속에 두려워 말고
자수로서 행복 찾자**

간첩자수기간 표어

F-100 계열 항공기

공군소장 홍성표(洪聖杓)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으로부터 물체에 이르기까지 자체가 소유한 고유의 명칭을 갖지 않은 것이 없다.

더욱이 그의 중요성에 따라서는 더욱 세분하여 독자적이고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가졌는데 특히 인간은 상호 언어가 통하고 교류가 심함에 사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어느 개개인이 다 각기 상이한 이름을 갖고 있어서 알아내는데 편리하도록 되어있다. 동물 중에는 역시 인간은 그의 필요성에 의하여 타동물과 달리 각자의 이름을 가져 식별할 수 있게 한 것과 같이 물건 중에는 오늘날 군사무기가 최고조로 발달하여 수많은 임무에 당(當)하는 무기가 출발함에 이를 식별할 절실한 요구에 응해 인간과 같이 개개체에 대한 이름은 없지만 외부에서 보아서 형태가 다른 것이라면 다 그의 고유의 명칭을 가져 작전상 또는 용도상 편리하도록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항공기를 도입하여 복귀공군이 하시(何時)라도 기습공격으로 제침해온다 하더라도 자신있게 방어할 수 있는 태세를 완비하고 있거니와 그 중에는 같은 종류이라면 몰라도 종류가 다르다면 그의 기종별로 나누어서 명칭을 붙였고 또 나아가서는 임무별로 구분하도록 숫자나 부호로 분간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같은 전투기의 종류인 F86이라 하더라도 전투폭격기의 임무를 가진 F86F형과 전천후 요격기(全天候邀擊機)의 임무를 가진 F86D형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항공기에 이름을 붙여서 알아보기 쉽도록 하는 것을 명명(命名)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여야만 보지 못한 항공기라곤 치더라도 많이 불러보고 거기에서 어떠한 항공기인가 하는 호기심으로부터 더욱 관심이 많아졌다가 실제로 출현하였을 경우에 인상 깊게 남겨 곧 타기종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인간사회에서도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써 특히 혼인기를 맞은 처녀들이 자기 부모로부터 상대방 약혼자로 소개될 남자의 이름을 여러번 듣고 멋대로 상상해보다가 실제로 앞에 나타나면 수많은 남성들 간에서 한번 보아도 강렬하게 인상에 남은 것과 같은 인치인 것이다.

이렇게 이름만 알아두었다가 실물이 출현하였을 때 용이하게 타기종과 구별할 수 있도록 명명하고 식별케 하는 것을 식별법이라 하여 부대훈련에서 전투조종사나 일반장병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적(敵)항공기의 식별요령을 습득케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명명하는데 있어서도 세계 각국마다 상이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와 직접 관련 있는 미국만도 육해공군이 다 각기 독특한 명명법을 붙이고 있어 항공기의 이름만 보아도 군을 구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면 미국의 항공기중 실전에서 적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전투용기를 보유한 해군과 공군의 명명법을 보면

공군의 기종별 기호는

B는 폭격기(Bo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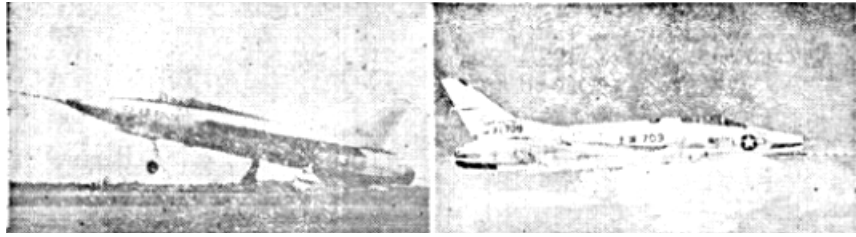
C는 수송기(Cargo)

F는 전투기(Fighter) 등등으로 나누어 있는데 이러한 기종기호는 두문자(頭文字)를 따서 하였거니와 두문자를 따서 붙인 해군기도 공군과 같은 것이 있으나 대부분 다른데 그 내용을 보면 F는 전투기로 공군과 같으나 해군에는 폭격기 대신 공격기라 하여서 "A"(Attacker의 약자)를 붙였는데 수송기는 그의 이유가 뚜렷하지는 않으나 "R"자를 두문자에 붙인 것이다. 두문자에서만도 미국내에서도 육해공군이 상호 다르니 타국의 명명법이 각국의 고유한 특징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그 다음에 미공군은 기종기호인 두문자 다음에는 어느 회사에서 설계해서 제작하여 실전에 사용케 하는 것은 불문에 붙이고 공군에서 민간회사와 계약하여 공군기로 시험단계에 들어가면 벌써 공군기로써의 숫자가 붙어서 나오게 되는데 숫자가 붙어서 시험단계에서 실전용이 되지 못한 것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보면 F(전투기) 다음 숫자가 지금까지 F-111(TFX)까지 출현할 단계에 들어갔는데 그 중 많은 기종이 이 세상 사람에게 알려지기 전에 이미 없어진 것이다.

그 숫자 다음은 보통은 내부를 약간 개량한 것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F86F형과 F86D형은 임무도 상이하지만 외형도 항상 보는 바와 같이 곧 식별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이다.

미해군의 명명법은 미공군과 같이 계속적인 숫자를 붙인 것이 아니고 같은 전투기라 하더라도 회사의 제작 번호가 붙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보면 최대속도, 음속 1.97의



F-101

F-100

속도를 가진 F-8U-2N Crusader 함재전투기는 두문자F는 전투기이고 그 다음 “8”자는 다음에 붙은 “U”자 즉 Chance-Vought 회사를 가리키는 문자기호와 더불어 전투기를 Chance-Vought 회사의 8번째 제작한 것을 뜻하며 다음 “2”는 두 번 개량한 것으로서 “N”자는 개조기호로써 전천후전투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해군은 복잡하여 항공기의 명칭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차제(此際) 잠깐 소련항공기의 명명법을 보면 1925년부터 1940년까지는 미공군의 명명법과 같이 기종별로 두 문자를 붙여서 연속번호를 붙였으나 그 후부터는 독재국가인 제2차대전 패망 전 독일의 방법을 따서 개인의 영웅심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두문자에는 기종별 대신에 설계자의 두문자를 따서 붙이고 계속번호는 보통은 전투기만은 기수(基数)를 붙이고 그 외에는 우수(偶數)를 붙여서 명명한 것이다.

현재 북괴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소련계로써 전투기만도 MIG-15 BIS 17,19까지 있는데 MIG기의 두 문자는 현 소련 부수상 Mikoyan의 동생인 Mikoyan 설계가와 Gurevich라는 수학자가 공동으로 설계 제작하였는데 실전용으로 나온 것 중 최신예기는 MIG-21(Faceplate)까지 출현하였으며 MIG-21는 미공군의 F-104와 대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일반 사람들은 소련은 전투기는 모두 MIG라는 두문자를 붙이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비교적 지금까지 실전용으로 세계 각국에 많이 알려진 것이 MIG 전투기뿐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MIG-15 BIS의 “BS”는 개량형을 말하는데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붙어의『앵콜』또는 제품(再品)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서방세계에서는 소련항공기에 대하여Cod Name을 붙이고 있는데 전투기는“F” 폭격기는“B”수송기는“C”Helicopter는“H”기타기종은 “M”자로 두문자를 써서 명명하고 있는데 이는 소련이 항공기의 명칭자체까지 서방진영 정보당국에서 확인하여 발표하기 전까지는 극비에 붙여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한 소련항공기를 상대로 서방 각국이 제멋대로 명명함으로써 일어나는 작전상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있는 것이다.

너무나 길게 제목과 동떨어진 것과 같은 감을 주는 식별법에 대한 강좌만 늘어놓은 것 같은데 실은 F-100 계열을 설명하기 위한 서론이 길어진 것이다.

그런데 지난 8월 22일 하오 장(張)참모총장님은 공군본부에서 내외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차기전투기 도입문제에 언급하여 F-100 계열전투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잘못 와전되어 일부국내외 신문지상에는 F-100 전투기를 도입한 것으로 오도한 사실이 있음은 너무나 다 아는 사실이다.

왜 와전되었느냐에 시비는 논할 것이 없고 다만 F-100 계열을 F-100으로 착각한 것은 그만큼 항공기의 명명법을 잘 인식치 못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F-100 계열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미국제 전투기이며 또 약간 상식을 넘어서면 계열쯤 되면 이미 미공군의 신예전투기이라 함을 쉽사리 알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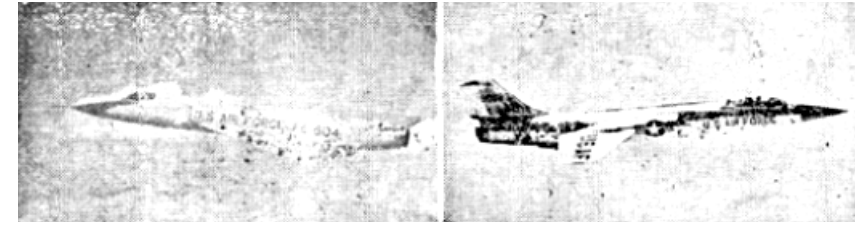
왜냐하면 미해군은 한 회사에서 전투기로 100개 기종 이상을 제작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F-100 계열이라 해서 무조건 최신예기라고만 할 수 없고 F-100 계열보다 낮은 수 계열에도 1-2기종이 있으나 공교롭게 연속번호를 붙이다 보니 F-100 Super-sabre 전투기부터 음 속을 훨씬 넘은 신예전사기가 된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F-100 계열로 F-100 Super-Sabre 전투폭격기로부터 계속적으로 연속번호대로 간략히 설명함으로써 좀 더 인식을 새롭게 하여 보자는 것이다.

*F-100 Super-Sabre 전투폭격기는 F-86 전투기를 제작한 North-American계 항공기로서 매년 10월 2일 국군의 날 공중시위에는 찬조출현으로써 한강 백사장 상공을 폭음도 요란하게 날아가는 인상적인 대형전투기인 것이다. 그의 최대도(最大度)는 MACH 13까지 낼 수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극동은 말할 것도 없고 서구라과에도 다수 배치되어 공산침략에 대하여 꾸준히 수년간 일선부대에서 취역한 관록이 붙은 것이다.

그런데 F-100 Super-Sabre는 전투행동반경이 전술폭격에 알맞는 거리까지 공격할 수 있는데다가 그의 화력은 익하(翼下)에 Side-Winder를 비롯한 각종 무장은 3375kg 까지 적재할 수 있는 것이다. 한때 준동하는 공산세력의 방어를 위하여 맹위를 떨쳤던 만 보다 신예기의 출현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 이 F-100 Super-Sabre는 현재 북한괴뢰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중 최신예기



F-102

F-104

라고 하는 MIG-19(Farmer)전투기와 성능상 대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F-101 Voodoo 장거리전투기는 McDonnell 회사제로 그의 최대속도가 MACH 1.85인데다가 그의 항속거리가 약 4,500km까지 비행할 수 있어서 전략폭격기를 엄호하고 전투기로서 공산제국과 접경한 일선부대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 F-101 전투기는 최초로 핵탄두를 가진 MB-1 Genie 공중대공중유도탄(空中對空中誘導彈)을 장비한 전천후전투기로서 F-100 Super-Sabre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중시위에서 날개가 짧고 동체가 길며 2개의 Engine으로 불을 뿜으며 비행하고 있는 복좌(複座) 전투기인 것이다.

F-102 Delta-Dagger 전천후요격기는 Convair 회사의 특징인 삼각익(三角翼)을 붙인 초음속전투기로서 그의 좋은 전천후성과 민활한 기동성을 요격전도기로는 안성맞춤인데다 그 위에 무장은 275 Rocket 24발 이외 거의 백발백중의 명중률을 가졌다는 최신 공중대공중 유도탄을 6발이나 장비하고 있으며 여하한 기상하에서도 작전할 수 있는데 적기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유도탄을 발사하는 이외에 기체의 조종이나 Engine Control 등 모든 것이 자동화된 MG-10 사격관제장치는 인간을 무력케 하고 있는 것이다.

이 F-102 전천후요격기 다음의 XF-103 전투기는 실전용이 되지 못하고 실험단계에서 끝나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전에 폐쇄화된 것이다.

F-104 Star-Fighter 전투기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용도성을 가진 음속 2배 이상의 최신예전투기인 것이다. Lockheed 회사제인 F-104 Star-Fighter는 다 용도성을 비롯한 전천후능력 그리고 최대속도가 우수하나 전투행동반경이 짧은 이유로써 미본토방공사령부에 배치되었으나 환영을 받지 못하던 중 서독에서 국지전에 이상적이라는 착안하여 내부를 약간 개량하고 무장을 보충한 F-104G형을 Lockheed회사와 합동으로 제작하면서부터 서방세계 각국에서 일대각광을 받은 전투기인 것이다. 현재 서독을 비롯하여 일본의 F-104J, Canada의 CF-104 등 수개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거니와 이 F-104 Star-Fighter는 소련의 MIG-21 전투기와 꺾 대조적인 것으로써 F-104는 다용도성 전투기인데다 전투폭격시에는 2,000 CB의 소형 핵폭탄을 동체 하에 1개를 장비할 수 있는 것이다.

F-104가 서방 각국 공군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소련에서도 MIG-21 전투기를 인도네시아 공군을 비롯하여 인도에 62년까지 2개 대대의 24대를 대어할 계획 등 점차 그의 위성공군에 장비케 하려는 징후가 엿보이는 것이다.

F-105 Thunder-Chief 초음속전술공격기는 Republic 회사제로 이 F-105는 전투기라고 하기보다는 전술경폭격기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만큼 장거리의 전투행동반경의 가지고 그의 적재량도 핵폭탄을 비롯한 각종 신예 무기 7톤까지 장착할 수 있는 음속 2배 이상의 전투폭격기이다.

미공군은 이 F-105 전투폭격기가 출현하면서부터 전술경폭격기와의 개념차가 불분명해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논한 바와 같이 장거리의 전투 행동반경권을 가지고 7톤의 적재량을 가진 항공기라면 경폭격기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승원(乘員)이 1명으로써 항법사가 탑승하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그래서인지 모르나 오늘날은 대형의 전투폭격기를 다수 제작하는 대신 전술경폭격기는 전연 설계하지 않는 경향이 강력하게 흐르고 있다.

F-106 Delta-Dart 전천후요격기는 F-102 Delta-Dagger의 개량형으로써 Convair 회사제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본기는 MA-1 비행사격관제장치를 가지고 지상 Sage(반자동방위시설)에서의 지령전파를 자동적으로 해석하고 이륙직후로부터 착륙 직전까지 자동적으로 비행하고 적기에 대한 접근이나 유도탄발사까지 완전 자동화된 우수한 전투기이다.

F-102 전투기의 최대속도가 MACH 12인데 개량 발전하여 MACH 20 이상을 내게 하고 실용상승한도를 21,300m 이상까지 상승비행할 수 있는 이외에 핵탄두 고중대공중유도탄 MB-1 Genie 1개를 장비하는데 특이한 개조를 하였다.

F-106 전천후전투기 다음에 XF-107은 F-105 Thunder-Chief를 개량하였는데 실전용으로 별 차이를 나타내는 특징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실험단계에 끝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XF-108도 역시 F-106 Delta-Dart를 개량

발전하여 음속3배의 요격기로 제작하였으나 오직 환격능력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지상대공중유도탄이 대용할 수 있다는 결론아래에 역시 실험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XF-109 역시 설계 구성상에 지나지 않고 이 세상에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 최근 미공군은 F-110 전술전투기를 명명하게 이르렀는데 이 F-110 전투기는 새로운 설계제작이 아니라 미해군의 함재전투기인 McDonnell 회사제의 F4H-1 Phantom을 주요부분만 개량하여 전술다용도기로서 실전 용에 취역할 계획이 63년도 조달계획에 들어 있는 것이다.

F4H-1 Phantom 함재전투기는 최대속도가 MACH 20 이상이며 그 외에 전천후성을 겸비한 대기관제설치나 자동조종장치가 완비되었고 전투행동반경이 2,340km나 되는 장거리 전술공격기인 것이다.

끝으로 F-111 전투기는 1명 TFX 계획이라고 부르는데 이 F-111 전투기는 전투기라기보다 폭격기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 할 정도이라 한다. F-111 전투폭격기는 현재 미공군의 B-52 전략폭격기에 4개를 장비할 수 있는 1,500km 이상의 사정을 가진 공중대지상탄도탄(空中對地上誘導彈) "SKYBOLT"를 소형으로 개량한 탄도탄을 탑재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F-100 계열을 약술하여 보았는데 그의 특징으로 나타난 몇가지를 들어 볼 수 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초음속도 전투기로서 F-102 DELTA-DAGGER 최대속도 MACH 12가 최저로 대개의 전투기들은 MACH 20이상이라고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임무별에서 한 임무를 떠난 다용도성이고 그 위에 전천후성과 완전 자동화로 전환하고 있는 점이다. 임무에서 이미 XF-107은 전투폭격만이고 XF-108은 요격임무만이기 때문 세 실전에 사용치 않으며 F-104로부터는 다용도성을 가진 전투기로 변전한 것이다.

셋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나 F-100 계열로부터 소형의 전술핵폭탄을 장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F-111은 이미 핵탄두를 지나 핵탄두로 장착된 공중대지상 유도탄을 탑재하게 이른 것이다.

끝으로 비록 전투기이지만 기동성이 좋고 자동화된 전천후성용을 이용한 전술폭격기로서 경폭격기와 대체하기 위하여 기지에 이륙하여 적 목표지까지 비행하여 공격한 후 무사히 귀환할 수 있는 전투행동반경권이 장거리이라고 특징을 들 수 있다.

앞으로 군사무기의 발전은 대형 Rocket으로부터 인간이 조종하는 소형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개량 제작될 것이 예상되는 이 마당에서 앞으로 출현할 무기에 흥미를 두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항공기에 대한 인식도 새로이 하여야 할 것이다.

시간



염의승
★공군대령

시간은 흐른다. 어제 또 오늘도 아니 영겁한 어느 날까지 마치 맥박인양 시간은 쉬지 않고 흐를 것이며 일순을 아로새기는 초(秒)가 겹쳐 세월을 형성하고 역사를 이룩한다는 사실을 나는 요즘 새삼 뼈저리게 느낀다.

2년 전만해도 나는, 시간이라는 것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해 보거나 신비스럽게 쳐다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세월의 흐름을 한탄하는 사람을 볼 때 쓴웃음을 품었던 것만은 솔직한 나의 고백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요즘의 나는 시간이라는 것에 대하여 형이상학적인 어떤 신비를 느낀다. 지나가 버린 과거가, 이렇게 말하는 과거는 결코 살아져 없어져 버린 것 같아도 그 매듭진 어느 행위의 결과는 엄연히 현재에 직결되어 어떠한 아쉬움을 뚜렷이 발견하게 되어 미래는 비록 닥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일순간의 티끌만한 움직임도 미래가 여하히 형성되느냐를 좌우할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것을 모두 시간이라는 것이 마련해 주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런 생각은 내가 제작한 이즈음의 외과적 질환으로 삶과 죽음의 경지를 방황하고 난 후 삶이라는 것이 그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단 한번밖에 죽을 수 없는 것이기에 삶은 정녕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사이에는 흔히 기적이 생기게 마련인 것이 아닐까?

나는 확실히 요즘 시간의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시시각각으로 초를 아로새기는 소리를 들을 때 달음박질 하는 내 인생의 황혼을 느끼는 것이다. 우주의 장엄한 시초와 최후의 그날을 상상하면 어찌지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 같다.

제3회

나를 움직인 책들



- 8. 김기석(金基錫)
- 9. 왕학수(王學洙)
- 10. 한태수(韓太壽)

나를 움직인 티끌

-독서기-

김기석(金基錫)
★서울특별시교육회장

1.

나는 어려서 어머니께서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를 읽으시는 것을 더러 들었다. 사씨가 어쩔느니 교씨가 어쩔느니, 사씨가 낳은 어린애를 교씨가 갈밭에 버렸느니, 사씨가 동정호에서 배를 타고 남으로 내려갔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다. 전체 줄거리를 잘 알 수는 없으나 본부인인 사씨와 그 다음에 들어온 여자인 교씨와의 사이의 싸움으로서 어질고 현숙한 사씨에 대하여 교씨가 언제나 모함하는 이야기였는데 나중에는 어진 부인이 이기고 악한 여인이 응보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이 전기를 읽는 어머니가 언제나 사씨의 편인 것은 더 말할 것 없다. 어머니는 이것을 읽으실 때 사씨편에 자기신체를 두시어 사씨가 고생하는 대목에 가서는 목이 떨리고 목소리가 흐리시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바지저고리를 갖추어 입는 것이 아니고 두렁이라고 위에만 입고 돌아가는 어린 것이었는데 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사씨가 내게도 좋았고 어머니가 싫어하시는 교씨가 내게도 싫었다. 그리고 나중에 갈대밭을 보기만 하면 거기에 몸쓸 여인이 남이 낳은 어린이를 내어다 버린 것만 같고 바다나 호수를 보면 어진 부인이 모함에 몰려 외로운 배에 몸을 실은 형상이 눈앞에 어리는 것이었다.

2.

그 뒤 나는 좀 자라서 천자를 배워 한문 글자를 외우고 쓰고 하면서 아버님을 따라 저녁이면 어른들이 모인 사랑방에 가서 아버님이 한문으로 된 삼국지를 우리말로 번역해 가면서 읽으시는 것을 어른들 틈에서 들었다. 유, 관, 장 삼인의 도원결의에서부터 적벽강의 싸움, 장판교의 싸움, 화용도 싸움, 촉도 험란한 길을 넘어 들어가는 싸움, 언제나 사료교에 앉아 백학선을 붓는 제갈공명, 손권, 조조, 그리고 손권의 모사인 주유와 그 장수 서성정봉, 조조의 모사 사마희, 유현덕편의 제갈량, 관운장, 장비, 조자룡……

가장 감격되는 장면이 처음의 도원결의와 그 뒤 관운와 장비가 현덕의 두 부인을 모시고 쫓겨가는 장면과 관운장이 팔에 화살을 맞고 그것을 빼고 살을 긁어내는 장면과 제갈공명의 출사표와 공명이 죽은 것을 숨기고 사마희를 쫓아가게 하던 장면과……가장 인상적인 것은 삼국지연의 그 창창하고도 재미나는 이야기를 통하여 어려운 싸움을 하면서도 임금과 신하, 장수와 군사, 군사와 군사 사이에 두터운 신의 아름다운 인정이 흘러내리는 일이었다. 우리들이 봉건시대의 도덕을 봉건잔재라고 하여 경홀히 여기기가 일수거니와 그 생각과 풍조와 감정이 오늘의 우리와 같지 않은 몇 백년 몇 천년 전 이야기야말로 어린 시절의 부드러운 가슴에 한없는 높고 맑은 물결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사씨남정기와 삼국지연의…… 이 두 이야기 책은 열살도 못된 어린 시절의 내마음속에 선(善)과 신의와 인정이라는 나무를 굳건하게 심고 가꾸어 준 것이었다.

그 뒤 열살이 넘어 나 혼자 힘으로 설인귀전이니 구운몽이니 하는 전기책들을 읽어 보았는데 읽을 때 뿐이고 아무런 인상도 남지 않고 지나가 버렸다.

3.

내가 삼일운동 바로 이듬해 오산학교에 나와 다니면서 중학시절에 우리말과 서툰 일본말로 더러 책을 읽었는데 우리말로는 춘원(春園)의 소설, 노자영(盧子泳)의 감상집, 일본말로는 하천(賀川)의「사선을 넘어서」였다. 그 때 역시 노자영의 엮은 책으로 기억되는데「사랑의 불꽃」이란 조그만 책이 남녀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 나도 더러 떠들어 보았는데 이 책은 열여덟 아홉의 여드름 나는 남녀중학생의 연문(戀文) 모은 것 같은 것으로서 읽을 때의 흥분과 감상뿐이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다.

중학교 삼학년 때 학교를 오산학교로부터 평양 광성고보로 옮기면서 중학 사학년때 부터는 완전한 문학청년이 되어 동인잡지까지 내었는데 그때 애독한 것이 잡지로는「백조(白潮)」,「개벽(開闢)」소설로는 춘원(春園), 병허(憑虛), 도향(稻香), 동인(東仁) 같은 작가들이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김팔봉의「개벽」에 실린 수상(隨想)「해태가 운다. 해태가 운다. 종노의 해태가 운다」로 시작되는 글이고 동인의 단편「배따라기」의 처량한 이야기다.

사상적인 책으로는 우리말로 된 것은 별로 없어 일본 신조사에서 내인 생전장강(生田長江)의 몇 사람의 편인「근대사상 16강」인가 한 책이었는데 이 책에서 나는 톨스토이니 니이츄니 하는 이들의 이름과 그들의 사상의 줄거리를 알게 되었다. 그 뒤로 나는 우리나라 글 중에서도 사상적인 내용의 글을 읽으려고 했는데, 춘원과 육당의 논문, 이돈화의「인내천」,「개벽」에 실린 논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학예란의 논문들을 읽고 했다. 이렇게 하여 독서의 관심이 문학으로부터 문명비평에 옮겨 가게 되었다.

4.

중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갈 무렵 나는 완전히 자기를 사상가로 자처했다. 톨스토이, 칸디, 타골을 좋아했고 작품으로서도 사상적 내용을 담은 톨스토이, 유고, 입센의 작품 같은 것을 좋아했다.

내 동경유학은 실상은 유학이 아니고 가정사정 때문이었는데 조대(早大)에 입학한 뒤 나는 결정적으로 사상적인 책을 읽기 시작했다. 가정사정이란 이리하다. 나보다 이태 위인 형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어려서부터 성질이 활달호방하여 꼬물꼬물하기를 싫어했다. 추수를 백석도 못했고 그나마 아버님의 장사 실패로 그 뒤로는 일본사람 불이(不二)농장의 소작인으로 화한 우리집 형편으로 자녀의 대학진학, 더우기 동경유학이란 말이 안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 어린 개화주의자의 강권강행으로 나도 중학을 나왔는데 동경대진재(東京大震災)가 일어나기 바로 전 해에 고학한다고 단신 동경에 뛰어 들어가 박열파의 무정부당에 들어 진재나던 날 아침까지 대대목(代代木) 하숙방에서 박열, 금자문자(金子文子)와 셋이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진재난 날 긴 머리카락과 굵 높은 게다가 사꾸라 몽둥이를 끌고 동경시내로 들어오던 도중 폭중(暴衆)에게 맞아 학살되었다. 진재 때 실적(失跡)된 형의 소식을 알기 위하여 동경에 건너갔는데 조도전(早稻田)대학에 적을 두고 만고학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사상적인 서적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기가 전공하는 영문학에도 관계가 있어 문학, 문학평론을 읽었는데 차츰 문명비평으로 옮겨와 본격적인 사상서적을 손에 들게 되었다.

그때 동경에는 좌익바람이 불어 무산정당 노동당이 결당되면서 조대 교수 대산옥부(大山郁夫)가 당수가 되고 법석이 났었다. 하상조(河上肇), 대산옥부(大山郁夫), 산천균(山川均), 삼호 진남(森戶辰男), 대삼영(大杉榮), 석천삼사랑(石川三四郎) 그 밖에「문예전선(文藝戰線)」,「전기(戰旗)」가 잡지로 나오고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무정부주의, 산디칼리즘, 기독교사회주의, 국제노동운동에 관련된 허다한 단행본, 총서, 팸플렛, 잡지, 비밀본들이 산적하여 일본은 혁명의 구렁탕, 동경은 좌익서적의 야시장이 된 것이었다.

이 때 나는 그때의 다른 대학인, 인테리와 마찬가지로 좌익서적을 닦치는 대로 읽었다. 경제학비판, 도이췌 이데올로기, 독립사회민주당사, 그밖에 누구 전집, 누구 문헌…… 빵의 약취, 상조부조론, 지인론…… 그런데 차츰 이같은 조류에 대한 역사적인 서술(敘述)이 읽고 싶다는 생각이 나서 사회주의자, 사회운동사, 사회사상사, 인터내셔널사 같은 것을 읽어 보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상받은 것이 석천삼사랑(石川三四郎)의 옥중 저작인 서양사회운동사다. 이 책이 서양사회운동에 대한 올바른 눈을 트이게 했고 또 그 운동에 대한 이해와 사회주의 사회운동의 제류파에 대한 공정한 평가에 이끌렸다. 그 문장의 부드러움과 그 고찰의 논박함과 그 심정의 고상함에 있어서 이 종류의 책치고 이 저자의 이 저술에 지날 책이 그렇게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5.

동경 4년 동안의 생활을 마치고 나는 모교 오산중학교에서 7, 8년 교편을 잡았고 그러다가 일제말기 피난은 신경 동북제대 철학과에 적을 두어 동북지방 선대(仙臺)에서 3년을 보내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 모교에 있다가 해방을 맞아 그 뒤 서울에 와 지금 환경 속에 있는 것이다. 오산의 조용한 교편생활과 선대 3년 동안에 나는 주로 철학과 종교서적을 읽었다. 플라톤,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칸트, 킬케골, 러셀, 논어, 성서, 장자, 율곡, 법구경, 불소행찬, 반야심경, 화엄경십지품, 역, 맹자, 중용, 동양철학사, 인도철학사…… 그러나 이런 책들은 나를 움직인 티끌이 아니고 내 위에 내린 다시 없는 은총인 것이다. 이 책들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거니와 그 냄새를 바로 맡고 그 내리는 비를 바

로 맞는다고 하면 한없는 융성한 지혜와 덕행이 나를 가꾸고 빚내기에 이를 것이니 이 책들은 책으로 읽을 것이 아니고 위대한 인류의 유산으로서 정성드려 받아드릴 길이 남았을 따름인 것이다.

옛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왕학수(王學洙)
★고대교수

독서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기 이전에 글 읽는 것이 무척 재미가 있었다. 두메골 한촌에서 글방 선생님께서 두 무릎을 단정하게 꿇고 천자문이니 동몽선습(童蒙先習)이니 통감(通鑑) 소학 등을 배우고 읽고 외우고 강을 받을 때는 하나 의무감에서였지 글 읽는 재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나의 솔직한 고백이다.

차라리 사랑방 한문에는 무식한 농군들의 고담이야기 책 읽는 것을 듣다가 어꺼너머로 배워버린 국문(당시에는 언문(諺文)이라 불렀으며 이것을 배우는 것을 집안 어른들은 신동히 여기지 않았다)으로 갓 쓴 어른들의 눈을 피해가며 춘향전이라 조용전이라 옥루몽이라 구운몽이라는 따위를 읽는 재미가 여간 아니었다. 흥부전, 속향낭자전도 기억에 새롭다.

서당방 무시무시한 구식교육을 벗어나 국민학교(당시는 보통학교라 했다) 교육을 받으면서 독서욕은 의외로 강력했으며 읽을 기회도 많고 읽을 자유도 흔했으니 닦치는 대로 손에서 책을 땔 줄을 모를 지경이었다. 이른 봄 따스한 양광을 받으며 산골짜기 누구의 외로운 영혼이 잠들고 있는지 모르는 뿔뿌리(고추)에 누어 푸르다크의 영웅전을 열심히 읽었으며 한여름 무더운 날에 시냇가에서 목욕을 하고 참외나 수박이 익어가는 외밭 원두막에서 목침을 베고 누어 세계야동문학전집류를 수없이 읽어 내려갔다.

그 중에서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꼭 하나있다. 웨익스피어의 명작「베니스의 상인」이 곧 그것이다.

이태리의 베니스는 곤도라의 노젓는 소리와 뱃노래에 날이 새고 저무는 물의 도시이다. 예전부터 외국의 진귀한 물건을 실은 배들이 꼬리를 물고 드나들었기 때문에 화려한 장사를 하는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 가운데에 안토니오라는 젊은 상인이 있었는데 그는 큰 배를 여러개 가지고서 아무 부족함도 없이 지내고 있었다. 거기다가 천성이 매우 어진 사람이어서 친구는 물론 군색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디까지라도 도와주려는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다.

그는 귀족 출신인 친한 친구의 결혼비용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여러 곳을 찾던 나머지 드디어 베니스에서 소문난 돈돌이꾼인 샤이록이라는 유대인의 집을 방문했다. 이 자는 기독교도의 상인들에게 아주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 주어서 남의 피를 빨아 부자가 된 늙은이였다. 인색하고 욕심쟁이인데다 인정사정도 없이 빌려준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뱀처럼 그를 싫어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안토니오는 이 자를 송충이보다도 더 미워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 자도 또한 안토니오를 몹시 미워했으며 언젠가 한번 복수를 하려고 버리고 있는 터이라, 3천다켓을 빌려주는 차용증서에 기한을 어길 때에는 보증인인 안토니오의 몸 어디에 서든지 1파운드의 살을 베어내도 괜찮다는 조건을 붙였다.

친구는 안토니오의 친절과 후원으로 결혼을 부잣집 귀여운 아가씨와 했으나 안토니오의 배는 파선을 하고 또 기한을 넘어서 잔인한 이 유대인은 기어코 1파운드의 살을 요구한다. 20배로 돈을 치르겠다는 친구의 간청도 아랑곳없이 마구 1파운드의 살을 도려내려고 법정에서 칼을 꺼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재판장인 그 고을 공작님의 난처한 판국에 한 젊고 예쁜 법학박사의 신기한 재판이 벌어졌다. 그는 부탁하다 못하여 드디어 추상같은 언도를 내렸다.

「좋아 그러면 더 이상 부탁을 하지 않겠다. 베니스의 법률이 이것을 용서하고 법정이 명한다.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는 확실히 그대의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안토니오의 가슴에서 살을 베어내도 좋다. 아니 반드시 베어내야만 한다……」

「정말 공명정대하신 명재판관님이옵시다」하고 춤을 출 듯이 기뻐한 샤이록은 칼을 추켜들며 안토니오에게 다가들었다. 그러자 그 순간 젊고 예쁜 재판관의 지엄한 음성이 울렸다.

「잠깐 기다려, 샤이록! 아직 언도할 것이 남았다. 이 증서에는 한 방울의 피도 그대에게 준다고는 적혀 있지 않다. 살 1파운드라고 분명히 적혀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증서대로 살 1파운드만 베어 내어라. 만약 그 때 이 기독교도의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린다면 그대의 토지도 재산도 모두 베니스의 정부에서 몰수한다. 알았는가?」

어린 동심에도 분노와 감격이 매우 컸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고리대금업자 하면 밉고 법관 하면 신성해 보인다. 하기가 고리대금업자의 돈만을 두둔하는 법관도 있는 듯한 풍문도 있기는 하지만.

중학교시절은 주로 민족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방면 책을 읽는 것을 즐겨했다. 춘원의「흙」심훈의「상록수」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나도향, 김소월, 김동진, 최남선, 이효석, 한용운, 현진건, 이상, 정지용, 김동환, 최서해, 성대훈, 이무영, 김말봉, 여사 등등이 시절에 글로서 나에게 그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깨우쳐 준 그러나 이제는 불리보아도 외쳐보아도 대답이 없는 그리운 이름들이다.

윤태관 박종화선생, 팔봉 김기진선생,

황보 염상변선생, 독견 최상덕선생, 현민 유진오선생, 노산 이은상선생, 무애 양주동선생, 백철학장, 이현구학장, 김세섭 교수 등등의 글과 시가 역시 나의 기와 백(篋)에 적지 않은 양식을 넣어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된다. 글에 접하기는 대학시절로 생각되며 친교를 맺게 된 것은 해방후이나 나의 독서생활중에서 자주 자극이 되고 나의 생활의 즐거운 벼이 되어 준 분들이 시인 서정주형, 이상로형, 류 치환교장, 장만영교수, 김용호교수, 박영선교수, 정비석형, 조지훈형, 박목월형, 박두진형, 김동리형, 조연현형, 구상형, 마해송선생, 최정희여사, 장덕조여사, 박화성여사, 한성숙여사, 전숙희여사, 권경자녀사, 김서안여사이다. 이분들이 심혈을 기울여 쓰신 시와 글들이 아름다운 책으로 되어 출판될 때마다 정성들여 보내 주시는 덕분에 흔히 게을러지게 마련인 나의 서재생활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다. 그 시절에 나의 입에 자주 외워져 지금도 한숨에, 읊어지는 저 불우의 천재시인 김소월의 시 한 수를 여기에 적어 본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움에 곱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곱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자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선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소월·초혼가)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위에서	

나는 또한 정주의 다음 시를 때때로 외워본다. 잔잔한 그리고 그윽한 「학」의 노래를.

천년 맺힌 시름을 출렁이는 물살도 없이 고은 강물이 흐르듯 학이 나른다	누이의 어깨 넘어 누이의 수틀속의 꽃발을 보듯 세상을 보자
천년을 보던 눈이 천년을 파다거리던 날개가 또 한번 천애에 맞부딪노라 산 덩어리 갈어야 할 분노가 초목도 울려야 할 서름이 저리도 조용히 흐르는구나	울음은 해일 아니면 크나큰 제사와 같이 춤이야 어느때들 골라 못추라 명명히 갓은 목을 제 쪽지에 물을바어야 춤이야 어느 술참땀들 골라 못추라
보라, 옥빛, 꼭두선이 보라, 옥빛, 꼭두선이 누이의 수틀을 보듯 세상을 보자	긴머리 자진머리 일렁이는 구름속을 저 울음으로도 춤으로도 참음으로도 다하지 못한 것이 어루만지듯 어루만지듯 저승길을 나른다 (서정주·학)

교단생활을 하는 지금은 나날이 진보되어 가는 전문분야의 새로운 사실들을 후진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애쓰다보니 참으로 인생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교양도서를 읽을 짬이 드물다. 더구나 양차의 대혁명에 휩쓸려 국사의 한 모퉁이를 톺다보니 더욱 책과 멀어지는 것이 일대 한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망중환을 읽는 멧은 인생의 연료와 더불어 세사의 경험과 겨누어 또한 각별한 몸과 취(趣)가 없지 않으니 때때로 명작고전과 마주앉아 그윽한 인생의 의의를 캐고 물어 보는 것이다. 이 가을도 깊어가는 요즘음 안델센의 동화집을 읽었더니 느낀 바 새로움이 있었다.

「어느 나라에 한 임금님이 있었는데 이 임금님은 새 옷을 무척 좋아했다. 그래서 새 옷을 위해서라면 돈을 얼마든지 들여서라도 늘 화려하게 차려 입고 있었다. 어떤 날 두 사람의 사기꾼이 사람들 틈에 끼어서 이 서울에 굴러 들어와서 자기들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베를 짜며, 빛깔과 무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화려할 뿐 아니라, 아주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별한 성질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자랑을 하고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즉 자기 능력에 맞지 않는 지위에 앉은 사람이나, 자기가 바보라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이 귀한 천으로 지은 옷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정말 그렇다면 아주 훌륭한 옷일게다!」하고 임금님은 생각했다. 「만일 내가 그 옷만 입으면 이 왕국 안에서 부당한 지위를 차지한 자들을 누구든 곧 발견할 수 있을게고 또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과 못난이 바보를 가려 낼 수 있단 말이야, 얼른 베를 짜게 해라.」

처음 그들은 질이 좋은 비단과 순금의 실을 산다고 돈을 달라고 했다. 두 사기꾼은 돈을 호주머니에 다 집어 넣고 아무것도 안 건 빈(篋)베를 앞에 앉아, 짐짓 밤 늦게까지 덜거덕거리면서 열심히 짜는 체 해보이고 있었다.

벌써 서울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천의 신비로운 위력을 듣고 있어서 어느 누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인지, 또 어느 누가 문에 넘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고 있었다. 임금님은 하도 기다려져서 늙고 고지식한 정승(總理)을 보내 보았더니 사기꾼에게 속아 자기 눈을 의심하고 자기가 바보일까봐 빈 베틀에 비단이 감겨 있다고 허위보고를 했다. 사기꾼은 더욱 많은 돈을 타내서 호주머니에 넣고 빈 베틀에서 덜거덕거리기만 했다. 다음에 간 벼슬아치들도 자기가 바보나 적합하지 않은 지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 허위 보고를 했다. 너무나 궁핍한 임금님은 자기 스스로 가 보았다. 임금님이 오신다는 바람에 사기꾼들은 그 야말로 열심히 일을 해 보였다. 그러나 베틀에는 여전히 실오라기 하나 걸려 있지 않았다.

「폐하, 잘 보시옵소서, 얼마나 훌륭한 솜씨옵니까, 이 무늬, 이 빛깔, 정말 황홀하옵니다.」 늙은 정승과 높은 벼슬아치는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고 서로 서로 다투어 베틀을 가리켰다. 임금님은 자기 눈을 의심하면서 도 속으로 혼자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 나한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나. 이거 큰 일 났구나, 아니, 그래, 내가 바보란 말인가? 아니면 내가 임금 자격이 없단 말인가. 이거 참 무서운 일로 다!」중얼거렸다. 이렇게 속은 임금님은 이 보이지 않는 베를 좋아라 옷을 짓게 하여 입고 열병식(閱兵式)에 거드름을 피우며 나아갔으며 신하들은 입을 모아 칭찬을 했다. 그 많은 임금님의 옷 가운데서 여태까지 이처럼 호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 때, 어린이가 하나가 「저 사람 아무 것도 안 입었네 뭐!」하고 소리쳤다. 그리하여 그 귀여운 어린이의 말은 소곤소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건너가고 번져갔다. 마침내 모든 사람이 임금님을 발가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임금님은 난처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행렬을 중지시킬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 임금님은 여전히 점잖게 걸음을 옮겨나가고, 시종들은 아직 보이지 않는 옷자락을 공손히 받든 채, 엄숙한 표정으로 따라갔다.

이야기는 동화이나 우리나라의 어제 일이나 오늘 일과 겨누어 새삼 감개가 없을 수 없으며 경종이 아니 될 수 없다.

독서편력

한태수(韓太壽)
★한양대 정경대학장

1.

나는 어려서부터 몹시 사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보다 많이 생각하는 편이었다. 따라서 보통학교(현재는 국민학교) 및 고등보통학교(현재는 중학교 고등학교) 당시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외에는 별로 읽는 책이 없고 수종의 잡지와 간단한 시집 및 소설 몇 권에 불과하다. 당시에 읽던 잡지로서는 「삼천리」, 「개벽」 등이 기억에 남는다. 이러한 잡지를 통해서 해외에서 활동하던 선인들의 소식을 단편적으로나마 듣고 흥분하기도 하였으며 단행본으로서는 김옥균 전기를 열심히 읽었다. 시집으로서는 노산시집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도 「장미」라는 제목으로

장미가 곱다고
꺾어보니
그 속에는 가시가
있어요.

사랑이 좋다고
따라가 보니
그 속에는 눈물이
있어요.

라는 시가 있어서 어린 마음에 몹시 감상적이었고 역시 노산 단편집(책명은 잊었음)중에 「유월(柳月)」이란(소설명인지 작품중에 나오는 인물인지 불분명) 소설은 실로 낭만적인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확실히 노산은 우리나라에 낭만주의문학을 수입한 선구자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고보 3, 4학년 당시에 일본어로 읽은 「유고」작 「희! 무정」과 「톨스토이」작 「부활」도 젊은 청춘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준 것이 틀림없다. 책은 아니지만 나운규, 신일선 연출의 「아리랑」이란 영화는 너무도 심각하여 나운규가 미쳐서 팽과리를 치며 산고 개를 헤매던 장면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당시 우리 어린이들은 이것을 제멋대로 우리민족의 운명과 결부시켜 생각하고 흥분하였던 것이다. 당시 나는 학교에서 「나폴레옹」이 하루에 세시간 밖에 자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나도 이것을 실천해 보고자 무척 애쓰던 때이다. 새벽 세시면 일어나 어름을 깨 찬물에 세수를 하고 철축을 씻어 만든 죽창을 들고 공원에 가서 투창연습을 하던 일이 정서깊이 되새겨진다. 나의 고향은 진주다. 축석루(矗石樓)에서 남강을 끼고 절벽에 면한 구뫼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올 때 서공에 빗겨 있는 반담은 희망에 불타는 어린이의 가슴에 신비적인 매력을 흠뻑 불어 넣어 주었다. 이러한 시절에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중에 나오는 일인 고산저우(高山樗牛)의 「무상」에 관한 작품은 한없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졌고 「파초(芭蕉)」의 「俳句」 「하목수석(夏目漱石)」의 단편소설 등은 특히 심금을 울리는 것들이었다. 당시는 또 일본서 좌익사상이 대우 팽창하던 때라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판푸벨트」가 많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도 기억나는 것은 「산천군(山川均)」, 「좌야학(佐野學)」 등의 저작인데, 소설로서는 「덕영직(德永直)」의 「무엇이 그 여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느냐?」하는 것이 아직도 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2.

고보를 마치고 서울에 와서 전문학교를 다닐 때는 점점 철학적으로 사고하게 되었다. 고민의 중심과제는「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하는 것이었다. 최남선「백인번뇌」를 열심히 읽었고, 일인「금자마치(金子馬治)」의 철학개론과「파다야정일(波多野精一)」의 서양철학사를 몇 번이고 읽었다. 아마 나의 철학적 지식의 토대는 이 두 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 다음에는 당시의 시대풍조에 따라 주로 좌익서적을 읽었는데 그 중에도 특히 힘들여 읽은 것은「부하린」의 유물사관과「맑스」의 공산당선언, 「레닌」의 제국주의론, 일인「하상조(河上肇)」의 유물변증법 등이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 이론의 기초는 이러한 저서들에서 얻어진 것이다. 내가 동전문학교 4학년때 진주고보에서 독서회 사건으로 많은 학생들이 일경(日警)에 잡혀 당했는데 그 사건에 나의 아우 둘이 관련되어서 서울에 있는 나머지 끌려가 40일간 유치장신세를 진 일이 있다. 그때 압수당한 책이 상기한 바와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 중에도 내가 가장 열심히 읽었던「부하린」의 유물사관에 내가 세밀히 기입한 평 때문에 일경으로부터 내가 그 방면의 거물인 것처럼 취급받던 생각이 난다. 개조사관「맑스」「엔겔스」전집도 가지고 있었으나 전체에 비하여 읽은 부분은 매우 적었다. 이와 같이 좌익서적을 읽으면서 동급생들과 이론투쟁을 할 때는 항상 유물적인 견지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승리를 얻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하숙에 돌아와 혼자 생각할 때는 스스로 유물사상에 남독이 가지 않는 점이 많았다. 그리하여 고민은 계속하였고 문제의「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교수의 안내로 일인「무자소로실독(武者小路實篤)」저「인생관」이란 책을 읽었으나 신통치 않았다. 다시 책방을 뒤져「아부능성(阿部能成)」저「인생관」이란 책을 사서 열심히 읽었으나 역시 나에게서 명백한 해답이 되지 않아 그 다음부터는 혼자 묵상하는 시간이 많았다. 공자의 말씀 가운데「오상종일불식(吾嘗終日不食)하고 종야불침이사(終夜不寢以思)하고, 이사(以思)호되 무익(無益)이라 불여학야(不如學也)로다」라는 말이 있는데 확실히 그러하였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명답이 나오지 않았다. 벽을 향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벽을 쏘아보는 내 시선이 도로 내 눈으로 들어오며 머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을 가져본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베르그손」의 철학요강에서 얻은 생명철학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푸루게네프」의「자연」이란 산문시가 매우 감동적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뵘스」의 윤리학도 나에게 크게 감명을 준 책이 된다. 전문학교시절에 내가 인생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한 것은 식민지의 한 청년으로 민족의 운명을 비판하고 하나의 민족적 영웅이 되고자 하는 자부심이었다고 생각된다. 당시의 생각으로서는 민족주의노선에서 조국을 구할 길은 없고 공산주의노선에서 일제와 투쟁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것을 실천할만한 용기는 없었고 따라서 의욕과 비법이 벗어난 고민이었던 것이다. 여하튼 끝끝내「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하는 문제는 해답을 보지 못하고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말았다.

3.

대학은 일본에서 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2년간 사회생활을 맛 본 후이므로 생각이 많이 현실적으로 기울어졌다. 전문학교에서 문학을 공부한 자가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하게 되었으니 그 자체가 벌써 이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에 가서도 문제의 고민은 여전히 계속하였고 따라서 법률 외에 정치, 철학 등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사색하는 시간도 많았다.

법학으로서는 주로 육법을 공부하였는데 헌법은 좌등차랑(佐藤次郎), 민법은 아처영(我妻榮), 석천문차랑(石川文次郎), 말광엄태랑(末廣嚴太郎), 상법은 전중경태랑(田中耕太郎), 야진무(野津務), 형법은 목야영일(牧野英一), 형소(刑罰)는 소야정일랑(小野清一郎), 민소(民訴)는 겸자일(兼子一) 등의 저서를 읽었다. 법학을 공부하면서 얻은 점은 사물을 일방적으로만 고찰하지 않고 다각도로 보는 태도와 치밀하게 조리를 따지는 근기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법학은 나의 성미에 그다지 맞지 않고 공부하다가도 어느새 묵상에 잠기는 문제는 언제나 고민하는「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하는 것이었다. 춘원 저「흙」은 이때에 읽었고 느낀 점이 많았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이러한 인생문제를 위하여 많은 서적을 뒤질 여가는 없고 혼자서 이리저리 생각해 보는 것이 일수였다. 생각던 끝에 찾게 되는 것이 성경인데 전문학교시절에 반대하던 성경을 자진해서 찾게 되는 심적 변화도 나에게서 중대한 계기가 아닐 수 없다. 제일 열심히 읽은 것이「마태」복음이고 그중에도 산상복음이다. 이리하여 나는 임신중에 있는 아내에게「갯세마네」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예수」의 사진을 사 보내기도 하였다. 대학생활도 일년이 지난 그 이듬해 여름에는 오래 오래 생각한 나머지의 결론이 결국 기독교사상과 생명철학사상을 결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는 영생하는 위대한 생명체요, 오인(吾人)은 그 생명의 한 표현인 인간으로서의 존재이니 우주의 원만한 조화를 달성기 위한 인류평화가 오인의 참된 이상이며 이 이상을 실현기 위하여 정열을 다하는 곳에 기쁨을 찾는 것이 모든 번민을 초월한 진정한 생이나라」는 결론이다.

이러한 결론에서 나는 일단 오랫동안의 고민의 씨를 풀고 대학을 졸업하였다.

4.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을 만주에서 갖었는데 일인과 동직장이었으므로 매일 매일 대인관계에서 민족적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때문에 흥분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대학 때 만들어진 상기 인생관에 입각한 수양조문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복송하면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다. 수양조문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항상 마음의 평온을 지켜서 사소한 감정에 지배되지 말 것.

2. 사물을 이상에 비추어 정당하게 비판하고 중정한 태도를 지킬 것.

3. 사랑으로써 사람을 대하며 사념이 없을 것.

4. 만사에 헛되이 걱정하지 말고 신념에서 살 것.

5. 그날그날의 최선생활에서 기쁨을 찾을 것.

그러나 수양이란 참으로 어려운 것을 절실히 느끼고 범인과 위인은 선천적으로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불교에서 수없이 염주를 헤아리는 것이 일종의 수양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도 염주를 사서 수시로 이것을 헤아리며 수양조문을 외우기로 하였다. 그러나 만족할만한 실행은 보지 못한 채 세월만 흘러 뜻하지 못하던 조국해방의 영광을 얻고 귀국하였다.

5.

귀국 후는 조국해방의 덕택으로 교수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역시 수양의 필요성은 옛과 다름없이 느껴져 다시 염주를 생각하면서 불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읽은 것은 「선가귀감(禪家龜鑑)」이고 그 다음에는 금강경(金剛經)을 주로 애독하였다. 불교의 진리는 생명의 귀일성을 생각하는데 있는 것 같아 내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오는 생명철학과 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불교 사상이 기독교사상과는 많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고 불교에서 모든 생명을 동일시하는데 만족하기 어려웠다. 살생을 엄금하는 사상이 동물과 식물에까지 미칠 때 자비심은 무한대하지만 인간의 생활향상을 기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인간애가 다시 나의 사고의 초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생명의 동일한 근원에서 식물이 생성하고, 동물과 인간이 발육하지만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각각 그 존재가치를 발휘하자면 막연한 생명의 동일시로서는 불가능하게 생각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인간의 존재가치를 찾으려 할 때 조물주의 의도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나는 우주의 조화를 다시금 강조하지 않은 수 없게 되고「우주의 원만한 조화를 달성기 위한 인류평화」라는 나의 이상을 재확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나는 기독교의 진리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하여「캐도릭」에 관심을 가지고「진리본원」이란 책을 읽은 다음에 3개월간 윤행중 신부의 강의를 받는 동시에 주해전주교요리를 읽었다. 그 다음에는 또 김범부 선생의 주역강의도 수개월간 받으면서 정본 주역집주를 읽었다. 모두가 나의 인생관을 배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다.

해방 후 내가 교단에 서게 되면서 앞으로 전공의 방향은 정치학으로 정하였다. 대학에서 주전공은 법학이었지만 부전공이 정치 등이었고 전문학교에서는 문학을 전공하면서 철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이러한 방향결정을 하게 한 것이다. 정치학을 강의하면서 전문학교시절에 읽었던 책을 다시 열독하고 나의 사상배양에 중요한 살육이 된 것이 있다. 그것은「다윈」의「종의 기원」과「크로포토킨」의「상호부조론」이다. 정치학의 근본문제는 인성에 관한 고찰에 있으므로 이 두 책을 다시 읽게 된 것이다. 두 책의 유지는 상반된 것이지만 모두가 인간의 일면을 투철히 관찰한데는 틀림없고 나는 이것을 인간의 양면으로 보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러므로 정치는 상호 모순 대립되는 세력의 조화를 성취시키는데 묘리(妙理)가 있다고 본다. 내가 평소에 늘 애독하는 책은「중용」이다. 그 가운데「희노애락(喜怒哀樂)의 미발(未發)을 위치중(謂之中)이요 발이개중절(發而皆中節)은 위치화(謂之和)니 중(中)은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요, 화(和)는 천하지달도(天下之達道)이라 치중화(致中和)하면 천지위인(天地位焉)하고 만물육언(萬物育焉)이니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역시 조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나의 사상의 근저를 축성하는 초석이 되어 있는 것이다.

나의 사고방식의 근간이 되고 또 그것을 배양하는 거름이 된 것은 상기한 바와 같은 제책(諸冊)들이다. 그밖에 나의 전공분야에 들어가서의 여러 가지 책들은 나의 학문적인 소지가 된 것으로서 여기에 일일이 나열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생각하거나 상기한 바와 같은 사상적인 입각지에서 나의 학문적인 입장이 추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부연한다. (완)

민간항공기의 국제표식기호

AN	니카라과	HO	에콰도르
AP	파키스탄	HH	하이티
B	중화민국	HI	도미니카
CC	칠리	HK	콜롬비아
CF	캐나다	HL	대한민국
CN	모로코	HP	파나마
CP	파키스탄	HS	타이
CS/CR	포르투갈	HZ	사우디·아라비아
CU	큐바	I	이탈리
CX	우루과이	JA	일본
DA/DI	서독	LN	노르웨이
EC	스페인	LY	아르헨틴
EI/EJ	에르	LX	룩셈부르크
EL	리베리아	N	미국
EP	이란	OB	페루
F	불란서	OD	레바논
G	영국	OE	오스트리아
HB	스위스	OH	핀란드
		OK	체코슬로바키아

다용도단좌전투기(多用途單座戰鬥機)의 운용론 (상)

윤응열(尹應烈)
공군대령 · 제10전투비행단장

목차

- I. 서언
- II. 공격은 최량의 방어수단이다
- III. F-105D의 무장계통분석과 현금작전개념의 고찰
- IV. 미라지(Mirage) III의 해부와 구라파의 작전개념
- V. 결론

I. 서언

20세기 후반기가 바야흐로 우주개발의 시대로 돌입하였지만, 유인조종항공기가 장래전에 있어서 아직도 실용성을 가지리라는 것은 거의 명확한 사실인 것이다.

현대 공군의 전략개념은 이른바「공격은 최량의 방어이다」라는 명제 하에서 종래까지는 전술적인 단일임무 범주 내에서만 논의되어 왔던 단좌전투기의 활용성문제는 급기야 다용도목적에 위하여 그 기능범위를 넓히는 즉 offense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은 물론이고 defense에 적응하는 문제로 발전되었던 것이다. 특히 구라파의 자유진영 국가도 우리 한국과 같이 적의 공중 기습을 항상 가상하고 있느니만큼 안가(安價)의 다용도 전투기는 공군전략가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토의되어 왔었던 것이었다.

현하 한국공군도 신예기 도입을 앞두고 이러한 다용도목적에 적응하는 기종의 운용문제는 군원(軍援)의존이라는 면에서 볼 때에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인이 해의 무관시절을 통하여 얻은 견문과 자료를 가지고 줄고(拙稿)를 엮고자 함은 항공지식의 보급과 더불어 이 방면에 뜻을 둔 인사들에게 다소나마 자료 소통의 기회가 될까 해서이다.

자료는 주로 INTRAVIA (International Aviation and Astronautics) 연구부에서 힘입었음을 부기하여 두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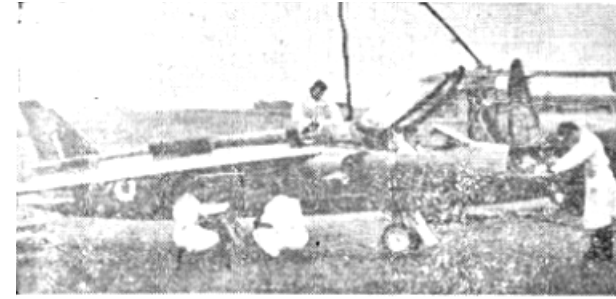
II. 공격은 최량의 방어라는 개념

구라파에 있어서 NATO 산하의 각국 공군전문가와 항공관계 기술자들에게는 긴급하고도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지상목표공격 보다도 공중방위를 위하여 설계된 항공기를 공격역할(offensive mission)로 적응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핵무기와 탄도유도탄의 발달로 인하여 초래된 전략상의 획기적 전환에 기인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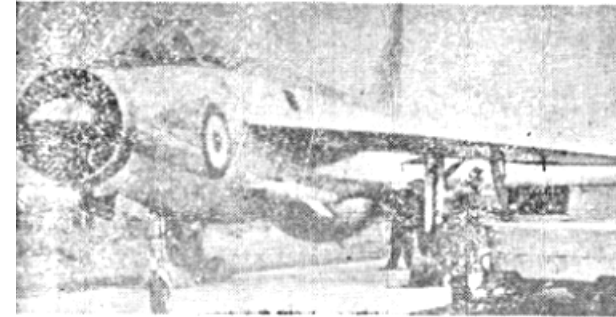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은 십년도 못되는 기간 내에 3단계에 걸친 발전을 보았던 것이다.

제1단계

NATO 산하의 구라파 자유진영각국의 공군이 MDAP(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미공군의 전투기를



제1단계:최소의 장비를 갖추고 경무장을 한 경요격기. 사진에 보이는 것이 Folland Gnat Mk.I 항공기이다.



제2단계:영국의 Electric P.1B Lightning F.Mk.I 중요격기—자동전자장치가 장비되고 전천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이 항공기에는 30mm 기관포와 대공「미사일」이 무장되어 있다.

제공받기 시작했을 때,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항공기 성능은 우수하나 그 상승속력이 충분치 못함을 발견하게 되었고 훌륭한 장비를 기체에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무겁고 또한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구라파 제국은 항공기의 자국생산에 있어서 이러한 방법을 택할 수가 없게 되었다. 즉, 지리적인 위치, 공업상태, 원료공급조건 등으로 보아서 별도의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 무렵 INTRAVIA연구부에서는 경요격기(Light Interceptor)의 적합성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장비가 비교적 단순하고 제작비가 비싸지 않으며, 지리적으로 보아서 가까운 거리에서의 적의 공격을 능히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상승속력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었다.

그러나 기술상의 기적이란 있을 수 없듯이 이 경요격기는 적기를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기체에 가질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전자장치는「적의 공격에 대한 방어와 요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불가결하게 기체에 장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청되었었다.

그리하여 최초 경요격기가 구상되었을 때에는 탐지와 유도를 위한 수단을 지상에 설치하고서 기체는 하나의 발사체처럼 지상에서 조정하도록 되었던 것이다. (이는 이미 제2차대전에서 경험한 것으로서 GCI를 호례(好例)로 들 수가 있다.)

이러한 개념 하에서 설계된 경요격기는 프랑스의 Trident, Mirage I, Durandal, 영국의 Gnat와 이태리의 Sagittario 등이며, 공중방어에 있어서 활동이 썩 기대되었던 것이다.

제2단계

이상에서 말한 경요격기가 나오지 얼마 안되어 새로운 전략개념이 대두되고 이로 인해서 구라파에서는 이 경요격기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1953년까지만 해도 NATO의 구주통합군 사령부에서는 주로 재래식 무기로 장비한 군대에 의하여 방위정책의 수단을 집중할 의향이 있었는데,「리스본」에서 열렸던 NATO 회의의 종료후, NATO 산하의 회원제국이 충분한 회비(방위유지비)를 지출치 않을 뿐더러 당시 미국은 그 이상의 대구라파(對歐羅巴) 군사 원조를 증가할 수 없다고 시사함으로써「릿지웨이」장군과 그 후임인「그룬서」장군은 NATO가 달성하려고 희망했던 재래식군대 100개사단병력에 대치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이 방안이 바로 원자핵병기였던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전략개념을 공고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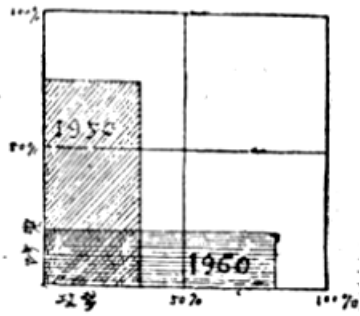


도표 II: 과거의 전투기는 그 임무의 75%가 요격(방어)임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25%만이 전투폭격임무(공격)를 수행하였음에 반하여, 오늘날에는 공격임무가 필히 80%를 차지하여야만 한다.

뒷받침하여 준 것은「자유세계는 장차 어떠한 공격이라도 핵무기로 이를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한바 있는「몽고메리」원사의 성명이후로 재래식전략개념은 구라파에서 이미 자취를 감춰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려대상 밖이 되어버려 평화와 현 상태 유지나 또는 전쟁과 그 무서운 대량 파괴이나 하는 것만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핵전쟁이라는 전략개념 하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항공 전략상에는 두 가지의 결론을 얻게 되었는데

첫째, 방위태세의 개념은 적어도 구라파에서는 이미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발사물로서도 대량파괴를 야기시킬 수 있는 현하에서 과연 적기의 침입을 한대도 빠짐없이 저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과

둘째, 만약 방공조직이 적의 침입을 완벽하게 저지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의 공격을 복잡화하는 역할의 가치라도 있다면, 적어도 요격기가 현재와 같이 한량없이 불안정한 지상유도에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도 대공방위의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기동성에 달려있고, 이와 결부하여 항공기에 전자장치를 장비함으로써 비교적 완전을 기할 수 있어 지상의존도를 감소할 수 있는 기능

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항공기의 크기, 중량, 추진력이나 또는 제작비를 증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니, 구라파 각국의 전문가들은 단념을 수정했어야만 되었으며, Trident, Gnat 등 경요격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리해서 프랑스에서는 Mirage III가, 영국에서는 English Electric P1B가 등장하게 되었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새로운 사실의 실현가능성이 보이게 되었는데, 이는 즉 적제공권(敵制空圈)내에 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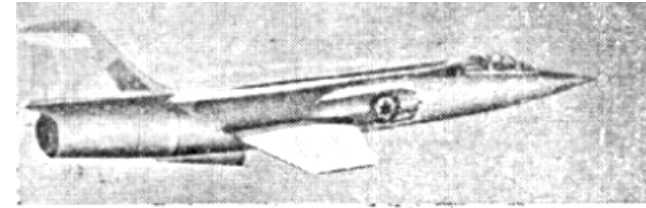


도표 I: 서구와 북미에 있어서의 요격

위의 그림은 대서양과 북극해를 사이에 둔 두 대륙간을 약 2,000리 정도 떨어진 상태를 표시한 것이며, 최고속도, 비행고도 등을 같은 행동범위에 표시하여 공격 및 방어가 가능한 무장장치를 보여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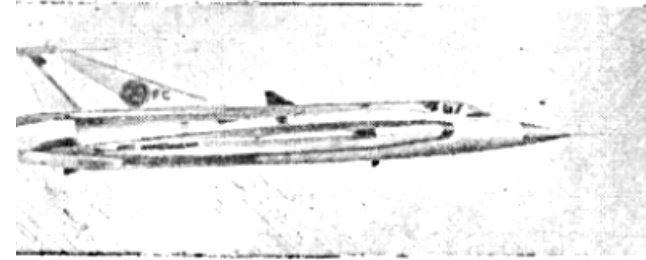
이륙시 다만 20,000파운드 중량만을 적재하는 중형 초음파 전투폭격기(행동반경: 500+nautical miles)는 이보다 16배 정도 이상의 중량을 적재하며 거대한 제트 폭격기(막대한 행동반경을 가진)와 똑 같은 파괴력을 가진 원자탄이나 수소폭탄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공격기의 크기, 고도, 속도 등은 목표물의 거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피아(彼我)가 접근되어 있는 구라파에서 유인 항공기로 대공방위를 수행하는 것은 극히 불안정하다. 이에 반해서 적기로부터 원거리에 놓여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중형초음속 폭격기의 침공이 있을 수 없고, 대형 제트 폭격기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조건 때문에 아직도 유인 항공기에 의한 요격으로 성공적인 방공이 기대된다.

이 도표는 반대방향의 이점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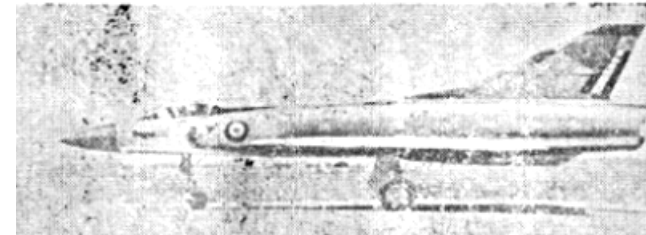


제3단계: 공격과 전천후작전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단좌전투기의 모습들

(위로부터) [상] Canadian Lockheed CF-104 전투기—이 전투기는 서구라파의 F-104G와 비슷하며 General Electric J 79-GE7 엔진과 노스 아메리칸 NASARR 화력제어장치를 장비하고 있다.



[중] Saab J 35 Draken 전투기—Svenska Flymotor Avon 엔진과 RMB와 Ferranti 화력제어장치로 되어 있다.



[하] Dassault Mirage III A-SNECMA Atar 9와 SEPR 841 로켓엔진에 Ferranti 화력제어장치로 되어 있다.

의 장시간의 침공을 위하여 전파탐지망영역이하를 비행하는 방법이 나왔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저공비행에서 야기되는 과도한 연료소비는 항속거리를 제약하게 되므로, 기지를 일선근방—즉 적의 공격권내에 위치하게 되므로 필요한 보급물자 등을 적에게 과

피당할 위험한 지대에 저장하지 않으면 안되고 이러한 위험을 감소하려면 기지를 자주 이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Fiat G91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제작되었고, 이 Fiat G91은 당시 거의 항구적인 기동성을 가졌으며, 구주에서「대량파괴」라는 전략개념 하에서「방어」로부터「공격」으로 전환된 최초의 표본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제삼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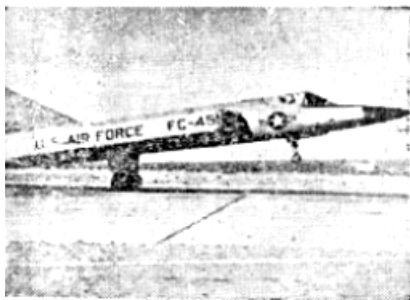
구라파 항공공업계에서 경요격기의 제조를 포기하고 중요격기를 채택하여 저공비행공격의「테크닉」(technics)을 연구하고 있을 때, 세번째의 전략적변전이 야기되어서 연구방향을 변화시켰는데, 이 변전이란 다름이 아니라 1951-1952년도에 한 가지 과학적 실험의 성공에 기인한 것인데, 이는 곧 원자폭탄의 미소화(微小化)인 것이다.

① 가벼운 무게와 소량의 발사물로서 가공할만한 대량파괴력을 저장할 수 있을 때, 폭격기도 요격기에



[사진설명] 전천후작전상태 하에서의 전투폭격과 공격 임무를 위하여 고안된 Republic F-105 Thunderchief—이 항공기는 Pratt&Whitney J 75와 같은 엔진을 가지고 있으며, 동체 속에다 원자탄과 수소폭탄을 실을 수 있다.

또한 부가해서 20mm General Electric M-61포로 무장한다면 대공「미사일」로 무장을 하고, 일선전개기지 후방차단임무나, 본 기지에서서의 요격임무를 수행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사진설명] 적진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후방지역에 있어서, 전천후장비를 갖춘 초음속요격기가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는 아직도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 사진은 Convair F-106A Delta Dart 항공기로서, 미공군의 방공사령부(ADC)와 장래의 북미방공사령부(NORAD)의 큰 지주의 하나로 되어있다.

비하여 그 연료적재량과 자중만이 단점으로 남게 될 뿐 폭격기의 취약성이라는 것은 거의 그 항속거리(range) 장단에 따라서 좌우되게 되었던 것이다. 철의 장막으로부터 소련의 최신기가 초음속으로「라인」강을 넘어, 무겁지 않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고 소련기의 무장은 분명히 그를 공격하는 상대요격기보다 장비가 가벼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가까운 거리로부터의 침공에 대해서는 비록 우수한 전자 장비를 보유한 요격기라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전면기수발사(head-on collision course)라는 하나의 해결방법이 제공되었는데 이론상으로 이 방법은, 적어도 요격기 자체보다 빠른 공중 목표물을 공격 할 수 있는「technic」인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상(機上)의 레이더 성능이 초고속의 항공기에 대한 전면기수발사에는 적합치 못하다는 것이 판명되었고, 특히 기습을 당한 경우에는 더욱 곤란하며, 이것은 항상 요격기가「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위치에만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실험결과로 대공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이 요격기에서「공대공(空對空)미사일을 쓰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되어 버렸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이러한 조건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만일 소련 폭격기가 미국연안에까지 도달하려면 막대한 연료가 필요할 것인데 그 폭격기의 연료 적재량으로 미루어 보아 음속 이하의 속력으로 밖에는 침공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처럼 느린 속력의 폭격기에 비하여 요격기는 상급(尙尙)도 우월성을 많이 견지하고 있어서 구라파에서 필요치 않은 방공조직이 미국에서는 당분간 요구되게 되었다.

도표(圖)은 목표물 거리의 증감에 따라서 생기는 미국 요격기와 소련 폭격기와의 관계를 표시한 것인데, 만일 소련 폭격기가 전폭기일 경우엔, 구라파에서는 항속거리가 짧은 관계로 요격기의 우월성이 없어지게 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Bomarc」같은「미사일」의 개선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직도 F-106 요격기의 존재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즉, 아음속 폭격기에 의한 공격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미국상공을 향해오는 정체불명의 항공기의 초계나 식별 등을 위하여 비록 구라파에서는 이러한 초계목적에도 부적합하지만, 북미대륙에서는 필요한 것이었다.

② 앞서 말한 변화추후에 또 다시 기술변화가 일어나서 전략개념의 수정이 또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이번엔 전쟁원칙 그 자체가 변모한 것으로써, 이 대변화는 미소화한 핵무기와 운반용「미사일」을 결부시킨데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즉,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공업적 구조를 파괴시켜서 지도상의 일국을 아주 말살시켜버릴 수 있는 상태 하에서는 그 전처럼 초음속폭격기나 전폭기 같은 것이 불필요하게 된 것이다. 즉 수백 또는 심지어 수십개의 핵「미사일」로서 상대적국의 대량 파괴가

단좌 전투기의 새로운 특징

<p>1950 좁은 행동범위와, 최소장비를 갖춘 경요격기는 지상레이더의 유도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p>	<p>1953보다 넓은 행동범위를 가지고, 또 개량된 장비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기체에다 레이더를 장치한 중요요격기는 지상레이더에의 의존도가 감소되었다.</p>	<p>1958: 침투범위가 더 넓은 공격기는 적의 레이더망의 영역을 피하여, 저공비행을 할 수 있고, LABS 방법으로 지상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장치되어 있다.</p>
---	---	--

본질적인 문제는 방어에서 공격역할까지 할 수 있는 항공기로 개조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아래에 든 표는 공격 및 방어를 위한 작전요구와 조건을 비교한 것이다.

방어

공격

1. 공중 목표물은 고속으로 움직이는 기체가 되지만, 그것은 보통 하늘이 Background가 되므로, 명확히 식별할 수가 없다.
2. 요격원이 적기를 성공적으로 격파하려면, 지상레이더나 기체레이더, 그리고 대공「미사일」의 결합이 필요한 것이다. 또 지상장비는 현존하는 것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3. 요격기는 고공, 고속비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기술을 개량해 나가는 현단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마찰로 인하여 생기는 열을 처리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에 와서 음속의 2배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4. 어느 정도의 내구성이 요격임무를 단순화하고, 지상 레이더를 완전히 개발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특히 거리가 가까운 구라파에 있어서는 요격기의 필수조건이 되지 못한다.
5. 요격기의 무장은 비교적, 간단하게 되었는데 적의 선, 또는 반자동 내지는 자동「레이더」, Homing head로 된 공대공(空對空) 미사일이 있을 뿐이다.

짧은 활주로나 간이 이착륙비행장에서 뜰 수 있는 항공기의 두 가지 형태는 작전상의 이점을 증가시켰다.

요격기에 비해, 특수지점에서 제한을 적게 받는 전투폭격기는 최소한도의 지상비행설비로서 이착륙이 가능하지 않으면 안되며, 저압다이아 착륙브레이크 장치, 낙하산이나 arresteer hook 같은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1. 지상 목표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목표물은 대단히 완만한 기동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식별하기가 어렵다.
2. 필히 공격용 항공기는 특히 저공활동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항법 악시아 하에서도 지상 목표물의 위치판정과 공격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알아내어 공격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상 장치에 의해서 유도되는 것은 수동적이기 때문이다. 항공기에 장전된 각종기상 장비는 전천후 운영을 가능케 해야 한다. (TACAN AILAS, AGCA를 제외하고는) 이것은 필히 지상설비와 분리되어 독자적이어야 한다.

3. 저공으로 비행하면서, 전투폭격기가 초음속비행을 할 수는 결코 없다.

그러나 공기밀도가 조밀한 대기권에서 운영한 이래, 설계자들은「냉각」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구조나 표면이 저공비행은 하면서도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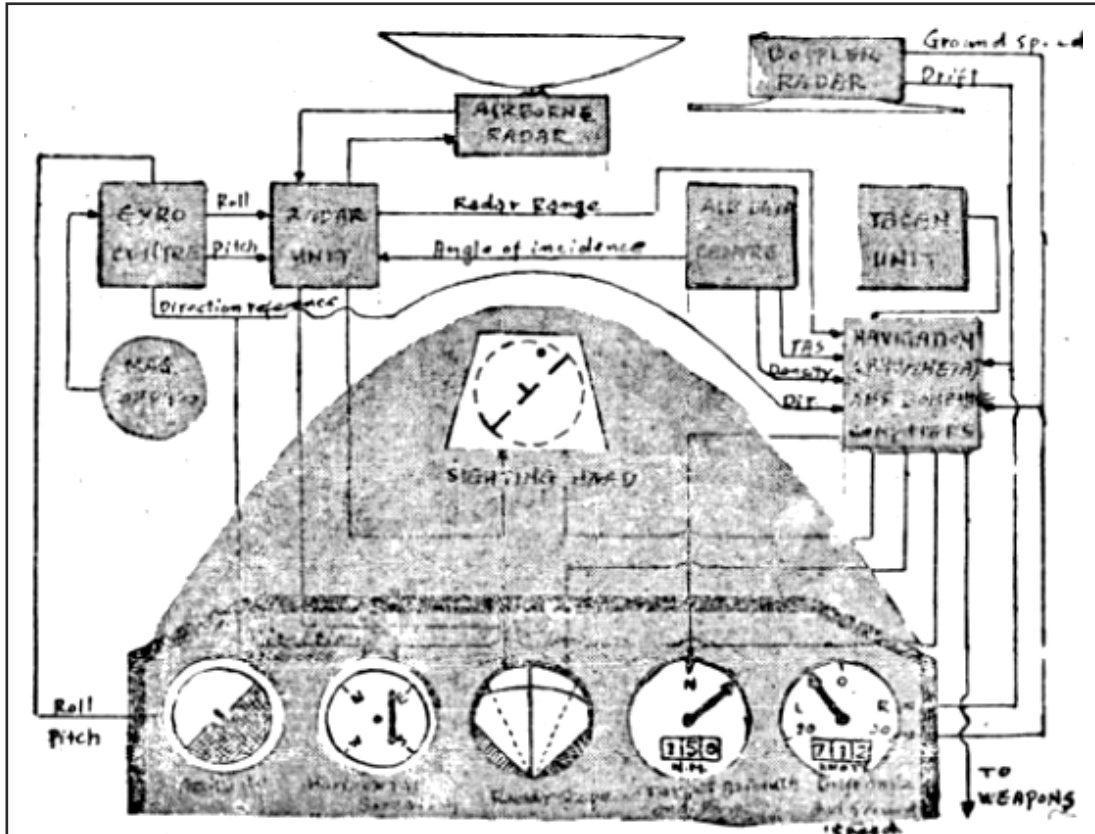
4. 저공비행의 필요성은 항공기의 공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점차 증대하는 한편, 600노트 이상의 속도에서 저고도를 기동함으로써 적의 지대공(地對空)「미사일」로부터의 발각과 파괴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전투폭격기의 취약성(invulnerability)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5. 공격기의 무장은 보다 광범한 여러가지 목표물을 마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동체나 날개 밑에 공대지「미사일」과 TNT나 원자탄과 로케트를 적재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속사포로 장비되어야 한다.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핵「미사일」의 투하를 저지하는 수단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수한 요격기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전략상의 혁명은 1957년 8월에「후루시초프」가 대륙간탄도유도탄(ICBM)실험의 성공을 호언하였을 때 시작되었던 것인데, 이번에는「미사일」요격용「미사일」(Anti-missile missile)이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방공제도의 가치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종류의「미사일」을 피하는 방법을 알기 전까지는, 이와 똑같은 공격과 흡사한「보복위협책」밖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게 되었다. 즉 보복을 위한 공격위협에 의한「방어」만이 유일한 방위전략으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된 나머지 공군참모부들은 여러 부분의 항공관계 기술자



III. 요격

※공중탐색:레이다는 자동적으로 조정되어 여하한 고도와 방위에서도 목표물의 탐색을 계속한다. 목표물에 대한 반응은 Sighting head 양측에 나타난다.

※Lockon(포착):레이다가 목표물이 움직이는 속도를 산출했을 때 레이다는 곧 목표물을 포착하게 된다. 항공기와 목표물간의 거리를 알아내는 것은 항법계산기로 하고, 또 이 항법계산기는 회전하면서 공대공(空對空)「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끔 항공기는 유도시켜 준다.

Sighting Head 상에 나타나는 진로지시(steering orders)를 따를 때 접근과 공격이 이어진다.

이러한 지시는 폭격지점까지 가는 시간, 목표물에 접근하는 속도, 폭격지점과 이탈신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맹목공격(Blind attack)을 할 때에도 항공기자세가 역시 Sighting Head 위에 표시된다.

들의 조언을 참작하여 원자핵병기가 등장되었던 초기에서 부터의 신전략개념을 철저히 수립하고, 공격용무기에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문제는「미사일」과 또는 고속과 저공비행에 의한 적 진침입을 기도하므로써, 요격을 피할 수 있는 공격용 항공기 제작에 노력을 집중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연구 발전도상에 있었던 항공기는 공격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되며, 기존기종에서도 전폭기(Fighter bomber)가 아닌 것은 공격 작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전환되어야만 되었다.

이리해서 요격용 Mirage III 대신으로 전폭기의 Mirage IIIc가 나오고, 또한 특별히 국지방공을 위해서 설계되었던 Lockheed F-104는 서독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히 공격용으로 설계된 Lockheed 104G로 대체하게 되었다. 반면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는 이때 이미 MacDonnell F-101A(장거리 요격기)에 대신해서, F-101C 형이 부가되었고 Republic F-105와 같은 기종이 주력화 되었으며, 새로 해군의 F4H가 공군에서 F-110으로 채택되기 시작해서 관심을 모았다. 영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해군의 Blackburn NA 39가 나오게 되었고, 공군에서도 저공비행에 의한 적목표

도표III:전천후항법의 일반계획과 단좌전투기의 전투계통도

I. 항법

※Ground Mapping기체레이다는 지상을 내려다 볼 수 있도록 땅쪽을 향하여 자세를 낮춘다. 조종사는 기체레이다에 나타나는 지형과, scope에 나타나는 미리 선정한 지점을 확인하고 항법계산을 정확하게 한다.

※장애물회피:레이다는 비행방향으로 항공기의 진로를 계속적으로 포착하여 주고 있다. 레이다 Scope는 항로상의 장애물을 알려주므로서 Sighting Head는 비행 진로를 계속 지시하여 준다.

※항법표시:항공기의 고도와 수평상태는 레이다 Scope 좌측에 있는 두 계기에 나타난다. (예컨데 TACAN 등) 내측 오른쪽에 있는 계기는 목표물의 방위와 거리를 Nautical Mile로 표시해 준다.

외측 오른쪽에 있는 계기는 Doppler radar로 측정된 편류각도와 대지속도를 표시해 준다.

II. 지상공격

※Target Ranging좌우경사에 있어서 고정된 레이다로 폭격이나「미사일」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산을 하는 폭격계산기 Bombing Computer를 통해서 목표물의 거리를 산정한다.

※LABS법: 폭격 계산기는 True Air Speed(실제속도), 공기밀도, 고도 또는 편류각도를 이용하여 공격하는 방법에 의해서 폭탄 투하지점을 산출한다.

단거리 목표물인 경우에 IP(identification point)까지는 저공비행으로 IP에서 radar의 자동적인 유도공격 작동을 조작함으로써「half loop」와「roll」로서「toss bombing」에 의하여 목표물을 폭격하게 된다.

폭격 계산기는 폭탄의 발사상의 특징에 따라서, 폭격지점과 항공기에 요구되는 안전거리를 계산해 낸다.

침입을 위하여 제작된 기종을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상목표물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공격용항공기를 생산하려고 하면서도 공군전략가들은 요격임무의 사명을 전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만 제1차적인 중요성으로 간주 하였으며, 부수적이 되어버릴 따름이었다.

도표(II)는 이러한 개념의 변화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론상의 비율로 본 10년 전의 항공기와 금일의 항공기가 요격용일 경우와, 공격용일 때의 각각 중요성을 표시하고 있다. 언제나 항공기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으며, 어찌까지든 방어임무(defensive mission) 75% 공격임무(offensive mission) 20%였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공격임무 80%, 방어임무 20%로 변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리하여 과거 10년간에 걸쳐 구라파에 있어서의 전투기는 전술한 바와 같이 3단계를 거쳐서 발달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서 항공기제작자들에게 공격과 방어임무를 위하여 두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저공비행을 하면서도 고속을 가져야한다는 것과, 이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기체의 노후화는 가장 큰 난점이었다. 애초에 6만 피트 또는 그 이상의 고도에서 행동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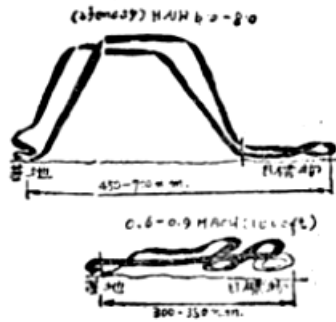


도표 IV: 고공(상)과 저공(하)에서, 공격작전을 위한 다용도전투기의 프로파일 및 손(Profile Mission)—저공에 있어서는 행동 범위를 감소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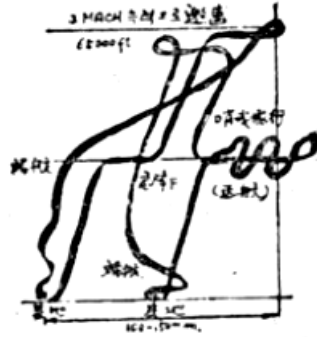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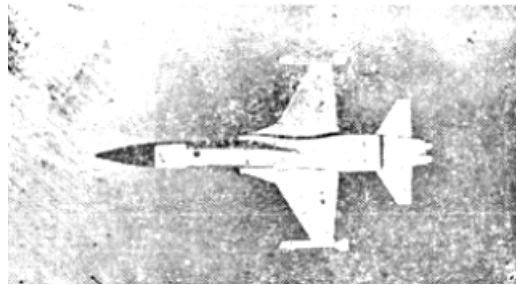


도표 V: 전적인 요격과 초계로서 방공작전을 위한 다용도전투기의 프로파일·및 손(회색 선은 낙하랭크를 장비했을 때)



[사진설명]: 공격과 방어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Northrop N-156F Freedom 전투기—사진은 두 개의「싸이드·와인드」를 장착한 N-156F 전투기의 모습이다. (General Electric J85 엔진 Hughes TARAN 화력제어 및 항법장치)

수 있게끔 고안된 전투기는 저공에서의 장거리비행의 압력과 무리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성능이 못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Lockheed 104를 저공비행에 의한 공격용인 104G로 개조하는데에는 상당한 변혁을 일으켜야만 되었다. 이러한 저공침공의 이점을 장시일에 걸쳐서 연구한 후, 영국에서는 그들의 기술면에 세심한 연구를 해왔었고, 프랑스의 Mirage III도 이런 용도를 위하여 적응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Blackburn NA 39는 처음부터 이러한 새로운 공격목적을 위하여 설계제작 되었다. 파괴를 위한 장비의 설치라던가, 고공 또는 저공항법의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나 또는 지상목표에 대한 맹목공격이나 시가공격이나를 막론하고 지상목표물을 공격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 점은 곧 현대공군이 요구하고 있는 공격 및 요격이라는 다용도목적을 위해서 순 수한 요격기 (Pure interceptor)의 발달이 초래한 또 하나의 난점이었던 것이다.

항법에 관해서는 PHI(Position Homing Indicator) 장치가 가장 흔히 채택되고 있다. 이 장비는 이미 계산기에 장치된 조정기능을 통하여 항공기는 계기판 위에 애초에 선정된 지점에 대해서 항로에 관한 거리, 방향 등을 표시한다. 한 check point에서 다수 지점까지 유도되며, 또 용이하게 항공기를 기지까지 귀환시킬 수가 있다. 만약 과거와 같이 조종사 자신이 풍향풍속을 계산해 낸다면 정확성이란 매우 불완전한 것이다.

또한 이 PHI는 어느때나 다른 장비에 결부시켜 사용할 수가 있다. 즉 TACAN이나 Doppler Radar 혹은 간단한 기상장비에 장비된 Radar 등에 결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Doppler나 TACAN 대신으로 특별히 정확한 타성장치를 생각해 냈는데, 이 장치의 기능 덕분에 조종사들은 한 시간을 비행한 후에도 500 nautical mile 이상 비행한 뒤에 항공기 내부 또는 외부의 어떤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불과±2「마일」정도의 차이를 두고 자기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타성장치의 결점은 실제비행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작동시켜 놓아야 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여러가지 방법의 결합으로써 단좌전투기에 있어서는 몇 가지의 기능을 가능하게 했다.

① Ground mapping 이것은 조종사가 기상 Radar상에 자기비행지점을 간단하게 표시하므로써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② 장애물회피(Terrain Avoidance)Radar Screen상에 지형의 굴곡의 일부분이 투영되므로써

항로를 선택할 수가 있고, 진로상의 지형을 그 상태에 따라 회피하여, 안전하게 비행할 수가 있다. 이 Radar의 투영은 조준기에 나타나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③「프로파일」비행(profile flying)도 기상 Radar에 의하여 가능하다. 기상 Radar는 전방, 후방, 측방 등으로 조종되어 텔레미터(telemeter)처럼 작동해서 자동조종기나 조종사에게 지시를 한다.

④ 저공수평비행 또는 급수직강하에 의한 지상목표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 Radar와 계산기(computer)는 공격개시해야 할 지점을 분간할 뿐만 아니라 항공기와 목표사이의 거리도 가르쳐 준다.

만약 LABS 폭격장치가 기상장비에 장비되어 있을 경우에는 「Toss bombing」이나「Long throw」와 같은 다각도의 폭격을 가능케 한다. Ground mapping 방식의 Radar는 조종사에게 그가 필요 개시해야 할 폭격을 위한 접근지점을 가르쳐 준다. (이것은 조종사의 개재(介在)없이 자동적으로 표시 된다.)

⑤ 물론 요격목적을 위해서도 지상기지에서, UHF Radio나 Data Link형의 방법을 통해서 조종사에게 필요한 지시를 직접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Radar를 원격조정(remote control) 할 수 있고, 격파해야 할 적공중목표의 거리와 고도를 지시할 수도 있다.

도표(III)은 최신 전투폭격기에게 앞서 말한바와 같은 능력을 부여한 각종전자장비에 관하여 도해(圖解)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장비는 그 작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Air data center」나「Gyro center」에서 지시받는다.

「Air Data center」는 계기판에 data를 지시할 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실제속도 및 공기밀도와 더불어 PHI 계산기를 지시하여 준다.「Gyro Center」는 항공기의 좌우경사, 방향 또는 진로 등에 관하여 지시한다.

이러한 기본작동은 인공수준기와 항법계기 그리고 Radar를 동시에 지시한다. 이것은 이미 미국, 영국, 불란서에서 탐지-항법-폭격의 여러가지 방법의 비행시험을 거듭하였다.

그 중 어떤 것도 결정적인 것은 못되나, 여러가지 분별될 수 있는 확실한 경향이 나타났다. 혹자는 Gyro sight(Gyro 조준기)를 제한하고, 항법이나 전투에 필요한 대부분의 상황을 레이더상에 집중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레이더가 제공하는 여러가지 지시를 조준기에 투영함으로써 썬만이 조종과 발사가 더욱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의 의견은 여러가지 기능을 분리해야 되며, 비행 상태에 따라 조종사가 이 방법에서 저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과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하간, 이 점만은 분명하다. 즉 신형전투폭격기의 작전 잠재력이 광범위하고, 비행속도는 비교적 짧기 때문에, 모든 것은 조종사의 조작을 간단하게 한다는 점에서 고찰해야 된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지금까지는 세 사람의 탑승원에게 맡긴 일을 모두 조종사 한사람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상 약술한 것이 신형단좌전투기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결과가 Lockheed F-104G, Mirage III, Saab Draken 등의 등장을 보았다. 어떤 점에 있어서는 104G 나 Mirage III보다도, 경요격기인 Fiat G91이나 Northrop N-156F 일지라도 PHI나 TACAN 또는 Doppler Radar(G91)와 같은 항법장치를 가지고 있다. 타방에서는 Republic 105 단좌중전투기를 미국의 TAC(전술공군사령부)가 대량으로 보유하고, 또한 최근에는 거대한 화력과 성능을 자랑하는(속도, 행동반경 초고공 및 초저공기동능력) MacDonnell F-110을 장비하게 되어 식별-항법-전투 등 공격이나 방어의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함축성이 대단히 많은 전투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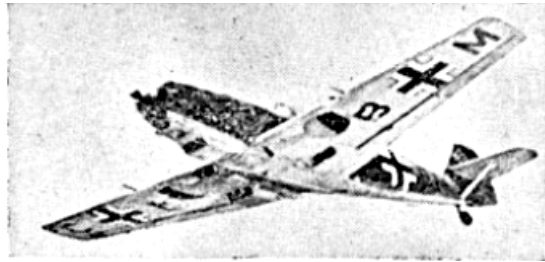
이처럼 전자장비의 발달은 드디어 다용도의 단좌전투기의 초래를 가능케 했으며, 단 한 사람이 요격이나 후방차단, 또는 폭격 등 다용도임무를 수행 가능케 하였다.

공대지(空對地) 핵「미사일」이나 또는 수십킬로「톤」에 해당하는 폭탄의 무장은 단지 한 대의 전투기의 출력으로서 구식폭격기 수백대의 파괴력에 상당하는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차호에 계속)

새나라새 헌법에
너도 나도 국민투표
국민투표 표어

제2차대전과 항공기(속)

K·나이트



ME-109형 독일전투기

전쟁이 끝났을 때 처칠수상은 충심으로 공군의 공적을 찬양하였는데 그때 다음과 같은 유명한 연설을 하였다.

「이제까지의 인류 투쟁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적은 사람들로 인해서 지켜져 왔다는 것은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공군은 완전히 독자적인 힘으로 나라를 구출한 것이다. 전세계 사람들이 배워야 될 실로 의의 깊은 업적이었다.

영국본토의 방위가 위기(危機)에 처해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이태리군이 추축군(樞軸軍)쪽의 공세전술(攻勢戰術)의 일환(一環)으로서 북아프리카와 발칸반도에서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칠과 그의 군사고문(軍事顧問)들은 항공기와 거의 전부의 전차(戰車)를 예외(例外)로 그리스 및 씨리아전선으로 보내야 한다는 비장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영국해군의 지중해함대는 처음에는 이태리함대에 비해서 수적(數的)으로 열세(劣勢)였는데 1940년 11월 항공모함 이라스트리아호로부터 떠오른 21대의 함재기(艦載機)의 눈부신 활동 덕분에 우위(優位)를 획득하였다. 이태리 해군의 전함(戰艦)들은 타란트 만(灣)에서 급습을 받아 폭격과뢰격(雷擊)으로 반수(半數)가 행동불능상태에 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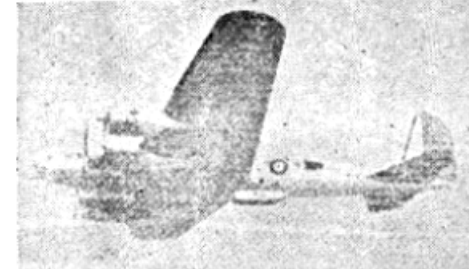
발칸전선은 중요한 결전(決戰)의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드디어 이태리군의 사기(士氣)가 떨어지는 것을 염려한 독일군은 지중해 방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독·이연합작전(獨伊聯合作戰)을 강화하고자 히틀러와 뭇소리니는 부룬넬 언덕에서 회담하고 전투기와 폭격기부대를 지중해 지역으로 파견하기로 하였다. 영국군대와 군수물자를 운반하는 수송선단(輸送船團)은 격렬(激烈!)의 도가 심해지는 하늘로부터의 공격을 무릅쓰고 예질트와 중동지역으로 항발(向發)하기 않으면 안되었는데 추축국(樞軸國)측의 스에즈 공략(攻略)을 어떠한 희생도 지불해서라도 막아야 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다.

지중해의 좁은 입구 근처에는 엄중하게 방위되고 있는 영국방위 해군기지 말타섬이 있어 그 곳은 피해를 입은 많은 수송선단(輸送船團)이 일시 정박(碇泊)하는 상당히 중요한 근거지로 되어 있었다. 이 섬에서 백마일도 안되는 시시리섬에 기지를 가진 독일군 항공대가 그때까지 동맹국이었던 소련을 별안간 공격하기 위해서 전진(轉進)해 버렸기 때문에 말타기지의 영국군은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나 독일군이 모스크바와 스탈린그라드를 연결하는 전선에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되고, 또한 북아프리카의 사막전(砂漠戰)이 지극히 중대한 단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공군은 별안간 시시리섬에 복귀(復歸)하여 그때부터 계속 말타섬은 연일연야(連日連夜) 가공할만한 연속공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동안 영국본토도 끊임없이 폭격을 받았는데 방대(龐大)한 군수물자 수송을 맡고 있던 대선단(大船團)은 밤중에 떠올라 와서는 공격을 하는 독일 잠수함들을 피해가면서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물결 높은 대서양(大西洋)을 항행하였다. 영국해군과 캐나다해군의 함정(艦艇)은 그 당시 입수할 수 있는 발달된 장비로 레이더라던가 잠수함탐지기 거기다 독일군이 부설(敷設)하고 있는 자기기뢰(磁氣機雷)에 대한 방어장치(防禦裝置) 등을 함재(艦載)하고 있었는데 독일전함 비스말크호와 틸빛츠호가 불원한 수송선단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언제나 지니고 있었다.

1941년 5월 20일 드디어 영국이 두려워하던 사실이 일어났다. 영국해군사령부는 당시 가장 강력한 무장과 기동성을 지닌 비스말크호가 고속전함(高速戰艦) 푸린스·오이겐호와 더불어 북해(北海)에 출현하여 아이스랜드 부근의 수송선단 항로(航路)를 목표로 해서 항행중이라는 초계기(哨戒機)로부터의 정보를 입수하였다.

즉시 사상최대(史上最大)의 해상수색(海上搜索)이 개시되었다. 해군 군령부 소속 관제부(管制部)로부터 대서양 전해역(全海域)에 있는 군용기 전부와 지부발탈 기지에 긴급지령이 발해졌다. 24일 아침 영국해군의 전함(戰艦) 훗드와 푸스틴·오브웰즈의 두척의 군함은 비스말크와 푸린스·오이겐을 아이스랜드 서북방에서 포착하여



제2차대전 전기의 미국주력폭격기 B17

교전하였으나 격렬한 서전(緒戰)에서 벌써 비스말크호와 같은 15인치 포를 장비하고 있었던 훗드는 폭파되고 푸린스·오브·웰즈호도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푸린스·오브·웰즈호가 발사한 포탄은 비스말크의 함체(艦體)를 깨뜨리고 나갔기 때문에 그 속력은 저하되어 도망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영국함대들은 어두워질 무렵까지 비스말크를 추격(追擊)하고 있었는데 푸린스·오이겐은 이 틈을 타서 가까스로 탈출하였던 것이다.

극해(極海)에 아직도 옅은 빛이 감도는 밤 열시쯤 해서 영국 공군기가 겨우 현장에 쇄도(殺到)해 왔다. 항공모함 빅토리아스를 출발한뢰격기(雷擊機) 스워드·윙스 9대는 맞

바람을 뚫고 125마일이나 날라 독일 전함의 치열한 대공포화(對空砲火)를 무릅쓰고 어뢰공격(魚雷攻擊)을 하였다. 비스말크는 함교(艦橋) 하부에 명중한 일격이 치명상이라는 하였지만 그대로 비바람 불어치는 어둠속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다음날 정오가 되어서 영국 연안경비 사령부 소속의 미국제 카다리나 비행정(飛行艇)이 무전으로 발견위치를 보고하였고 그 후에도 이 초계기(哨戒機)는 분산해 있던 공격기가 도착할 때까지 비스말크호의 상공을 계속 초계비행을 하고 있었다. 지부발탈에서 급행한 항공모함 아크·로얄호는뢰격기를 발진(發進)시키기 위해서 속도를 빨리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한참 혼전(混戰)중에 우군의 세필드를 적으로 오인(誤認)하고 조종사에게 경고를 발할 사이도 없이 어뢰를 투하하였던 것이다. 이 뜻하지 않은 공격에 세필드호는 재치있게 이 난을 피했는데 혈기왕성한 공격기 기장(機長)으로부터 무전으로「미안합니다」라는 통신을 받고서야 한숨을 내쉬 웃지 못할 장면도 있었다.

얼마 후에 비스말크의 위치가 전해지자 혈기 넘치는 스워드·윙스뢰격기 조종사들은 이것을 대파시키고 말았다. 비스말크가 장비한 대포는 아직도 견재하였으나 반신불수가 된 군함은 정처 없이 해상을 선회(旋回)하고 있었다. 불란서 부레스트의 5백마일 해상에서 로도네와 킹·쥬오지 5세의 두 전함 거기다 순양함 도셋트샤를 합친 세척의 영국군함은 비스말크를 포위하여 도셋트샤가 발사한 치명적인뢰격으로 드디어 27일 오전 10시 40분 비스말크호는 뒤집힌 채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이 격침에 영국해군의 주력함(主力艦)의 거포(巨砲)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이 중장비를 한 거함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은뢰격기대의 용감한 공격과 초계기들의 눈부신 활약에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후일 자매함(姊妹艦)으로서 거의 같은 비중의 강적이었던 틸핏츠호도 이 항구에서 저항구로 쫓겨 다니던 끝에 초저공(超低空)에서의 대형 고성능 폭탄의 공격으로 놀웨이 해협에서 격침되었다.

버지니아 해상에서의 공중폭격 실험 이래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놀드대장의 예언은 예상 이상으로 적중(的中)한 것이다.

이 무렵 미국은 승리국으로서 독일군이 이긴다면 굉장히 중대한 위험이 생겨날 것이라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여 군비확충을 서두를 뿐 아니라 연합군에 제공할 항공기 생산을 서둘렀다.

개전과 동시에 영국과 불란서의 미국주세 대표들은 방대한 수량에 달하는 항공기와 엔진을 미국에 발주(發注)하였는데 불란서가 함락된 다음에는 영국이 불란서 뭇까지 맡아서 1940년 초에는 미국 육해군용으로 제작된 항공기 600대의 대여(貸與)를 받았다. 미국의 항공공업은 오랫동안 민간항공용에만 의존하는 비교적 소규모적인 생산과 얼마 안되는 군계약(軍契約)을 소화해 왔으나 연산(年產) 5,000대를 목표로 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요청으로 삼시간에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육군은 오랜 세월이 걸쳐 조종사나 정비사를 충분히 양성할만한 기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민간 학교에 원조를 의뢰해서 1940년 여름에는 17,000명의 청년들이 이와 같은 비행훈련학교에 입학하였고 또한 정부와의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 정비학교에서도 32,000명의 정비사가 양성되었다.

또한 너무 젊거나 늙은 사람, 필요한 대학 2년 과정을 밟지 못한 사람, 기혼자 등으로서 미국 육해군 항공부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성(既成)비행사 수천명은 구라파에 의용병으로서 응모하고 있었다. 불란서가 함락되고 영국공군도 영국본토 방위에 있는 힘을 다 기울이고 있을 무렵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전에 참가할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공작하던 끝에 그들은 드디어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건너가 어떤 사람은 제1차대전때처럼 그들의 아버지나 형님들의 뒤를 이었다. 캐나다의 영국연방 항공훈련학교의 교관이 된 사람도 있고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폭격기를 납품하려 간 사람도 있었다. 이와 같이 해서 약9만 명이 미국을 떠나갔다. 가장 잘 알려졌던 것은 1940년 여름 기진맥진한 영국공군을 원조하기 위해서 이들 비행부대의 3중대를 편성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미국이 참전한 후에 영국군에서 미군 지휘하로 옮겨져 미국 육군항공부대의

세력증강에 헌신하였는데 평화시에는 공군부대 입대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라도 이제는 경험자로서 환영을 받게 된 것이다.

1941년에 접어들면서 미국과 일본간에 긴장의 도가 심해져서 경시(輕視)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정부 내에서는 항공부대 이외는 방위력 강화의 압력을 느끼지 못하였다. 대통령과 국무성 고관들은 동경과 백립 사이의 안호전보를 해독(解讀)하고 있었기 때문에(일본의 암호는 1940년 말부터 모조리 해독되고 있었다) 일본이 공격준비를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12월 6일 일부 일본함대와 30척의 수송선단이 삼만(灣)을 횡단하여 쿠라 지협(地峽)상의 화란 영토에 접근하고 있어 세계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동안에 폭격기와 전투기를 질서정연하게 실은 항공모함과 이것을 엄호하는 전함과 순양함으로 형성된 일본해군의 주력함대는 베링해의 길은 안개 속을 은밀히 남하(南下)하여 미국 함대의 대부분이 집결하고 있었던 하와이 진주만(眞珠灣)을 향해서 항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12월 8일(미국은 12월 7일) 일요일 먼동이 틀 무렵 일본군의 항공기는 일제히 모함(母艦)에서 발진하여 공격으로 돌입하였다. 이와 같이 해서 미국은 참전하게 되고 전세계는 전쟁으로 휩쓸려 들어간 것이다. 일본공군이 진주만을 공격하였다는 보도에 커다란 충격을 받아 아연실색한 미국은 급속히 군사태세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미국이 선전포고(宣戰布告)한지 며칠 후 처칠수상은 가장 중요한 타협을 짓기 위한 합동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영국공군참모총장 찰스·폴탈중장과 폭격기부대 사령관 하리스중장을 포함하는 군사고문단과 더불어 신예전함(新銳戰艦) 듀크·오브·요크호를 타고 미국으로 항발하였다. 미국으로서는 진주만에서 받은 것 같은 경험이 이제까지 전혀 없었던 것인데 영국은 이미 당켈크에서 자기나라 군대가 완전히 괴멸지경에 빠졌었던 쓰라린 경험을 겪었던 것이다. 진주만에서는 미국 해군함대의 주력이 큰 손해를 입어 일본해군은 전함 10척이 건재(健在)한데 비해서 미국은 태평양에 불과 두 척의 전함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 그 때문에 일본함대와 충분히 맞싸울만한 함대를 만드는데 반년이나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12월 8일 하와이에 대한 제1격과 그로부터 2개월 후인 비울빈공군기지의 급습과 같은 연달은 일본의 공격으로 그렇지 않아도 소수였던 미국공군의 대부분은 전멸상태였다. 그 가운데는 마니라에 갓 보낸 폭격기의 거의 전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같은 커다란 타격을 받기 전에 미국은 총계 9,000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1,100대는 해외기지에 분산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연습기가 많았고 실전용(實戰用) 항공기는 1,000대 정도였다.

저 속명적인 일요일, 「하늘의 요새(要塞)」B-17 13대가 편대를 지어 하와이를 향해서 비행중이었기 때문에 진주만을 한눈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힘박비행장의 비행관제탑에 있던 공군의 대령 한사람은 쌍안경을 한 손에 든 채 그들 비행기의 도착을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수평선 저쪽에 비행기의 대편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있노라니 그 연대가 거의 만상(灣上)을 통과할 무렵에 비로소 그는 그들 비행기가 모두 일본 비행기임을 깨달았다. 어찌할 사이도 없이 일본기들은 만내에 집결되어 있던 86척의 함선을 목표로 연달아 급강하(急降下)를 해서 폭탄을 투하하였는데 이 불의의 기습으로 미군측은 그저 떨거나 바라다 볼 수밖에 없었다. 일본 비행기가 해상에서 파상적(波狀的)으로 침입해 오는 동안에 앞에서 말한 B-17편대가 겨우 도착하였으나 한시간만에 걸친 일본군 공격이 끝날 무렵에는 큰 손해를 입고 있었다. 비행장도 급습을 받아 불붙은 비행기와 폭발을 계속하고 있는 격납고(格納庫) 등으로 수라장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만내(灣內)도 미국함대의 잔해(殘骸)가 초연(硝煙)에 휩싸인 채 물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일본군의 기습공격 이전부터 하와이에는 지휘계통이 단일화 되어 있지 못하여 작전상 혼란이 일어나기 일쑤였다. 하와이기지의 군당국은 육군과 해군으로 나누어져 서로 권력 다툼을 계속하고 있어서 어지간히 강한 대항의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일본측으로서는 여간 이점(利點)이 아닐 수 없었다. 공동 방위계획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습공격을 받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일본군이 상륙작전을 하려고 하였으면 아마도 가능하였을지 모른다.

이 시기는 연합군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암담한 시기였다. 처칠수상이 미국으로 항발하기 전에, 영국전함 푸린스·오브·웰즈호와 레파루스호 두 척이 마레이 해상에서 격침되어 연합국의 해군력은 다시금 약화되었다. 일본공군의 총세력은 그때까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막연한 예상으로는 형편없는 약세(弱勢)라고 믿고 있었다. 루즈벨트와 처칠이 회담하였을 때 폴탈 영국공군중장은 영국이 입수한 정보로서는 일본의 실전용 전투기의 총수는 3,600대 정도에 불과하며 월산능력(月産能力)은 300대라고 아놀드대장에게 말하고 일본을 해군만으로서 공격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진주만에서 기습을 모면한 미국의 항공모함으로서 영국 항공함대의 타란트 기습이나 일본의 진주만 기습에 흡사한 전법을 쓴다면 일본을 기습공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폴탈중장은 주장하였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이와 같은 낙관적 견해가 통용(通用)된 것은 연합군의 항공기수가 추축군측 보다 우세하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영국은 월산(月産) 2,500대 미국은 처음에는 3,000대 거기다 소련의 1,500대를 합치면 연합군의 항공기 월산 총수는 7,000대에 달하는데 여기에 비해서 적은 월산 3,500대 이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즉각 항공기, 탱크, 총포, 함선을 대량생산으로 옮겨 전쟁수행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연합국의 여러나라가 미국에 대하여 미국제 항공기를

얼마나 입수할 수가 있느냐는 문의를 하여 왔는데 이러한 문의를 받은 아놀드대장은 연합참모본부(聯合參謀本部)에 대해서 거의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숫자를 제시하였다. 그는 이미 미국의 항공기공장의 능력을 상세히 조사하고 있었으며 새로이 방위생산 책임자로서 윌리엄·누젠과 시드니·힐만 두 사람을 임명하였다. 미국의 전 산업은 전력을 기울여 생산을 개시하여 그가 약속한 숫자의 항공기를 만들도록 노력하였다. 항공기공장은 확장에 확장을 거듭하였다. 보잉항공회사에서는 B-17폭격기를 개전당시 월산 37대로 생산하고 있었는데 얼마 안가서 월산 75대로 증가시켰다. 대항공회사는 하청제도(下請制度)를 설치하여 부분품을 생산시켰으며 이것들을 조립시켜서 완성기를 만들어냈다. 각 지방에서 비행기 부분품이 따로따로 보내져 와서 이것이 한데 어울리는 가운데 생산라인을 형성해 갔다. 콤페어 항공회사는 신행폭격기 B-24 리베테터를 생산하였다. 외관(外觀)은 투박해서 모양이 없는 것이었지만 세계적 규모의 전쟁에는 반드시 필요한 장거리 성능과 탑재능력(搭載能力)에 있어서 우수하며 튼튼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의 양 전선으로 부터의 요구에 따라 군수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흡사히 전쟁터와 같은 양상을 보여주었다.

영국은 사기(士氣)를 양양시킬 목적을 겸해서 계획하고 있던 폭격작전 수행을 위해서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1942년 초여름에 미국공군 조종사가 조종한 B-17이 처음으로 불란서의 피점령지대에 있는 적 목표에 대해서 시험적으로 주간폭격을 하였다. 영국공군은 야간폭격을 담당하고 있었는데「하늘의 요새」가 단독으로 엄호전투기(掩護戰鬥機)도 없이 또한 캄캄한 밤을 이용하지 않고 영불해협을 날아가는 것을 불안스러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다. 탑승원들은 누르넨 제품의 정밀한 폭격조준기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어서「고도 25,000피트에서 드림통에 명중시킬 수가 있다」고 어느 장교가 뽐냈을 정도였는데 실제로 맹렬한 대공포화 속에서 이러한 정확한 폭격을 하였던 것이다. 이 폭격기는 전투중 총탄에 맞아도 끄떡도 안해서 탑승원들의 용기에 모두들 감탄하였던 것이다.

미국의 뜻내기 조종사들은 얼마인가 역전(歷戰)의 용사들과 대등한 기술과 용맹성을 발휘하였다. 불란서에 있는 목표에 대한 다섯 번째 공습 때 B-17한 대가 기체에 불이 붙은 채 돌아와 탑승원 가운데 부상자가 있음을 정비사들이 알게 되었다. 이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하였으나 적탄(敵彈)을 수없이 맞아 기수(機首)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포탑(砲塔)도 별집처럼 파괴되어 있었다.

지체 없이 군의관이 구급차(救急車)를 타고 달려와 보니 부조종사는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었으며 왼손 가운데 손가락 끝마디가 잘라져 나갔음을 금방 알아낼 수가 있었다. 그는 재수 없다는 표정으로「피탄(被彈)하였을 때 양손은 조종간을 잡고 있었습니니다. 만약 그때 귀라도 휘비고 있었으면 좋았을걸……」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또한 기관포의 사수(射手)는 엄지발까락 한 개가 날아가 버렸다. 그런 정도의 피해(被害)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폭격기는 기지에 돌아올 만큼 튼튼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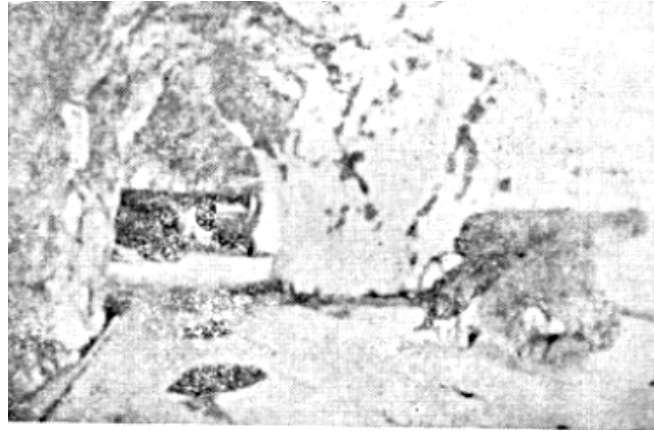
미국은 거대한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초기에는 여러가지로 구색이 맞지 않아 골치가 아팠다. 에드워드·그레이가 언젠가 처칠수상에게 설명한 말을 빌린다면 미국은 거대한 보일러와 같아서 한번 점화(點火)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무지무지하게 큰 것이었다. 일본은 그 점화역(點火役)이 되었던 것이며 거기서 발생한 증기압(蒸氣壓)은 항공기 공장이 급속히 확장됨에 따라 급격히 커졌던 것이다. 전국(戰局)이 급진전하자 피아(彼我)의 항공기 수요(需要)는 더욱 증대되어 갔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코데히틀 섬에서 포위당하고 있던 맥아더 원수에게 비울빈에서 탈출하라고 명령하였다. 마탄반도는 일본군의 공격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해군의 존·버크레이 중위가 지휘하는 어뢰정(魚雷艇)으로 맥아더장군과 가족 그리고 소수의 육해군 고급장교들 일행은 민다나오 섬을 몰래 탈출하여 거기서 낚아챈 B-17폭격기에 갈아타고 라루프·로이스 중장의 지휘 밑에 오스트리아로 비행한 것이다. 여기서 맥아더 장군은 병력을 재편성해서 비울빈의 탈취(奪取)와 최종적으로 일본 본토를 공격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구라과 전선에서는 미군이 아이스랜드와 북아일랜드에 상륙하였으며 계속해서 비행부대가 영국에 파견되었다.

군대가 이렇게 넓은 지역에 분산하였기 때문에 중요물자나 인원의 보급 그리고 요원(要員)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많은 수송기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육군이나 해군이나 이러한 형(型)의 비행기는 그다지 많이 보유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민간항공회사 비행기를 징용(徵用)하게 되었다. 민간항공회사는 300대에 가까운 수송기를 군용(軍用)으로 제공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4발기(四發機)였다. 그 때문에 국내 항공로는 불과 160대를 가지고 둘러치기 운항(運航)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항공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 제작하는 수송기는 완성되자마자 정부의 항공수송사령부(ATC)나 해군의 이러한 기관들에 의해서 앞을 다투어 징용되어 갔다. 호화스러운 객석(客席)이나 방음장치(防音裝置) 그밖에 불필요한 장비는 그 자리에서 제거(除去)되어 지구의 끝 같은 먼 지역으로 군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많은 화물이나 병원(兵員)을 수송하거나 부상자를 후송(後送)하는데 동원되었다. 열대(熱帶)의 산호초나 수목 하나 없는 황량한 아류산 열도(列島) 기지에서 그들 비행기는 활약하였던 것이다.

1942년 초의 수개월 동안 미국을 위로할만한 뉴스는 거의 없었다. 독일군은 그 당시 소련에의 무모(無謀)한 진격이 저지(沮止)당하고 있었으나 스에즈를 위협(威脅)하고 있었으며 완만(緩慢)하지만 착실하게 대서양 해전(海戰)에 승리를 거두어가고 있어 연합군은 인명(人命)이나 물자에 커다란 손해를 받고 있었다. 일본군은 다시 남진(南進)하여 싱가포르, 자바, 뉴기니아를 탈취하는데 성공해서 오스트리아나 뉴질랜드까지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지부랄탈의 장관(壯觀)



리차드·하리바톤

지부랄탈의 바위산! 얼마나 스틸에 넘치는 곳인가. 여기 또 하나 멋진 세계의 경이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상최대의 요새지(要塞地)이며 전능(全能)의「바위의 사자(獅子)」그리고 지중해의 왕자다. 또한 고대 희랍 사람이나 로마사람들에게는 지중해와 대서양이 합치하는 해협에 420미터나 하늘 높이 솟아있는 헤리크레스의 기둥—지부랄탈 해협의 양쪽에 마주 서 있는 바위산인데 옛날에는 지부랄탈을 가지고 세계 육지의 끝이라고 생각들을 하여 희랍신화(希臘神話)의 제우스신의 아들로서 힘이 세기로 유명한 헤리크레스가 두 쪽으로 쪼갰 것이라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다—의 하나로 생각하여 뱃사람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면 대양(大洋)의 끝이 되어서 살아 돌아오지는 못한다고 믿고 감히 그 곳에는 가려고들 하지 않았다.

지부랄탈은 2000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표가 되어온 땅이며 힘과 싸움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그런 까닭에 그 이름은 세계 모든 문명국의 어린이들한테까지 알려져 있다. 우리들은 세계 경이 순례(巡禮) 여행에서 이것을 빠뜨려서는 안된다. 나는 어렸을 때 수없이 이 암산(岩山)과 그림을 보아왔다.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 사라센 민족이 아프리카의 북쪽 기슭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해 왔을 때 지부랄탈 해협의 툇 튀어나온 바위산을 보고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손에 넣으려고 생각하였다. 그 당시 사라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용장(勇將) 타리크가 인솔하는 사라센 군대는 서기 711년 적의 반격을 물리치면서 해협을 건너 암산을 점령하고 여기에 견고한 성새(城寨)를 구축(構築)하였다. 그 후 타리크는 이 성안에 총사령부를 두고 회교군(回教軍)을 인솔, 내륙으로 진격하여 스페인의 태반을 정복하였던 것이다. (지부랄탈이란 타리크의 바위라는 뜻)

그 후부터 사라센 민족은 스페인과 지부랄탈을 700년 동안이나 통치하였는데 그 동안 그들의 교역(交易)과 끊임없는 사람들의 교류(交流) 그리고 군대의 주둔지, 함대의 정박지, 요새지(要塞地)로서 이 바위산이 이용되어 왔다. 1462년에 이르러 스페인 사람들은 가까스로 회교도(回教徒)를 아프리카로 쫓아버릴 수가 있었는데 이때 마지막 사라센 사람들은 700년 전 옛날 선조들이 처음으로 밭을 디딘 이 지부랄탈 바위산에서 물러간 것이다.

적을 쫓아버린 스페인 사람들은 700년만에 이 바위산을 손에 넣은 셈인데 다른 여러나라에서도 이 바위산을 노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지부랄탈을 손에 넣는다면 지중해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으로 지부랄탈은 수없이 공격을 받아왔다. 스페인은 그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또다시 잃는 역사를 되풀이 하였다. 1704년 지부랄탈은 영국 손에 넘어갔다.

1779년에는 불란서와 스페인이 한 패가 되어 주먹다짐으로 그곳을 탈취(奪取)하려 하였으나 4년간이나 포위를 한 끝에 그대로 실패하였다. 이 포위에는 50척 이상의 군함이 바다에서 공격을 가하였으며 4만명의 군대가 육지에서 공격을 하였는데 한꺼번에 400발이나 되는 포탄이 퍼부어진 때도 있었다.

지부랄탈을 지키던 영국군은 7,000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들에게는 견고한 암산과 시뻘건 불을 뿜는 많은 대포가 있었다. 영국 수비병(守備兵)들로부터「뜨거운 감자」라고 불리우던 포탄은 스페인의 선박들을 불태웠으며 탄약고(彈藥庫)를 폭발시켰다. 포위된지 4년째 되던 해에 평화조약(平和條約)이 체결(締結)되어 지부랄탈은 끝내 영국땅으로 남게 되어 그때로부터 지세적(地勢的)으로는 확실히 스페인의 일부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이겨서 얻은 이 바위산을 완강하게 유지하여 왔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모두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며 그때부터 지부랄탈은 나의 여행 목적지의 하나로 된 것이다. 나는 여기를 찾아본 것을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곳은 흡사히 해협을 지키며 도사리고 있는 사자 같아서 그것을 보고 있을라 치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흥분된다. 그래서 나의 한평생에 확실히 남을만한 얼마간의 모험을 이 바위산에서 연출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면 암산 꼭대기에서 포대(砲臺)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스파이로 오인(誤認)되어 체포되었던 사실이 있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나에게 있어 지부랄탈은 상당히 매력있는 곳으로 되었지만 아마 여러분도 이 요새(要塞)를 보고싶은 생각이 간절할 것이다. 자! 그러면 어디 한번 같이 가봅시다.

남아메리카에서 지부랄탈로 가자면 대서양을 횡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협에 가까워짐에 따라 저 멀리 유명한 목표가 되는 육지가 어렵듯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와는 정반 대쪽 13키로쯤 떨어진 아프리카 해안에 이와 대(對)가 되는 또 하나의 헤리크레스 기둥이 서있다. 우리들은 이 두 개의 기둥 사이를 지나 해협으로 들어선다. 구라과는 우리를 왼쪽에 그리고 아프리카는 오른쪽에 있으며 전방에는 지중해가 펼쳐져 있고 뒤는 대서양과 이어져 있다. 점점 암산에 가까워짐에 따라 그것은 더 크고 높게 보인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을만한 당당한 것이며 틀림없이 여러분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리라고 믿는다. 멀리서는 중포(重砲)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700문의 포대—어떤 사람은 1,000문이라고도 한다—가 바위 구멍에서 우리들을 노려보며, 전기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활짝 열리는, 비밀 격납고(格納庫)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실만은 말할 수가 있다.

상륙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을 삼분의 일 정도 가다가 그 옛날 타리크가 쌓아올린 성터(城蹟)를 볼 수 있다. 오늘날 그곳은 형무소가 자리 잡고 있는데 앞에서 말한바 있지만 나는 군사법정(軍事法廷)에서「위험한 외국 스파이」라는 명의로 판결을 받기까지 이 안에 갇혀있었던 것이다.

나는 젊은 미국학생으로서 세계를 유람(遊覽)하면서 흥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서투른 솜씨로나마 사진을 찍어 고향에 계신 부모에게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이런 결과를 맛보게 하였던 것이다.

언덕길을 다시 올라가면 철망으로 둘러쳐진 초소(哨所)가 나타난다. 한 사람의 영국군인이 나와서 우리들을 다시 높은 곳에 있는 군사지역(軍事地域)으로 안내해 준다. 우리들은 특별히 허가를 얻어 대포가 놓여있는 장소를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단단한 바위를 파헤쳐서 만든 긴 복도가 있으며 그 안에 마련되어 있는 포대(砲臺)에는 몇십문이나 되는 대포가 늘어서 있고 포구(砲口)는 조그맣게 뚫린 구멍에서 저 아래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다.

우리들이 보아도 좋다는 대포는 거의 모두가 케케묵은 옛날 대포인데 어떤 것은 나폴레옹 시대의 대포까지 있다. 그러나 최신식의 무서운 화력을 지닌 대포가 비치되어 있는 격납고가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이것은 군의 기밀에 속해서 일반시민은 볼 수가 없다. 지부랄탈은 영국으로서서는 화살촉 같은 위치로서 영국 육군성이 그 비밀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그곳을 떠나 다시 올라가면 해발(海拔) 40미터 지점에 도달한다. 여기에는 두 개의 대양(大洋)과 두 개의 대륙을 지배하는 구경(口徑) 23센치 대포가 있다. 우리는 그 위로 기어 올라가 지부랄탈 바위 끝에서 그 아래에 펼쳐져 있는 세계를 내려다본다.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 광경인가! 아프리카와 구라과의 두 대륙, 대서양과 지중해의 2대양—까마득한 아래 쪽으로는 동쪽 스에즈를 향해서 기어가듯이 항행(航行)하는 조그만 배들이 보인다. 눈을 돌리면 한쪽에는 경사(傾斜)를 이룬 도시가 보이며 또 한쪽으로는 400미터나 되는 밀의 바다에서 치솟은 단애(斷崖)가 보인다. 북쪽에는 백설(白雪)이 덮인 세라 산이 보이고 남쪽은 우리들이 있는 이 경이적 바위의 울퉁불퉁한 봉우리들이 뻗어내려가다 다시 위로 뻗어 올라간 멋진 광경을 볼 수 있다. 해협은 햇빛에 번쩍이며 아프리카쪽 헤리크레스 기둥은 아주 가까운 위치에 우뚝 서서 우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슈퍼도 올림프스 산정(山頂)에서 전세계를 지배하였을 때 지금 우리와 같은 감흥(感興)에 젖어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 위대한 모험의 한 토막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만 하더라도 이보다 위대한 것은 거의 생각이 나지 않는다. 나는 이 기념할만한 지부랄탈 바위산 상공 1,500미터 지점을 자가용 비행기로 비행한 경험이 있다. 그것은 아프리카 튀부크토에 가는 도중이었는데 우리들이 지금 서 있는 바위의 첨단을 내려다 볼 수가 있었다.

자가용 비행기는 바위산 상공을 한 번 크게 선회(旋回)하며 위대한 바위 군주님께 인사를 드린 다음 저 멀리 타리크의 나라를 향해 날아갔다. 요새(要塞)를 배후(背後)로 하고 나는 먼저 그 과거는 접어두고 장래를 생각해 보았다. 영국은 육지와 바다로부터의 공격에 대해서 이 바위산을 요새화(要塞化)하고자 25,000만불이라는 거액(巨額)의 돈을 소비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 푸른 해협상공을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면서 과연 앞으로의 전쟁에서 이 도시를 비롯하여 항구안의 함대나 형무소 따위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탄 세례(洗禮)을 모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최대최강의 요새가 어떻게 되거나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며 장차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지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부랄탈의 이 바위산은 지구가 존속하는 한 가장 장대(壯大)한 기념물의 하나로서 남아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김영주 역)
(사진은 지부랄탈요새)

부대도서관 운영과 이용에 관하여

목차

1. 머리말
2. 부대도서관의 기능
3. 부대도서관의 자료 및 봉사
 1. 자료
 2. 자료이용 및 봉사
4. 도서관 이용법
5. 결어

손흥준



1. 머리말

공군에서 요구되는 도서관은 그 설치목적과 성격으로 보아 3개형(Type)으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다. 즉 중앙도서관(Central Library), 부대도서관(Unit Library) 및 기지도서관(Base Library)으로서 첫째 중앙도서관은 공군의 Information Center로서 군의 운영, 작전에 필요한 참고 자료를 파악, 선정 수집하여 보존 운용하며 국내의 각종 자료의 정보수집 대외기관과의 자료 교환 및 부대, 기지도서관에 대한 운영 지원을 그 주 임무로 하며, 둘째, 부대도서관은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 지원하는 도서관으로, 부대 성격에 따라 자료 내용이 각각 상이한 특수성을 갖게 된다. 셋째, 기지도서관은 장병들이 많이 주둔하게 되는 기지에 설치해서 주로 장병의 일반교양과 오락을 위한 자료지원 및 봉사를 임무로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각 형(Type)의 도서관들은 병력수 부대성격 또는 규모, 지역적인 배경 등으로 도서관의 규모 운영방식 등이 각각 다르게 되며, 2개 또는 3개형이 상호 결합된 도서관으로도 설치, 운영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운영되는 도서관들은 그 성격상으로 보아 1개형의 도서관으로만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현재 공군의 도서관 현황을 개관하건데 중앙도서관은 1957.11.13 공군대학에 설치되어 당국의 강력한 정책으로 건평 347평의 현대식 건물과 약 3만권의 장서를 갖고 주야간 및 전 요일에 걸쳐 공군대학, 공군사관학교를 비롯하여 제경(在京) 부대의 소속 장병들에게 도서관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주 완전치는 못하나마 현대 도서관의 면모를 갖추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부대 및 기지도서관은 수 개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시설의 불비(不備), 자료부족 및 관리자의 경험부족 등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태라 할 수 있다. 도서관이 Information Center로서 부대 운영 작전상에 요구되는 자료지원 교육을 위한 자료실로서 교육성과를 높여 주며, 장병의 지적 향상을 위한 자료지원 및 봉사 등은 군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필요 불가결한 사실로서 하루속히 부대 기지도서관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꾀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중앙도서관을 보다 충실한 도서관으로 만들어, 부대 기지도서관의 지주(支柱)로서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기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여기에 부대 기지도서관을 종합한 형의 도서관을 부대도서관이라 부르기로 하고 그 기능, 자료구성 자료이용 및 봉사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도서관 이용을 위한 참고사항을 말하고자 한다.

2. 부대도서관의 기능

장병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을 도서관측 입장에서 분석해 본다면 첫째,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둘째, 일반적 교양 향상을 위한 경우, 셋째, 오락(Recreation)을 위한 경우 등으로 도서관을 찾게 된다. 이에 대하여 도서관은 적당한 시설과 가능한 한 많은 요구되는 자료의 준비 및 유능한 전문직원으로서 편성해서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지속적이며 또한 적극적인 운영으로 장병들로 하여금 도서관 이용의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는 봉사를 하게 된다. 부대 도서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부대의 임무완수로서 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인 것이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게 된다.

첫째, 부대 운영, 작전을 위한 Information Center 시간과 정확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대 운영, 작전상 당면하게 되는 제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운용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장병들이 일상생활 중에서도 또는 사무상 당면한 문제가 그 해결에 어떤 참고적 자료가 필요할 때 각종 참고자료를 제공하며 편의와 협조를 하여 주는 봉사를 한다.

둘째, 장병의 지적향상을 위한 자료지원 및 봉사. 공군의 운영, 작전은 고도의 과학이론과 실제적(實在的)인 높은 기술면의 교양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각종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군사학뿐만 아니라 기술교육, 일반교육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학습 성과를 높여주며, 병영생활 중의 여가를 선용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는 봉사를 한다.

셋째, 장병의 정신무장, 사상 선도를 위한 자료실. 현대전을 가리켜 과학전이나 사상전, 또는 총력전이라 말하고 있다. 오늘날 자유, 공산진영이 각각 이념과 사상을 핵심으로 분리되어 집단안전을 위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상전에 의하여 최후의 승리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인의 사상 및 정신은 현대전에서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으며 군은 조직적이고 강력한 정훈사업으로 장병의 사상 선도와 정신무장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훈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는 도서관이 갖고 있는 진실하고 최근의 시사성을 가진 많은 참고자료를 통해서 세계의 움직임을 알게 하며, 민주주의 이념, 국가의 시책과 군사목적 등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지각을 갖게 하여 정확한 판단과 확고부동한 신념을 길러주는 것이다.

넷째, 장병들의 일반적 교양을 높여주는 봉사. 부대도서관은 부대 장병들의 교양향상을 위한 주요한 봉사기관이다. 도서관자료를 통해서 인간, 사회 세계의 참다운 진실을 발견케 하며, 건전한 정신생활과 내면생활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서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여 준다. 다섯째, 오락을 위한 자료지원 및 봉사. 부대도서관은 장병들에게 건전한 취미와 오락을 주기 위하여 명량한 소설을 비롯하여 연극, 영화의「시나리오」, 각종「스포츠」와「게임」등에 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여 독자의 습관을 길러주며 고상하고 아름다운 취미를 갖게 하는 정서적인 면에 대한 봉사를 하게 된다.

3. 부대도서관의 자료 및 봉사

각 부대에 설치되는 부대도서관들은 부대의 성격, 병력, 규모 및 기타 특수성에 따라 도서관의 규모와 자료 구성 및 운영방식 등이 각각 다소 상이한 양상을 갖게 된다. 그러나 궁극적인 그 설치목적과 자료의 범위 및 봉사는 동일한 것이다. 부대도서관의 자료의 종류와 그 운용 및 봉사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료

(1) 구비해야 할 자료의 종류

가. 일반적 독서자료

- ㄱ) 소설
- ㄴ) 비소설

나. 일반적 참고도서

- ㄱ) 백과사전
- ㄴ) 사전
- ㄷ) 지도

ㄹ) 특수참고도서 (연감, 통계편람, 안내서, 법령집, 기타)

다. 정기간행물

- ㄱ) 신문
- ㄴ) 잡지
- ㄷ) 기타 정부 기관의 간행물 등

라. 군사간행물

- ㄱ) 교본, 교범(敎範), 논문, 참모건의서 등
- ㄴ) 규정, 편람, 문서 등
- ㄷ) 기타 군원(軍援) 및 간간행물

마. 특수자료

- ㄱ) 시청각자료
- ㄴ) 비서적류의 각종자료 등
- ㄷ) 기타

(2) 자료내용

- 가. 군의 운영, 작전에 요구되는 참고자료
- 나. 장병들의 지적 향상을 위한 군사 기술 및 일반학술자료

다. 장병들의 일반적 교양과 오락을 위한 각종자료
라. 장병들에게 독서, 취미, 오락을 위한 각종자료
마. 국내외의 정부 기관의 간행물
바. 각 지방의 향토자료
사. 기타

2. 자료이용 및 봉사

(1) 일반적 운용

- 가. 관내열람
- 나. 관외대출

(2) 특수적 운용

- 가. 순회문고
- 나. 특수군무자치원

(3) 참고업무

- 가. 도서관리용법, 독서지도
- 나. 참고자료의 수집, 운용
- 다. 참고업무

(4) 대외활동

- 가. 분관 설치운영
- 나. 각종전시회 개최
- 다. 각종집회활동

ㄱ) 독서회

- ㄴ) 연구, 토론회, 강연회
- ㄷ) 음악, 영화, 미술감상회 등

(5) 선전활동

- 가. 관보
- 나. 장서목록, 양서소개
- 다. 방송, 신문 또는 각종 유인물의 발간

4. 도서관 이용법

장병들이 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란 곧 도서관의 실정을 올바르게 잘 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도서관의 자료 조직, 장서배열, 분류, 목록카드의 조직 및 이용법, 도서이용 기타 도서관의 제규정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도서관 이용법은 도서관측에서 독자 장병들에게 교육시켜야 할 명확한 책임이 있다고 보겠으나 더욱 긴요한 것은 장병 자신들의 독서의욕과 도서관 이용에 대한 절실한 요구가 필요한 것이다. 다음은 장병들이 부대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참고사항을 들어 보기로 한다.

가. 도서관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ㄱ) 도서의 운영방식과 제 규정을 숙지토록 할 것.

(ㄴ) 정숙한 태도, 조용한 걸음, 방담(放談) 소음을 내지 말 것.

(ㄷ) 도서관 자료에 대한 애호심을 가질 것. 오염, 절장(切帳), 분실을 말 것

(ㄹ) 도서관의 제현황을 알아야 한다. 자료의 범위, 위치 및 색출(索出) 등을 알아둘 것.

(ㅁ) 문제해결, 필요한 자료의 준비 및 이용법에 관한 협조를 관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나) 관원의 지시에 순응하고 제규정을 잘 이행하여야 한다.

나. 장서배열

도서관이 갖고 있는 주제가 각각 상이한 많은 도서들은 이용 및 운용의 편의상 일정한 체계에 따라 기호를 배당하여 배열위치를 결정짓고 따라서 같은 주제의 도서를 한곳에 모이도록 정리를 하고 있다. 기호는 분류번호, 저자, 서명 및 권호(卷號) 등의 문자 또는 숫자기호가 결합되어 이루어지며 이를 청구번호(Call Number)라고 한다. 도서의 배열순은 청구번호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바 그 순위는 첫째, 분류번호순으로 적은 수의 분류번호가 앞에 오게 된다. (예, 301.4←310←321)

둘째, 동일한 분류번호에서는 저자(또는 서명일 경우도 있음. 기본기입표목)기호의 가나다 알파벳순 또는 숫자순으로 결정된다. 셋째, 분류번호 저자기호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서명 의 두문자(頭文字) 또는 권호순, 복본(復本)일때는 수입도착순 등으로 배열된다. 다음은 DDC (Dewey Decimal Classification)십진 분류표의 10류(類)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공군중앙도서관이 이 분류표를 사용하며 부대도서관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 DDC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많은 도서관이 채택하고 있어, 타 도서관을 이용하는데도 참고가 될 것이다. 이 분류표는 모든 학문을 10류로 나누고 각 류는 10강(綱)으로 각 강은 10목(目)으로, 이와 같이, 10진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류(類)와 100번호의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000-099 총류	500-599 자연과학
100-199 철학	600-699 응용과학
200-299 종교	700-799 예술 및 오락
300-399 사회과학	800-899 문학
400-499 언어	900-999 역사

위 표에서 300-399 사회과학은 310 통계학, 320 정치학, 330 경제학 등으로 또한 321 (국가정부의 형태) 322 (국가와 정부의 본분 및 기능) 323 (국가의 개인 또는 집단과의 관계) 등으로 구분되어있다.

다. 목록카이드

목록카이드는 도서관이 갖고 있는 자료의 색인이라 말할 수 있다. 마치 도서에 있는 Index와 같이 어떤 도서가 있으며 또 그 도서의 위치는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독자 장병들은 목록카이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 즉 첫째, 어떤 저자의 저서가 있는지? 둘째, 같은 서명 또는 같은 내용의 도서가 있는지? 셋째, 어떤 주제의 도서 들이 얼마만큼 도서관이 갖고 있는지 등을 알아낼 수 있다. 목록카이드함에는 3x5 크기의 백색카이드에 청구번호, 저자, 서명, 출판사항 등으로 기입되어 표목(標目)인 저자(편자, 역자도 포함)명, 서명(원서명, 총서명), 건명(주제명)이「가나다」또는「알파벳」순으로 혼합되어 꽂혀 있다. 이 목록카이드형을 사전체형(辭典體型) 목록이라 부르는데 마치 사전의 단어들이「가나다」또는「알파벳」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 이외 분류 목록카이드가 있다. 이 목록카이드는 분류 번호순으로 꽂혀 있어, 같은 주제의 도서들이 한 곳에 모여져 일목요연하게 같은 분야의 도서를 참고할 수 있다. 장병들은 저자, 역자 서명을 알고 있거나 또는 저자 서명을 모를지라도 건명 목록카이드를 이용해서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카이드 좌 상단에 있는 청구번호는 그 도서의 배열위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청구번호만을 알면 직접 또는 계원(係員)에게 신청해서 희망하는 책을 입수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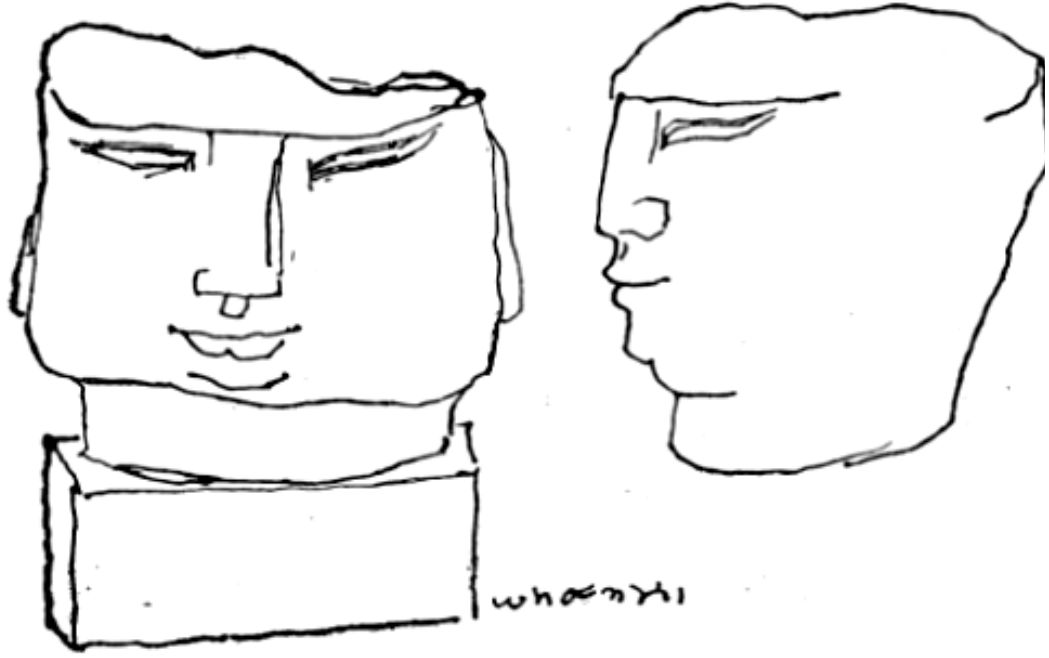
청구번호 저자서명, 년대
서명, 판수.....
.....발행지
발행소, 발행년
면수 그림 크기(총서명...
.....)

보기, 목록카이드의 기입내용

5. 결어

부대도서관은 부대 또는 기지에 설치해서 적당한 시설과 필요한 참고자료 및 관리직원으로 결성되어 계획적이며 지속적인 운영으로서 부대의 운영, 작전과 장병의 질적 향상, 일반교양 및 오락을 위한 Information Center이며 교육적인 봉사기관인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은 장병들에게 도서관을 이용시키기 위하여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부대도서관의 궁극적인 목적을 요약한다면 장병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진실한 Information을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기하게 하며 질적 향상으로 말은바 임무를 효율적으로 완수하여 최후의 승리를 기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명을 갖게 되는 부대도서관은 하루 빨리 부대마다 또 한 기지마다 설치되어 활발한 사업으로서 활동 봉사하게 될 때 우리 공군은 건전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끝-

**귀중한내한표가
민주재건터전 된다**
국민투표 계몽표어



불상의 파편

화(畵)·문(文) 김환기(金煥基)

내 문갑 위에는 아기 주먹만큼이나 한 불상 얼굴이 놓여져 있다.
아깝게도 목이 떨어졌고 양 귀가 떨어졌고, 그것은 할 수 없다 치더라도 눈 위에 눈썹에서 이마가 완전히 떨어져 나간 두리뭉실한 돌덩어리와도 같은 그러한 불상의 얼굴이다.
이 처참하게 된 불상이 어찌하면 이렇게도 아름다울까. 삼년을 한 자리에 두고 늘 바라보고 있으나 처참한 이 반 조각의 얼굴에는 불가사의한 미소가 떠돌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신라천년의 웃음을 바라보며 이 글을 쓰고 있다.
언젠가는 이 얼굴에 대해서「평화와 미(美)」를 써야할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만은 이 예술의 조고만 파편이 이토록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낙엽 지는 길

이동수

(205 교재 세대)

1962년 11월 3일
이렇게 날짜를 쓰는데
아주 멀리 더 먼 어느 산협
없는 양을 찾는 목동의 피리소리 같이
누군가
은은히「눅크」하며 부르는 소리
사뭇 설레이는 가슴에
창(窓)을 열면
빈 연병장으로 꽃달이 부서쳐 내리는 소리……
당신의 고운 살결같은 낙엽이
소곳이 소곳이 축복인양 내려
가난한 내 마음에도 내려서 쌓여
아 낙엽속에서도 내 가슴 속에서도
당신의 다정한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 같다.
천사의 의상들이
죄 많은 누리를 다스리는

이 밤사
가로등 밑에서 푸른 제복차림으로
당신을 포옹하고
우리는 언어를 잊어버린 사슴이라도 좋으리
마냥 지향없이 바자니고 싶다.
지금 우리는 간이역에서
이렇게 가난한 연인들이나
「시그날」이 없는
우리 사랑은
행복이「레일」처럼 놓여 있는 길……
지난해「크리스마스」
당신이 부쳐준 이 일기장
오늘도 나는 당신을 그리며 산연을 적고
지금쯤 당신은 마리아 상이 있다는 조그만
「테이블」앞에 앉아
또 무슨 이야기를 적고 있을까.



조종사의 수기

대위 허두기(許斗基)
10전비(戰飛)102세대

—졸업을 하면서—

이제 졸업이란 어원인 COMMENCEMENT의 참뜻을 내 몸소 겪게 되고 보니 그저 감개무량할 뿐이다. 이제부터 나의 생애는 시작인가 보다. 짧고도 한없이 긴 세월—만4개성상(星霜)을 헤아리는 생도생활에 중지부를 찍고 영예로운 공군장교로서 아니 장래의 군의 간성(干城)으로서 복무할 완전한 인격인으로서의 Turning Point에 오르게 된 내 자신을 생각할 때 현재란 존재를 이룩한 과거가 얼마나 중대한가를 다시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인생 칠십 중 인생의 황금시대란 청춘 시절인가 한다. 이 청춘시절을 불과 십년이라고 생각할 때 그중의 4년이란 세월이 얼마나 값이 있는 기간인가? 가장 Enjoy 할 수 있는 사춘기나 청춘기의 태반을 딱딱하고 규율이 엄하고 생활이 고된 사관학교란 Category에서 오직 오늘의 내 자신을 이룩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할수록 고진감래의 의의를 암암리에 암시하는 것 같다. 입학당시의 웅대한 포부는 무한한 창공을 마음껏 활개치며 오직 조국의 하늘을 수호하는 하늘의 용사로 서 내 생애를 바치려는 초지(初志)를 관철하려는 이 찰나에 오르게 된 이때 내 자신의 쌍견(雙肩)에 매여진 책임감과 의무감은 보다 크다. 선열의 피로써 이루어진 공군의 전통을 바야흐로 이어나가고 물려줄 수 있는 분기점이란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속 깊이 부풀어 오르는 젊음이 더욱 승화한다.

—첫 관습비행을 하면서—

예로부터 저 푸른 하늘을 날아보려는 것이 하나의 동경으로서 못 젊은이들의 마음을 이끌었지만「라이트」형체가 이 수수께끼를 풀 이후부터는 더욱 하늘을 정복하려는 야망이 모든 젊은이의 마음속 깊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항공발달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내가 공군사관학교에 들어온 이유도 그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평면을 상대로 한 이차원세계에서 공간을 나는 삼차원세계로 돌입한 이후부터 인간의 창조력에 경이감을 아니 가질 수 없다. 과연 하늘은 젊은이가 살아야만 할 곳이며 젊은이만이 지니는 청운의 이상과 패기를 위하여서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점점 요원해지는 지상과 끝없는 공간 사이에 자아라는 존재를 인식 할때면 어쩐지 남몰래 희열감을 아니 느낄 수 없다. 내 눈앞에서는 비행기만이 각기 지시할 뿐 엔진의 고동소리만이 고요한 음벽(音壁)을 진동시키고 있다. 이럴때면 흔히 음악가의 경지에 빠지곤 한다. 엔진소리를 마치 리듬과 같이 음미할 때 마음 한구석에 약동하는 젊음의 맥박이 공명하게 된다. 지상에서의 모든 조조감과 공포심은 어디로인지

장병 페이지

깨끗이 사라지고 어쩐지 하늘나라에 점점 육박해간다는 안도감만이 나를 지배 할 뿐이다. 안하(眼下)에 내려다보이는 오감도와 같은 지형지물—특별히 산계곡을 구비쳐 흐르는 사형의 강물과 리아스식 해안선의 다도해(多島海)는 나의 잊을 수 없는 감명을 뿌리깊이 내 뇌리에 퍼부어준다. 나의 조국의 하늘을 마음껏 종횡 자유로이 날개쳐 다니면서 창공의 보라매가 된다는「프라이드」에 내 자신도 모르게 우월감을 갖게 된다. 이것이 곧 젊음이 갖는기 때문인가 보다 그렇다. 젊음이 없었던 들 그 누가 이 세계의 Mechanism을 마음껏 정복할 것인가? 젊음이만이 아무런 것으로써도 소화할 수 없는 햇빛을 그들 심중 그 깊은 곳 에 고이 간직하고 있지 않는가! 마치 팔방 끝없이 황폐한 사막의 오아시스의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이론과 실재를 결부시키는 이 교차로상에 오를 나의 심중에는 한없이 넓은 미소의 파문까지 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난다. 바야흐로 지상생활로부터 공중생활로 옮겨는 분기점에 승(乘)한 획기적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이제부터 하나의 Air power로써 나의 생애가 시작되는 이 찰나! 비상한 각오와 생활의「모토」인「굳셈」이 내 뇌리를 스쳐 간다.

—은빛 Wing을 받으면서—

조종사의 상징인 은빛 Wing을 받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지난 비행훈련기간이 모든 희노애락을 가져다준다.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변혁을 준 기간이라고 본다. 바야흐로 병아리가 알로부터 부화해서 겨우 걸어다닐 수 있는 처지에 놓인 나의 입장을 생각할 때 전투조종사로써의 충분한 소양을 갖추어 있는가?를 자문자답해본다. 양계하는 사람이 수탉마리의 닭을 기르는데는 암탉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은 수탉도 필요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그 양계장을 대표하고 명예를 걸고 싸우는 암탉도 꼭 필요한 것과 같이 공군을 운영하는데는 수다(數多)한 인적병력 중에서도 소수의 Combat pilot가 전공군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것이다. Combat Pilot의 기질을 논해볼 때 단적으로 싸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Day tiger, Night gentle」이라는 말과 같이 할 때와 놀 때의 구분이 필요하나 동중정 정중동(動中靜 靜中動)의 묵묵한 자기스스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참다운 전투조종사의 기질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앞으로의 전도를 생각함과 아울러 무난히 난관을 돌파한 과거를 회고하면서 앞날의 처세술과 나의 진로에 대해서 확고한「모토」를 내세우고 굳세게 살아갈 결심이다. 나폴레옹의 말과 같이 불가능이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 무엇이든 하면 안 될 일이 없음을 인식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참례하곤 한다. 교회는 나의 안식처로써 고된 비행훈련을 끝마치고 위안받는 곳이다. 비행 훈련을 통하여 얻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나에게 참됨을 Plus한지 이루 말할 수 없다. 대다수 인간의 행복의 근원은 어떤 주의를 신봉하는데 있다고「버트란드 러셀」이 말한 바와 같이 믿음 없는 곳은 태양 없는 암흑의 세계와도 같고,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실존사상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와 까무가 어떻게 싸르뜨르가 어떻다고 하여 현대는 불안과 공포 절망 고독 위기의 세계라고 하나 주 하나님이나 나와 함께 게실 때 항상 편안함을 느낄 뿐이다. 마치 잔잔하게 흘러가는 물결이 장애물에 부딪칠 때 거품이 일어나지만은 그 중심의 물줄기가 방해 당하지 않을 때 표면에 물결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일에 진실되고 의무감에서 우러나오는 자기희생의 관념을 가지고 애쓸 때 여기서 행복을 느끼게 되며 참된 삶의 희열을 느낀다. 참으로 인간은 믿음이 없이는 인생의 가치를 망각하기 쉽고 사랑을 가지지 않는 한 자기분열 뿐이다. 그러므로 매일 비행 이륙 전 기도으로써 마음의 안일과 안도감을 갖는다. -끝-

<수필>



명상의 백리길

대위 최광일(崔光日)
제30경보전대(警報戰隊)

K55에서 수원시까지의 육십리길이며 우리 통근버스가 줄곧 시원스럽게 달려도 오십분이나 걸린다. 이 버스의 단골손님들은 손에 도시락 혹은 한권의 책이라도 들고 애연가의 경우 는 아래 윗니로 담배끝을 놓칠세라 꼭 물고 회색연기를 두눈꺼풀로 부채질하며 차에 오른다. 좌석은 계급순위로 앞으로부터 조용히 매워지고 차가 K31까지 앞을 지나 제 속력을 다내어 달리기 시작하면 손님들은 갑자기 승차벽(壁)?을 나타내는데 매일같이 신문을 보거나 두툼한 책을 보는 이, 그리고 외교형(外交型)? 이랄까 하루밤새의 톱뉴스를 앞뒷자리로 옮겨 앉아가며 경과보고를 하는 부지런한 사람도 있다. 혹은 눈을 시중 감고 있는 분과 창밖을 계속 내다보는 등 참으로 천태만상의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키운다. 나는 삼개월전에 K55기지로 배속되었을 때 왕복 백리에 백분코스를 어떻게 유용하게 보낼 수 없을까 생각했다. 처음에는 신문을 들고 다녔으나 곧 눈이 피로하여져서 고만두고 다음에는 소형트랜지스터를 휴대하고 레시바를 귀에 꽂고 다녔으나 그것도 역시 감도가 고르지 않아 신경쇠약에라도 걸릴 것 같아 집어치우고 말았다. 그 후 활자가 굵은 책을 선택하여 읽기도 했더니 과연 왕복에 이십페이지를 거뜬히 읽을 수 있게 됐다. 한 4.5킬로 가량 달려오면 오른쪽으로 세자능(사도세자)과 세마대(洗馬臺)가 있다. 사도세자에 관해서는 모르는 이가 없겠지만 세마대의 유래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다. 임진왜란때 외적이 포위된 우리 군대가 식량과 식수가 떨어져 곤경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장수의 명령에 따라 군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서로 얼굴만을 쳐다보면서 산봉우리에 명석을 깔고 그 위에서 몇섬 남지 않은

백미로 하루 종일 말잔등을 콕콕 씻어내렸다고 한다. 멀리 수원성(달팔산)에서 바라보던 의적들은 식수조차 얻을 수 없는 저산봉에서 하루 종일 말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수가 생겼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포위가 무모함으로 단정 군사를 되돌렸다는 전설이 있다. 지금부터 약 칠십년 전에 그곳에 기념각이 세워졌으며 우리 10전비에서도 차량의 지원을 한 새로운 명소이다. 차가 물결치는 황금의 벼이삭을 헤치며 병점을 지나면 경부선 철도가 가로질러 지난다. 버스는 일단정지! 이마람에 원심력으로 상체가 뒤로 재쳐져 있다가 일제히 앞으로 꺼떡 절을 한다. 이곳은 약 구년 전에 백여명의 사상자를 낸 끔찍한 사고 장소로서 육군의 추력이 열차와 속력을 겨누며 달리다가 갑자기 서로 맞닿는 건널목에서 열차의 한 가운데를 들어 받았다. 그 아비규환의 수라장! 오십여개의 관(棺)이 임시 시체안치소인 천막에 쌓여있던 그때의 광경이 이곳을 거닐 때마다 눈에 선하다.

백리길 별판은 시시(時時)로 우리의 감정을 바꾸어 준다. 아침 이슬조차도 아쉽다는 듯이 청개구리가 갈라진 논바닥에서 활짝대며 가뭄에 시달리던 긴 여름이 어제 같건만 지금은 그 곳에 벼이삭이 물결친다. 밤새도록 빗방울이 듣는 것 같더니만 자라등 같이 터진 논바닥은 여전하다. 매일과 같이 물푸기에 나선 농부들은 별판을 매웠지만 하루의 태양빛이 모두 말려버리고 만다. 그러던 어느날 적난운이 몽개 몽개 피어올라 이 백리길 하늘을 뒤덮었고 곧 즐기차게 사와가 별판과 그리고 달리는 차창을 후려갈겼다. 비가 들어쳐도 창문을 닫지 않고 얼마간 그대로 옷을 적시고 또 얼굴에서 흐르는 물방울을 훔어 내렸다. 마르다 못해 타서 비틀어져가던 벼대와 길가의 풀 그리고 나무잎들 아니 그보다도 가뭄에 시달리고 별에 그을린 농부들의 얼굴이 더욱 푸르고 생기가 풍기는 것 같았다. 사극조(史劇調)로 표현하여 억조만생이 말끔히 목욕하고 대자연의 위력 앞에 묵묵히 무슨 계시라도 받는 양 온순히 세례를 받았다. 신문을 보든 이 혹은 두툼한 책을 보는 사람 모두 움직이든 동작을 멈추고 뚫어지게 창 너머의 장관을 지켜본다. 무한한 대지에 쏟아지는 빗속을 우리는 달렸다.

오늘도 이 적은 인간은 아니 더 작은 계급장을 몇개 붙인 군인으로서의 한 인간은 제각기 작은 사무실에서 혹은 큰 건물에서 또는 끝없는 하늘에서 하루의 일과를 마쳤다.

퇴근버스는 우리를 싣고 질서정연한 기지를 빠져 정문을 나섰다. 버스 한대씩 겨우 통할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을 허락할 뿐 길은 사람들로 늘 꽉 차있다. 정신 차릴 수 없이 혼잡한 이 거리는 붉고 푸른 원색을 즐겨 걸친 젊은 남녀들의 체취와 손바닥만한 거리에 세 개의 극장에서 다투어 내어 붙친 각종 푸르가 울긋불긋하게 더욱 시선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 사이에 피부색이 검은 느릿느릿한 G들이 흰 이를 내놓고 손가락 장단을 치며 돌씩 셋씩 지난다. 고양이 세수하듯 콧잔등만 단장한 길가의 양장점에는 마네키이 특히 눈에 띈다. 이 곳을 쭉고개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숲을 구어팔기로 알려져서 숲고개가 차차 쭉고개로 통하였다는데 지금은 나무는 커녕 쭉대하나도 볼 수 없다. 버스가 수원행 본도에 나섰다. 날씨가 흐린 날은 별로 밖을 내다보지 않는다. 오늘같이 맑고 씻는 듯한 산들의 능선은 하루에 두번씩 보는 것이지만 역시 또 바라본다. 저녁햇빛에 더욱 빛나는 황금의 이삭들은 먹지 않아도 우리의 배를 불러 줄 것만 같다. 겸손하게 고개 속인 조, 수수 이삭들은 바람에 따라 살랑 몸을 흔들고 노방초(路傍草)는 꽃이 아니냐는듯이 코스모스도 한목 자색 분홍색 흰색으로 점점이 수를 놓는다. 오산읍에 들어서면 쭉고개와는 대조적인 정경을 보게 된다. 국도변에 자리를 잡았지만 별로 발달을 못한 곳으로 오산 읍사무소와 서탄면사무소가 곧 눈에 띈다. 「공군작전사령부 자매부락」이라고 쓴 간판 앞에서 고독을 즐기는? 몇 분 손님이 내린다. 흰 두루마기 파나마모를 쓴 이곳 유지들이 두 팔을 저으며 활보하면 몇군데 술집 기생(접대부)들이 소매에 매여달리다가 푸른색 우리버스가 가까이 뒹뚱한 듯 외면을 해버린다. 수원기지가 넓직히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 오면 가끔 Z기의 폭음으로 망상이 깨어진다. 단정한 모습으로 우리 비행기들은 내려앉는다. 이 명상의 백리길도 그 종착역이다. 서울시내를 빠져다니는 공분 버스 단골 손님들은 가히 생각도 못할 정도의 신선한 드라이브 코스를 매일 즐기는 것이 꼭 다행으로 생각된다. 이 황금빛의 백리길도 며칠이 지나면 텅 비어질 것이 아닌가? 그러나 걱정할건 없다. 그때쯤엔 또 선녀의 옷자락 같은 흰 눈이 나릴 것이고 그러면 이 명상의 백리길을 따라 또 하나의 신선한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 아니라.

<수필>

중고품



하사 이병세(李丙世)
(107 기지단)

상가에 득실거리는 상인들의 상용어에 중고품이라면 값은 반절은 물론 삼분지일 이하로 깎아 버리기 보통이요 더욱이 놀랄만한 사실은 거의 신문에 가까운 것을 방금 샀다가도 돌아서서 팔려면 반액을 죽히 제값을 못 받게 마련이란 것이다. 또 사는 사람도 역시 중고품이란 사실을 알면 덮어놓고 값을 깎아 사자고 덩비기 일수요 또 의당 절반 값에 사는 것으로 상식화 되고 있다. 이렇게 중고품이란 존재가치가 완전히 시세 폭락이다. 몇% 중고품이냐고 묻는다. 7, 80%라면 폐물에 가깝고 1, 20%라면 그래도 쓸모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지수(指數)에 따라 숫자가 낮으면

상념

일병 김동원

꿈을 만지면
감미로운 임의 감각이 온다

호반에 한떨기 수선
평생을 곱게 살기
파문 이어
고요 해라

타오르는 정열을 접으면서
조용히 감추어
수줍은 사연

이슬이 양광에 빛나면
운하(雲霞)는 세월을 감고
어여쁜 하늘을 피운다

진 중고품들이 내 주위에 산재해 있다. 일생에 단 한 벌 맞춰 입은 양복을 비롯해서 구두 가방 시계 등등 이 모두가 고물에 가까운 중고품이다. 얼마 전 S군으로 부터 중고품 라디오 한대를 가져온 일이 있다. 이것도 주지 않으려는 것을 싸움 싸움해서 불과 몇 백원에 낙찰이 되어 내 소유가 된 것인데 불과한 달도 못되어 고장이다. 얼마 후 안 일이지만 무슨 부속인가 조그마한 것이 과열로 타버리고 또 진공관이 연쇄반응으로 모조리 못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기공학도에게 자료도 될 수 없는 완전 폐품이 되어 버렸다. 이와 같이 중고품은 사고도 많은 법이다.

그렇다면 물건 중고품은 고사하고라도 신실 중고품은 이에 못지않게 큰 타격이다. 군의관의 진단에 의하면 고급병이란다. 남모르는 신체적 결함으로 고심하는 신체적 중고품 말이다. 약이 입에서 떨어질 날이 없고 과로나 지나친 신경소모로 자기 모르는 사이에 건강체를 상실해 놓고 그 속에서 거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중고품이 되어선 큰일이다. 비단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물질적, 신체적 중고품이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다. 그러나 정신만은 중고품이 되어 녹슬고 부패되지 않기 위해 수시로 부심하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건전한 정신을 소유한다는 깊은 신념이 영 남의 일같이 되어버린 불치의 악성질환의 슬픈 경고가 타인으로 부터 받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우리가 입고 있는 군복이 낡아빠지고 기름투성이라도 좋다. 군화의 뒷축이 다 닳아도 좋고 모자가 퇴색되어 원형의 날씬한 모습이 없어도 좋으니...

고금소담(古今笑談)

눈물이라 하겠읍니까

평안감사(平安監司)가 이방의 의견을 떠보느라고 어느 날 대동강으로 끌고 나가서 물에 떠있는 오리를 보고 「저 오리는 십리를 가든지 백리를 가든지 언제나 오리라고만 하니 무슨 이치인가?」하고 물으니 「할미새는 어제 나도 할미새 오늘 나도 할미새라 하니 그 이치는 무엇입니까?」하고 이방은 반문한다. 감사는 이거 맹랑한 놈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럼 새 장구는 다 헤어져도 새장구라 하니 그건 무슨 이치겠는가?」 「그러면 사또께서는 북(古)은 동에 있으나 서에 있으나 항상 북이라고만 하는 이치를 아시겠습니까?」 「창(槍)으로 창(窓)을 찌르면 그 구멍을 창(槍)구멍이라 하겠는가? 창(窓)구멍이라 하겠는가?」 이방은 지지 않고 또 감사를 쳐다보면서 「그러면 눈 오는 날에 눈(雪)이 눈(眼)속에 들어가 눈(眼)물을 흘리니 그것을 눈(雪)물이라 하겠읍니까? 눈(眼)물이라 하겠읍니까?」



수필

근사록(近思錄)3제

조연현(趙演鉉)
★문예평론가

1. 바둑과 인격

근자에 와서 기원이 많이 생겼다. 바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증거일 것이다. 공자께서도 바둑을 두는 것을 무위도식하는 것보다는 좋게 말한 것을 보면 바둑이 잡기에 속하는 오락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다. 바둑을 신선의 노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건강을 해치고 시간을 낭비케 하는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유해한 잡기의 하나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상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정도의 바둑놀이는 좋은 사교적 오락이 된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옛날 말에 바둑의 재능을 치재(痴才)라고 한 것이 있었다. 이것은 바둑의 재능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은 인생적 사회적 역량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에서였을 것이다. 사실 인생에 대한 지능은 거의 백지에 가까우면서도 바둑만은 잘 두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바둑의 재능이 아무리 치재일런지는 모르나 바둑을 두어보면 그 사람의 인간적 성격적 특성이 곧잘 발견되기도 한다. 항상 공격적 전법을 사용한다든지 언제나 수세적(守勢的)인 자세를 고수한다든지 또는 상대방의 실수를 기대하는 행(幸)을 바란다든지 패를 잘 이용해서 득을 본다든지 하는 방법이나 전법이 모두 그 사람의 평소의 인간적 성격적 특성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그 목적이 성공에 있는 것과 같이 바둑의 목적도 승리에 있는 것이라면 성공이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해 보는 것은 반드시 그릇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생활의 목적은 성공에 있다기보다는 행복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둑의 목적도 승리보다는 교전중의 즐거움에 있는 것은 아닐까. 성공이나 승리는 행복이나 즐거움을 얻기 위한 방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은 아닐까. 항상 수세적이면서도 잘 두는 바둑이 있다. 상대방의 실수를 조금도 기대하지 않는 바둑이 있다. 이를테면 점잖고 깨끗한 바둑의 전법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 사람과 바둑을 두면 이편이 아무리 패전해도 불쾌하지가 않다. 세상사는 방법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

2. 신문윤리학

얼마 전의 신문에 칠십 된 노인이 전차 속에서 소매치기를 하려다가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그 며칠 전인가, 후인가는 확실하지 않지만 육십 된 노파가 남의 치마인가 저고리인가를 훔쳤다는 기사가 보도된 일이 있었다.

연이은 이 두개의 기사를 읽고 나는 뭔가 불쾌했다. 불쾌한 이유는 간단했다. 이것을 무엇 때문에 보도했을까 하는 신문에 대한 불만에서였다. 며칠 뒤에 칠십 노인의 소매치기 사건은 소매치기가 아니라 중풍으로 남의 호주머니 근처에 이 노인의 손이 닿았을 뿐이라는 정정 기사가 났었다. 나는 더욱 불쾌했다. 이 정정기사를 읽지 못한 사람은 (신문기사란 반드시 읽혀지는 것은 아니다) 그 전날의 기사만이 머리에 남아 있을 것이다. 신문이 전기한 두 사건을 기사로 보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두 사건은 신문에 보도되어야 할 만치 중대한 사건이었을까. 이 두 사건은 일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질만한 신기한 사건이었을까. 이 두 기사는 그것이 보도됨으로써 특별한 사회적 교육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을까. 내가 보기에는 이 두 사건은 이상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지극히 적은 사건이다. 이보다 훨씬 더 중대하고 신기하고 의의 있는 사건은 허다했을 것이다. 하필이면 상습적인 절도도 아니요, 특별히 규탄 받을 범죄도 아닌 연로한 황혼기에 처해 있는 불행한 노인의 사건을 그렇게 냉혹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허위기사가 아니면, 신문윤리요강에는 저촉되지 않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보도라 해서 그것이 신문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신문의 윤리가 문제되는 것은 허위 사실 따위보다는 좀 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닐까. 허위사실은 윤리적 문제이기보다는 법적문제로 돌릴 수도 있다. 신문의 윤리가 요구되는 것은 사실보다는 사실의 의미이며 사실의 의미보다는 그 영향이 아닐까. 자신이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신문은 공적인 의미를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

3. 교통사회학

아침저녁의 출퇴근시간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방식은 여러 가지다. 첫째는 보행과, 거리의 원근(遠近)을 불구하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 둘째는 전차과, 여기에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셋째는 합승과, 넷째는 자가용과. 이밖에 또 하나의 유형이 있다. 적당한 명칭이 생각나지 않음으로 우선 유동과(流動)라고나 해둘까. 때로는 걸기도 하고 때로는 전차나 버스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합승과에 가깝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 유동과다. 보행과나 전차과는 대개 한결같다. 그들이 합승과나 자가용과로 발전하는

일은 드물다. 자가용과는 곧잘 합승과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보다 더 변화가 많은 것은 합승과다. 그들은 보행과나 전차과로 전환되기도 하고 자가용과로 비약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변화가 많은 것은 유동과다. 이들이 자가용과로 비약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합승을 이용하는 정도로는 택시도 곧잘 이용한다. 그렇다고 그들이 늘 합승이나 택시를 이용하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어떤 때는 전차나 버스의 신세를 지며 때로는 5원이 없어 보행과가 되기도 한다.

보행과나 전차과는 합승과나 자가용과 보다는 물론 경제적 수준이나 능력이 낮은 계층이지만 그들의 고정된 교통수단은 그들의 생활의 안정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들보다 경제적 능력이나 수준이 높은 합승과나 자가용과의 변화는 오히려 그들의 생활의 불안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같다. 특히 변화무쌍한 유동과에 속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의 고정된 직장이나 사업이 없는 그때그때의 하루살이는 아닐까. 그들은 어느 계층보다도 가장 불안한 생활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생활이 가장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변화무쌍한 교통수단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그들의 교통수단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도 안정되어 있지 않는 것일까. 교통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있다면 썩 재미있는 학문이 될 것 같다.

보도(步道)



지명관(池明觀)
<서울대문리대강사>

아침저녁, 이제는 땀구나하고 합승에 기대어 다행한 눈초리로 거리를 내다본다. 보도에는 사람들이 물결치고 차도에는 차가 또한 홍수사태다. 나는 틀림없이 도시에 사느냐 하는 느낌으로 그래도 인간 그리운 마음으로 거리를 바라다본다.

하바드대학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6·25 전 그러니까 십여년 전에 썬파야나(Santayana)교수에 관한 잊지 못할 에피소드를 하나 읽었다. 하바드대학 졸업반을 위한 마지막 강의시간이었다. 학생들은 다시 듣지 못할 끝을 장식하는 썬파야나 교수의 명강의를 경청하고 있었다. 그 때 문득 교수는 창 넘어 화창한 봄을 바라보고 아 참 내가 5월의 여왕과 오늘 오후 만날 약속을 잊었었군 하고는 당황한 듯이 종종 걸음으로 교실을 나가버렸다고 한다. 그 강의는 미완성으로 남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지없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하바드에 오늘도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 후 자연과 역사가 그리워 유럽으로 돌아가 생애를 마감했다.

보도를 메우고 지나가는 인과들을 보면서 다시금 삭막한 도시라는 느낌을 되씹는다.

연재수필

「원」선생견문기 (1)

계문수(桂文樹)

◇자기소개

나는 이제 겨우 백날을 지난 어린 아이다. 그러나 나를 사람들의 어린아이처럼 철부지 하다고 생각해서는 잘못이다. 사람들의 이성은 후천적으로 성장한다지만 우리는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소견이 다 갖추어져 있다.

나는 손도 없고 발도 없다. 그러면서도 나의 걸음은 굉장히 빠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서울 부산 간을 왕복할 때도 있다.

손은 없지만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을 마음대로 움직일 힘을 가지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람의 마음도 마구 움직이게 한다.

나는 입이 없다. 그러면서도 나는 말 이상의 말을 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내 말을 들어야하고 듣지 않는 자도 간혹은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20세기의 영웅』이라 하기도 한다. 우리의 가장 특징은 성별이 없다는 것이다. 남녀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은 인간들의 생활처럼 복잡하지는 않다. 사람들은 이 성별 때문에 여러 가지 추태를 연출하지만 우리 사회엔 그런 것이 없다. 물론 적선지대(赤線地帶)니 하는 그러한 괴상한 지역을 설정할 필요는 아예 없다.

우리는 성별이 없으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무서운 번식률을 가지고 있다. 그 번식률은 도저히 사람의 그것 류(類)가 아니다.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철저한 가족계획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이 가족계획은 사람들의 그것보다 몇 갑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고도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실패하면 우리는 멸족할 비운을 벗어나기 어렵다. 우리의 선대가 멸족한 것도 그 원인의 가장 중요한 하나가 가족계획의 실패였다. 우리는 생기할달 모든 구약을 일소하고 새나라 해 세대 국가제건을 위하여 이번엔 새로 세상에 태어났다. 때문에 우리의 의기는 충천(冲天)하며 우리의 힘은 우리의 선대 할아버지에 비해 10배로 늘어났다. 우리의 힘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며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알려져 있는 그 어느 것과 맞설 힘을 배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우리의 힘은 우리의 번식률과 반비(反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힘이 줄어든다는 하나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3개 항목의 행동강령을 가지고 있다. 이 강령은 우리의 철칙이며 생명이다.

모두 오월의 여왕과 만날 꿈 많은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걸어가고만 있다. 주위에 아름다운 전원이 없다는 것은 마음속에서도 소박한 그 자연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인은 분명히 자연을 상실하였다. 모두 돌아갈 고향을 잃어버린 듯 각박하기만 하다. 처음 도시로 찾아들어올 때는 고향으로 돌아갈 앞날의 꿈이 영롱하였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굶주린 창자를 쥐어잡고도 모두 이 도시를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 누구나 아늑한 가정을 버리고 나온 몸을 버린 소녀처럼 절망한 눈초리로 이 거리에서 오늘의 삶만을 추구한다.

봄이면 소녀들은 진달래 핀 산으로 나물 캐러 가 도란도란 피어오르는 이야기에 날이 저무는 것도 잊어버린다. 소년들은 벼들피리 입에 물고 도랑에서 고기를 쫓는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어린이들도 시간을 잊어버리고 산마루에서 짓구진 놀이에 정신을 잃는다. 모래사장 포푸라 나무 위에 걸린 여름해는 길기만하여 시냇물 가에서 즐기는 하루는 너무나 지루하다. 가을이면 밤나무 밑을 더듬었고 눈 나리는 신작로 길은 이름 모를 나라로 가는 듯 아득하였다. 온돌 아랫목에서 화롯가에 둘러앉아 군고구마를 먹으며 할머니 옛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면 끝날 줄 모르는 밤이 이제 한창이다. 이러한 낭만도 이제는 우리에게서 지나갔다. 오늘날의 전원은 내일의 도시를 의미할런지 모른다. 그 궁핍한 속에 도시가 심한 공격을 가하고 있다. 도시는 전원을 추방한 곳이라면 전원은 도시를 영접하려는 땅이라고 할런지도 모른다.

현대문명은 도시문명이다. 현대문명이 병들었다는 것은 그것이 각박한 도시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도시문명의 거센 물결 속에 자연과 전원이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세기의 자연과 전원을 노래하던 시절도 이제는 메말라가고 있다. 자연에 대한 즐거운 노래를 잃어버리자 인간에 대한 환희의 노래도 사라지게 되었다. 오늘의 노래는 도시 인간들이 몸부림치는 노래다. 병들어 흐느껴 우는 노래다. 전원의 고요와 아늑함이 없고 도시의 소란과 잡담만이 있다. 지금 저기 저렇게 사람들의 물결을 헤치고 앞을 닦으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현대문명의 바탕이다. 서로 미소 지을 줄 모르고 서로 다정하게 이야기할 줄 모르는 군중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삶이란 고독한 것이라고 말한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그들은 불안하다고 말한다. 나를 반겨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인간도 사물도 없다는 말이다. 삶에는 아무런 의의도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이익을 찾아 헤매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현대문명은 방향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다.

슈바이처(Schweitzer)는 가지가지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지니고 있다. 아홉살 때 문스터의 실업중학교에 입학하자 그는 아침저녁 산을 따라 3기로 가랑의 길을 왕복하여야만 되었다. 그는 혼자 생각에 잠기면서 그 길을 걸어 다닐 때 흐뭇한 기쁨에 사로잡히곤 하였다. 가을, 겨울, 봄, 여름 모두 참으로 말할 수 없이

- I. 불변부동(不變不動)
- II. 불편부당(不偏不黨)
- III. 무차무별(無差無別)

나는 아예 사란들의 교활성을 이러니저러니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의 행동강령을 소개하자니 자연 사람들의 흠담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때 한국 사회에는 면중복배(面從腹背)라는 말이 있었다. 권세 앞에서는 표변하고 급력 앞에서는 움직여 지조와 의리를 돌보지 않는 그러한 인간들은 혁명을 치룬 오늘날에도 많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전연 모른다.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행동은 한결같이 동일함을 잃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지키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함에 충실할 뿐이며 어느 당이나 어느 개인을 위하여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인간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사람은 최후에 가서는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또한 사람에 차별이나 구별을 두지 않는다. 우리가 지키는 본분과 우리가 수행하는 사명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그 누구에게도 추호의 다름이 없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상대방의 인격, 지식, 지위, 직업 등 신분 여하에 따라서 스스로의 태도를 곧잘 변동하지만 우리는 것처럼 압압하여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 내리는 무인격자는 아니다.

우리가 간혹 때와 장소에 따라 변동하는 것 같고 편파적인 것 같고 차별을 두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한 태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결코 우리의 본질이 변동하는 것이 아님을 사람들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얼핏하면 돈이 원수다, 돈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그놈의 돈 때문에...』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언사를 함부로 지껄이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 잘잘못은 모르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사람이 가지는 가장 나쁜 버릇이다. 국가제전에 매진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이 같은 책임 전가하는 버릇은 한시 바빠 청산해야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그리스트는 일찍이 이런 말을 했다.『나를 따르는 자는 흥할 것이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망할 것이다』라고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를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나를 아끼는 자는 잘 살 것이요, 나를 푸대접하는 자는 못 살 것이다』라고—이것은 크리스트의 말보다 훨씬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다짐해둔다.

나는 신분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온 세상천지를 확보한다. 나에게는 금지구역이라는 것이 없다. 특급금지구역도 나에게서는 자유의 지역이다. 그러나 나는 비밀을 지킨다. 어떠한 권력자도 나에게서 이 비밀을 말하게끔 하는 힘은 없다.

사람은 곧잘『이것은 비밀이다』하는 말까지 해가며 비밀을 말한다. 그래서 방대한 비용과 방대한 인원이 방첩에 동원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예 그러한 방첩 운동이니 방첩기관 따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쯤하면 내가 호적등본이니 기류초본이니 신분증이니 그밖에 그 번잡스러운 수속 절차를 밟지 않아도

아름다운 것이었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다. 그는 시도 쓰려고 하였고 그림도 그려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만 아름다움을 눈으로만 즐기고 때때로 즉흥적인 음악으로 감정을 나타내곤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1885년 상·알사틀하우젠에 있는 중학교로 전학하기로 결정되었을 때는 그곳을 떠나야 하는 자기 운명을 생각하고 몇 시간이고 남모르게 울었다. 그는 후에『그것은 마치 누가 나를 자연의 품에서 빼앗아 가는 것처럼 생각되었다』라고 기록하였다.

슈바이처의 사상에서는 괴테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 물결치고 있다. 그것이 그의 풍부한 인간을 형성하고 있다. 거기에서 그의 인간에 대한 사랑도 시발점을 가진다. 생명 있는 것을 무엇이냐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보존하고 무한한 발전으로 이끌자는 그의 윤리가 여기에서 비롯한다. 이리하여 그는 아프리카의 자연, 그 원시림으로 갔다. 그 자연으로 갔다는 것은 그곳 인간으로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흑인들의 고뇌에 대한 공감은 그 신비스러운 원시림에 대한 신비적인 공감과 떼어 놓을 수 없다. 자연 속에서 시작하고 자라난 그의 인간과 사상 그리고 예술은 오늘날도 무한한 자연 속에서 장엄한 것으로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그의 삶과 사상은 오늘날의 퇴폐한 도시문명에 도전하고 있다. 그것은 분명히 현대인의 잃어버린 본향에 자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대를 넘는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마당에서 그는 도시에서 언제 위대한 이념, 위대한 사상이 산출된 적이 있느냐고 절규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뜨거운 날씨에 부풀어 오르는 아스팔트 위를 피할 수 없는 속명처럼 걸어가고 있다. 저 고층건물 그리고 저 사람과 자동차의 물결을 떠날 수 없다. 그것만이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떠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현대문명은 더욱 기계에로 다름박친다. 조직만이 능률의 길이라고 전원의 산만을 배척한다. 경제조직 정치조직, 이 모든 것을 떠난다는 것은 사멸을 의미하게끔 되었다. 이것은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인류를 자연 속에서 인간문명 속으로 인도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인류가 지닌 불가피한 운명이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불행한 길이다.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그 길로 가서는 안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문제는 이러한 현대화의 과정에서 잃어버린 자연 그것에 대한 사랑 그 위에 자리하였던 아름다운 인간정신과 휴머니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있다. 거기에 피어났던 이상의 꽃 소망에 가득 찼던 꿈 그리고 고전주의시대가 수놓았던 모든 아름다운 영상들이 그대로 사라지게 내버려 두어도 될까하는 것이다.

자연은 인간의 바탕이다. 오늘의 처절한 상태가 바로 그것 없이는 인간이 존립할 마당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벨은 죽었지만 인간의 끝없는 동경으로 되살아나곤 하여야 한다. 역사는 카인의 길을 걸어왔지만 카인은 언제나 저주할 것으로 있었다. 아벨은 죽고 없었지만 어느때고 인간과 더불어 있었고 카인의 역

독자는 내가 무엇이며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 것이므로 자기소개는 이쯤해서 끝맺기로 한다. 다음 몇 가지 전문기를 소개하기로 한다.



제1화 할아버지의 유언

원래 타고난 사주가 세상을 돌고 도는 팔자인 지라 이제 겨우 백날을 지낸 어린 몸이지만 그 간 내가 겪은 세상풍파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버트란트·러셀이 아흔네살이지만 인생의 구석구석을 나만치 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햇빛을 처음 보던 날 즉, 지난 6월 12일 은행 창구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선대(先代)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다. 할아버지는 늙어서 전신의 피부가 주름살로 딱 차 있었고 세파에 시달리워서 기력이 말이 못되었다.

『할아버지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응 네가 이번에 우리의 대를 이어줄 자손이구나. 그래 우리는 쓸모가 없어졌으니 너희들에게 대를 물리게 됐다. 부디 양심과 의리와 본분을 지켜 맡은바 사명을 수행해 주기 바란다』하며 이별의 눈물을 지었다.

『할아버지, 세상에 나가는 저희들에게 꼭히 하고 싶은 유언이라도 있으시면 저희들을 위해서 한마디 말씀해주세요』

『글쎄, 하고픈 말이 어디 한 두 가지야. 허지만 네가 모처럼 가룩한 말을 하니 한 가지만 유언을 하겠다. 네가 이 은행 창구를 나서면 즉각 알게 될거지만 너는 이 세상에 나가면 무서운 힘을 가지고 인간들을 지배할 것이다. 이러한 너의 권력은 거의 절대적이니 절대로 그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싶다. 지금 세상은 새 나라를 건설하느라고 모두들 긴장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쫓겨들어 오는

사를 심판하고 있었다. 오늘날 자연을 떠난 인간의 역사는 제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 저 자연의 구석구석 까지도 도시 문명의 검은 연기가 뒤덮게 될런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 속에 서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움 그것 위에 선 인간의 고귀한 정신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검은 연기 속에서나마 인간성을 지키고 이상과 인도(人道)를 지탱하는 아벨이어야 한다. 그 조직, 그 경제 그 정치 속에서도 자연을 즐기고 인정을 보살피는 아름다운 마음씨의 교류가 맑은 한줄기 물로 흘러야 한다.

다시금 도시의 거리를 내다본다. 나와는 관계없는 저들이지만 그래도 이 순간이 공간에서 동일한 인간의 운명 속에서 각자 스스로의 운명을 지닌 채 허덕이고 있다는 공감 그러한 사실에서 오는 운명적인 유대에 감격할 것 같다. 너무나 좁은 도시다. 차도는 넓히면서도 저 인도, 저 보도를 넓힐 줄은 모르는 것인가. 가로수 우거진 차도보다도 넓은 보도에서 자연 속의 명상과 꿈을 즐길 수 있는 구상은 불가능할 것인가. 나무 그늘에 걸손을 부르는 관상쟁이가 있어도 좋겠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의자, 샌드윗치를 들 수 있는 식탁이 있어도 좋겠다. 아 저 좁은 보도에서 쫓겨 다니는 행상들 차도에서만 교통사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도 교통사고가 있다. 이 도시에 좀 더 자연이 물결쳐야 하겠다. 도시의 병들은 정신을 고치기 위하여서도.

구경꾼이온

	송상용(宋相庸)
★ 한국휴미니스트협회간사	

화학에 구경꾼이온이란 말이 있다. 염산(HCl)과 가성소다(NaOH)를 중화(中和)시키면 소금물이 되는데 이 때 수소이온(H⁺)과 수산화이온(OH⁻)은 반응하여 물이 되나 나트륨이온(Na⁺)과 염소이온(Cl⁻)은 반응에 관여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붙여진 재미있는 이름이다.

적절한 비유(比喩)가 될런지 모르나 인간사에서도 구경꾼이온은 도처에 널려 있는 것 같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선듯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가려 하지 않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부류(部類)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얼핏 보아서 이들 구경꾼은 무혜무익(無害無益)한 존재 같지만 사실은 해로운 존재인 경우가 더 많다. 하기가 아무 일이나 전후좌우 가리지 않고 튀어드는 것도 곤란한 일이지는 하다. 오히려 국으로 구경이나 하고 있는 것이 부조가 될 때도 있다. 다시 말하면 경우에 따라서 구경꾼이온이 될 필요가 있을 일도 있고 때서는 안될 일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버려두어서는 안 될 일도 명하니 바라보고만 있는 구경꾼이온이 수두룩하니 딱하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옳은 이야기다. 하다못해 조그만 그룹활동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것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행동 3강령을 망각하고 권력을 남용한 자가 있어서 그들이 이 나라를 망쳐 놓았기 때문에 신앙을 잃은 탓이다. 우리들은 매일같이 입으로 떠들었다. 행동강령을 지키라고. 그러나 어려운 것은 실천이었다. 권력이란 묘한 것이어서 조그마한 권력만 가져도 그것을 남용하기 쉽고 남용하는 자는「이까짓 쯤」이야 생각하지만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당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크다. 하물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막대한 것이니 내가 만일 그 권력을 남용하는 날에는 모든 질서는 깨뜨려지고 따라서 너의 신앙도 추락되어 마침내는 지금의 우리처럼 이렇게 쫓겨 들어오게 되고 만다. 이점 깊이깊이 명심하여 너희들은 우리들의 전철을 밟지 말기를 거듭거듭 다짐한다』

이렇게 말하는 할아버지의 구개어진 얼굴에는 후회의 빛이 완연하였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꼭 명심하여 그러한 불미한 행동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응 고맙다. 물론 나는 너희들을 믿고 있는 터이지만 권력이란 누구나 교만하게 만들고 이 교만이 양진(昇進)하면 결국 폐가망신(廢家亡身)하며 공직에 있는 자는 막대한 민폐를 끼치고 국정을 보는 자는 나라를 망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절대로 까불지 말라는 것이다.「까부는 자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속담도 있거니와 내가 인간세상을 돌아다니며 견문한 바에 의하면 인문이란 조그마한 지위만 가져도 금방 까불고 그 직권을 남용하는 버릇이 많더군. 이제 네 말을 들으니 깊이 명심하겠노라니 더욱 안심하고 우리는 널속에 들어갈 수 있겠다.』하시며 안심하는 표정이었다.『한마디로「사람」이라 하지만 사람 가운데 신(神)이 있고 악마도 있는 것 같더라.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범사람의 영달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강요하는 사람도 있더라. 애인(愛人)을 속이는 것은 큰 죄악이나 범한 것 같이 생각하면서 나라의 재물을 훔쳐 먹는 것은 자랑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자기의 재물을 털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도 있더군.』하시고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어보였다. 의미심장한 웃음이었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좀 더 계속될 것 같았다. 그런데 마침 이때 사람의 손 이 들어와 나를 창구로 끌어내가는 바람에 더 듣지 못한 것은 유감이었다.

제2화 통쾌한 대담(對談)

은행 창구에서 나를 끌어낸 사람은 나이가 삼십오·륙세 되어 보이는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다. 그는 백원짜리 15매 오십원짜리 10매 십원짜리 50매 도합 2천5백원을 뽕뽕 뭉쳐서 포켓 깊숙이 감추고는 전차를 탔다.

다 수궁(首肯)이 갈 것이다. 무슨 회를 만든다고 하면 반드시 어중이떠중이가 많이 모여든다. 성대한 창립 총회를 열고 규약을 통과시킨다. 예산안을 심의한다. 사업계획 토의한다. 야단법석을 떠ندا. 출발은 좋은데 그 다음이 가관(何觀)이다. 첫날 가장 발언도 많이 하고 큰일이나 할 듯이 나대던 사람들이 쑥 빠져버리는 것이다. 모임에는 번번이 안나오고 회비도 안내고 회원으로서의 기본사무는 도시 아랑곳없다는 태도다. 그렇다고 해서 회원을 자퇴(自退)한다든가 얻어 쓴 감투를 벗는 예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그것도 일부가 그 꼴이라면 간단하겠는데 절대다수가 그러니 문제는 심각하다. 몇몇 열성분자가 회를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써보나 일이 될 턱이 없다. 결국 몇 사람이 죽도록 고생한 보람 없이 이 거룩한 구경꾼이온들은 모임을 망쳐 놓고야 마는 것이다.

범위가 커지면 문제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지금은 형체마저 없어져버렸지만 지난날의 국회를 보자. 소위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간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채 동원(登院)은 안하고 장관실에 늘어 붙어 이권운동을 일삼지 않았던가. 더구나 이들은 어느 단체의 회원과 달라 국민이 뽑아주었고 국사(國事)를 요리하도록 위임받았을 뿐 아니라 국민의 혈세(血稅)에서 세비(歲費)를 받던 사람들이니 구경꾼이온 중에서도 가히 악질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나라의 운명을 위태로운 지경에 몰아넣었던 것은 우리가 이미 체험한 바이다.

사리를 가려낼 줄 모르는 무지몽매(無知蒙昧)한 사람들이 구경꾼 노릇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문제는 고등교육을 받고 지성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입은 있으나 병어리로 남아있는데 있다. 부정을 보고도 한마디 항변(抗辯)조차 못하고 좌시(坐視)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부정과 야합(野合)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승만 독재가 단말마(斷末魔)의 발악을 하던 자유당 말기의 몇 가지 일이 떠오른다. 정부가 야당지 K신문을 억지 폐간시켰을 때 작가 S씨는 용감하게도 이 처사에 항의하는 논설을 H지에 발표하였다. 때를 거의 같이하여 수십명의 문인들이 공동성명서를 냈는데 여기에 당연히 들었어야 할 저명문사들의 이름이 빠졌다. 그건 그렇다 치고 결핍하면 앙가주망이니 저항문학이니 쳐들면서 나불거리던 전후파(?) 족속들이 취죽은듯이 없드려 있었던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 항가리혁명이 소련 탱크에 의하여 무참하게도 좌절(挫折)되었을 때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홀로 소련의 만행(蠻行)을 규탄하기를 거부하는 카를 빠르트에게 어찌서 침묵을 지키느냐고 유박(肉迫)한 일이 있다. 빠르트에게는 침묵을 지킬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허나 이들 한국의 가련한 구경꾼이온에게는 발언해서 안 될 이유가 없었다. 다만 그들은 일신(一身)의 위험보다는 차라리 민주주의의 소멸을 방관하는 길을 선택할 줄 아는 현명(賢明)을 가졌을 뿐이다.

언론탄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2·4파동

내가 이 백원짜리 15매 속에 끼어든 것은 물론이다.

전차 안은 대혼잡이었다. 콩나물처럼 사람들이 빼곡히 서있었다. 이 작업복 입은 남자가 간신히 자리를 잡았을 때 저어쪽에 섰던 어떤 남자가 소리쳤다.

『윤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자 인사하는 사람을 발견한 윤씨는 팔을 쳐들며 대꾸했다.

『아이구 잘 만났습니다. 그렇잖아도 용무가 있어 찾아갈 생각이었는데』하고는「실례합니다.」하는 말을 연발하면서 사람을 헤치고 저쪽으로 나갔다. 절반이나 빠져나갔을 무렵이다.

『왜 사람을 밀치구 야단야. 갈려면 밖으루 돌아서 가시오』하고 화를 벌컥 내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옷도 잘 입고 얼굴에 기름이 주르르 흐르는 뚱뚱한 신사였다. 윤씨는 깜짝 놀라 그 사람을 한번 바라보더니 무슨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만 참는 듯 잠잠고 다시 빠져 나갔다. 그러나 윤씨는 그 다음 발을 멈추었다. 그 뚱뚱한 신사가 가운데 그대로 선 채 움작달작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씨가「좀 실례하겠어요」해도 뚱보신사는 모른체한다. 그러자 윤씨는『여보시오 당신 어디 사람이요?』하고 좀 큰 소리로 말했다. 그제서야 신사는 얼굴을 돌리며『뭐라구? 보구두 몰라』하고 윤씨를 쏘아보았다.

『응, 말을 알아듣는 것을 보니 한국사람 입에는 틀림없는데……우선 하나 물어보겠오 나는 재간이 없어서 달리는 전차에서는 밖으로 돌아서 저쪽으루는 갈 수가 없는데 선생님께서 그러한 재주를 한번 보여주실 수는 없겠습니까?』하고 자못 침착하고도 점잖게 말했다. 승객들의 전 시선이 이 두 사람에게로 집중되었다.

『나에게 시비를 거는건가?』

신사는 윤씨를 아래위로 훑어보았다.

『천만이올시다.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말씀대로 그렇게 하죠』

『맘대루 해』

그러자 윤씨의 태도는 일변했다.

『맘대루 하라구? 맘대루 하면 당신 같은 족속은 이 전차를 탈 자격이 없으니 달리는 전차에서 밖으로 내쫓을 뿐이요. 도대체 당신 뭘 하는 사람이요 나는 공군에 있는 사람인데 보아하니 당신은 돈두 있구 사회적인 지위두 있어 보이는 사람이 그 따위 행위가 뭐냐 말이요. 오늘부터는「원」시대입니다.「환」시대의 그러한 구악적인 사고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뺏을 하고 또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내가 알바는 아니지만—아니 당신 같은 족속을 상대로 이러니저러니 말하구 싶지 조차 않습니다. 그 엉덩이를 치우겠소 못치우겠소』윤씨의 음성은 낮으막 하면서도 박력과 자신에 차있었다.

신사는 잠잠고 영둥이를 안으로 들이켰다.

『생각을 고치시오. 전국민은 지금 썩어진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분투하고 있으니까요』

윤씨는 점잖게 한마디 던지고 그곳을 지나갔다.

때에도 이 땅의 배운 사람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아니 이들의 발언이나 행동을 기대하는 것이 더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3·15에 이르러 부정선거의 병균(病菌)이 학원에까지도 달했는데도 교단을 박차고 나온 기골 있는 교사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이 나라 교육의 앞날을 위해서 개탄(慨嘆)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대표집에서 몇 잔 술에 불평이나 할 줄 알았지 불의에 정면으로 항거할 용기는 없었던 구경꾼이온들 때문에 자유당은 것처럼 방약무인(傍若無人)한 횡포를 자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면 오히려 구경꾼이온으로서 공부에만 전심했어야 되었을 학생들이 4·19에 구국(救國)의 앞장을 섰던 것은 기이한 아이러니라 할 것이다.

4·19에서 5·16까지 1년 동안 우리는 그야말로「단군(檀君)이래의 자유」를 누렸다. 그 결과 역설적으로 구경꾼이온이 아쉬울 정도로 방종(放縱)과 무질서와 혼란이 이 땅을 휩쓸었던 것도 사실이다. 5·16혁명 이후 국민들은 필요이상으로 위축(萎縮)된 감이 없지 않은 것 같다. 농촌곳곳에서 고무적인 소식이 들려오지만 국민 전체가 좀 더 국민운동이나 경제건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당초의 기대대로 큰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지 않을까 한다. 더욱이 지식인의 동태(動態)를 볼 때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군인들이 하는데 내가 알게 뭐냐, 굶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이런 위험천만한 사고방식이 아직까지 인테리층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것이 라면 이것이야말로 통탄해 마지않을 일이다. 대다수의 인테리들이 자기들 만엔 가장 우국지사(憂國之士)라 하면서도 공공연한 태도표명은 못하고 뒷구멍으로 불평불만이나 논하는 일은 없는가? 두 번이나 혁명을 겪어야만 했던 민족적 비극의 도의적 책임을 통감(痛感)해야 할 한국의 지식인들이 이런 태도를 견지한다면 이 나라의 앞날은 암담(暗澹)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알제리아문제의 해결과 구라과 공동시장 구성에 선구적 역할을 한 것은 프랑스의 행동적 휴머니스트였거니와 한국의 인테리들에게도 대담한 비판, 건설적인 협조 그리고 민중의 지도층으로서의 사명감(使命感)이 절실히 요청된다. 나아가서 구경꾼이온이란 수치스런 대명사를 달은 국민의 수가 줄어든다면 그만큼 이 나라는 전진(前進)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두개의 일화(逸話)



강찬선(姜贊宣)
(KBS방송관)

5·16을 계기로 우리나라 군인의 존재는 온 국민 앞에 아니 전 세계 앞에 크게 부각되었다. 그것은 국가를 방위 한다는 본연의 사명뿐 아니라 기술어저거는 국가의 운명을 바로 잡기 위하여 혁명을 일으키고 국가를 다스려나가는 통치자의 일원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응, 됐어. 이 나라는 되고 말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나오던 첫날 참으로 통쾌하고도 즐거운 인상을 얻었다.

제3회 김장 6개월 계획

나는 그 공군소령이 그날 퇴근 후 시내에서 담배 한 갑을 사는 바람에 담배집 빼랍 속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이튿날 그곳에서 가까운 어느 순경의 젊은 부인손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나는 이 맥에서『김장6개월 계획』이라는 이른바 계획생활의 하나를 볼 수 있었다.

아침 열시나 되었을 때 같은 나이 또리의 젊은 부인이 순경부인을 찾아와서 말했다.

『순이엄마, 나 그것 좀 보러 왔어요. 김장 6개월 계획.』

나는 이때 순경부인의 경대 빼랍 속에서 이상하게 생각했다.「김장은 초겨울에 담는 것인데 유월달에 무슨 김장얘기냐?」고.

『그거 뭐 간단한 거예요. 절약해서 6개월 동안에 김장값 2500원을 저축하자는 거예요. 목돈이라서 그때가선 아무래도 당황하게 되거든요』하고 순경부인은 빼랍에서 가계부(家計簿)를 꺼내 손에 들었다.

『정말 김장철이 되면 속상해 죽겠어요. 뻔한 월급에서 목돈을 뜯어내기란 어려워요. 그렇게 미리 저축 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럴려면 매달 5,600원씩 절약을 해야 하잖겠어요. 5,600원을 더 보태줘도 살까말까 한데 순이엄마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그것이 알고파서—나두 그렇게 할려구』하고 부인은 마루에 걸터 앉았다. 순경도 마주 앉으며,

『그건 비밀예요. 한턱 내셔야 공개해드리지』하는 바람에 젊은 부인들은 호호하고 소리쳐 웃었다.

나는 한국정부가 경제5개년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강력히 추진중이라는 사실은 선대의 할아버지에게 들은바 있었다. 허지만 일반 가정에서 그와 비슷한 생활 몇 개월 계획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 일이었다.

『한턱 내겠어요. 그 한턱도 말하자면「한턱 6개월 계획」을 세워서 내겠어요』

두 부인은 또 한 번 소리쳐 웃었다.

『실은 정부가 하는 경제5개년계획에 힌트를 얻었어요. 해마다 김장때면 돈 때문에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김장때 돈 걱정을 안해두 뵈까하고 생각했어요. 가장 빠른 길이 매달 김장값을 저축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얘기 엄마가 말하듯 빠듯한 매월매월의 고정된 생활비에서 어떻게 5,600원씩이나 뜯어낼 수가 있는가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걸 알고싶다는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생활의 비밀을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턱 내라는 거군요』하고 둘이는 또 웃었다.

『실은 대단한 비밀두 아네요. 순이 아빠는 점심을 지정식당에서 사먹었어요. 하루 20원 꼴이 치는데 한 달이면 600원 아네요. 그걸 이달부터

실로 그 책임은 문자 그대로 중차대(重大大) 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중대한 존재로 국민들 앞에 부각되고 있는 군인들에게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다음의 두 가지 일화를 참고로 소개하는 바이다.

미국독립전쟁때의 일이다.

군용막사를 짓는 현장에서 한 하사가 여러 사병을 지휘하여 큰 재목 하나를 옮기려고 했으나 힘이 부족해서 움직여지지 않았다.

『병신같은 놈들이! 무얼 그리 찢찢매고 있는거야! 힘을 내서 움직여!』

하사는 고함을 치며 독려했다.

사역병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애를 썼으나 재목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때 평복을 입은 한 장교가 말을 타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하사에 물었다.

『여보 당신은 왜 거들지 않고 서있오?』

하사는 어깨를 으쓱한 다음 뽐내며 대꾸했다.

『나는 이 사역병들을 지휘하는 사람이오. 내 계급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가……』하고 장교는 곧 말에서 내려 사병들을 도와 힘을 써서 재목을 옮겼다. 그리고는 빙그레 웃으면서 하사에게 말하고 말위에 올랐다.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알려 주시오. 나는 언제든지 거들어 주겠오』

이 평복의 장교는 독립군의 사령관 조지·워싱턴이었다.

이 일화에서 추출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명제 가운데서 가장 강한 명령은 인간애에 그 근저(根底)를 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명령은 물론 군기를 세우는 강철 같은 힘이다.

그러나 강철은 부러지기 쉬운 성질이 있지 않은가.

명령의 존재이유가 목적의 과감 신속한 수행에 있는 것이라면 어떤 권위에 의한 강요보다는 수범(垂範)에 의한 실천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은 사회심리학을 빌리지 않더라도 자명한 사실이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측면일 것이다.

태양과 바람의 옷 벗기기 경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따뜻한 햇볕이었던 것이다.

인간에게 힘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약자를 학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한 자를 돕고 지지하기 위함이라고 러스킨은 갈파(曠破)했다.

군대라는 조직—여러 개인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동적인 집단에서도 힘은 사랑으로의 복종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이 아닐까? 바람이 거센 숲길을 퍼부으면 부을수록 나그네는 풍을 움츠리고 옷깃을 세웠다. 대양이 미소하며 어루만지자 나그네는 땀을 씻으며 외투를 벗어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명자(受命者)의 자세가 얼마나 강건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일화가 생각한다.

불오(佛奧)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변장한 나폴레옹이 진지(陣地)를 순시했다.

진영의 입구에 다다르자 한 보초가 통과를 절대로 허가하지 않았다.

『나는 순찰하는 장군이오』

무연탄 가스를 방지하는데는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두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겨울에는 ① 장판을 잘 수리하고 ② 될 수 있는 대로 저녁에 새 연탄을 넣지 말도록 하며 ③ 농이나 책상 밑을 조사하여 쥐구멍이 없도록 할 것이며 굴뚝을 조사해서 배기가 잘 되도록 굴뚝소체를 하도록 한다. 어린 아이는 어른보다 중독증세가 빨라서 잘 자지 않고 가령 방에 있는 고양이 같은 사람보다 충격이 빨라서 구토를 한다.

나폴레옹이 무리로 그 곳에 들어가려하자 보초는 나폴레옹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위협했다.

『장군이 아니라 사령관이라 하더라도 나의 상관의 명령 없이는 이 곳을 통과할 수 없오. 더 움직이면 쏘겠오』

나폴레옹은 할 수 없이 돌아갔으나 이 보초병의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고 그를 사령부로 불러 일개병졸을 일약 소위로 승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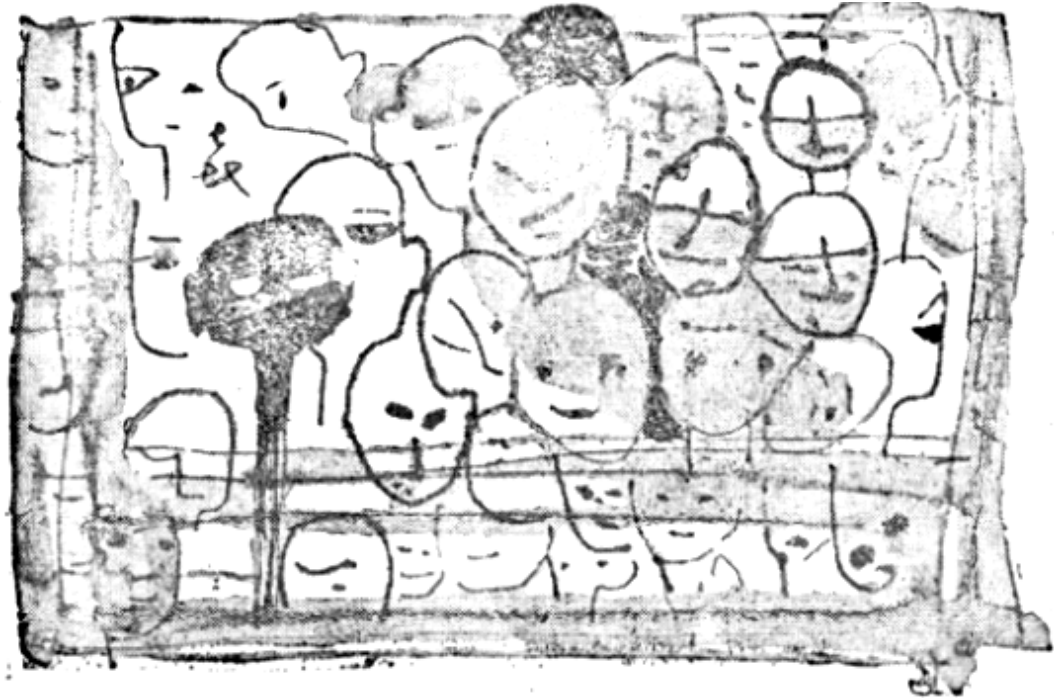
이 두개의 일화는 명령자가 가져야 할 바 그리고 수명자가 지켜야 할 바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다. 상명하복의 아름다운 기강은 군대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조국의 재건과 통일의 성업을 어깨에 걸머진 우리 국군이 항상 명기해둘만 하다고 생각되어 여기에 소개하는 바이다.

도시락을 갖구다니기루 했어요. 이걸 계산해보니 한 달에 300원쯤 싸게 먹혀요』하고 순이 엄마는 가게부를 그것을 계산한 명세서를 내보였다. 찾아온 부인은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고는 수궁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구 우린 한 달에 두 번씩 일요일을 택해서 외식을 했어요. 이 외식은 우리 부부의 유일한 그달의 레크리에이션입니다. 그런데 한 번 외식에 약 370원의 비용이 나요. 이 내역을 말하면 교통비 40원, 외식비 100원, 영화 관람료 130원입니다. 그래서 이달부터는 이 예산을 대폭 감축시키기로 했어요. 월 2회를 1회루 줄이는 동시에 식사는 집에서 하구 영화구경만 하기루 주인과 합의를 보았어요. 이렇게 했더니 매달 470원을 절약할 수가 있잖겠어요. 아까 도시락에서 뜨는 300원을 합치면 놀랍게도 근 800원을 벌수가 있는 셈이지요. 6개월이면 8,6이 48해서 4800원이 저축되거든요. 김장값으론 너무 많지요. 그러나 예산은 언제나 넉넉하게 잡는 것이 원칙이니 이 계획대루 실현되면 남는건 저금을 한다든가 겨울 준비루 연탄을 살 수도 있죠』

순경 부인인 순이 엄마는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애기엄마도 생각만 있다면 저희들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대위봉급은 순경봉급보다 훨씬 많으니까요』



(소설)

잊지 못할 일요일

서명석

일주일을 보내는 것이 요즘에 와서는 예전과 달라 유난이도 지겹고 시간이 안 가는 것만 같았다. 물론 이것은 나 혼자만이 느끼는 요소이 심정인 것 같지는 않으며, 자문하여 볼 것도 없이 제대할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기 때문인 것이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였다.

지난 일주일간도 그나마 이렇다 할 일거리도 손에 댄 것도 없이 흐르는 시간과 같이 지내 보냈다. 토요일이 되고 보니 박병장은 같은 근무처에서 일하고 있는 군대생활에 익숙지 못한 뜻내기 김일병에게 오전 중 근무를 끝내고 난 후 책상과 청소를 맡기기에는 너무나 애처로운 줄 알면서도 「비짜루」를 든 김일병만을 남기고 박병장은 근무가 끝나자마자 자기 내무반으로 돌아와 외출을 서두르는 것이었다.

지난 밤 생빨래로 달려 두었던 「카키복」을 꺼내 놓고 담요를 깔고 입에 물을 담뿍 물고 뿔어가며 제법 익숙한 솜씨로 다리미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근무처에서 일을 마치고 나중에 돌아온 김일병은 역시 내무반에 돌아가서도 일거리가 얼마든지 있었다.

내무반 안팎 소제요 번두리 화단 가꾸기까지 하고 나서 박병장 내무반으로 놀러 가보니 열심히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 박병장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앞으로의 병영생활을 그려보며 웃음을 지어 보았다.

『박병장님, 무얼 그렇게 단숨에 다리미질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요즘 가뭄더위도 한참인데요』하고 성가시게 말을 건넸다.

이렇게 물은 김일병은 신병교육대에서부터 오늘까지 벌써 여러 차례 겪고 왔으며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무의식중에 말문을 열어 버렸다.

『그래 자네는 잠잠고 있게. 지난주 정기외출을 하였으니 구미를 땅기지 말고 가만히 있게. 오늘은 내 차례야. 자네는 궁물도 없네. 꼼짝 말고 집지거나 잘 하고 있어야 해. 오늘은 서울에 있는 동창집에 놀러나 가볼까 하네』하고 박병장은 김일병에게 도리혀 악을 울리는 셈이었다.

이렇게 들어서 말을 주고받고 하는 동안 한사람 두사람 차례가 된 외출자들은 벌써 내무반 문턱을 나서고 있었다.

더욱 외출할 마음이 설레이는 박병장은 반장인 이하사가 자기 뒤에 와 서서 쳐다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다리미질」하는데 정신을 팔고 있었다.

『어디 오늘 박병장 좋은데 외출이라도 나가는 모양이지. 애인하고 약속이라도 했는가? 그럼 남하고 약속이라도 하였다면 반드시 시간은 잘 지켜야 하는 법이야. 어디 「Korean Time」 이래서야 안되지』하고 말을 건넸다. 언제나 착하고 성실하며 부하를 잘 돌보아 주기에 이만큼 이하사는 또 상관의 총애를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지라 딱딱한 병영생활에서도 항상 호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두곤 하였다.

이 말은 들은 박병장은

『실은 애인하고도, 친구들 하고도, 아무 약전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이 저의 정기외출 차례가 되고 보니 정한 곳도 없으나……서울에 있는 중학 동창 친구집이라도 찾아가볼까 해서입니다. 그냥 바람 쏘이러 나가는 거지요』하고 이렇다 할 정처도 없이 외출을 해보려는 것이 틀림없었다.

실상 박병장이 받는 봉급으로는 애인하고 만날 수 있는 자금이 될 만한 형편이 못됨은 뻔한 일이다.

그렇다고 5·16혁명 전에 비한다면 혁명 후 봉급인상으로 전에는 염두도 못 내던 이들에게 정기외출시 홍청대계 쓰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주말외출을 즐기고 근무의 피로를 덜 수 있는 정도로 막걸리타령도 할 수 있는 편이고 보면, 혁명전 버스차장에게 팔세를 받는 것이 꿈만 같기도 하였고 차비를 못 내고 차장들과 육신 각신 하든일이 아니꼽기만 하여, 그나마 없는 나라살림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고마움을 알면서도 불만을 느껴놓기도 하는 것이었다.

「다리미질」을 끝마치고 외출준비를 하고 보니 외출을 나가도 별로 신동한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박병장에게 반장인 이하사는 다시금 오늘의 외출을 다짐하였다.

『박병장, 어디 약속한 곳이라도 없으면 오늘은 나하고 조용히 내무반에서 이야기라도 하고 밀린 빨래라도 다 해버리고 내일은 과장님택에나 찾아 가보지! 나도 이곳 전속 온지가 벌써 반년 가까워 와도 한 번도 찾아 본적이 없네. 그리고 박병장 자네는 인제 얼마 안 있어 제대도 하게 될텐데, 과장님을 조용히 찾아 뵙고 좋은 말씀이라도 들어 보는 것이 어때. 그것이 좋지 않을까? 정영 대표생각이라도 나면 저녁에 돌아와 산책이나 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직 봉급짜거기가 몇 푼 남았으니 「막걸리」라도 한잔씩 하고 텔레비 구경이나 하는게 어떤가?』

이 말을 들은 박병장은 한껏 돌아온 정기외출이 되어 땀흘려가며 「다리미질」까지 해서 단정히 가꾼 「카키복」차림의 자기를 거울에 비쳐보며 어딘가 아쉬움을 금치 못하는 표정을 짓기는 하였지만 막상 외출을 한들 중학 동창인 서울 친구가 지금쯤 집에 도사리고 있을런지도 궁금하고 보니 반장 이하사의 말도 수궁이 가는 모양이었다.

박병장은 주춤주춤 주려 입었던 옷을 하나 둘 벗어 버리는 것이었다.

이러면서도 마음의 갈피를 정하지 못하는 양 보이는 박병장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이하사는

『박병장 참 안됐네, 자네가 내말을 고분고분 듣고 이해해 주고 보니 고맙기는 하나 어쩐지 미안하기만 하고 내가 멋적은 것만 같군 그래! 그러나 나는 자네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아 제대하고 헤어질 것을 생각하니 어쩐지 한사라도 붙잡고 이야기라도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것만 같애! 내 마음은 잘 알겠나? 나는 하사관 교육을 받았으니 아직도 군대생활을 더할 것이고 보니 한편 부럽기도 한 것 같네. 이곳에 와서 자네하고 같은 근무처에서 그리고 한 지붕, 한 술에 밥을 먹고 보니 어딘가 모르게 형제만 같은 정을 갖게 되었군 그래!』 이렇게 이하사가 말하고 있노라니 박병장 얼굴에는 그 무엇인가 새삼 느낀빛이 감돌았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반장님을 여러분 섬겨 왔지만 이하사님을 만난지 얼마 되지는 안었지만, 저도 모르게 정들은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반원으로서 부하된 도리는 다 못하고 있어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항상 사랑만 받고 이렇게 아껴주시는 것은 마음껏 받아들일 줄 모르고,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못한 것을 생각하니 도리어 미안할 뿐입니다.』

평소 모든 부하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는 반장 이하사는 박병장의 이런 말을 듣고 나서는 어딘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박병장 어깨에 손을 얹는 것이었다.

석양노을이 가뭇하늘에 더욱 빛을 스치며 황혼이 짙어져 가는 무렵, 앞과 옆의 내무반에서는 삼삼오오 정답게 짝을 지으며 식당으로 달려가는 전우들의 모습이 벌써 저녁시간을 알리는 것이었다.

바로 옆 내무반에 있는 귀염둥이 김일병이 찾아 왔다.

『반장님 식사하러 가지지요. 저녁시간이 다 되걸요. 아니! 박병장님 아직 여기 있었나요. 어떻게 외출은 안하시고…… 아까 그렇게 정성껏 대려놓은 「카키복」이 울지 않아요. 어서 같이 식사들이나 합시다.』

제법 빈중대는 소리 같기도 하였지만 근무처에서는 볼 수 없는 김일병의 말씨는 박병장의 간을 건들리는 커녕 도리혀 재롱으로 여겨졌다.

『그래 어서 식당으로 가세! 김일병도 아주 제법이야. 형님들을 모실줄을 다 알고…… 됐어 됐어! 그러야지 자 그럼 박병장 어서 가서 식사나 하세』하고 이하사는 김일병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토요일이면 으레 그런줄 알고는 있지만 식당에 들어서고 보니 여기 저기 빈 식탁이 눈에 띄었다.

한 식구같이 남은 사람들끼리 모여앉아 맛있게 입맛을 다시고는 있었지만 외출한 전우들이 있고 보니 어쩐지 식당 안에는 외로운 기가 감돌기도 하였다. 사람이란 남남끼리 모여 살아도 서로가 믿고 의지하고 살고 보면 정이 들기 마련인 모양이다.

더구나 생사를 같이할 운명을 지닌 전우들이고 보니 몇몇 사람만 빠져도 더욱 허전하기만 하고, 든든한 마음이 무너지는 것만 같다.

식사를 끝나치고 오손 도손 말을 주고받고 하는 동안 내무반으로 돌아왔다. 저녁같이 게시판에 붙어 있는 석간신문을 살펴보았다. 가뭄을 안타까워하는 농민의 소리, 한해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짜내는 정부의 긴급 대책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전국적으로 농민의 손을 들고 한해를 막으려고 농토로 나서는 전우와 겨레의 모습으로 기사가 꽉 차있었다.

박병장이 농촌출신이라고 잘 알고 있는 이하사는 『박병장 자네집도 농사를 짓고 있을텐데 어디 부치는 논밭이 많은가? 무척 부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실꺼야! 김일병 자네 집에서는……?』이렇게 집에 일까지도 걱정해 주는 것이었다.

『아니요, 저의 집은 장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뭄이 계속돼서 흉년이라도 지면 어디 장산들 소용 있겠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7, 8할이 농민이고 보면 농사가 잘돼야 다 잘살 수 있지 않겠어요. 박병장님, 너 무 심하게 생각마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선현의 금언도 있다시피 이 기사를 우리 혁명 정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농촌진흥에 힘쓰고 있거니와 군민 모두가 농민의 손을 들고 한해를 막으려고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지 않아요. 하기가, 박병장님은 저의 집과 달리 농사를 짓고 있는 부모님이 있고 보니 무척 근심이 되겠지만…… 반드시 며칠 안으로는 「단비」가 내릴 것만 같습니다.』하고 김일병은 제법 쓸모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한편 얼마 남지 않아 제대하게 될 박병장에게는 초조한 빛이 엿보였다. 중학시절에는 부모님을 도와 농사 짓는 데는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한 박병장도 지금에 와서는 당장에라도 시골로 뛰쳐 내려갈 것 같은 심정일지도 몰랐었다.

꼭 이번엔 제대를 하면 빈둥빈둥하지 않고 시골에 내려가 부모님 모시고 농사를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문득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다.

뒤이어 이하사는 약속대로 박병장을 데리고 병사뿔산 마루터를 산책하고 텅텅한 「막걸리」한 두잔씩 들이키고 보니 더욱 배가 가쁠 정도였다.

내무반으로 돌아와 침구에 몸을 걸치고 두 사람은 정답게 얼굴을 맞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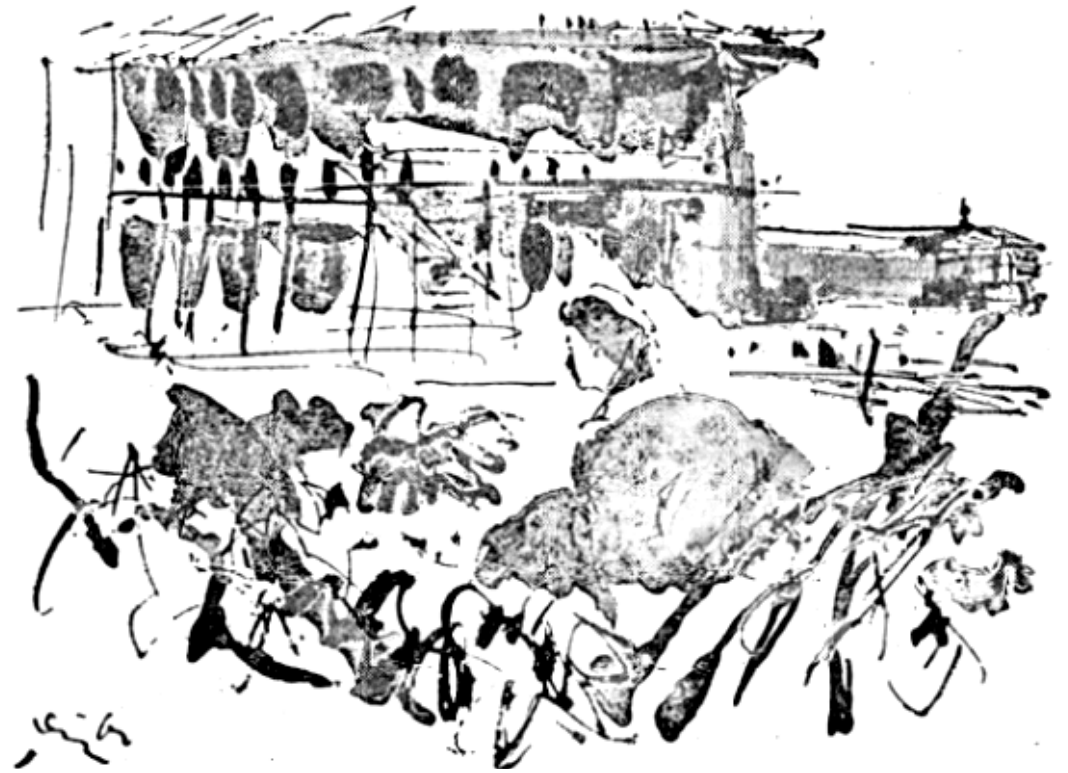
『박병장! 제대날짜가 얼마나 남았지? 제대하면 곧 시골로 내려가겠나? 고향에 가면 서울에는 자주 올라올 일이 별로 없을 줄 아는데』하고 묻는 반장의 눈매에는 어딘가 따사로운 감촉을 풍겨주었다.

『네, 인제 얼마 안 남은걸요. 아마 앞으로 3-4주일간 밖에 남지 않았습시다. 시골로 내려가면 뭐 그렇게 자주 서울로 오게 될까요. 5·16전과 달라 인제부터라도 새나라 일꾼이 되어야지요. 전번 제대에 앞서 년가를 차장님께서 주셔 그때 집에 가보니 부모님께서도 그런 말씀 있었어요. 그래 약속을 하고 온걸요. 혁명 전 같으면 제대를 하게 되면 모두들 도시로 밀려나와 어디 시골이나 농촌에 처박혀 있는 사람이란 그리 있었나요. 도리어 수치스러운 존재 같었지만, 인제는 그와 반대일걸요…… 아주 요번 휴가는 저에게 많은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시골에도 마을사람들이 서로 협동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니 무척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도시와의 자매부락결연이라든가, 젊은 남녀들의 문맹퇴치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동리사람들은 서로가 협동하여 온실개량, 공동우물파기, 개량변소짓기 등 아주 생활주변의 개선을 비롯해 보다 낮고, 보다 보람있게 살아 불려고 의식주 생활의 새로운 설계를 꾸며 열심히들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계속)

**나에게 묻는 의사
투표로 대답하자**
~~~~~  
**새나라 새 헌법  
내 한 표로 확정된다**

<국민투표표어>



<단편소설>

### 낙엽에 낙서한다

임옥인(林玉仁)  
삼화·우경희(禹慶熙)

그날도 내 지갑에는 약간의 푼돈이 들어 있었을 뿐, 저녁 일곱시에 주마고 친구 이선주여사와 약속한 금액을 준비 못한 채, 야간 수업까지 마치고 지정된 다방으로 갔었다.

친구는 벌써 와서 거의 식어간 생강밀을 마시고 있다가, 『아이, 어서와요. 밤에까지 일하느라 수고하는구먼. 그 돈을 다 어디 써요. 그래 오늘은 주머니가 불룩할꺼야 나?』하고 말하며 생글생글 웃는 것이었다.

나는 잠시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약속한 돈이 안됐는데…… 월급날루 미루지 않았어?』하고, 나는 레지가 날라다 놓는 인삼차를 훌훌 마시면서 중얼거렸더니, 친구는 들었던 찻잔을 테이블 위에 덜컥 놓으며 기성(奇聲)을 울린다.

『왜 월급날인데! 탄정을 부려? 내가 남의 돈을 뺏을 것 같아서 그래?』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다방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과연 이날은 이십오일인 화요일이 아니던가? 일주일에 두 차례 있는 야간수업의 첫날—그것은 분명히 화요일이고 또 봉급날인 이십오일인 것이었다.

『깜짝 잊은걸……』 나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사실 내 뒤통수는 방망이로 얻어맞은 것 같았고 눈앞이 어쩔어쩔 해왔던 것이다. 『그것두 말이라구해 이 친구……』

친구는 어이없다는 듯이 입가에서 웃음을 거두며 나를 쳐다보는 것이다. 친구의 그런 얼굴이 커졌다 작아지고, 정지했다간 물속에서처럼 흔들거리는 듯 싶었다.

『얼마나 팔자가 좋으면 월급날을 다 잊어버릴까. 난 금새 죽어가다가도 돈 받을 자리만은 잊지 않는데…… 하두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자못 원망졌다.

『오늘 아니면 안돼?』

미술 공예품장수를 하고 있는 친구에게서, 월급날 주기로 하고, 괴목 차 테이블 한 개를 가져 왔던 것이다. 외상까지 지면서 꼭 사야할 급한 물건도 아니었지만, 어쩌다 들른 길에 그렇게 된 것인데, 그때 서로 만날 날 짜와 장소를 정했던 것이다. 돈을 주고받는다는 사무적인 일보다도, 서로 바쁜 몸이지만 틈을 내어 잠시 만나는 것도 즐겁지 않겠느냐의 합의에서였던 것이다.

『왜 그렇게 말이 없어 갑자기…… 없는 돈을 억지로 내라는 것두 아닌데… 사실 그게 무슨 보탬이 될 금액두 아니잖아?』

친구는 여윈 볼에 불우물을 지으면서 눈을 치뜨며 생글 웃었다. 언제부터인지, 친구의 이마에는 주름살이 늘고 눈언저리와 두 뺨에는 기미가 생겨 있었다. 살짝 다스린 옅은 화장으로서는 그 주름과 기미는 감추지 못 할 만큼 그늘진 얼굴이었다.

계와 빗으로 장사를 이어가느라고, 돈고생을 하는 친구의 얼굴에는 억지로 늙은 흔적을 감출 길이 없었다. 게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기상(電氣商)을 하는 남편이 밤마다 마작에 미쳐서 막대한 빚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여사 팔자두 좋다. 돈 받을걸 잇을 만큼, 쪼달리지 않으니 말야』

이선주여사는 나더러 자꾸 팔자가 좋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나대로 정신이 아득하다(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우수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근래에 와서 나는 나의 건강증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를 일으키고 있었다. 남과 약속한 일이면, 시간이건 돈이건 별로 어겨온 기억이 없었다. 상대방이 어떤 누구든간에 이쪽 형편이야 어떻든간에 약속을 어기지 않는 신용(信用)을 나의 유일한 밑천으로 삼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시간약속이나 혹 돈거래 같은 일에 실수가 잦다. 예전엔 그런 일에(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실수한다는건 별로 생각해 본 일조차 없었다. 하기가 길눈이 어두워서 어쩌다 밤거리를 헤매는 일도 있었지만, 돈이나 시간약속을 어긴다는 일은, 곧 내가 나 아닌 다른 것으로 변해버린 탓일까? 나는 이렇게까지 정신을 잃고 사는 나 자신이 점점 불안해지기만 한다. (월급 탈 것도 있다니……)

배부른 장난도 아닐텐데, 왜 잊어버렸을까? 이젠 쉽게 넘길 문제 같지 않다. 앞에 앉아 자기네 가정의 답답한 살림의 실정을 얘기하는 이선주여사의 목소리가 먼 곳 사람의 것처럼 아스랑게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럼 또 만나요. 난 갈테야』

내가 명청하니 입을 다문 채 앉아 있는게 유쾌하지 않은지 총총히 일어서는 이선주여사의 뒤를 따라 나도 일어났다. 카운터 앞에 가서 손가방을 열었으나 그 속에 있어야 할 지갑은 보이지 않았다. 어디서 떨어진 모양이다. 허둥대는 내앞에 나선 이선주여사가 차값을 치르고 사각사각 치마 스치는 소리를 내며 문밖으로 사라졌다.

그 이튿날 아침이었다. 아직 자리에서 눈도 뜨기 전에 전화벨이 울렸다. 여고동창 회장에게서였다.

『기억하시죠? 열한시반엔 시작 해알테니까, 열한시까지 꼭 오셔야 해요』

『그래그래, 열한시』 나는 무의식적으로 대답하고,

『아무것도 안가지고 오셔두 돼요. 빈 손으루 빨리 오셔야 돼요 선생님』

동창회장은 응석조로 즐겼다. 나는 좀체로 떠지지 않는 눈을 비비며 책상에 마주 앉았다. 대구에 있는 사촌 동생의 중환 때문에, 웬만히 시간을 낼 수 있으면 가보겠다는 계획이 틀어져서, 못 간다고 편지를 써서 속달로 부쳐야 하기 때문이다. 편지를 다 써서 피봉을 쓰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친정 올케한테서 온 것이다. 온 집안 식구 다 아침을 먹지 말고, 곧 오라는 것이다. 나는 그제서야 오라버니 생일인 것을 생각해 냈다. (어찌할까? 열한시엔 동창회가 가알텐데……) 그렇지만 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닌가? 가족이래야 모녀만의 가족이다. 교회로 나가려는 딸아이를 불러 세웠다.

『큰 외삼촌 생일이다. 아침밥을 먹지 말고 가봐야지 않니?』내가 말하자 딸아이는 의아한 눈으로,

『아침밥은 벌써 먹었잖아요? 어머니두……』

나는 왜 이럴까? 아침밥은 조금 전에 먹지 않았는가?

『밥이야 먹었건 말건, 가봐야지 않아?』

『엄마 돌았어, 돌아』

『이년아 그런 말버릇아 어디 있니? 돌긴 누가 돌아?』하면서도 나는 아닌게 아니라 머리가 떼엥 할 뿐이었다. 영등포 한끝에 있는 친정에 갔다가, 그길로 동창회장(同窓會場)이라던 경복궁 경회루를 향해 차를 달렸다. 명동입구에 내려서 도시락을 사가지고 다시 차를 잡고 딸아이는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회루 입구에 내렸을 때 나는 거기 이미 회원들이 몇 사람 서있으리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아직 아무도 없었다. 웬일인가?

의아스럽게 여기면서도 안으로 들어섰다. 정복을 입은 수위가,

『어디로 가십니까? 국전회장이라면, 여기보단, 청와대 앞이 나을텐데요. 그야 이리루 들어가셔두 됩니다만 많이 걸으셔야죠』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내 차림새를 살핀다.

『아니야요. 저어기 경회루 앞까지 가면 됩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기루 했으니까요』

나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그에게 물었다.

『그런데 부인네들 여럿이 안 왔어요?』

『아이뇨. 아직은 안오셨는데요』

나는 저고리 소매끝을 들고,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열한시반이 넘었다.

(이럴리는 없을텐데……) 동창회장의 순덕스럽고 부지런한 얼굴이 떠올랐다. 무슨 일이나, 믿음성스럽고 부지런한 그가 이렇게 안올리가 없다. 나는 수위실에 들어가 전화로 동창회장택에 연락해 보았다. 조금 전에 나갔다는 것이다. 나는 더 묻지도 않고 수화기를 놓았다. 어디로 갔느냐고 물을 필요도 없었기에 말이다. 이곳을 향해 달려오리라—생각하면서 수위가 밖에 내다주는 의자를 들고 잔디 위 햇볕 있는 쪽에 가서 걸터앉았다. 나의 시선은 자꾸만 입구 쪽으로 향하게 마련이다. 몇몇 사람들이 국전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물어서 수위가 그 앞에 없는 때면, 내가 일러주곤 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초조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다. (이젠 아무가와도 올텐데……아니, 버열쳐 와야 할텐데……) 해빛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눈앞이 아물아물 한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온다. 나는 다시 저어편 경회루 앞 잔디밭에 눈을 주었다. (작년 가을에도 바루 저기 모였었는데…… 이렇게 한 사람두 안오니 난 어쩌란 말야……) 나는 속으로 몹시 투덜거렸다. 모두들 꾸물거리고 있는게 분명하다. 내가 일어섰다 앉았다 하며 안절부절을 못하는 것을 보고 수위는

『아주머니. 제가 일러드릴게 경회루를 한 바퀴 돌아오세요. 모르죠, 혹시 아까 부인네 몇 분이 들어갔으니까요』라고 하기에 나는 입구에서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경회루를 향해서 발을 떼었다. 카메라를 멘 외인 몇 사람과 젊은 남녀가 청와대쪽으로 걸어갈 뿐, 이날의 구내는 한산하기 그지없었다. 연못엔 낙엽이 쌓이고 쌓여서 수면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웬일인지 그 위를 걸어보고 싶었다. 참말 걷기라도 할 것처럼 그 앞에 우뚝 멈춰서서 하염없이 들여다보다가 눈앞이 어지러워 몇 걸음 물러서서 잔디위에 쓰러질 듯 주저앉아버렸다. 그렇게 앉아서 향나무 저쪽에 뚫린 길을 목이 빠지도록 바라보았으나, 한가죽인듯한 몇 사람이 걸어올 뿐, 동창생들이라곤 그림자도 볼 수 없었다.

이미 아침시간에 급한 편지를 쓰고, 친정에 다녀왔고, 오후엔 시골집에 손님을 초대할 일을 생각하니 오늘이 야말로 나의 실력(건장)으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그 전날의 피로와 그 다음날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이, 한데 겹쳐 나의 기다리는 심정에 더욱 부채질을 했다. 그렇게 자꾸 시간이 흘렀다.

청명한 가을날씨가 주위를 더 한산하고 공허하게 느끼게 한다. 그렇저렁하는 사이에 시계는 열두시 반을 가리킨다. 나는 잔디밭에서 일어섰다. 그 순간, 내 시야는 가물가물 어두워오는 듯 싶었다. 그 장소가 아름다운 고궁이 아니라 황량한 별관에 혼자 서 있는 듯한 외로움이라기보다 무서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었다. (분명히 여기였었는데……)

나는 힘없이 걸어 나오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상한데요! 아무두 안오시는걸 보니까 장소를 어기신 모양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오던 수위의 말을 듣자 나의 불안과 초조는 공포로 변하는 것이었다. (내가 돌았나봐.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분명히 장소가 틀린 모양이다. 다시 전화로 어디 연락할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

여기 경회루가 아니면, 덕수궁일까—하고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으나 그렇다고 거기까지 찾아가 볼 기력도 없다.

동창회고 뭐고 다만 집으로 돌아가고만 싶었다. 옛스승 몇 분을 모시기로 하고, 내가 꼭 나가기로 했던 그런 약속마저 지금은 생각할 수가 없었다.

눈앞이 노랗게 물들어 온다. 검은 휘장 같은 것이 앞을 막는다. 나는 수위실 앞 그늘 의자위에 걸터앉아서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까? 어떻게……) 수위에게 전화를 부탁하려고 일어서는데 몸이 휘청거린다. 도루 앉아 현기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수화기를 들었으나 교환수가 없었다.

행길에 나와서 차로 달리면서도 나는 성한 몸으로 집을 찾아가 갈 것 같지 않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아무도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 길을 걷는 사람마다 저렇게들 떨정한데, 난 왜 이럴까?

나만이 먼 외로운 섬에 홀로 떨어진 듯한 공허감 때문에 전신에 오한을 느꼈다.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아직 운전수에게 방향조차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참을 달리다가 차에서 내린 곳은 집과는 영똥한 방향이었으나 마침 시골집 방면으로 가는 합승이 눈앞에 와 닿았다. 무조건 타고 종점에 내려서 어떻게 찾아갔는지 술까비로 볼 뎨 방에서 정신없이 자고나니, 그때에야 겨우 앞이 보였다.

손님들도 다녀가시고, 내 머리맡에는 찬 물병이 놓여 있었다. 그 이튿날 새벽 일찍 동창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힘없이 수화기를 들었다.

『종묘(宗廟)에 모이기루 했었는데 경회루에 가시다니……』

나는 그때에야 겨우 꿈속의 일처럼 경회루는 작년에 모였던 장소요, 올해는 종묘에서 모인다고 했던 것을 어렴풋이 상기(想起)했다. 나는 지리한 변명도 하기 싫었다.

『단순한 사람에게 하루에 몇 가지 일이 겹쳤으니 돌았나봐』하고 웃어버렸지만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일을 수없이 거듭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낙엽이 한잎 두잎 발부리에 걸리면 나는 무심히 쫓아들고 똥가 그 공백을 메우고 싶어진다.

무슨 이야기?

아무것도 생각해 낼 수가 없다. 차라리 침묵의 낙서를 하고 묵묵히 걷자.

건망증은 어쩌면, 내 인생의 낙엽인지도 모를 일이다.



혁명정부에서 마련한 새 헌법의 최종 결정권을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토록 하기 위하여 국가재건 비상조치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국민투표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따라서 새로이 마련되는 헌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결정을 거친 후 국민투표에 붙여지며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통령이 이를 즉시 공포함으로써 헌법은 확정되는 것이다.

11장 92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동법은 제1장 총칙에서 본법의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하고 제2장 투표권과 제3장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 제4장 투표인명부 제5장 각급 국민투표 관리위원회의 구성 제6장 투표일과 투표방법 등 제7장 개표에서는 개표소 개표방법 무효투표 등을 규정하고 제8장 확정에서는 투표수 집계 및 가부(可否)의 선포와 통고를 제9장 소송에서는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 및 재투표 등을 제10장 벌칙 제11장 보칙(補則)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급번 실시되는 국민투표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의는 자못 큰 바 있다.

1. 국민투표법

1. 투표권

만 2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투표권이 있으나 반드시 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자만이 투표인이 될 수 있으며 투표권자의 연령은 본법 공포인 현재로 산정된다.

그리고 전기(前記)의 투표권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는 투표권이 없다.

2. 국민투표의 단위 및 투표구와 개표구

국민투표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행하여지며 투표구는 구·시·읍·면에 두되 구·시의 동과 읍면의 구역으로 하고 필요에 의해 동일한 구역에 2 이상의 투표구를 두거나 2개 이상의 동을 합하여 1투표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공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설치 공고한다. 이와 같은 결정은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행한다. 개표구는 구·시·군으로 하고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서는 2개 이상의 개표구를 둘 수 있으며 도지사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3. 투표인 명부

구·시·읍·면의 장은 투표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투표권자를 본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 열람은 작성된 익일부터 10일간 구시읍면 사무소나 지정장소에서 자유로이 열람

할 수 있다. 그리고 열람 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이다.

투표인 명부에 탈루(脫漏) 또는 오기(誤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를 받으면 5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되고 신청이 정당하면 즉시 투표인 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신청된 이의(異議)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는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해당 국민투표 개표구 관리위원회에 제심사를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4. 국민투표 관리위원회의 구성

국민투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국민투표 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와 도국민투표 관리위원회 개표구 국민투표 관리위원회 투표구국민투표 관리위원회를 두고 각급 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ㄱ. 중앙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대법원판사 3인 변호사 2인 교육자 1인 언론인 1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회인 2인 계 9인으로 구성되며

ㄴ. 서울특별시와 도국민투표 관리위원회는 법관 3인 변호사 1인 교육자 1인 언론인 1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1인 계 7인으로 구성되고

ㄷ. 개표구 국민투표 관리위원회와 투표구 국민투표 관리위원회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각 그 구역 내에 거주하는 투표권자 중에서 개표구 국민투표 관리위원회는 7인, 투표구 국민투표 관리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단 법관과 교육공무원외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 국민투표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과거의 선거위원회의 위원은 대부분이 정당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당리당략(黨利黨略)으로 인한 정당간의 의견의 대립으로 공정한 운영을 기할 수 없었으나 급번 구성되는 관리위원회는 법관을 위시한 변호사 교육자 언론인 일반사회인으로 구성되므로 정부로부터의 중립성과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5. 투표방법

일인 일표로 표기 방법에 의한 투표로 하고 투표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못한다. 투표인은 본인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인 명부와 대조하여 투표인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투표구 국민투표 관리위원 앞에서 투표인 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拇印)하고 투표용지 일매를 받는다. 투표인은 투표용지에 표시되어 있는 찬성과 반대의 양란 중 자기가 선택하고자하는 곳에「○」의 표를 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그리고 투표인이 투표용지를 오손(汚損)한 때에는 용지를 재교부하지 아니하며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자기가 선택한 자 일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다.

6. 투표시간

투표소는 아침 7시에 열고 하오 5시에 닫는다. 단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투표인은 투표하게 된다.

7. 투표소의 출입제한

투표인 투표구 국민투표 관리위원회위원 및 그 상급 국민투표 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 기타 법에서 허용된 자 이외에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8. 투표의 비밀보장

투표인은 투표에 관하여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기밀이라도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9. 개표방법

개표사무는 투표구 국민투표 관리위원회가 행하며 개표는 투표구 국민투표 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 전 투표를 혼합하여 행한다. 단 교통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부 투표함 도착이 늦어지면 전 투표함의 3분의 2 이상 도착했을 때 개표를 개시할 수 있다. 늦게 도착한 투표함은 그를 포함하여 5개 이상의 투표함을 혼합하여 개표한다.

10. 개표관람

일반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를 관람할 수 있다. 단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는 관람증을 발행할 수 있다.

11. 개표소의 출입제한

개표구 국민투표 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 국민투표 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개표 관람인 기타 본법에서 허용된 자 이외에는 개표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12. 무효투표

다음의 경우는 무효투표가 된다. ㄱ.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ㄴ. 찬성 반대 어느 쪽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ㄷ. 찬성 반대 모두 표를 한 것. ㄹ. 찬성 반대 어느 쪽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ㅁ. ○표 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것.

13. 개표결과 공표 및 확정

개표구 투표관리 위원회는 개표 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서울특별시 또는 도관리 위원회에 개표록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서울특별시 도 관리위원회는 집계의 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중앙 국민투표 관리위원회에 중간 집계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중앙

국민투표 관리위원회는 투표 총수를 집계하여 즉시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국가재건최고회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가결 또는 부결의 선포를 하고 즉시 이를 대통령에게 통고한다.

14. 국민투표무효소송 및 재투표

국민투표 효력에 의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5천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 국민투표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를 판결한다. 무효 판결이 있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야 한다. 재투표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행하되 투표일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무효인 경우에도 다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국민투표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중앙투표 관리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15. 벌칙

벌칙 규정은 엄벌주의를 택하여 공명투표를 보장토록 하였으며 죄의 종류도 광범한바 즉 ㄱ. 투표인 명부 허위등재 허위날인 및 허위증언죄 등 ㄴ. 매수(賈收) 및 이해유도죄 ㄷ. 투표의 자유방해죄 ㄹ. 직권남용에 의한 투표의 자유방해죄 ㅁ. 투표의 비밀누설죄 ㅂ. 투표 개표의 간섭죄 ㅅ. 투표함에 관한 죄 ㅇ. 국민투표 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 ㅈ. 다수인의 투표방해죄 ㅊ. 투표소 개표소 난입죄 ㅋ. 허위투표죄 ㅌ. 투표위조 또는 증멸죄(增滅罪) 등이며 죄의 시효는 국민투표 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단 범인이 도피하였을 때는 그 기간을 일년으로 한다.

16. 국민투표관리위원회의 해산

국민투표에 관한 업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내각 수반은 각급 국민투표 관리위원회를 해산하며 그 보존하는 서류와 재산은 중앙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내무부장관에게 서울특별시와 도 국민투표 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인계한다.

2 국민투표의의의

국민투표란 대의제(代議制)국가에 있어서 국민을 예외적으로 중요한 국가의사 결정에 직접 참가시키는 방법으로서 특히 주권이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 안정에 관한 중대 사항과 헌법 개정의 제청(提請)승인권을 국민에게 부여하여 그 행사를 투표로써 하는 제도이다.

선거 제도가 간접 민주정치적인데 반하여 국민투표 제도는 직접 민주정치적 제도이다.

국민주권 이론에서 보면 이러한 제도가 더욱 이상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지역적, 성원수적, 시간적, 경비적 또는 생업적 관계로 각 지방의 최말단단위

에서는 어느 정도 시행될 수 있으나 중앙정부로서는 도저히 실시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대의제도를 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회제도 따라서 여론정치 내지 정당정치가 독선적인 독재정치보다 타협적, 합법적, 공개적, 자유비판적인 장점을 많이 가진 민의의 구현 방식이면서도 최근 의회의 부패 및 공무원의 질적 불향상은 의회정치 그 자체의 위기를 초래함에 이르러 이를 구제키 위하여 국민이 국가를 조직하여 통치권을 부여한 정부 특히 의회의 결함을 시정하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케 되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의회제도에는 직접 민주정치 제도 곧 국민투표 제도가 가미되어야 할 근거가 항상 내재하고 있으므로 우리 국민투표 제도는 급일의 간접민주정치 곧 의회정치를 보충하여 국민주권주의를 가급적 철저히 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종래 헌법에도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한 번도 실시한 바 없었고 그 절차법조차 마련된 바 없었다.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기 위하여 참신한 혁명과업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는 혁명정부에서는 만신 진창이 된 구 헌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헌법을 마련하여 이를 국민의 총의에 붙여 확정키로 하였다. 국가비상 조치법에 의하여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최고회의가 스스로 이를 결의 확정할 수도 있는 것이나 군정이 헌법의 절차에 따른 국민의 선거권의 행사로서 수립된 것이 아닌 만큼 국가의 기본법을 확립함에 있어서 국민 투표를 통하여 국민의 주권 행사의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적 현명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동시에 우리 국민이 이 제도를 실시하는 최초의 국민투표임을 생각할 때 그 의의는 자못 중대한 바 있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 3. 국민투표의 종류

국민투표는 일반적으로 국민표결,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거부, 국민선임의 5개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즉 국민표결이라 함은 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나 아직 국가의사로서 효력을 발생치 않는 국가 의사를 국민의 투표에 의해 국가의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국민투표의 한 형식으로서 그 투표사항을 표준으로 나누면 헌법에 대한 국민표결, 법의 제 개정에 대한 국민표결 및 의회 해산 등 기타 사항에 관한 국민표결로 세분된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국민투표는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민 발안이라 함은 국가 의사의 성립에 있어 국민에게 발안권을 인정하고 그 발안은 국민투표에 부치는 형식이다.

이를 입법에 달한 국민발안이라 하는데 미국 각주의 예를 들면 발안이 있을 때 이를 일단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그렇지 않고 직접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는 간접발안과 직접발안의 두 경우가 있다.

국민소환이라 함은 국민선임과는 반대로 일단 선임한 공무원의 무능이나 공약위배 등을 이유로 그 임기만료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이를 해임하는 제도

로서 이로써 비로소 선임직에 대한 유권자의 조종권이 법적으로 확립된다 할 것이다 국민거부라 함은 국가 의사가 유효하게 성립 공포 된 후 일정기간 동안에 일정수의 국민이 그 국가 의사로 성립된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그 국민 의사는 국민의 투표에 붙여져 존폐여부를 결정케하는 국민투표의 한 형식이다.

국민선임이라 함은 국가의 공무원을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직접 선임을 말하는데 국회의원 선거도 이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것만은 제외하고 보통 대통령 선거를 말한다.

### 4. 국민투표제의 민주주의적 이점

이것은 국민의 자치라는 점으로 보아 당연히 요구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민주제국에서는 거의 다 이에 가까운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민주정치의 본질과 대의정치의 필요성을 따져 그 대의정치의 결함을 보충하고 민주정치의 본질을 발휘하기 위하여 극히 필요한 제도라 할 것이다. 민도(民度)가 알다든가 국민의 정치적 훈련이 부족함으로 시기상조라는 론(論)도 있지만 자치에는 교양과 훈련이 필요하다. 개별적으로 따져 본다면 국민표결은 국회의 경솔한 행동을 감시 수정하는데 필요하며 국민발안은 국회만능주의를 견제하는데 필요하다. 이것은 당략아리(黨略我利)에 악용될 염려가 있고 입법에 경험적은 일반민의 법안이란 좋은 법이 되기 어렵다 하나 민간에는 반드시 무능자만 있고 지식과 경험 있는 유능한 인사가 없다는 결론은 타당치 않으며 국민소환은 선임 공무원의 직무태만을 방지하고 민의와 정치를 법적으로 연락시키는 등의 민주주의적 이점이 있다. 일부에서 시기상조라 하지마는 국가의 중요 조직의 변경 예하면 개헌과 같은 것에 한하여서라도 국민총의의 심판의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대의정치 옹호론자는 국민의 직접투표보다 대의 제도가 간편하다는 점 의안의 토의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국회의 책임감을 이완시킨다는 점, 국민의 교양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 등을 이 제도의 단점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투표 제도에 이러한 불미한 면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민주정치란 전반적 근본적 정치기구의 약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소극면만을 강조한다면 결국 민주정치는 우민정치라고 규정짓고 지도자 원리에 입각한 나치스식 정치를 실시하거나 군주주의 체제를 시인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민주정치는 단념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주의의 이념 내지 국민주권주의의 본지는 아닐 것이다. 민주정치의 이념은 국민투표가 그 본지에 측(則)하여 올바르게 행하여지고 민의가 요구하는 올바른 법을 만들어 내는데 있다. 모든 권력을 민의에 연결시키는데 있고 유리(遊離)됨을 기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제도는 몇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이유가 뚜렷하다. 더구나 이러한 단점은 정당의 육성 계몽의 강화 등의 근본대책을 비롯하여 입법 기술로써 상당히 구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민주제국은 자국여건에 상응하도록 연구 조절하여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 신상철(申尙澈) 소장(少將) 전역

재임중 많은 공적을 남긴 전 국방부 정훈국장 신상철 소장의 전역식이 지난 10월 18일 이(李)국방부차관을 비롯하여 장성한 참모총장과 여러 내외 귀빈, 그리고 본부 전 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본부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신 장군은 주월남대사로 임무발령되었다.

### 사진설명

이(李)국방부차관으로부터 근무 3등 공로훈장을 수여받는 신장군



### 유달영(柳達永)선생 강연회 성황

재건국민운동본부장 유달영 선생의 강연회가 지난 10월 25일 본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연제는「국가재건과 인간혁명」



### 공군군악대 순회연주회 성황

국민위안 및 항공사상 양양을 위한 전 공 순회 공군군악연주회가 지난 10월 15일부터 15일만에 걸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수원, 춘천, 청주, 군산 등지에서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진행되었다.



**미 사 일**

제 19 호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



# 미 사 일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